신학적 강해의 대가 데이비스 박사의
전선지서 주해 시리즈 3

사사기 주해

이같이 큰 구원

저자 데일 랄프 데이비스
역자 이창배

키드바로 주경연구소

JUDGES

Such a Great Salvation

By

Dale Ralph Davis

Translated by

Chang Bae Lee

Copyright © Dale Ralph Davis ISBN 978-1-84550-138-9

This edition published in 2000(ISBN 1-85792-578-5)

and reprinted in 2003, 2006, 2007, 2009, 2011, 2015 and 2019

in the Focus on the Bible Commentary Series by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Ltd.,

Geanies House, Fearn, Ross-shire, IV20 1TW, Great Britain

www.christianfocus.com

All rights reserved.

Korean Edition

Copyright © Chang Bae Lee

저자 소개

데일 랄프 데이비스(Dale Ralph Davis)는 해티스버그에 있는 우드랜드 장로교회의 목사이다. 그 이전에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을 가르쳤다. 그는 성경 핵심 주해(Focus on the Bible Commentary) 시리즈 가운데 **사사기**(ISBN 978-1-84550-138-9), **사무엘상**(ISBN 978-1-85792-516-6), **사무엘하**(ISBN 978-1-84550-270-6), **열왕기상**(ISBN 978-1-84550-251-5), **열왕기하**(ISBN 978-1-84550096-2)에 대한 주해도 썼다.

역자 소개

이창배 목사는 국제대학교 영어영문과(B.A.),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M.E.), 총회신학연구원(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M.),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M.A., Ph.D.)를 졸업했다. 역자는 한국에서 총회신학연구원, 개혁신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등에서 구약학 교수를 역임했고, 미국에서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Evangelia University 등에서 구약학 교수를 역임했다. 역자는 엘리스 알 브로츠만의 **구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와 데일 랄프 데이비스의 **구약 내러티브, 어떻게 분석하고 강해할 것인가?** 그리고 **여호수아 주해**를 번역하였고, **룻기 원문주석**, **십계명 주해**, **이사야 53 장 주해**, **히브리어 문법**, **히브리어 교본**, **아람어 문법**을 썼다.

목차 (Contents)

약자.....vi

저자 서문.....vii

역자 서문.....viii

서론을 대신하며 (Non-Introduction).....1

제1 부: 다음 세대의 실패 (삿 1:1–3:6: The Failure of a Second Generation)

1. 이것은 고대 지리책인가? (삿 1:1–2:5 Is This an Ancient Geography Book?) 3
2. 다음 세대의 퇴폐 (삿 2:6–3:6 Generation Degeneration) 16

제2 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삿 3:7–16:31: The Salvation of a Long-suffering God)

3. 구원의 패러다임 (삿 3:7-11 A Paradigm of Salvation) 31
4. 우리는 왼손잡이 구원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삿 3:12-30 What Shall We Do with a Left – handed Savior?) 39
5. 한 구원에 대한 속보 (삿 3:31 A Salvation Break) 46
6. 굉장한 구원 (삿 4장 A Smashing Salvation) 49
7. 새 노래 (삿 5장 The New Song) 59
8. 구원을 위한 준비 (삿 6장 Getting Ready for Salvation) 68
9.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힘 (삿 7:1–8:21 Strength Made Perfect in Weakness) 78
10. 잘 끝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삿 8:22-32 It's Tough to End Well) 87
11. 가시 같은 사람, 이스라엘의 파괴자 (삿 8:33–9:57 Brambleman, Destroyer of Israel) 93
12. 두 명의 소사사 (삿 10:1-5 A Couple of Minors) 103
13.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 (삿 10:6-16 The Kindness and the Severity of God) 106
14. 사람들에 의해 멸시받고 버림당한 자 (삿 10:17–12:7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110
15. 사사기의 인명록? (삿 12:8-15 A Judges' Directory?) 123
16. 구원자 삼손의 탄생 (삿 13장 Samson the Savior is Born) 128
17. 비밀들 (삿 14장 Secrets) 136
18. 라맛 레히 전투와 다른 이야기들 (삿 15장 The Battle of Jawbone Hill and Other Stories) ...144
19. 사랑 놀이와 그 결과 (삿 16장 Let's Play 'The Philistines Are Here!') 152

제3 부: 타락한 백성의 혼란상 (삿 17–21장: The Confusion of a Depraved People)

20. 하나님의 풍자 (삿 17–18장 Divine Sarcasm) 161
21. 새로운 소돔 (삿 19–21장) New Sodom.....173

약자 (Abbreviations)

IB	*Interpreter's Bible*
IBD	*Illustrated Bible Dictionary*
IDB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IDB/S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Supplementary Volume*
ISB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JB	Jerusalem Bible
JSOT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KJV	King James Version
Moffatt	The Bible: A New Translation (James Moffatt)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B	New English Bible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NJB	New Jerusalem Bible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NJPS	Tanakh: A New Translation of the Holy Scriptures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Hebrew Text (1985)
TEV	Today's English Version
TWOT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ZPEB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저자 서문

나는 삼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다. 나는 이 책의 제목("이같이 큰 구원")을 나에게 빌려준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히 2:3)에게 감사하려고 했었다. 어쩌면 히브리서 저자도 삼손(삿 15:18)으로부터 이 어구를 빌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내가 느낀 놀라움을 상상해보라. 그러므로 나의 사과와 감사는 삼손에게 돌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나의 사과와 감사는 모두 삼손에게 돌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사사기를 다루는데 문제점을 느낀다. 그것은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곤혹스럽고 너무 원시적이고 너무 폭력적이서—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이상해서—교회는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없다. 구약의 많은 본문들의 경우처럼 "우리가 서신서들을 충분히 길게 연구하면 아마도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교회가 당혹스러운 성경 본문을 다루는 그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본문을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사사기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것은 너무 흥미진진하다. 앉기 전에 신경 안정제를 먹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읽다가 꾸벅 졸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한 책과 그 등장 인물들이 다채롭고 인상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알렉 모티어)라는 그 책의 의도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구약 내러티브의 부분(사사기)에 대한 **하나님 중심적인** 강해를 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나는 한 젊은 진보적인 기타치는 기독교인 가수가 청중에게 "나는 작년에 이 노래를 썼지만,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발표한 만화를 본 적이 있다. 이 책은 원래 1989년에 완성되었다.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독자들은 각주들로부터 그것을 알아챌 것이다. 계속되는 집필 작업 때문에 나는 이 책을 개정하거나 참고 문헌을 업데이트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이 지금도 여전히 적절하다고 믿는다. 이 강해가 연구의 일시적 유행들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사사기의 본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다. 나는 크리스챤 포커스 출판사가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많은 영어 역본들을 언급하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번역은 내 자신의 것이다.

나는 많은 고난 중에도 묵묵히 변함없는 모습을 통해 여호와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언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헤론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다.

역자 서문

데이비스 박사의 사사기 주해를 한국어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번역하면서 저자로부터 사사기에 대한 많은 통찰을 배웠고 많은 도전을 받았다. 저자가 역자에게 준 많은 통찰 가운데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첫째로, 저자는 사사기에서 처음에 한 명(삼갈), 다음에 두 명(돌라, 야일), 마지막에 세 명(입산, 엘론, 압돈)이 나오는 소사사들의 세 부분에 각각 한 장씩, 총 세 장(5 장, 12 장, 15 장)을 할애하여 설명한다. 저자는 삿 3:31 에 짧게 설명되고 삿 5:6 에 한 번 더 이름이 언급된 삼갈에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삼갈만을 홀로 다룬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에훗에 대해 집중하는 가운데 각주 하나로만 처리하지 않고 삼갈을 별도로 다룬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부당함을 고치는 의미에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삼갈에 대한 그리고 삼갈을 위한 한 장을 포함하고 있다." 저자는 비 이스라엘인 것처럼 보이는 삼갈이 무기로서는 좀 이상한 소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을 쳐서 옷니엘과 에훗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저자는 삿 10:1-5 을 다루며 "우리가 돌라의 활동 묘사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발견한다면 야일의 묘사에서는 사람의 성향에 대한 진짜 그림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삿 12:8-15 를 "사사기의 인명록"이란 제목 아래 하나님 중심의 설명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선별성, 하나님의 섭리의 불가사의, 하나님의 안식의 부재,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죽음"으로 대지를 나누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둘째로, 저자는 삼손의 사사직을 마감하는 결론적 진술이 두 번 곧 15:20 과 16:31 에 나오는 것을 설명한다. "이 두 부분[삿 14-15 장과 삿 16 장] 사이에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15:20 의 결론 공식에 의해 강화된다. 저자는 전해주어야 할 이야기의 다른 면을 알고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삼손" 부분의 끝에 그의 이야기를 (말하자면) 결론짓는다. 이를 통해 저자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삼손의 역할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 저자는 공식적으로 전체 이야기의 끝에(16:31) 그 사사 공식을 붙일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의도적으로 먼저 15:20 에 그 공식을 삽입하여 14-15 장과 16 장 사이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그가 구상한 이전—이후 구조를 살린다."

강해 단락의 제목들과 대지들과 소지들의 영어 제목을 괄호에 넣어 제시한 것은 저자가 보여준 강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설교자들이 사사기를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이 책이 사사기의 의도된 메시지를 바로 파악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2019년 대강절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서론을 대신하며 (Non-Introduction)

이 부분은 내가 사사기에 대한 서론을 생략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서론을 쓸 수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서론을 통해 독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 즉 신명기적 역사의 문제, 전승사의 문제, 사사의 정의, 이야기들 속의 도덕적 문제, 연대, 고고학, 저작 시기, 저자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모든 것을 다룰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론을 생략해야겠다는 생각은 부분적으로 하워드 마샬의 설명에서 비롯되었다. 마샬은 누가복음에 대한 그의 걸작에서 서론을 쓰지 않고 이런 설명을 덧붙였다. "누가복음의 서론을 쓰는 문제에 관한 한, 엘리스(E. E. Ellis)가 이미 그의 중요한 주석에서 탁월한 서론을 써 놓았다. 나는 그보다 더 좋은 서론을 쓸 수 없다."[1]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나는 사사기의 서론에 관한 한 탁월한 작업이 이미 사사기 저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보다 더 좋은 서론을 쓸 수 없다. 나는 점점 더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200여년 동안 성경 학자들의 연구들로부터 공들여 뽑은 한 성경 책에 관한 (때때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혼란스러운 견해들보다는 오히려 성경 저자들이 직접 그들의 작품에 서문처럼 달아 놓은 서론들에 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면 성경 연구에서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바로 뛰어 들어 그것과 부딪혀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기 전에 한 마디만 더 하고 싶다. 우리가 성경 본문과 바로 씨름한다는 것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이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런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 사사기는 다음과 같은 개요를 통해 요약될 수 있다.

I. 다음 세대의 실패, 1:1–3:6

II.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3:7–16:31

III. 타락한 백성의 혼란상, 17–21

이제 본문을 통해 독자를 만나길 바라며 이로써 서론을 대신한다.

---

[1] I. Howard Marshall, *The Gospel of Luke: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78), 29.

제1 부

다음 세대의 실패

(The Failure of a Second Generation)

(사사기 1:1–3:6)

1. 이것은 고대 지리책인가? (삿 1:1–2:5 Is This an Ancient Geography Book?)

지금은 지리학(geography)이 어려움에 빠진 시절임을 인정하기로 하자. 최근 우리 지역 신문에 지리 교사들과 팬들의 회의에 대한 짧은 광고가 실렸다. 그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만연되어 있는 지리적 문맹과 지리가 교육 계획에서 받는 미미한 관심을 비탄했다. 지리학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 그 신문은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회의에 대한 헤드라인을 제공한 사람마다 "지질학(*Geology*) 강좌들 낮은 학점 받다."라고 썼다. 지리학은 매우 변변찮아서 편집자들이 그 단어를 읽을 때—반복적으로—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등록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약 일 년 전에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그가 시작한 스크랩북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가 가족 기념품들을 테이프로 붙여 놓은 낡은 초등학교 지리책이었다. 아버지에겐 적절한 스크랩 북을 살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 낡은 지리책들의 용도이다. 나 역시 신문 편집자들이나 아버지를 비난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 같다. 내 자신은 4학년 지리에 대하여 단 한 가지 사항만—우리가 바그다드에 관해 공부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하여 한 가지 일을 기억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내가 바그다드에 흥미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사사기 1장에 대한 독자의 반응도 거의 같으리라 짐작한다. 그것은 팔레스타인 장소들에 대한 아주 장황한 목록과 같다. 독자들은 의아해하며 "내가 무엇을 만나고 있는가? 고대 지리책이 아닌가? 나는 지리에 흥미가 없다. 오늘 나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설령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사사기 1장을 건너뛰지 말라고 권유하고 싶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소들과 꾸불꾸불한 길들의 모음으로부터 들려줄 당신을 위한 말씀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몇 가지 예비적인 문제들을 다룬 후 바로 사사기 1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I. 예비적인 문제들 (Preliminary Matters)

첫째로, 사사기 1장이 가나안 정복의 제2 단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호수아서(특히 수 1-12장)는 전광석화와 같은 방식으로 가나안인들의 저항의 근간을 깨뜨리며 땅을 "취하는" 일에 대하며 말한다. 사사기 1장은 각 지파들 혹은 연합 지파들이 이전의 정복에 따라 자기들에게 배정된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는 과정 곧 땅을 "소유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나는 이 문제를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나의 책 **여호수아서: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 말씀**(영어 pp. 88-90, 99-100, 110-11, 133-35, 142-43[한글 원고 73-74, 79-82, 92-93, 111-113, 117-119])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사기 1장은 정복의 소위 도덕적 문제를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킨다. 이스라엘이 무고한 가나안 사람들을 학살하고, 대대적으로 파괴하고, 땅을 가로채는 것 등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가! 이 모든 것이 이른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가나안 사람들이 현대 서구의 독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감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정복은 끔찍했다. 그러나 불쌍한 가나안인들의 운명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정복을 성경 자체의 관점에서 보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한 가지 중대한 사실 즉 가나안인들이 무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모세는 그것을 강조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그들의 뛰어난 경건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인들의 지나친 사악함 때문임을 역설하며 모세는 그들을 겸허하게 했다(신 9:4-6). 당신이 가나안인들의 모든 적나라한 가증한 행위들을 보기 원하면 레 18:6-30과 신 18:9-14을 보라.[1] 이 본문들은 정복이 정의의 행위 곧 여호와의 정의임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타락한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도구였다. 물론 성경은 정복이 기분좋은 일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참으로 정복이 공의로운 일이었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텔레비전과 영화를 통해 대리적으로 그리고 열렬히 폭력을 자주 접하는 현대 서구 교회 신자들은 성경의 정복에 먼저 돌을 던질 권리를 상실했다.

셋째로, 사사기의 첫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고 구성되어 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1-2:5의 구조를 살펴보자. 왜냐하면 외관과는 달리 이 부분은 단순한 자료 모음이 아니라 치밀하게 구성된 자료 모음이기 때문이다. 삿 1:1-2:5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여호와의 지시와 확약, 1:1b-2
- 유다의 성공, 1:3-21
  - 연합 지파들의 공격, 1:3-7
    - (베섹)
  -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 1:8
  - 가나안인들에 대한 공격, 1:9-18
    - 산지, 1:10-15
    - 남방, 1:16-17
    - 해안 평지, 1:18

[1] 외경인 솔로몬 지혜서 12:3-11도 보라.

요약, 1:19-21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19a)

북쪽 지파들의 실패, 1:22-36

초기 성공, 1:22-26

연합 지파들의 공격

(베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22)

불완전한 정복: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 1:27-30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불완전한 정복: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1:31-33

(아셀, 납달리)

역정복, 1:34-36

(단)

여호와의 비난과 위협, 2:1-5

은혜 언약의 회고, 2:1

"내가 너를 이끌어 내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들였다..."

"내가 너에게 말했다..."

언약 준수 조항 진술, 2:2a

"그러나 **너희는**..."

언약 위반의 비난, 2:2b

언약 심판의 선언, 2:3

백성의 반응, 2:4-5

이 구조에 대한 몇 가지 관찰 사항은 이렇다. 첫째, 서두의 "여호와의 지시와 확약"(1:1b-2)은 말미의 "여호와의 비난과 위협"(2:1-5)과 대조를 이룬다. 둘째, 마찬가지로 1장의 두 주요 부분도 날카로운 대조를 이룬다. "유다의 성공"(1:3-21)은 "북쪽 지파들의 실패"(1:22-36)와 대조를 이룬다. 셋째, "북쪽 지파들의 실패"(1:22-36)는 북쪽 지파들의 운명이 꾸준히 하강하는 추세를 묘사하기 위한 단계적 쇠퇴를 따른다. 넷째, 유다 지파에 대한 부분에서 9절은 10-18절에 대한 구조적 단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9절이 열거하고 있는 세 개의 전투 지역(산지, 남방,

평지)은 뒤따르는 절들이 기록하는 것(10-15절, 산지; 16-17절, 남방; 18절, 평지와 주변지역)과 일치한다.

위의 개요에 드러나 있지 않은 관찰 사항을 하나 더 추가한다. 저자는 삿 1:1-2:5의 각 주요 부분을 시작할 때 "올라가다"라는 뜻의 동사 [알라]를 사용하고 있다(1:4[유다의 성공], 22[북쪽 지파들의 실패]; 2:1[여호와의 기소]; 이 동사가 1:1, 2, 3에서도 사용된 것도 유의하라].[2]

II. 신학적 관심사들 (Theological Concerns)

이제 사사기의 이 시작 부분이 증언하는 것을 직접 들어보자.

i. 하나님의 충분하심에 대한 묘사 (A Picture of Divine Adequacy)

첫째로, 우리는 삿 1:1-21에서 하나님의 충분하심에 대한 묘사를 볼 수 있다. 이스라엘 그리고/혹은 유다는 하나님의 지시(1:1-2a)와 하나님의 확약(1:2b)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1:4)과 임재(1:19a)를 체험한다. 바로 이 모든 사실에 비추어 독자들은 "유다의 성공" 단락 곧 베섹(1:4-7)과 예루살렘(1:8)과[3] 헤브론(1:10)과[4] 드빌(1:11-15)과 스밧/호르마(1:17)와[5] 해안 평지의

---

[2] 악사의 말(1:15)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드빌(1:11-15)은 남방에 속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드빌은 산지에 속하고 헤브론의 남서쪽으로 칠 마일 반 떨어진 지금의 키르벳 라부드(Khirbet Rabud)와 동일시될 수 있을 것이다. Mose Kochavi, 'Debir (City),' *IDB/S*, 222, 그리고 *The Biblical Archaeology Review* 1 (March 1975): 5-7에 나오는 "Where Is Biblical Debir?"라는 글을 참고하라. 삿 1:19의 [하에메크](NIV: "the plains"; NASB: "the valley"; ESV: "the plain"; 개역개정: "골짜기"; 새번역: "낮은 지대"; 공동/쉬운/우리말: "평지")를 포함한 1:9절 이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Paulus Cassel, *The Book of Judge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2, *Numbers-Ruth* (1865;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39쪽에 인용된 바흐만의 입장을 보라.

[3] 사사기 1장의 8절과 21절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은 없다. 유다 자손과 시므온 자손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히브리어 [라카드]) 그 주민을 죽이고 그 성을 불살랐다. 다른 한편으로 베냐민 자손은 그 도시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히브리어 [야라시]) 그 도시를 소유하고 통제하였다. 나의 책 **여호수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 말씀**, [영어, 88-90; 한글 원고 73-74]에서 주장한대로, [라카드]와 [야라시]는 다른 함의를 갖고 있다. 한 번 점령한 것이라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 후에 다시 점령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이 어떤 지역을 점령하였으나 거기에 정착하지 않았다면 정복된 성읍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 그곳을 다시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다시 어떤 이들은 갈렙이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냈다[야라시]는 수 15:13-14과 유다가 그들을 공격하거나 쳤다[나카]는 삿 1:10 사이에 있는 마찰을 본다. 이 두 본문에 다른 동사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도, 삿 1:20은 유다 족속이 헤브론의 점령에 무슨 역할을 했을지 몰라도 그 지역을 효과적으로 소탕한 사람이 특히 갈렙이었다는 것을 면밀히 지적하고 있다.

[5]스밧 혹은 호르마는 (일직선으로) 헤브론의 남쪽/남서쪽으로 약 이십이 마일 떨어진 텔 마소스와 동일시될 수 있다. Yohanan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rev. and enl. (Philadelphia:

성읍들(1:18-19)에서[6] 거둔 그들의 승리를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충분하심이 어떤 상황에서 드러났는지 물어봐야 한다. 그것은 역사적 위기 속에서 드러났다. 사사기의 첫 절을 지나치지 말라. 이 절은 "여기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 있다(1:1a)."라고 번역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사사기에 대한 일반적인 책명으로 간주한다. 사사기 1장에 기록된 모든 것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삿 1:10-15을 수 15:13-19과 비교해 보라). 그러나 대체적으로 삿 1:1의 전반절은 우리가 사사기 1장과 사사기 전체를 볼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들의 죽음으로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책들을 눈여겨본 적이 있는가?

출애굽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시작된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된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된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된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비록 음부가 하나님의 가장 유용한 종들을 데려갈 때도 말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된다. 이것이 사사기 1장의 증언이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다(삿 1:2)."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삿 1:4)."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고 그 산지를 소유했다(삿 1:19)." 이 요점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각인되어야

Westminster, 1979), 215-216, 그리고 John J. Bimson, *Redating the Exodus and Conquest*, JSOT Supplement Series 5 (Sheffield: JSOT, 1978), 203-204을 참고하라. 호르마가 언급된 다른 구절들은 민 14:45; 21:1-3; 수 12:14 등이다.

[6] 사사기 1장의 18절과 19절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은 아니다. 18절은 유다가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그리고 그것들의 주변 지역을 "점령했다[라카드]"는(위의 각주 4 참고) 것이지,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야라시]는 19절처럼) 그 지역 주민을 쫓아내고 그 지역을 소유하고 장악했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18절의 "점령했다"는 것과 19절의 "쫓아냈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점령은 했으나(18절) 소유는 하지 못했다(19절)는 것이다.] 사실 그 당시 유다는 세벨라(낮은 구릉지대)의 서쪽에 있는 평지 지역을 소유(곧 영구히 통제)할 수 없었다.

[7] 나는 여러분이 (특히 영어 성경의 책 구분에 비추어) 이 사실을 좀 더 확대하고 싶다면 몇 가지 책을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무엘상은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죽음으로 시작되고(삼상 1-4장), 사무엘하는 (다윗에게 전해진 보고와 그의 애가에 있는 대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열왕기하는 엘리야의 승천(왕하 2장)으로 시작된다.

한다. 당신의 도움은 당신이 좋아하는 기독교 영웅의 이름에 있지 않고 주님의 이름에 있다. 주님 자신이 "떠나가실" 때조차도 그것이 그분의 교회에 유익임이 판명되었다(요 16:7).

그러나 하나님의 충분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여 일할 때에도 나타난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삿 1:3)."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 곳을 진멸하였다(삿 1:17)." "요셉 자손들"—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함께 행동한 것으로 추정됨—이 벧엘을 칠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삿 1:22)" 승리를 주셨다. 이스라엘이 지파 연합적 행동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는 승리를 주셨다.

우리는 이러한 관찰들에 대하여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라고 쉽게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통일성은 저자의 주된 관심사들 중의 하나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분열이란 그의 주제를 가지고 그의 주장을 입증한다. 책 전체를 통해 저자는 이스라엘의 통일성이 점점 악하되고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운명도 악화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이 주제를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8]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하는 것은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지파간 연합과 협력에 대한 설명들이 저자의 감상적인 소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저자는 그것들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저자는 여호와의 백성은 서로 도울 때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몸 전체 혹은 예배하는 신자들의 어느 그룹에 적용하는 것은 이 본문을 곡해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백성은 상호 협력을 통해 번성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도우심과 힘의 통로로서 서로를 우리에게 주셨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엡 3:17-18)"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엄청나게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신자가 복된 고립 상태에서 얻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 행해질/시도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

[8] 예를 들어 5:15b-17, 23; 8:1-4, 5-9; 12:1-6; 15:11-13 등을 보라. 보다 많은 본문 자료들과 논증을 위해 J. P. U. Lilley, 'A Literary Appreciation of the Book of Judges,' *Tyndale Bulletin* 18 (1967): 98-99 그리고 나의 'Proposed Life-Setting for the Book of Judges'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1978), 66-78을 보라.

백성의 통일성과 유대감은 더 연약한 기독교인들이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왜소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9]

사사기 1장의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는 지파들의 전투와 정착에 관련된 흥미로운 짧은 에피소드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로 여호와께서 얼마나 충분하신지 보여줄 때 매혹적인 세부 사항에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제안하게 한다.

우리가 아도니베섹과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할 것이다(삿 1:4-7). 여호와는 베섹에서 유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10] 아도니베섹은 도망쳤지만 붙잡혀 불구가 되었다. 유다의 군대는 그의 엄지 손가락들과 엄지 발가락들을 잘랐다. 이로 인해 아도니베섹은 적어도 군사적 임무에서 조기 은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죽고 말았다(삿 1:7b).[11] 아도니베섹이 철학자말고 무엇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그는 주장했다. "옛적에 칠십 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심이로다."라고(1:7a).

두 번째 에피소드는 낭만의 감정을 담고 있다. 옷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할 조건으로 소위 책의 마을(Bookville)인 기럇세벨/드빌을 공격하는 것이 목숨 걸고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12] 악사는 옷니엘을 설득하여 갈렙으로부터 경작할 만한 땅을 더 요구하도록

---

[9] 엡 3:18에 관하여 F.F. Bruce,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London: Pickering and Inglis, 1961), 68을 보라. 삿 1:3에 관하여 포셋(A. R. Fausset, *A Critical and Expository Commentary on the Book of Judges* [London: James Nisbet, 1885], 15)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설명한다. "시므온의 몫은 유다의 몫 안에 떨어졌고 그로부터 떼어서 배정되었다. 시므온은 가장 미미한 지파들 중의 하나였고 유다는 가장 중요한 지파들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유다는 서슴치 않고 공통의 적과 싸우기 위해 시므온의 협조와 협력을 구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두움의 주관자와 대항하며 우리의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영적 전투에서 훨씬 더 약한 형제 자매의 도움과 공감을 무시할 여력이 없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들로부터라도 힘을 끌어내실 수 있다(롬 14:3-4; 고전 1:27). 그러므로 머리처럼 높은 자가 발처럼 낮은 자들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모든 신자들이 서로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기 때문이다(고전 12:21; 행 11:17; 15:8, 9, 11)."

[10] 아하로니(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214)와 시몬스(J. Simons, *The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Texts of the Old Testament* [Leiden: Brill, 1959], 281)는 베섹을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13마일 떨어진 키르벳 이브지크와 동일시한다. 삼상 11:8을 보라.

[11] Theodor H. Gaster, *Myth, Legend, and Custom in the Old Testament*, 2 vols.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69), 2:416-418을 보라.

[12] 옷니엘은 갈렙의 조카이거나 동생이었을 것이다. Leon J. Wood, 'Othniel,' *ZPEB*, 4:552-53, 그리고 대상 4:13에 대한 C. F. Keil, *The Books of the Chronicles*,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72;

하였다. 옷니엘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적어도 악사는 그들이 그 땅에 대한 물 사용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를 알만큼 예리했고 아버지께 그것을 달라고 간청했다(삿 1:15).[13]

세 번째 작은 사건(삿 1:22-26)은 계락의 냄새를 풍긴다. 요셉 자손들은 베델/루스의 한 주민을 설득하여 그들에게 그 성읍의 입구 곧 명백히 성문은 아니지만 요새화된 지역으로 들어가는 은밀하게 숨겨진 입구를 보여달라고 한다.[14] 그것은 한 성읍을 기습하여 정복하는 뛰어난 방식으로 판명되었다.

---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66] 89-90의 설명을 참고하라. 볼링(Robert G. Boling, *Judges*,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75], 56)이 설명하는 것처럼 "형제"라는 단어는 "군사적 동맹자"를 의미할 수 있다. 삿 1:14의 본문은 어렵기는 하지만 ["As she **sat on the ass,** she **broke wind[=farted/made a noise]**, and Caleb asked her 'What did you mean by that?'"]라는 새영어성경(NEB, New English Bible)의 번역처럼 불확실한 것이 아니다. [역자 주: 삿 1:14와 수 15:18는 본문이 동일하다. ESV는 수 15:18을 When she came to him, she urged him to ask her father for a field. And she **got off her donkey**, and Caleb said to her, "What do you want?"라고 번역하고 삿 1:14을 "When she came to him, she urged him to ask her father for a field. And she **dismounted from her donkey**, and Caleb said to her, "What do you want?"라고 번역하고 있다. 히브리어 동사 [차나흐]는 [바티츠나흐] 형태로 이 두 본문과 삿 4:21(ESV: Then she went softly to him and drove the peg into his temple until it **went down into** the ground)에만 나온다.]

[13] 삿 1:11-15과 같은 에피소드가 성경에 왜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항상 유익하다. 우리가 이 "왜?"라는 질문에 항상 답을 줄 수는 없어도 계속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항상 더 큰 문맥에 비추어 본문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성경으로서 한 본문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것으로부터 유용한 적용을 끌어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는 (포셋[Faussett, *Judges*, 32–34]처럼) 악사의 요청을 기도의 패러다임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나는 얼핏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에피소드가 왜 성경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땅에서 물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악사는 물 사용의 여부에 따라 생명이 보장되거나 재앙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아는 분별력이 있었다. 그녀는 생활 필수품에 대하여 신중한 관심을 보였다. 중서부 농부가 밀 추수기의 날씨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우리에겐 사소한 사건인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하찮은 문제가 아니었다. 악사의 요청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녀의 나귀를 타야만 할지도 모른다.

[14] Anson F. Rainey, 'Ramat Rahel,' *The Biblical World: A Dictionary of Biblical Archaeology*, ed. Charles F. Pfeiffer (Grand Rapids: Baker, 1966), 473은 "북쪽 벽을 통하여 그 요새로 들어갈 수 있는 지하 샛문이 하나 있었다. 바깥 구멍은 한 번에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너비였다."라고 설명한다. 라맛 라헬의 이 문은 주전 600년경에 속했다.

당신이 베섹, 기랏 세벨, 베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별 호기심을 느끼지 않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아도니베섹의 발가락이나 악사의 샘물이나 벧엘의 비밀 통로에 그다지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에겐 정의, 낭만, 계략을 보여주는 이러한 일화들이 매혹적이다. 그리고 본문의 증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다(삿 1:4)."는 것과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삿 1:22)."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께 전형적인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얼마나 충분하신가를 보여주실 때 통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시며 그들에게 기억할 만한 생생한 일화들을 남겨 주신다.

ii. 신학적 지리에 담긴 교훈 (A Lesson in Theological Geography)

둘째로, 우리는 삿 1:22-36에 기록된 신학적 지리에서 교훈을 얻는다. 앞서 제시했던 사사기 1장의 구조의 개요로 돌아가서 "북쪽 지파들의 실패"라는 부분(1:22-36)을 다시 눈 여겨 보라. 이 부분은 북쪽 지파들이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일에 있어서 점점 실패한 사실을 보여준다. 요셉 자손들의 초기 성공 이후, 지파들의 노력은 점점 쇠퇴해가더니 마침내 단 지파의 경우 역정복을 당하고 말았다. 이 부분은 매우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당연히 서양 독자들은 이런 끊임없는 장소의 목록에 짜증을 내며 보기 쉽다. 어떤 이들은 영감(靈感)의 펜이 낙담한 지도 제작자의 손에 들려졌던 것은 아닌지 의아해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설교자의 손에 들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설교자는 이런 저런 지파가 "(히브리어 동사 [야라시]를 사용하며) 쫓아내지 않았다/추방하지 않았다."라는 그의 메시지를 계속 주입하고 있었다. 일곱 번이나[15] 그는 그렇게 비난했다(삿 1: 27, 28, 29, 30, 31, 32, 33).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것은 지리적 지루함이 아니라 신학적인 비난 곧 신학적인 지리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스라엘이 이 지역들의 대다수를 절대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실용적인 이유들이 있었다. 시간이 좀 흐르면 그들이 벧산 곧 "고대 세계의 간선 도로"가[16] 뻗어 나가는 요단강과 이스르엘 계곡의 접점을 지키고 있는 거대한 장소(삿 1:27)을 점유하지 않은 것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를 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에스드랠론 평야를 따라 있는 중요한 요새들인 다아낙, 이블르암, 므깃도를 지배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살 것이다.[17] 어쩌면

---

[15] 유다(삿 1:19)와 베냐민(삿 1:21)에 대한 설명을 더하면 이 수치는 아홉 번이 된다.

[16] Anson F. Rainey, 'Beth-shean/Beth-shan,' *ISBE* (rev. ed.), 1:475. 그리고 George Adam Smith,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22d ed. (London: Hodder and Stoughton, n.d.), 357-359도 보라.

[17] 스미스(Smith, *Historical Geography*, 379-391)의 설명을 보라. 그리고John Garstang, *Joshua-Judges*

그들은 건방진 시스라(삿 4-5장)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또한 게셀(삿 1:29)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저자의 관심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할 동기 부여는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다. 여호와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땅에는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너로 하여금 내게 죄짓게 만들 것이다. 네가 만약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면 그것이 반드시 네게 덫이 될 것이다(출 23:33)."라고 경고하셨다.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군사적 위협보다는 영적인 암이 될 것이었다(출 23:23-33; 34:11-16; 신 7:1-5 참조).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다른 이방 족속들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였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모든 예배 중심지들(모든 언덕-위의-성-바알의-신전과 우리의-수확의-여인의-사당)을 부수고 헐어버려야 하는 이유였다. 분명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로 어떤 점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만일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용납되면 그로 인해 싫든 좋든 이스라엘은 그들과 통혼할 것이고 언약 신앙과 작별을 하게 될 것이었다(출 34:15-16; 신 7:3-4). 후손들은 여호와를 낙오한 다산의 신으로 알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의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표현은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게 해 준다. 그것은 설교자인 저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 준수의 실패에 대하여 질책하는 것이었다.[18] 그들은 암조차도 자라서 커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암의 일부만 제거하는 외과 의사와 다름없었다. 용인과 자살은 죽이 잘 맞는 동료이다.

저자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언약 실패(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를 비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성공을 묘사한다. 이 점은 자주 간과된다. 네 번이나 그는 우리에게 가나안 족속 혹은 아모리 족속이 "강제 노역"에 복종했다고 말한다(삿 1: 28, 30, 33, 35).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한 때 원주민들을 쫓아낼 만큼 강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때가 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지배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1931; reprint ed., Grand Rapids: Kregel, 1978), 94도 보라

[18] 최근에 나는 차일즈도 사사기 1장에 대하여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 차일즈(Brevard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259)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서론[삿 1장]의 기능은 이전 시대와 확연히 대조되는 불순종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신학적 판단이 그것의 시대적 특징 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서론이 부정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언하는 삿 2:1-5에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그렇지만—성경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강성해져 완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이 고립된 소집단을 추방하고 쫓아내는 대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사사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림은 가나안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이스라엘,[19] 곧 확실히 불순종했지만 분명히 성공한 백성의 모습이다. 실용적인 성공과 영적인 실패—이것은 이상하긴 하지만 가능한 조합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어도 지배를 했고, 정절을 지키지 않았어도 우위를 점했다.

이 본문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경고를 담고 있다. 우선, 그것은 우리에게 신자의 삶이 성공의 표지들을 보여주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개인적이든 그럴싸한 복음적 사업의 형태이든) 기독교인의 성공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 본문은 또한 "작은" 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사사기 1장이 끝날 때까지 아주 비극적인 것은 없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었다. 이스라엘은—대체적으로—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무기력은 "사소한" 불순종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정확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나오는 삿 1:1-3:6의 개략적인 구조를 살펴보라.

제목, 1:1a
배교의 여건들이 조성됨, 1:1b-36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슬퍼함, 2:1-5
전환: 새로운 세대, 2:6-10
배교의 과정이 묘사됨, 2:11-3:4
요약과 적요, 3:5-6
  3:5은 1:1b-2:5의 요약
  3:6은 2:11-3:4의 요약

위의 구조에서 두 개의 대단락(삿 1:1b-36와 2:11-3:4)을 보면 사사기 1장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실패가 얼마나 중대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이 허용한 여건들은 당장에

[19] Yohanan Aharoni and Michael Avi-Yonah, *The Macmillan Bible Atlas*, rev. ed. (New York: Macmillan, 1977), 50-51. 그리고 나의 책, **여호수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 말씀**, 영어책 110-111[2014년 판 113-114; 한글 원고, 82-83]을 보라.

재앙을 가져오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실패의 영향은 나중에(삿 2:11-13, 19; 3:5-6) 가시화되었다.[20] 용인에서 시작된 것은 배교가 되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인 것은 치명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가나인 족속들과 함께 예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바알의 사람들을 용납하라. 그러면 당신은 조만간에 바알의 제단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을" 때 시내산의 율법은 지켜지지 않았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참고, 눅 16:10)"은 화려한 이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거의 묘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펴보라.

iii. 진정한 회개의 문제 (A Question of Genuine Repentance)

셋째로, 보김 에피소드(삿 2:1-5)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문제를 제기한다. 사사기 2장 1절 하반절 본문에 대한 불확실성이 메시지를 흐리게 하지는 않는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 가운데 반복되는 "나"가 보여주는 것처럼 여호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질책하시고(삿 2: 2b)[21] 그들이 겪을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신다(삿 2:3).[22] 그들은 삿 1:2, 4에서 약속받은 도우심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된 위험은 영적인 위험일 것이다(삿 2:3c).

백성의 반응에 유의하라. 그곳 전역에 울음이 있었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히브리어, [바카], 삿 2:4b)." 심지어 그곳은 그들의 울음 때문에 "우는 자들"이란 뜻의 보김(삿 2:1, 5)이라고 명명되었다. 울음은 제사로 이어졌다(삿 2:5b). 여기까지는 좋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울 수 있을 때, 우리가 감동되어 울 수 있을 때, 그것은 대체로 좋은 징후이다. 이런 일이 보다 자주

---

[20] 차일즈(Childs, *Old Testament as Scripture*, 259)는 이렇게 설명한다. "사사기 1장의 서론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성격에 대한 신학적 심판을 제공한다. 뒤따라 나오는 신명기적 서론[차일즈에 따르면 삿 2:6-23]은 이 실패를 가정한다."

[21] 삿 2:2이 암시하는 바는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수아 일행이 기브온을 잘못 다루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땅의 남은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분명하게 노역의 대가로 생명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22] 삿 2:1-5의 구조를 위해 본장의 초두에 있는 개요를 보라. 매튜 헨리(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 vols. [New York: Revell, n.d.], 2:126)는 여기 여호와 사자의 출현에 대한 매우 유익한 관찰을 했다. "이스라엘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계속 잘 가도록 하기 위해 단 번에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법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들이 그 길로부터 벗어날 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메시지를 가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특권이었다."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는 너무 정교하거나 너무 세련되거나 너무 무정하거나 설상가상으로 이 모두에 해당되어서 우리 죄에 대하여 울 수 없다.[23]

그러나 본문은 우리를 계속해서 서성거리게 한다. 깔끔한 마무리도 없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도 없다. 그들은 울었고 제사를 드렸다.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낳았던가? 여호와의 사자의 설교는 울음, 눈물, 깊은 인상을 유발했다. 이스라엘의 눈물관을 넘어선 것이 있는가? 여기 야기된 눈물보다 더 지속적인 것이 있는가?[24]

웨일즈에서 목회자로 있는 동안 마틴 로이드 존스는 감정주의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로이드 존스의 반박은 "웨일즈 사람을 울게 하는 것은 매우 쉽지만 웨일즈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면 지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25]

여호와의 질책하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젖어 있는 눈, 그 이상이어야 한다. 감동받아 눈물 흘리는 것도 좋지만 회개로 나아가는 것은 더 좋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좋은 슬픔"을 생산하길 원하신다(참고, 대하 7:8-11). 요엘을 통한 여호와의 요구는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교회를 위한 해석학적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욜 2:12-13)."

---

[23] 스토트(John R. W. Stott, *Between Two Worlds: The Art of Preaching in the Twentieth Century* [Grand Rapids: Eerdmans, 1982], 276)는 설교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우리 20세기 설교자들이 다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우리 눈물샘이 말라버렸거나 우리 눈물관이 막혀버렸거나 둘 중 하나이다. 모든 것이 우리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모여드는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 우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공모하는 것 같다."

[24] "이것은 좋았고 그들이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표지였다. 죄인들이 마른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울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개혁했는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의 잔재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파멸시켰는지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아래 누그러지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다시 굳어져 버린다(Henry, *Commentary,* 2:128)."

[25] Iain H. Murray, *David Martyn Lloyd-Jones: The First Forty Years 1899–1939*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2), 315-16.

2. 다음 세대의 쇠퇴 (삿 2:6–3:6 Generation Degeneration)

I. 예비적 관찰

당신이 미시시피주 빅스버그에 있는 남북 전쟁 전투장을 방문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차를 몰고 들어가서 여러 마일 동안 전투장 공원을 지나가며 기념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빅스버그 공격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방문자 안내소에 들러서 그 전투장을 활보하며 볼 것을 감상하고 이해하기 위한 배경과 구조를 알려주는 영화를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단지 그 알라바바 연대나 그 펜실베니아 중대에 대한 수많은 기념물들만 볼 것이다. 그 영화는 그 모든 세부 사항들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그것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삿 2:6–3:6은 사사기에 대하여 방문객 안내소의 영화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것은 사사기의 나머지 부분, 특히 3-16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미리 보기를 제공한다. 이 부분은 사사들의 이야기의 의미를 독자에게 해석해 주는 요약이다. 사사기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당신은 여기에 잠시 멈추고 서서 다가올 이야기들에서 무엇을 찾을지 그리고 당신이 읽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 전체적인 조망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삿 2:6–3:6은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대한 것은 없을 것이다.

미리 말해 두지만, 많은 성경 비평가(=비평주의자)들은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이 모두 틀렸다고 말할 것이다. (비평가란 용어 자체는 중립적이다. 나도 역시 성경 본문을 저울질하고 평가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성경 비평가이다.) 성경 비평주의자들은 우리가 알아야만 할 사항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것이다. 첫째로, 사사기는 매우 오래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다.[1] 둘째로, 삿 2:6-3:6은 사사기에 가장 늦게 추가된 것들 중의 하나이다. 셋째로, 이 부분은 신명기(신명기 사가)적 편집자들의 손에 의해 주어졌다. 넷째로, 이 편집자들은 바벨론 유수(주전 587년) 바로 전과 유수 동안과 유수 후, 곧 사사 시대로부터 약 6 백년에서 7 백년 후에 작업을 했다. 다섯째로, 삿 2:6-3:6은 사사 시대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다. 여섯째로, 아무리 좋게

[1] 비평주의자들에 의하면 사실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현재의 모습 그대로 사사기를 받은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M. G. Rogers, 'Judges, Book of,' *IDB/S*, 514나 Georg Fohrer,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Nashville: Abindgdon, 1968), 208-214에 의해 가정된 그 복잡한 저작 과정의 역사를 보라.

말해도 이 신명기(사가)적 해석은 그 사실들(그것들이 무엇이든지)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은 삿 2:6-3:6이 후대 신명기적 편집자들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들은 이 신명기(사가)적 해석을 "그것이 실제로 어떠했는가(본문의 실상)"보다 우위에 둔다. 이렇게 해석되고 도식화된 역사는 필연적으로 사건들의 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왜곡하고 곡해하기 마련이다.[2] (그렇지만 어디에서 우리는 해석된 역사가 아닌 의미 있는 역사를 찾을 것인가?) 이 견해에서 대체로 내려진 결론은 삿 2:6-3:6이 당신에게 신명기 사가들이 사사 시대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말해 줄 수 있지만 그들의 견해는 (크든 작든)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견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견해가 옳다면, 그러한 본문이 교회에 대하여 어떤 가능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나는 (지금 바보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나의 독자에게 얼마나 흥미로울지 알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계속 말하려고 한다. 내가 삿 2:6-3:6에 대한 이 보편적인 비평적 입장에 관하여 제기하는 유일한 문제점은 이 부분이 신명기적이라고 하는 언어적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의치들이 떨어져 나오듯이 다른 거짓 사항들도 그것과 함께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이 부분 가운데 기껏해야 두 절 반 정도만 신명기적이라고 주장될 수 있다. 나는 많은 구약 총론들과 개론들이 경솔하게 삿 2:6-3:6을 신명기적이라고 할 때 그것들은 본문의 실질적인 증거를 저울질하지 않고 비평주의적 정통 공리가 되어버린 것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대부분의 종교들처럼, 성경 비평주의도 하품을 일으키는 진부한 교리의 지분을 갖고 있다.) 나는 다른 곳에서 삿 2:6-3:6의 어휘와 용어를 각 절마다 공들여 지루할 정도로 자세하게 분석했고, 증명할 수 있는 신명기적 영향이 매우 제한되어(삿 2:11-12, 19절 중반)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나는 삿 2:6-3:6이 후대에 역사를 왜곡하여 신학화한 것이라는 일반적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혹은 (이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삿 2:6-3:6을 사사들의 이야기에 대한 적절한

---

[2] 나는 포러(Georg Fohrer,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Nashville: Abingdon, 1972], 306)가 사사기에도 열왕기 상하의 신명기적 편집에 대한 그의 말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역사는 그 진행 과정에서 자주 과도한 단순화와 도식화된 재해석에 의해 자주 왜곡되었다. . . . 신명기 학파의 교육적 의도는 역사적 전통이 그 자신의 목적들에 이바지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의 문예적 활동의 가치를 크게 손상시켰다. 그러나 이 활동은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교육적인 목적들을 추구했다." 신명기적 역사/학파/편집자들에 대하여 읽기 쉽게 잘 제시한 것을 보려면 John H. Hayes, *An Introduction to Old Testament Study* (Nashville: Abingdon, 1979), 206-218 그리고 Bernhard W. Anderson,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3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5), 138-139을 참고하라.

관점을 제공하는 개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변명할 생각이 없다. 그럼 교훈[토라 "율법"]과 증언[트우다 "증거"](사 8:20)으로 나아가보자!

II. 신학적 메시지

i. 우리 신앙의 지속적인 위기 (The Continuing Emergency of Our Faith)

첫째로, 이 본문은 우리 신앙의 지속적인 위기를 강조한다(삿 2:6-13). 이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바알 숭배에 관한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창세기 1장의 많은 독자들은 자신들이 혁명적인 선전물을 손에 쥐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것은 성이 **인간의** 행위라는 신기한 개념을 개진한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이다. 여호와는 아내, 곧 배우자가 없으시다. 성경적 종교는 당신이 여호와께서 (자연 역시 그분의 지배 아래 있을지라도) 자연 속에서 진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창조, 홍수, 족장들을 부르시고 보존하심,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심, 요단강을 가르심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호와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거기로부터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는 천상 침대에 누우셔서 그의 배우자되는 여신과 성행위를 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르시고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의 신 바알도 그렇지 않았다. 바알은 폭풍과 다산의 신이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산은—농작물과 가축들과 가족의 다산처럼—추적 목표의 이름이었다. 바알은 자연신이었으므로 당연히 그의 여성 배우자로 아시토렛 혹은 아시타르트가 있었다.[3]

가나안의 신학(과 농업)에서 땅의 다산은 바알과 그의 배우자의 성관계에 의존하고 있었다. 자연의 소생은 바알과 그의 배우자의 성행위 때문이었다. 그러나 바알 숭배자들은 그저 뒷짐 지고 앉아서 "바알로 그것을 하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들 가운데 "내버려 두라 그리고 바알로 하게 하라."는 생각은 없었다. 그 대신 그들의 표어는 "너희 모든 분비선(腺)들아 기쁨으로 바알을 섬기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예배의 일부로서 "종교적" 매춘을 했다. 예를 들어 가나안 남자는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섬기는 종교적 매춘부와 성행위를 했다. 이 때 남자는 바알 역할을 하고 여자는 아시타르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

[3] A. H. Sayce and K. G. Jung, "Ashtoreth," *ISBE* (rev. ed.), 1:319-320을 보라. 라스 삼라 문헌(우가릿어 문헌)에 바알의 자매요 배우자는 아낫이다. 그리고 "Asherah," *ISBE* (rev. ed.), 1:317-318도 보라.

숭배자와 신전 매춘부의 성행위가 신들의 부부 곧 바알과 바알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들의 일(성행위)을 하도록 부추김으로써 비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다시 공급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종교적 매춘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바알을 돕고 격려하고 성적 절정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 바알이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4] 그러나 다산의 권위자(=신)들이 적절히 예배받지 못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부수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이교도 신앙과 성경적 신앙 사이에 커다란 경계선이 있다. 이교도 신앙에서 신들은 신뢰받기 보다는 강요받아야 한다. 마 6:7-8을 보라.)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남도록 허락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로 바알 숭배를 하도록 유혹했을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도움을 주려는 가나안 사람이 그의 이웃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작은 종교—그리고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려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렇고 말고요. 당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바로로 하여금 항복하도록 하시고 요단 강을 가르신 여호와를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가나안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반드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아니라 자연계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곧 농작물과 가축들과 기타 것들과 관련된 매일 매일의 상황을 잘 다루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당신으로 우리의 비밀을 알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저와 함께 우리의 주중 예배를 위해 산당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5]

분명 이 증언에는 허점들이 있다. 극적인 구원들을 주시는 하나님은 매일의 필요한 것도 공급하신다(롬 8:32을 보라). 이스라엘은 이미 여호와께서 참된 "풍요의 하나님"이신(신 28장)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갔다.

> (개역개정 시 106:34-41) 34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35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36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므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37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

[4] 알렉 모티어(Alec Motyer)는 어딘가에서 바알 숭배 과정을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코푸는 법을 가르치는 것에 비유했다. 당신은 손수건이나 휴지를 취하여 당신의 코에 갖다 대고 내부는 소리를 내면서(이렇게 하지 못하고 애들은 왜 항상 코를 킁킁거리기만 하는가?) 당신의 자식이 그대로 흉내내며 당신을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처럼 가나안의 예배에서 다산을 위한 행위는 바알이 따라서 하도록 하기 위한 단서 역할을 했다.

[5]가나안 종교의 본질과 매력에 대한 매우 읽기 쉬운 묘사를 위해 Anderson,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139-147을 보라.

바쳤도다 38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하므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39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40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41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앙과 풍습에 항복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당신은 이스라엘이 왜 "여호와를 버렸는지(삿 2:12, 13)" 설명할 수 있는 단서들을 알 수 있는가? 독자는 내가 이 부분을 "우리 신앙의 지속적인 위기"라고 부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불성실을 조장했던 조건들은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이다.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둘러싼 이교도와 뚜렷한 분리를 유지하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삿 1:27, 29, 30, 31, 32, 33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시 106:34-35을 보라). 그들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후에 남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앞 장에서 논의한 것을 보라).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은 가장 극단적인 분리를 요구하셨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근절되어야만 했다. 그들의 삶과 문화는 진멸되어야 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었다(레 18장; 신 9:4이하).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며 사이좋게 지내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와 철저하게 싸우는 일에 실패했던 것이다.[6]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현대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실제 칼을 휘두르라는 계시된 명령이 없다. 그러나 원칙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문화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 문화와 뚜렷한 분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과 섞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불경건한 문화와 뚜렷한 분리를 유지하며 그것과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전에 우리는 텔레비젼과 영화를(내가 이것들의 성적 취향이 매우 "가나안적"이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음을 유의하라) 비난하는 근본주의자들에게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더 많은 포로노의 급증으로 인해 우리는 더 냉냉해졌다. 영화는 강력한 문화 매체로서 설교하는 것만큼 제시하는 것이 기독교인 마음에 매우 위험스럽고, 진지하게 개진하는

---

[6] 포셋(A. R. Fausset, *A Critical and Expository Commentary on the Book of Judges* [London: James Nisbet, 1885], 53)은 적절하게 지적한다. "우리의 고귀한 소명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이다. 우리를 망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배가 물 속에 있어서가 아니라 물이 그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가라앉게 되는 것과 똑같다."

것만큼 웃긴다고 생각하는 것에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세속화된 문화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교회는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뿐만 아니라 경건한 마음을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불경건한 문화의 전 영역을 비판하고 폭로하는 성도를 필요로 한다. 개발된 경건한 마음은 (광고나 교육이나 정부 발표나 그 무엇을 통해 오든지) 거짓 교리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선전 배후에 있는 가정들을 밝혀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닌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한 마디만 더 말하고 싶다. 만일 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과 목회자들만 부르신다는 생각을 그쳐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시어 예술가, 신문방송인, 정치인, 역사가가 되게 해 주시라고 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효과적인 대체 문화를 생산하려면, 우리는 삶 전체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주장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 (바알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우주의 어느 구획에도 왕권이 없다.) 우리 공동체는 방문객에게 주는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그 중 일부는 우리가 믿는 바를 요약한 것이다. 우리의 본질적인 확신들 가운데 우리가 포함한 것은 "하나님은 사업과 정치, 경제와 교육, 과학과 성, 역사와 추수, 예술과 고난, 음악과 결혼 등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분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삶의 모든 것은 거룩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진보를 이루려면 이 확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바알이 농업과 성을 독점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왕권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긴 것이다.

이스라엘의 배교의 또 다른 원인은 다음 세대에서 체험적 신앙이 부족한 것이었다. 삿 2:10이 말하는 것처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 묘사를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이전 세대의 묘사(삿 2:7)와 비교해 보면, 문제는 무지였고, 다음 세대는 여호와와 그분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추측은 정말 틀린(혹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삿 2:10의 말씀은 불행하게도 여호와의 성막의 제사장들이었던 엘리의 두 난잡한 아들을 묘사하는 삼상 2:12에 나오는 동일한 말씀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거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대로 여호와의 능하신 행위들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다. (그들은 분명 여호와에 대하여 알았고 여호와의 능하신 행위들을 모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를 존경하지 않았고(RSV: 'had no regard for')" "여호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다(JB: 'cared nothing for')."는 뜻이다. 그러므로 삿 2:10에서 이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호와와 그분이 행하신 일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7]

이것은 지속적인 위험이다. 한 세대가 산 믿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이 매일의 삶을 다스리심을 즐거워하고, 심지어 그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가르치는 것을 기뻐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나타나 이 모든 일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이 공적으로 모든 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들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하여 알 뿐이다. 그들은 차갑고 메마르고 형식적인 태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는 불이 없고, 사랑에는 온정이 없고, 소망에는 기쁨이 없다. 바울이 "내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빌 3:8)"이라고 부른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생소하게 들린다. 그들은 그것을 짐작도 못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흉내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들은 회심할 필요가 있다.[8]

이스라엘이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그들의 배교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읽는 통렬한 보고이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다(삿 2:12)." 바로 이 묘사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을 드러낸다. 여호와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불린다. 여기 "그들의 조상들"은 출애굽 세대로 국한할 이유가 없다. 이 용어 속에 족장들을 포함시킬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출애굽 이전의 모든 이야기들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연약한 백성을 신실하게 보존하신 것을 강조한다(시 105:12-15을 보라).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

[7] Robert G. Boling, *Judges*,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75), 72과 H. W. Hertzberg, *Die Bücher Josua, Richter, Ruth*, 2d ed., Das Alte Testament Deutsch (Gottingen: Vandenhoeck and Ruprecht, 1959), 158을 보라.

[8] 앤더슨(Anderson,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138)은 삿 2:10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은행의 계좌처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옮겨질 수 있는 일련의 지식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그분을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부모의 신앙이 필연적으로 그들의 자녀의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못했을 것이다. 더욱이 여호와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다. 이것과 비교될 만한 것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이외에 그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은 소망없는 백성을 위한 여호와의 능하신 행위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다! 얼마나 지독한 배은 망덕인가! 그러나 저자는 이스라엘에 격앙된 선지자적 비방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차갑고 책망하는 어투로 그들이 버려버린 하나님을 묘사함으로써 그의 요점을 주지시키고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억 상실은 배교를 낳는다고 가르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을 잊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 열광하는 이유이다(신명기 4장과 6장을 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 그들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광야에서 곧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묻지 않았다(렘 2:6).

우리가 그분의 조용하신 보호나 그분의 극적인 구원을 망각 속으로 흘려보낼 때 우리는 바알을 향해 나가는 길에 있다. 이것은 단지 고대의 어떤 이스라엘인들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들을 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벧후 2:1)"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며 자주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야 할 좋은 이유이다.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ii.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The Astonishing Character of Our God)

둘째로, 삿 2:14-18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매우 복합적인 성품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14-15절에서 그분의 분노의 신실하심을 본다.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과 같이**라는 어구들에 특별히 유의하라. 주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대적들에게 넘기실 때 주님은 그들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판명될 경우 그들에게 하시겠다고 미리 경고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계셨던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레 26:17과 신 28:25을 보라). 여호와의 뜨거운 분노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준다. 그것은 **신실한**(말씀 그대로 행하신) 분노이다.

그러한 분노로 인해 우리가 놀라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것에 대하여 지불하는 댓가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경쟁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질투이고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출 34:14)." 질투는 사랑의 다른 면이다. 그것은 배타적인 사랑이 요구되는 경우에 필수적인 것이다. 남편이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슬프지만 참된 증거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라. 그것은 험담이나 암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립되어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논의를 위해 그 남편이 죄성을 지닌 인간이지만 대체적으로 그의 아내에게 정중하고 헌신적이고 다정했다고 가정해 보라. 그런데 지금 그의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다. 만일 그 남편의 반응이 "글쎄, 당신은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이런 것이 인간 세상 아닌가!"이라면 어떨까?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글쎄, 당신은 그가 그의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태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사랑이 있다면, 그는 기분이 상하고, 질투하고, 분노해야 마땅하다. 질투는 확 타오르는 사랑이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일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질투하는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부드러운 느슨함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참지 않으심, 절대적인 요구(참조, 마 10:37-38)이다. 질투하시는 사랑 때문에 당신을 향한 분노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누가 이와 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그분을 버린다면 그분은 분노하시며 당신을 추적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분의 구원이 믿기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삿 2:16) 우리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삿 2:14의 전반절("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과 삿 2:16의 전반절(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사들을 세우셨다)을 함께 놓고 놀라운 연속에 주목하라. 우리가 이것을 쓰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두 진술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편집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우리는 15절 다음에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서 떠나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를 구했다."라는 진술을 삽입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러한 진술이 전혀 없다.

삿 2:16이 돋보이게 하려고 한 것 같다. 삿 2:11-23의 전체 구조에서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살펴보라.

배교(A), 2:11-13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버림)

진노(B), 2:14-1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은혜(C), 2:16

배교(A'), 2:17-19

(현재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버림)

진노(B'), 2:20-2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 부분은 **16절의 은혜**에 대한 진술이 단락의 중심점이 되는 소위 *A B* ***C*** *A′ B′* 패턴을 따르고 있다. 그것은 매우 기쁜 호소력이 있다.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던(14절)" 분이 "노략하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다(16절)." 그들을 치셨던(against 15절) 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스럽게도 그들을 편들었다(for 16절). 여기에 성경의 근본적인 기적이 있다. 정당하게 우리를 땅 바닥으로 내팽개치시는 하나님께서—이유 없이—몸을 굽혀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

나는 "이유 없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인자하심의 깊이, 또 하나의 놀라움일 뿐이다.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배교에 직면해서조차도 여호와는 사사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셨다. 왜 그러셨는가? "여호와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18절)." 여기 "신음소리[느아카]"는 회개라기보다는 불행을 내포한다. (삿 3:9에서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자아크] 때조차도 회개가 반드시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좀 더 다룰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의 불행 하나만으로도 동한다.[9] 그분의 백성—심지어 그분의 죄악된 백성—이 억압당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지! (우리는 그걸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이 삿 2:18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 히 4:15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날 때 충격을 받지 않는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이 심연을 불현듯 이해한다면, 당신은 한 가지 반박할 수 없는 사실 곧 성경의 하나님은

[9] 포셋(Faussett, *Judges*, 54)은 이렇게 진술했다.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로 인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는 하나님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그분이 그들을 돕도록 만든 것은 죄에 대한 그들의 회개(their repentance)가 아니라 압제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것으로 인한 그분의 돌이키심(His repentance)이었다."

결코 만들어 낼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할 것이 있다. 삿 2:18의 "슬피 부르짖음(개역개정), 신음 소리(새번역)"은 명사(히브리어 [느아카])인데 구약에서 여기 외에 세 번 더 사용되었고 그 중 두 번은 출애굽기에 나온다(출 2:24; 6:5). 거기서 "부르짖는 소리(출 2:24), 신음 소리(출 6:5)"는 애굽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이 울부짖는 소리이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해 주셨다. 삿 2:18에 나오는 이 동일한 단어는 우리의 마음으로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셨다(삿 2:18)."라는 말씀을 읽을 때 마치 그것이 "보라! 여호와는 주전 1400년 경처럼 주전 1100년경에도 여전히 동일하시다."라고 말해 주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그분의** 자비는 결코 다함이 없다. 수백 년의 세월이라도 그분의 동정심의 온정을 식히지는 못한다. 이로 인해 나의 시대에 하나님의 옛적 말씀을 읽는 것은 나에게 흥미진진한 일이 된다.

여호와는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삿 2:20-23과 3:1-4에서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사사들에게 청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삿 2:16-17), 그리고 사사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좇기를 계속한다면(삿 2:19),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비추어 여호와의 진노가 이러한 언약 파기자들에게 쏟아진다면(삿 2:20),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말을 예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예견과 달리,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들을 징계적 심판 아래 두셨다("시험하다"는 뜻의 [나싸]라는 동사가 세 번[삿 2:22; 3:1, 4] 사용된 것에 유의하라). 부과된 제한된 심판(더 이상 여호수아가 남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음)에서도 이스라엘은 확장된 기회 곧 "여호와의 도(삿 2:22)"가 여전히 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다. 여호와의 진노가 분명 심판을 쏟아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도 그것은 말하자면 스스로 재갈을 물며 징계를 가한다. 여기에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다. 여호와의 노하기를 더디 하심으로 인해 요나는 화를 냈지만(욘 4:12) 우리는 우리 안에 경이로움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들의 죄많음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은 바로 여호와의 자비 때문입니다(애 3:22)."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0]

---

[10] 나는 내가 다소 어려운 본문인 삿 2:20–3:4의 요점을 파악했다고 생각한다. 그레이(John Gray, *Joshua, Judges and Ruth,* The Century Bible – New Edition [Greenwood, S.C.: Attic, 1967], 258)는 시험하는 것(2:22)과 전쟁을 가르치는 것(3:2)의 목적이 그들의 신앙이 선포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느낀 신학적 당혹감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들은 이방 민족을 남겨 두신 일에 (적어도) 이중적인 하나님의 목적(2:22; 3:2)이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한다. 그러나 고스링가(C. J.

예측 불가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잘 보여주는 묘사가 이 다섯 절(삿 2:14-18)에 압축되어 있다. 믿는 백성이 이러한 본문, 이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보일 한 가지 유일하고 적절한 반응이 있다. 그것은 미가 선지자와 함께(미 7:18 이하) 엎드려 "당신님과 같은 신이 누가 있습니까?"라고 외치는 것이다.

iii. 우리의 죄에 대한 점증하는 예속성 (The Increasing Slavery of Our Sin)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점증하는 예속성에 대하여 경고한다. 여호와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실 수 있었다(삿 2:16).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사사들에게 청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좇으며 음행했다(삿 2:17)." 여호와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삿 2:18). 그러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좇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삿 2:19)."

사람들은 외적 강압에 얽매이지 않을 때 관찰하면 그들의 참된 성품이 발견된다. 초등학교 2학년의 한 학급을 관찰해 보라.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서 나가면 모든 가인 같은 아이들이 일어난다.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그들의 참된 성품을 드러낸다. 사사들이 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외부적인 의를 용인했다. 그러나 그 사사가 죽으므로 통제하던 자가 사라지면 그들은 우상 숭배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갔다. 하나님의 호의(삿 2:16, 18)조차도 이스라엘을 감동시켜 충성하거나 회개하도록 하지 못했다. 그들은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분명 벗어날 수 없었다(삿 2:19). 그들은 죄의 손아귀에 잡혀 있었고, 그들의 피 속에 바알을 갖고 있었다.

때때로 우리는 (사사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죄의 예속성, 곧 죄를 힘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것에는 신비가 있다.

열 살쯤 되었을 때가 기억난다. 우리는 펜실베니아 서부 작은 마을에 살았는데, 거기서 나의

Goslinga, *Joshua, Judges, Ruth*, Bible Student's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271-274)는 삿 3:2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실(2:22) 방식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쿤달(Arthur E. Cundall, *Judge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ondon: Tyndale, 1968], 70-71)은 이 유들이 많은 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다. 여담이지만 삿 3:3에 열거된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은 아마도 가나안 족속들을 제외하고 모두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고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유념하라. 이것은 여호수아의 정복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대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통제력을 제공했다는 또 하나의 암시이다. 삿 2:23–3:6의 통일성에 관하여는 Barry G. Webb, *The Book of the Judges: An Integrated Reading,* JSOT Supplement Series 46 (Sheffield: JSOT, 1987), 114-115을 보라.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였다. 갈브레이스라는 새 감리교 목사님이 우리 마을로 이사오셨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다정한 부부였고 우리 부모님과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숫기가 없어서 한두 번 갈레이스 사모님께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모님은 다음에 나를 볼 때 내가 말을 걸지 않으면 나에게 키스할 것이라고 놀려대며 위협했다. 그것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다! 당신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지금부터 그녀를 만나면 그저 그녀에게 말을 걸면 되는 것이니까."라고 말할지 모른다. 정말 그런가? 당신은 그러한 농담조의 위협이 사교적 마비 현상같은 것을 가져온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신비스럽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당신에게 키스하겠다."라고 위협하는 여인에게 결코 말을 걸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마을의 세 개 교회가 매주 주일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했을 때 나의 상황은 더 나빠졌다. 나는 갈브레이스 사모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예배 직후에 교회를 빠져나오곤 했다. 한번은 (저녁 예배 후에) 내가 우리 가족 차에 앉아 있을 때, 갈브레이스 사모님과 목사님이 우리 집쪽으로 걸어오고 계셨다. 사모님은 나에게 말을 걸기 위해 우리 차를 향해 오셨다. 나는 우리 차로부터 차가 다니는 도로 편으로 뛰어나왔고 하마터면 다가오는 자동차의 길로 들어설 뻔했다. 명백히 나는 내 삶의 (키스를 받는) 낭만적인 최후보다 (차에 치이는) 비극적인 최후를 선호했던 것이다.

지금도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왜 사모님께 말을 걸지 못했는지 그리고 자유롭지 못했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 그때 나는 사모님께 말을 **걸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나는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붙들려 있었다. 나는 그 위협의 붙잡는 힘에 속수무책이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였다(삿 2:19)." 왜 그들은 항상 그렇게 했는가? 왜 그들은 그 패턴을 깨뜨릴 수 없었는가? 그것은 불가사의하다. 그러나 사사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죄의 비극적인 폭정이라고 가르친다. 죄는 단순히 당신이 하거나 하지 않는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 죄는 당신이 하기로 혹은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죄는 그것의 장악력으로 당신을 붙잡는 힘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경건한 사람과 이교도적인 사람, 둘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롬 3:9) 주장할 때 그가 의미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바울이 말한 바 "죄 아래" 있다는 것은 RSV의 번역처럼 "죄의 힘 아래" 있다는 뜻이다. 교회가 죄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움직이는 종교적 제스처 이상의 것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어두움의 왕의 움켜쥔 손아귀를 비틀어 그의 백성을 꺼내시는 거룩하고 격심한 폭력의 행위로(참고, 요일

3:8)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죄의 포로이다. 이런 이유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아미]"이 아니라 "이 백성(삿 2:20, [하고이 하제])"이라고 부르셨다.[11]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 같지 않고 이방 백성 같았음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지 모른다. 삿 3:5-6이 요약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적인 속수무책을 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 가운데 살며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이방인들의 예배를 흉내냈다. 이 다음 세대의 쇠퇴는 전적인 쇠퇴였다. 삿 2:7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진술로부터 우리는 삿 3:6의 "그들[이스라엘]이 그들[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진술에 이르게 된다.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고 한 천사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지만 아직 죄의 포로일 수 있다.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아니시라면(엡 2:4 이하) 우리는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들"일 것이고(엡 2:3) 소망이 없는 자들일 것이다(엡 2:12).

---

[11] 역자 주: 출 32:7-14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서로 "네 백성"과 "당신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논쟁한다. 여호와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네(=모세의) 백성(7절, [암하/아머하])"과 "이 백성(9절, [하암 하제])"으로 부르며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신다. 그러나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이라도 그들을 계속 "주(당신님, 여호와)의 백성(11절, 12절 [아메하])"이라고 부르며 진노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여호와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그의, 여호와의)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참고로, 개역 개정의 출 32:12에 나오는 "자기의 백성"은 히브리어 원문의 대명사 "그들"을 풀어서 번역한 것이다. 자기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 혹은 "로암미(호 1:9)"라고 부르신 심정을 헤아리며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히 11:16)"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The Salvation of a Long-suffering God)

(사사기 3:7–16:31)

3. 구원의 패러다임 (삿 3:7-11 A Paradigm of Salvation)

여기서 우리는 사사기의 두 번째 주요 부분(삿 3:7–16:31)에 들어선다. 이 부분의 주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계속될 강해는 여러 개의 작은 단위로 본문을 나누어 살피기 때문에 이 중요한 주제가 흐려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머리 속에 사사기 3-16장의 주제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간명한 구조를 좋게 여길 것이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3:7–16:31
- 여호와의 구원의 패러다임, 3:7-11 (옷니엘)
- 여호와의 구원의 신남, 3:12–5:31 (에훗과 드보라)
- 여호와의 구원의 약함, 6:1–8:32 (기드온)
- 여호와의 구원의 거꾸러짐, 8:33–9:57 (아비멜렉)
- 여호와의 구원의 이상함, 10:1–16:31 (입다와 삼손)

이 개요를 통해 독자는 많은 양의 세부 사항을 간결하게 한데 모아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옷니엘이란 사람은 어떤가?

최근에 한 친구는 내가 그와 주사위 놀이를 해 주길 원했다. 나는 그 놀이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고 (그 즈음에도 거의 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절차는 놀이의 기본 원리를 설명한 후 바로 놀이에 들어가 첫 번째 게임을 본보기 게임 삼아 해 보는 것이다. 이것은 해당 놀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놀이가 진행되는지 파악하게 하는 일종의 선구적인 노력이다. 삿 3:7-11은 이와 비슷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삿 3:7-11은 삿 2:11-23에 묘사된 과정의 최초의 예이고 사사들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패러다임이다.[1] 삿 3:7-11은 최소한의 세부사항을 가지고 삿 2:11-23(혹은 2:11-3:6)의 신학적 뼈대에 약간의 역사적인 살을 부여한다. 이제 이 본보기 단락을 살펴보자.

I. 이스라엘의 배신과 여호와의 진노 (Israel's Infidelity and Yahweh's Wrath)

첫째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여호와의 진노를 만난다(삿 3:7-8).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팔 년 동안 섬겼다(삿

[1] 리히터(W. Richter, *Die Bearbeitungen des 'Retterbuches' in der Deuteronomischen Epoche*, Bonner Biblische Beiträ 21 [Bonn: Peter Hanstein, 1964], 90-91)는 옷니엘 부분을 "본보기 단락"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리히터의 모든 비평주의적 재구성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이 용어와 개념을 용납할 수 있다.

3:8)." 이것은 우리가 삿 2:13-14에 비추어 예상했던 바이다.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삿 3:7)."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구산-리사다임을 섬겼다(삿 3:8)."[2] 이 순서는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의 이글거리는 열기로부터 비롯된다. 우리가 사건들이 다양한 관찰 가능한 원인들과 조건들과 요인들로부터 일어난 것으로 묘사하는 세속적이고 비계시적인 역사에 너무 익숙하고, 또 역설적으로 성경의 역사 기록에 너무 익숙하므로, 우리는 성경적(예언적) 역사가 얼마나 이상한지 인식하지 못한다. 길들여진 자연적 과정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초자연적 진노가 이스라엘의 노예 상태를 설명해 준다. 여호와는 역사를 만드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개역, 시 90:11)?"

그러나 여기 여호와의 분노에서조차도 이스라엘을 위한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분노는 이스라엘이 간섭 받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분의 백성이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기를 거절하시는 그분의 질투하는 사랑의 열기이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죄 가운데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구산-리사다임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들리지 않을지 모른다. 맞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알에 대한 정열을 상실하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수 있다. 우리는 여호와의 분노가 좋은 소식도 아니고 나쁜 소식도 아니라 좋은

---

[2] 본문(삿 3:8, 10)은 구산-리사다임이 동부 시리아/북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의 북동부까지 있는 아람-나하라임 출신이라고 한다. 아람-나하라임(밧단 아람)은 원래 동쪽으로 하부르 강과 서쪽으로 갈그미스를 지나며 흐르는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었다(Kenneth A. Kitchen, 'Aram, Aramaeans,' *IBD*, 1:89-91을 보라). 어떤 학자들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압제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아람"이 아니라 "에돔"으로 고쳐 읽는다(JB, and John Gray, *Joshua, Judges and Ruth*, The Century Bible – New Edition [Greenwood, S.C.: Attic, 1967], 214, 261을 보라). 히브리어에서 "아람(ארם)"과 "에돔(אדם)"은 자음상으로 한 자음만 차이가 있고 이 차이 나는 두 자음(각각 영어의 r과 d에 해당하는 ר[레시]와 ד[달렛])은 쉽게 혼동되므로 이 본문 정정은 그 자체로는 그럴듯하다. (이 두 자음의 혼동을 보여주는 삼하 8:13의 경우 맛소라 본문의 [아람]을 따라 NASB는 "Arameans 아람 사람들"로, KJV는 "Syrians 아람/수리아 사람들"로 번역하고 있지만, [에돔]으로 읽는 소수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과 페시타역을 따라 ESV/NIV/HCSB 등은 "Edomites 에돔 사람들"로 번역하고 있음을 보라. 대상 18:12에 [에돔]이 나오는 것을 참고하라.) 그러나 삿 3:8절에서 "아람"에 "나하라임"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여기서 "에돔"과 "아람"이 단순히 혼동되었을 가능성을 줄여준다. 본문을 "에돔"으로 고쳐 읽는 사람들은 "나하라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후대에 덧붙인 해설로)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나의 책에서 설명들의 복잡성이 증가하면 그것들의 불개연성 또한 증가한다. 더욱이 삿 3:8에는 어떤 다른 본문상의 변이에 대한 손톱만큼의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나쁜 소식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을 그분의 백성과 묶으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충성하면서도 편안해지도록 허락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변함없는 사랑"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분의 백성을 추적하고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 고통을 가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불타는 분노는 분명 즐거운 경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일한 소망의 표시일 수 있다. 비록 그들이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II.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여호와의 구원자 (Israel's Cry and Yahweh's Savior)

둘째로, 우리는 삿 3:9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여호와의 구원자에 대하여 듣는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히브리어 동사 [자아크])"는 것은 무슨 뜻인가? 모든 종류의 서론책들과 주석책들이 자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회개나 회심을 내포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많이 언급되는 사사기의 주기는 배교—압제—회개—구원이다. 그러나 [자아크]라는 동사가 반드시 회개를 포함하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한 연구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 [자아크]의 용례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심한 고통으로부터 혹은 어떤 견디기 힘든 상황 때문에 (자주 여호와를 향해)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때로 그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하지 않고 단지 고뇌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 이러한 일반화는 [자아크]의 60회 (이상)의 용례들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이) 결론에 대한 가능한 예외는 거의 없고 면밀히 조사해 보면 실제라기보다 겉보기뿐인 것으로 판명된다. [자아크]가 죄의 회개나 고백과 연관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삿 10:10; 삼상 12:10; 느 9:28) 그런 회개나 고백은 어떤 추가적인 절이나 두 번째 동사에 의해 분명하게 표현된다. 이것은 [자아크]란 동사 자체로는 회개의 개념을 전달할 수 없고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아크]가 회개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구절들(사 30:19; 호 7:14; 시 107:13, 19)이 있지만 각각의 경우에 강조점은 뉘우침의 기미에 있지 않고 괴로움의 상태에 있다.[3]

---

[3] "A Proposed Life-Setting for the Book of Judges"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1978), 146-147.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도움에 대한 호소로 [자아크]를 보는 비슷한 견해를 위해 Frederick E.

이것은 중요한 결론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을" 때 그분이 이스라엘 자손 편의 어떤 회개에 대하여 반응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4] 어느 편인가 하면 그분은 그들의 슬픔보다는 불행에, 그들의 참회보다는 고통에, 반응하고 계셨다. 그렇다면 누가 그분의 백성, 아니 그분의 죄 많은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연민의 심연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누가 그들의 타락보다 그들의 고통으로 인해 마음이 움직이시는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의 깊이를 잴 수 있겠는가? 정말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는 분(삿 10:16 NJB/새번역)"이셨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순전히 전적으로 은혜가 아닌가!

우리의 주된 문제점은 삿 3:9이 우리를 하품만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미 삿 3:9의 신학적 진리를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일을 전에 자주 읽은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 좋게 고개를 끄떡이며 하품(아아) 소리로 반응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닌가? 저녁으로 무얼 먹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성품으로 인한 기적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런 믿기지 않는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방인이 아니겠는가?

Greenspahn, 'The Theology of the Framework of Judges,' *Vetus Testamentum* 36 (1986): 391-395과 M. Weinfield, 'The Period of the Conquest and of the Judges as Seen by the Earlier and the Later Sources,' *Vetus Testamentum* 17 (1967): 106-107을 보라. 맨처음으로 [자아크]가 나오는 출 2:23은 [자아크]의 의미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제공한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고통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죄의 인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느 9:4은 예외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회개의 부르짖음만큼이나 찬양의 부르짖음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느 9:4은 9:1-3에 비추어 보는 것보다 9:5에 비추어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느 9:1-5] 1 그 달 스무 나흗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3 이 날에 낮 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4**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뱌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5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뱌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4] 이 상황은 삿 2:11-23의 개관의 경우와 동일하다. 거기서(삿 2:16) 여호와는 이스라엘 편의 어떤 회개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들을 세우셨다. 어떤 이들은 삿 2:11-23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상관없이 구원하셨다고 주장하며, 그러므로 개관과 이야기들의 구조가 서로 다른 저자로부터 나온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예를 들어 M.G. Rogers, 'Judges, Book of,' *IDB/S*, 509을 보라). 그러나 동사 [자아크]에 대한 바른 견해는 이런 입장을 넘어뜨린다.

III. 이스라엘의 압제자와 여호와의 능력 (Israel's Oppressor and Yahweh's Power)

셋째로, 사사기 3장 10절은 이스라엘의 압제자와 여호와의 능력을 나란히 놓고 있다. 주된 강조는 옷니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을 통한 그분의 능력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8절에 나오는 구산-리사다임에 대하여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이제 그에게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보자.

아무도 구산-리사다임이란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 이름의 히브리 본문상의 철자는 "두 배로 사악한 구산"을 뜻한다. 거기에 우리는 그 신비를 남겨두어야 할 지 모른다. 그러나 전에 제시한 적이 있는 하나의 제안을 밀고 나아가보자. 저자(혹은 후대 서기관)가 구산-누구누구에 대하여 비꼴 의도를 가지고 이 압제자의 이름의 철자를 "구산-두 배로 사악한"으로 고쳤을지도 모른다. 사사기 3장 8절에서 저자가 그를 "[쿠샨 리시아타임 멜레흐 아람 나하라임] 구산-리사다임, 아람-나하라임의 왕"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언어 유희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 [리시**아타임**]과 [나**하라임**] 사이에 유운과(/혹은) 각운을 들을 수 있다. 두 개의 강을 끼고 있는 아람으로부터 온 두 배로 사악한 왕! 이러한 종류의 신랄한 비평은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백성이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은 상당 기간 압제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들 나름대로 압제자를 경멸하는 이름들을 만들 수 있었다. "두 개의 강으로부터 유래한 두 배의 악"은 나쁘지 않은 언어유희이다. 그것이 단조로운 이야기가 될 이유는 없다. "두 배로 사악한 구산"이 구산-누구누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혹평(욕지거리)이라면 성경 기록에서 그를 그렇게 부르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당신은 당신이 그분의 백성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머를 빼앗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사기 3장 10절은 여호와의 능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옷니엘에게 능력을 주고 그를 준비시키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시다.[5] 아람-나하라임(메소포다미아)의 왕 구산-리사다임을 옷니엘의 손에 넘겨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이시다. 참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던(삿 3:9)" 분은 여호와이셨다. 놓칠 수 없는 교훈은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만 온다(욘 2:9)"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것은 삿 3:8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말하는 반면 삿 3:10은 "여호와께서 구산-리사다임을 옷니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

[5] 하나님의 영에 관한 구약의 가르침에 대하여 매우 도움이 되는 논술을 위해 B. B. Warfield,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ed. Samuel G. Craig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52), 127-156을 보라.

확언한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주님으로서 여호와의 모습, 곧 여호와의 역사 진행의 방식에 대한 축소판 그림을 볼 수 있다. 여호와는 그분의 친백성이 불충할 때 그분의 진노의 도구를 일으켜 그들을 낮추셨다. 그러나 그 도구가 분수를 모르는 때, 곧 그 도구가 스스로 속아서 자신이 대왕의 약한 봉신이라기보다는 종주로 착각하는 때가 온다. 그때 여호와는 도구이기를 거부하는 그 도구의 콧대를 꺾으셔야만 했다.

이런 패턴의 아주 좋은 예가 예레미야 27장에 나온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에서 온 사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와 회담을 하였다. 물론 그것은 단지 경제 정상 회담으로 선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된 경제 문제라는 것이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항하는 반란에 가담할 것인가에 대한 일임을 눈치챌 수 있었다. 박하 술과 사교상의 언사들과 감언이설과 책략으로 가득찬 친밀한 오후 회담들 중 하나를 마치고, 여러 사신들이 미소짓는 시드기야와 함께 궁전의 계단 위에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눈을 쫑긋 세우고 모여든 기자들과 말하며 주요 방송사들에 의해 던져지는 어떤 질문들에도 알쏭달쏭하게, 거슬르지 않게, 엄숙하게 대답하려고 했다. 그때—아아 슬프게도—예레미야가 그의 목에 우스꽝스러운 멍에들을 메고 터벅터벅 걸어 올라왔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이 이상한 존재는 그 충격적인 침묵 속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다.

> (렘 27:5-7 개역개정) 5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6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7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기에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이 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 그리고/혹은 다른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한 왕 혹은 한 나라를 일으키실 수 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자기 오만과 강압으로 인해 콧대가 꺾어져야만 하는 때 "그 땅의 기한이 이르게 된다."

그것이 구산-리사다임인지, 앗수르(사 10:5-34)인지, 바벨론(렘 27, 50, 51장; 합 2장)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 있다.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역사 가운데 주도권을 쥘 수 없다. 만일 그가 부여받은 주도권을 가지고 거드름을 피며 걷는다면 머지 않아 "그 땅의 기한이" 이르게 될 것이다. 여기 구산-리사다임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거물급 인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동일한 진리에 대한 증인이다. "나의 때(시 31:15)"뿐만

아니라 역사의 때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진리에 의해 위로를 받는다.[6]

IV. 이스라엘의 기회와 여호와의 선물 (Israel's Opportunity and Yahweh's Gift)

마지막으로, 삿 3:11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기회와 여호와의 선물을 보여준다. "그 땅이 평온한지 사십 년에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 죽었더라." 평온은 의심할 여지없이 전쟁이 그친 것이고(수 11:23) 그러므로 공격이나 압제나 고통이 없는 것이다.[7] 여기에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분의 친백성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지운다. 이것은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겠는가(롬 2:4)?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엄중하심만큼이나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일깨우려고 하시지 않는가?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파셨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한 세대의 안전 보장을 주셨든지, 둘 모두 그들을 회개와 충성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평온(안식, 태평)은 여호와께 계속 충성할 때만 즐길 수 있는 기회였다. 이스라엘은 단지 그것과 함께 빈둥빈둥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머딩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불가사의한 삼갈을 포함한 처음 다섯 명의 사사들은 모두 그 땅이 갈등없이 평온을 정기적으로

---

[6] 삿 3:10은 옷니엘이 "judged Israel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한다. 히브리어 동사 [샤파트]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나는 [샤파트]의 전통적인 번역(to judge)을 따랐다. 만일 (이 본문에서) ("그가 싸우러 나갔다."라는) 다음 절이 [샤파트]의 의미를 구체화시킨다면, 옷니엘이 사사가 된 것(Othniel's judging)은 이스라엘을 위한 정의를 확보하는 것과 압제자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론 부분(삿 2:16-19)은 사사들([쇼페팀])이 압제자들로부터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붙어 있도록 영적 지도력 혹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후에 사무엘이 했던 것과 흡사하다. (삼상 7:6과 12:7에 [샤파트]가 사용되었다. 후자는 "—와 판결에 들어간다[enter into judgment with]"라고 번역될 수 있다. RSV는 "너와 변론한다[plead with you]"라고 번역한다.) 삼손(삿 15:20; 16:31)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역할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 어쨌든 영어의 "재판하다(to judge)"는 우리 마음에 너무 협소한 함의만을 드러내지만, 성경의 용례와 마리, 우가릿, 에블라 문헌의 배경에 비추어 보면 히브리어 [샤파트]는 보다 일반적인 개념 즉 다스리다(to rule), 지배하다(to govern), 인도하다(to lead)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 문헌들을 참고하라. R. D. Culver, 'Shaphat,' *TWOT*, 2:947-948; D. J. Wiseman, 'Abraham in History and Tradition – Part II: Abraham the Prince,' *Bibliotheca Sacra* 134 (1977): 233-235; F. C. Fensham, 'Judges, Book of,' *ISBE* (rev. ed.), 2:1156-1157.

[7]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H. J. Austel, 'Shaqat,' *TWOT*, 2:953을 보라.

즐기던 시기를 대표한다(삿 3:11, 30; 5:31; 8:28을 보라). 이와 대조적으로 그 이후 시기는 좀 비정통적인 구원자인 입다와 삼손과 함께 소사사들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이 시기에는 그 땅이 "평온하였다"는 말이 없고 도덕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쇠퇴가 점점 더 증대되다가 결국 에필로그(삿 17-21장)에 있는 최악의 부끄러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교훈은 분명하다.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점점 더 약해져서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8]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안식)은 그분의 백성의 충성의 불변성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짚고 넘어갈 사항이 하나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이 안식을 하늘의 안식으로 영해하지 말아야 한다. 안식을 누린 것은 **그 땅**이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여기 본문의 현실성을 고수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이 시점에서 하늘로 날아갈 필요가 없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딤전 2:2)"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 나라에서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지켜줄 수 있는 통치자들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양떼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다. 당신의 땅이 상대적인 평온을 누린다면 당신은 그것을 당신에게 허락하신 자비로우신 대왕께 감사해야 한다.

옷니엘의 에피소드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어는 여기에 "공백"이 있다고 불평했다.[9] 당연하다. 기본적으로 삿 3:7-11은 빈 칸을 채운 것 같다. 마치 저자가 삿 2:11-23에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준 후에 삿 3:7-11에서 구체적인 이름들과 장소들과 숫자들을 밝히며 마치 빈 칸을 채운 것처럼 말이다. 여기에는 단지 필수적인 사항들만 있고 그것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일에 관한 것들이다. 옷니엘의 문제는 그에게 아무런 색채가 없다는 것이다. 옷니엘에 관하여는 어떤 번득임이나 어떤 활기가 없다. 그에게는 (에훗처럼) 왼손잡이로서 칼을 만든 것에 관한 것도 없고, 야엘처럼 (가만히 가서 큰 망치를 가져오라)는 멋진 모토도 없다. 십중팔구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처음 에피소드를 정확하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남긴 문체로 갖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가장 필수적인 것 곧 여호와의 행위를 명확히 보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때때로 흥미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흐리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이 매혹적인 사람들을 보는 것으로 그치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결코 보지 못할 수도 있다.

---

[8] Carl Armerding, 'Judges,' *The New Layman's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79), 345.

[9] George F. Moor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Judges*, The International Commentary (Edinburgh: T. and T. Clark, 1895), 84.

4. 우리는 왼손잡이 구원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삿 3:12-30 What Shall We Do with a Left–handed Savior?)

이제 사사기의 이 부분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어떤 이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이 단락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단락이다.) 한 강해자는 에훗 내러티브에 대한 유감을 이렇게 표명했다. "가장 기본적인 윤리 기준에 의해서도 에훗이 에글론을 속이고 죽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성경 독자가 이런 단락들을 만나면 경악하고 의문을 갖기 마련이다."[1]

나는 이 강해자의 넋두리에 합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은 문제가 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여기서 우리는 명백하게 시청 금지(R) 등급에 속하는 구약 부분들 중의 하나를 만나 약간 당황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판사가 되기 전에 위선을 조심하라. (약간 농담조로 하는 말이지만)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이 토요일 아침 폭력이 난무하는 텔레비젼 만화들을 실컷 보도록 허락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들 중 많은 사람은 훨씬 더 나쁜 상연물을 허락하며 그것에 대하여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당신은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분의 거룩하고 영감되고 불오하고 무오한 책으로부터 이와 같이 피 비린내 나는 끔찍한 것보다 더 높은 표준을 기대할 것이다. 틀림없이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의 초등부 주일 학교 자료에 들어오게 하지만, 에훗, 곧 베냐민 지파 출신 왼손잡이 이야기는 결코 들어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당혹스러운 구약을 다루는 방법을 갖고 있다. 그들의 해결책은 그러한 구약 내러티브들이 그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에훗의 칼은 (에베소 6장 식으로) "성령의 검"이고, (히브리서 4장 식으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나는 모압 왕 에글론이 그런 식으로 요점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는 에훗의 칼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었으면 하고 바랐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본문을 풍유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도덕화하려고 한다. 특히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어떤 교훈들을 찾으면서 말이다. 이러한 도덕화의 결과에 대한 예를 든다면, 에훗은 복수심에 불타고 증오에 가득차 있는 것처럼 보이니 그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아니면 삿 3:19 하반절을 본문으로 삼고 "혼자 있는 것의 위험"에 관한 설교를 하며 당신은 (에글론이 신자라도 되는 것처럼) 기독교인으로서 서로 붙들어 주며 친밀하게 사귀는 것이 각각의 신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웅변적으로 말할지 모른다. 교훈들을 찾다 보면 이상한 후보들이 떠오르게 된다. 예를 들면 "칼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 혹은 "왼손잡이들이 더 성공적인 암살자가 된다."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일반적으로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하다(딤후 3:16)고 매우 강조하기

---

[1] Phillip P. Elliott, 'The Book of Judges: Exposition,' *IB*, 2:708, 711.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참은 아니라고 넌지시 말하거나 성경의 일부의 권위를 부인하면 우리는 매우 화가 난다. 우리는 속으로 외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권위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의 권위입니다."라고. 그런데 성서의 모든 권위를 굳게 붙든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그 권위를 부정하는 우리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것의 상당 부분, 특히 우리의 계몽된 감성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구약의 성가신 부분을 무시해 버린다. 우리는 (마가 복음이나 갈라디아서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마가 복음의 예수님이나 갈라디아서의 바울을 주십시오. 그러나 사사기의 에훗은 주지 마십시오."라고 마음 속으로 말한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이토록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왼손잡이 구원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I. 이야기의 주제 (The Theme of the Story)

첫째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제 곧 이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당신은 삿 3:15에서 주제를 발견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삿 3:28도 보라.) 여기서 당신은 검안의의 시력표에 있는 커다란 E[이]처럼 그것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 작은 아슬아슬한 에피소드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더구나 받아 마땅한 고난)을 받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것은 왼손잡이 에훗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신 것을 말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삿 3:15)." 당신은 듣고 있는가? 저자는 살인자나 암살자나 거짓말장이나 사기꾼이 아니라 **구원자**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께서는 왜 에훗과 같은 인물과 어울리시는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라!"는 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문제들이 아니라 그분이 가져오신 구원을 보아야 한다.

적절한 초점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챨스 슐츠의 피너츠(Peanuts)라는 만화들 중의 하나에서 리누스가 땅콩 잼과 젤리를 바른 샌드위치를 아작 아작 먹고 있다. 그는 그의 손을 보며 이렇게 외친다. "손은 매혹적인 것이다! 난 내 손이 좋아. 난 멋진 손이 있어. . . 내 손은 많은 특징을 갖고 있어." 이 때 루시가 등장하는데 리누스는 계속해서 말한다. "이것은 장래에 놀라운 일을 할 손이다! 그것은 견고한 다리를 짓거나, 환자를 고치거나, 홈런을 치거나, 영혼을 감동시키는 소설을 쓸 수 있을 거야." 그는 점점 크게 루시의 면전에서 외친다. "이것은 장래에 운명의 길을 바꿀 손이다!" 루시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며 사실적으로 말한다. "네 손에는 젤리가 묻어 있어."

나는 에훗 이야기에 당신이 갖는 어떤 문제점도 없다고 주장하는g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감탄 부호들을 동원해서 큰 소리로 당신의 귀에 "내가 너의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 때 당신이 성경의

이 부분에 젤리가 묻어 있다고 훌쩍거리며 돌아다닌다면, 당신은 전체의 요점을 놓치고 말 것이다. 바로 지금 당신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이 들어야 할 바로 그 좋은 소식이 아닌가? 당신은 당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이 고통—당신의 죄의 결과이든 아니든—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을 실제로 들으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시다!

II. 이야기의 전개 (The Telling of the Story)

에훗 이야기의 주제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삿 3:15b-26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며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잠깐 동안 당신은 손을 뻗어 당신의 20세기 플로샤임, 내추럴라이저, 리복, 혹은 나이키 신발을 벗고 이스라엘 사람이 신던 샌들을 신어야 한다. 한 이스라엘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혹은 말했을) 때처럼 당신이 그것을 들으려고 해 보라. 비둔한 왕 에글론 아래서 18년 동안(삿 3:14) 압제를 받으며 철저히 공물을 바쳐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지속적인 가난 속에서 살며 에브라임의 산골 마을에서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는 이스라엘 사람을 회상해 보라. 당신이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 내러티브의 순전한 즐거움, 통렬한 유머, 신랄한 풍자, 완전한 기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주석들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다. 내가 참고한 여덟 혹은 아홉 권의 주석들 중 어느 하나도 그 농담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다.

세부 사항들을 보라. 에훗은 여리고에 있는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의 공물(아마도 많은 농산품)을 바치려고 가는 대표단의 우두머리였다(삿 3:15 b). 에훗은 아마도 15 내지 18 인치 되는 칼을 만들어 왼손잡이가 하듯이(삿 3:15a)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삿 3:16). 아마도 에글론의 호위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아, 심지어 그 때에도)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쪽에 돌출된 것이 있는지 살폈을 것이다.[2] 이제 저자는 에글론이 "매우 비둔한 자였다(삿 3:17b)."라는 삽입적 암시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당신을 준비시킨다. 이스라엘이 공물을 바친 후 한 결정적인 기회에 에훗은 돌아와서 왕께 드릴 비밀 전언이 있다고 말했다(삿 3:19a). 어리석게도 에글론은 그의 모든 신하들을 물러가게 했고(당신은 이스라엘인들이 킬킬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에훗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삿 3:19b-20a). 에훗은 다시 한 번 자신이 에글론에게 아뢸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미신적인 적절한

---

[2] 허큐스(John Hercus, *God Is God*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71], 31)는 사사기에 대한 그의 짜릿한 다시 말하기에서 에훗의 왼손잡이인 것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삶에서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하는 문제조차도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라고 설명한다. 에훗의 칼에 대하여 쿤달(Arthur E. Cundall, *Judge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ondon: Tyndale, 1968], 76)은 말한다. "칼자루도 날을 따라 에글론의 몸 속으로 들어가 그 칼의 끝이 등 뒤까지 쉽게 나간 것은(삿 3:22) 그것은 가로장이 없었고 그래서 길게 늘어진 겉옷 속에 더 쉽게 숨겨질 수 있었음을 암시한다."

존경을 표하며 에글론은 그의 좌석에서 힘겹게 일어난다(삿 3: 20b; 매우 비둔한 자가 일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을 그려보라!). 그리고 삿 3:21 이하에서 어떻게 내러티브의 묘사가 느리게 진행되며 가능한 모든 선명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 모든 움직임을 눈에 띄게 하는지 유의하라.

> (삿 3:21-23) 21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22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23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3]

우리는 삿 3:24-25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풍자를 볼 수 있다. 에훗은 이미 도망을 쳤고, 앞서 물러났었던 에글론의 신하들은 돌아왔다.

> 그런데 그들이 **보니 왠걸** 다락문들이 잠겨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틀림없이 왕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고[4] 계신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차츰 걱정스러워질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려 **보아도 여전히** 왕은 다락문들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열쇠를 가져다가 문들을 열었는데 **보니까**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어 있었다.

위의 번역에 볼드체로 표시된 세 부분에 히브리어 불변화사 [히네]가 나온다. 전통적으로 영어 번역들은 대개 "보라!"라고 번역하지만 이 단어의 뉘앙스를 전부 담아내지는 못한다. 대체로 이 단어는 적어도 약간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불변화사이다. 나는 세 번 사용된 [히네]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서로 다른 영어 단어들을 사용하며 이탤릭체로 표시했다.[5]

붉은 피가 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틀림없이 이 일련의 놀라운 일들을 재미있어 할 것이다. 에글론 왕의 신하들은 왕이 용변을 본다고 생각하여 빈둥빈둥 시간만 보내며 왕이 왜 이렇게 오래도록 일을 보는지 궁금해하며 왔다갔다 했다. 그러는 사이 에훗은 멋진 탈출을 하고 있었다. 그 후 그들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들을 열었을 때 바닥에 거대한 사람이 엎드러져 있었다.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의 안경을 끼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읽는다면 틀림없이 당신은 풍자와 유머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피소드를 말하거나 들었을 방식을 고려하면 우리는 그들이 이 이야기에 조금도

---

[3] 삿 3:22의 끝 부분과 삿 3:23의 첫 부분은 두 개의 매우 희귀한 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 두 히브리어 단어들은 [방향의 헤/장소의 헤라 불리는] 장소를 나타내는 어미를 갖고 있다. 여기서 나는 저자의 의도적인 언어 유희 같은 것을 본다. "칼은 사타구니(서혜부 鼠蹊部)로 나왔고 에훗은 현관으로 나왔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4] (화장실이란 단어가 완곡한 표현이듯이) 이것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완곡 표현이다.

[5] 역자 주: 데이비스의 삿 3:24-25의 번역: "and they looked – *why*, the doors of the upper chamber were locked! So they said, 'He's surely covering his feet in the bathroom.' So they waited to the point of shame and *still* he was not opening the doors of the upper chamber. Then they took the key and opened them and – *there he was!* – their master was fallen to the ground – dead!"

당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즐겼을 것이다. 그래서 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는 유머의 형식으로 (혹은 번득이는 유머로) 그것을 썼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려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첫째로, (에글론과 같은 대단히 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으로 슬픔 뒤에 웃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의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분의 재미있는 방식들에 대해 미소지을 수 있도록 하신다. 셋째로, 하나님의 방식이 따분하고 지루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아는 백성은 신남에 있어서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사실상, 이야기가 전달되는 익살스러운 방식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즐기는 방식이다. 내러티브 자체가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의 한 형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가상적인 반대자에게로 돌아가보자. 그는 여전히 이 유머가 조잡하고 이 내러티브가 그의 성경의 예쁘고 하얀 페이지를 더럽히고 있다고 느낀다. 그는 여기서 실용적인 용도를 보지 못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하여 몹시 화가 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 내러티브를 음미하고 기뻐하는 정확한 이유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혼란 가운데서 홀로 멀리 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독자들에겐 지금의 삶이 사사 시대의 거칠고 통제할 수 없는 격동의 날과 같다는 것이 사실 아닌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는 아마도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와 우둔함 때문에 삶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는가? 여호와는 그와 같은 시대와 접촉을 유지하시는가? 그때 그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그분의 백성 가까이로 가져오시는가?

모든 아버지는 아마도 그의 어린 아들이나 딸과 함께 처음으로 단둘이 남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나는 내 아내가 우리의 어린 아들의 더러운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을 보았고 도와주기도 했다. 어느 날 내가 그 녀석을 나 혼자서 돌보고 있는데 그가 기저귀를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여행할 때와 같은 특별한 때만 일회용 종이 기저귀를 사용했고, 집에서는 천 기저귀를 사용했다. 더러워진 천 기저귀는 화장실 변기 속에 넣고 반복적으로 잠기게 하며 헹군 후 비틀어 짠 뒤에 기저귀 통에 넣고 완전히 깨끗해지기를 기다린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은 잠기게 하고 헹구는 것이었다. 내가 내 자신으로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이상하게도 필요는 망설임을 물리친다.)

그런데 그것이 이 단락의 영광이다. 이 단락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처해 있는 삶의 더럽고 곤란한 일들을 다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여기 우리들 중 어떤 이들은 우리가 망쳐 놓은 가족 상황에 있고, 어떤 이들은 정신적인 충격에 빠져있고, 어떤 이들은 슬픔과 비탄에 빠져있거나 유혹의 손아귀에 걸려 있다. 삶은 뒤틀린 옷걸이들과 끊어진 문 손잡이들의 덩어리인 것 같다. 이 본문의 영광은 그것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주의 아주 먼 외진 곳의 어딘가에 하얀 장갑을 끼고 떨어져 계시면서 우리 삶의 움푹 들어간 곳에서 그분의 강한 오른 팔을 더럽히길 주저하시는 분이 아님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외딴 곳에 물러서 계시며 당신이 그분보다 먼저 당신의 인생 일에 클로락스를 붓거나 라이졸을

뿌리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그것을 한데 모아 잘 처리할 수 있든 없든,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난장판 속에서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다시 웃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시 30:5).

III. 이야기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Story)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야기의 비극, 곧 그것이 왜 슬픈지를 주목해야 한다. 분명 에훗은 무사히 빠져나와서 군대를 소집하고 요단강 나루를 통제하고 (모압 군대의 퇴로를 차단하고) 모압의 정예 부대를 격파하였다(삿 3: 26-30a). 그러나 이 이야기는 결국에 슬픈 이야기가 된다. 왜냐하면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삿 4:1; 이것은 사사기 전체에 걸쳐 나오는 후렴의 일종이다. 3:12; 10:6; 13:1을 보라.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어 표현이 "다시 악을 행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계속 악을 행하다"는 뜻인지는 여기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유감스럽게도 에훗은 완전히 적절한 구원자가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에훗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가져오셨지만 에훗이 했던 어떤 일도 이스라엘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살아 있는 동안 어느 정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삿 4:1; cf. 2:17, 19) 이스라엘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그들의 마음에서 우상들을 뽑아낼 수 없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비극 곧 죄에 종노릇하는 것("다시 악을 행했다")이 있고, 외국 왕들의 용기를 꺾어버린 왼손잡이 구원자도 죄의 속박에서 당신을 해방시킬 수는 없다. 정말로 속수무책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죄 아래" 있다고 부른 것이다(롬 3:9). "죄들"이 아니라 "죄"인 것에 유의하라. 죄는 단지 혹은 일차적으로 행위가 아니라 힘이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쇠사슬에 묶여 그 손아귀에 붙들려 있다는 뜻이다(앞서 말한 삿 2:19의 강해 부분을 보라).

두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실 때, 아버지는 내가 자전거에 올라탈 때 붙들고 계시다가 내가 잘 가며 균형을 유지할 때까지 밀어주셨다. 나는 자전거에서 떨어질 때까지 탔다. 나에게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다. 나는 회전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손잡이를 돌릴 수 없었다. 회전에 대한 지식이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회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다. 어느 수요일 저녁 아버지는 시내로 통하는 차도와 직각인 우리 진입로에서 나를 출발시키고 싶으셨다. 나는 우리 진입로 끝에서 회전하여 보도로 내려가지 못할까 봐 반대했다. 나는 보도에서 출발하고 싶었다. 그러나 부모들이 때때로 그들 아이의 두려움을 염두에 두지 않는 조심스러운 수완을 가지시고 아버지는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게 하셨다. 나는 큰 소나무를 지나고, 보도로 회전하는 곳을 지나서, 진입로 끝까지 내려가 시내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51 플리머스의 뒷벽에 직통으로 부딪히고 말았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틀어 보도로 내려가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었다. 나는 속박되어 있었다. 나는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조차도 할 수 없었다.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비합리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실제였다. 죄의 속박도 이와 같다.

일부 교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예, 그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시 이스라엘 우상 숭배자의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모두는 할례를 받았고 정식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나 죄에 완전히 얽매여 있었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리 교육을 받고 장로교 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는 여전히 죄의 노예이다. 침례교 교인이든, 감리교 교인이든, 기타 어느 교파 교인이든, 모두 똑같이 죄의 노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계 1:5)" 분에 대하여 듣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실제로 속박하는 것은 모압인들도 아니고 살찐 왕들도 아니고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억압도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왼손잡이 구원자도 우리의 독재자(곧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다. 그러나 해방시킬 수 있고 해방시키는, 손에 못자국이 있는 한 분이 계신다. 우리 이야기에서 유일한 비극은 이러한 구원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도와 달라고 부르짖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 한 구세주 곧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5. 한 구원에 대한 속보 (삿 3:31 A Salvation Break)

삿 3:31의 삼갈에 대한 기록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정규 프로그램들 사이에 전하는 뉴스 속보와 거의 비슷하다. 저자는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삼갈을 가장 간결하게 슬쩍 집어넣고 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구원에 대한 속보를 갖고 있는 셈이다.

최근 학자들이 삼갈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왔을지라도 그의 이름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아주 잘 알려진 이름이 아니다. (글쎄, 당신의 삶이 한 문으로 줄여진다면 누가 당신에 관하여 알겠는가?) 삼갈은 교회 시대에 간과되어 왔고 그래서 잊혀 질 운명에 처해 있다. 어쨌든, 누가 성 삼갈과 모든 사자(使者)의 날에 대하여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이제 당신은 우리가 삼갈과 함께 오래 있지는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갈에 대하여 여기서 오직 한 절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삼갈은 삿 5:6에 한 번 더 언급되어 있다.) 당신은 어디서 삼갈에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한 책을 본 적이 있는가? 장 전체가 삼갈만을 따로 다룬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에훗에 대해 집중하는 가운데 각주 하나로만 처리하지 않고 삼갈을 별도로 다룬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 책은 삼갈에 대한—그리고 삼갈을 위한—본 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부당함을 바로잡으려고 한다.

삼갈은 학계에 복수라도 하듯이 우리에게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들을 남겨 놓았다.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가 아니었는가?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인이 아닌 것 같다. 어떤 이들은 누지 문서들에 삼갈이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가 후리안족이라고 말한다. "아낫의 아들"은 가나안 여신 아낫의 "아들(숭배자)"이란 뜻인가 아니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벧 아낫(수 19:38; 삿 1:33 [벧 아낫] Beth-anath)의 주민이란 뜻인가? 아니면 유다에 속한 벧 아낫(cf. 수 15:59 [벧 아놋] Beth-anoth)의 주민이란 뜻인가? 우리가 그를 거기 주민으로 보면 그가 불레셋 사람들과 맞닥뜨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 삼갈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아니면 농부들로 구성된 민병대의 리더로서 죽였는가? 삼갈은 정결한 사사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부정한 사사로 간주되어야 하는가?[1] 십중팔구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뿌리에 관하여 우리가 알 수

---

[1] 삼갈에 관하여 무엇보다도 F. F. Bruce, 'Shamgar,' *IBD*, 3:1427-1428과 Robert G. Boling, *Judges*,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75), 89-90과 C. F. Kraft, 'Shamgar,' *IBD*, 4:306-307 등을 참고하라. 삼갈의 공적이 혼자서 이룬 것인지 아니면 민병대의 우두머리서 이룬 것인지에 대하여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Robert Jamieson, *A Commentary Critical, Experimental and Practical on the Old and New Testaments*, in vol. 2, *Joshua-Esther*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45), 78과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George Bush, *Notes, Critical and Practical, on the Book of Judges* (Chicago: Henry A. Sumner, 1881), 42을 참고하라.

있는 전부이다.[2]

우리는 삼갈의 소 막대기에 대하여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후대의 소 막대기처럼 이 도구는 길이가 8피트이고 더 큰 끝의 둘레가 6인치나 된다. 더 작은 끝은 소를 몰기 위한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 있고 다른 끝은 쟁기를 청소하기 위한 작은 삽이나 철 발판이 달려 있다.[3] 이것은 상당한 무기가 되었을 것이다. 누가 턱이나 명치를 6인치의 막대기 끝에 맞은 후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도구들은 기이하지만 흥미로운 기구들의 모음인 것 같다. 삼갈의 소 막대기는 에훗의 칼(삿 3:16), 야엘의 망치(삿 4:21), 기드온의 나팔들과 횃불들(삿 7:16), 어떤 여인의 맷돌(삿 9:53), 삼손이 사용한 나귀 턱뼈(삿 15:15) 등과 합류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들은 많은 다양성과 흥미진진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사기 3장의 맨 끝에 나오는 문은 요점이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렇다면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무슨 상관인가? 그가 가나안과 연관이 있다고 해도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삼갈의 전기를 파헤치지 못해도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그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해도 무슨 상관인가?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보고 있지 않는가?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손에 모든 자원들을 갖고 계신다면, 그분은 많은 수에 의해서든 적은 수에 의해서든(삼상 14:6), 아니면 제자들에 의해서든 이방인들에 의해서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는가? 여호와께서 삼갈을 이스라엘을 위한 한 구원자로 세우셨다면, 틀림없이 고레스도 깜짝 놀랄 구원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사 45:1-7).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거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도구들을 사용하여 구원하시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전의 시각 장애자가 고침을 받은 후 외쳤던 것처럼 말이다. "그것 참 이상하군요!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요 9:30)." 우리가 삼갈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다.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께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신기한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로

---

[2] 우리가 삼갈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하여 삼갈이 자기 시대에 무명의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해리슨(R.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69], 689)은 다음과 같이 바르게 말했다. "나중에 나오는 이 영웅에 대한 암시(삿 5:6)는 그의 업적이 분명 매우 좋은 평판을 얻어서 그의 당대의 사건들이 그의 이름의 언급을 통해 시대를 나타낸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틀림없이 고대에 최고의 영예를 그에게 주었던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나 삼갈이 그의 당대에 전설적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들로 인해 그의 이름을 둘러싼 전승들은 사사기의 저자에 의해 최소한으로 줄어들었다."

[3] 몬드렐(Maundrell)을 인용하고 있는 Bush, *Notes*, 41을 보라.

하여금 삼갈들과 소 막대기들을 사용하시는 분 앞에 엎드려 절하도록 만든다.[4]

[4] 매튜 헨리(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 vols. [New York: Revell, n.d.], 2:138)는 삼갈에 대한 이야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했다. "여기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보라.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혈통과 교육과 직업이 매우 비천하고 아주 낮은 사람들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의 유익에 매우 유용한 자들로 만드신다. 영이신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면 농부들을 사사와 장군으로 만드시고 어부들을 사도로 만드실 수 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강하게 하시면 무기가 아무리 약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소 막대기가 골리앗의 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은 아주 변변찮은 도구들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선택하시므로 탁월한 힘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

6. 굉장한 구원 (삿 4장 A Smashing Salvation)

I. 이야기의 방식 (The Manner of the Story)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기 이야기를 말하는 독특한 방식들을 갖는다. 나는 어머니가 이야기를 말하시던 방식이 생각난다. 어머니는 어떤 재미있는 일화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속에 어떤 특정 인물을 소개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머니는 그 특정 사람이 갖고 있는 관계들을 설명하시고 때때로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을 설명하시곤 하셨다. 이야기는 진행되지만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하곤 했다. 그 때 어머니는 어떤 장소를 언급하셨다. 이 장소도 설명되어야만 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그것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의 시간표에 그곳이 다른 곳들과 시간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하시곤 했다. 이야기는 기어가듯 느리게 나아가곤 했다. 그래도 이야기는 어쨌든 나아갔다. 주제로부터 벗어난 거의 모든 것들이 탐사되고 설명되고 소진되었다. 어쨌든 이야기는 들을 만한 대목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곤 했었다. (어머니를 회상하며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만 어머니가 이야기들을 말하셨던 방식에 관한 것이다.)

성경 저자들도 이야기를 말하는 기법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에 유의하면 그들의 내러티브들을 더 잘 감상하고 더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다. 사사기 4장도 이 규칙에 대한 예외가 아니다.

상세한 설명을 좋아하셨던 나의 어머니와는 달리, 사사기 저자는 그의 이야기에 엄격한 절약을 실천했다. (우리가 궁금해할지라도) 그는 불필요한 정보를 모두 생략했다. 바락이 간단히 언급된 후 드보라는 그녀의 명령을 그에게 선포한다. 바락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다. 그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의 거주지까지 이른 여정에 대한 세부 사항도 없고, 둘 사이의 교환된 인사말도 없고, 그의 대학 예비역 장교 훈련 여부에 대한 암시도 전혀 없다. 나중에 우리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였다."라는 것을 읽는다.[1] 스텍(John Stek)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시스라의 도망, 그가 취한 경로, 그가 만난 난관들, 소요된 시간, 도주자에게 엄습한 두려움과 그의 걸음을 느리게 하는 피로감, 그가 품었던 소망들과 기대들, 혹은 헤벨의 보호를 얻으려고 오는 길에서 그가 짠 계획들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전혀 없다.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도 결과에

[1] Jacob Licht, *Storytelling in the Bible* (Jerusalem: Magnes, 1978), 99-102에 나오는 분석을 보라.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무시되었다.[2]

사사기 저자는 삿 4:17-22에서 야엘의 행동에 대해 어떤 도덕적 논평을 섞거나 덧붙이지 않는다. 우리의 윤리적 감각은 어떤 암시를 강하게 요구할지 모르지만, 저자는 합리화나 비난이나 면죄와 같은 노골적인 판단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는다. 어쩌면 이 본문의 도덕적 문제들은 중심적인 관심사가 아니었을 것이다. 성경 저자의 "경제학" 곧 그가 생략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때때로 압축하는 것은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자주 드러내기 마련이다.

II. 이야기의 구성 (The Shape of the Story)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방식뿐만 아니라 구성에도 유의해야 한다.[3] 때때로 문학적 구조는 적절한 해석을 돕는 단서들을 제공한다. 다음에 나오는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라.[4]

이스라엘의 자손들(학대당함), 1-3
- 드보라, 여선지자, 4-9
  - 바락과 시스라, 불러 모음([자아크]), 10-12/13
    - 전사이신 여호와, 14a
  - 바락과 시스라, 내려감([야라드]), 14b/15-16
- 야엘, 헤벨의 아내, 17-22

야빈, 가나안 왕(정복당함), 23-24

---

[2] John Stek, "The Bee and the Mountain Goat: A Literary Reading of Judges 4," in *A Tribute to Gleason Archer,* ed. Walter C. Kaiser, Jr., and Ronald F. Youngblood (Chicago: Moody, 1986), 71.

[3] 사사기 4장의 다른 문학적 특징 하나는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점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 "파셨고"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2절과 9절 [마하르]). 바락은 다볼 산으로 그의 군대를 "이끌고" 다볼 산으로 갈 것이고 여호와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이끌어" 바락에게 이르게 하시고(6절과 7절 [마샤흐]), 여호와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7절과 14절 [나탄]). 바락은 시스라가 했던 것처럼 그의 군대를 "불러" 모았다(10절과 13절 [자아크]). 바락은 공격하기 위해 다볼 산에서 "내려갔고"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갔다(14절과 15절 [야라드]). 야엘은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했고" 그를 죽인 후에 "나가서" 바락을 "영접했다"(18절과 22절 [야차 리크라트]). 추가적인 어휘적 연관을 위해 Stek, "The Bee and the Mountain Goat," 66-67, 69, 74-75을 보라. 사사기 4장을 보면 저자는 일류 언어의 장인이었다.

[4] 주의 사항: 이 구조는 사사기 4장을 실제보다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한다. 예를 들어, 15절 상반절은 무거운 신학적 하중을 갖고 있어서 좀 더 돋보이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구조가 사사기 4장의 전체 구조를 충실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이 구조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할 것들이 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첫째 부분에서 3번 언급되고 이와 비슷하게 "가나안 왕 야빈"은 마지막(일곱째) 부분에서 3번 언급된다. 둘째로, 둘째 부분과 여섯째 부분은 가장 긴 부분들로 두 여인 곧 드보라와 야엘이 짝을 이루고 있다. 셋째로, 두 군대 장관 곧 바락과 시스라는 셋째 부분과 다섯째 부분에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로, 14절 상반절에 나오는 드보라의 명령은 사북 혹은 중심점이 된다. 다섯째로, 일곱째 부분(23-24절)은 여호와께서 "가나안([크나안])의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카나])."라는 표현을 통하여 언어적 유희를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5]

우리는 나중에 이 구조를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 자체는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것을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 저자가 그의 이야기를 쓰는 방식에 있어서 결코 부주의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말해 줄 것인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것은 한 편의 문학 예술이었다. 내가 이야기의 구조를 설명한 것은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보다 잘 감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계속해서 지리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 이야기의 교훈을 들어보자.

III. 이야기의 장소들 (The Places of the Story)

주된 행동은 북쪽에서 일어나고, 저자는 구두로 지도를 제공한다. 야빈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으로 10 마일 떨어진 하솔에서 통치했고(삿 4:2), 시스라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분명 갈릴지 지역 안이나 에스드랠론 평야 근처에 있었을 하로셋학고임에 살았다(삿 4:2).[6] 바락은 납달리 게데스 출신이다(삿 4:6). 여기 납달리 게데스가 갈릴리 호수 남서쪽 산지에 있는 키르벳 키데시라고 하는 아하로니의 제안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솔의 북쪽으로 12마일 떨어진 게데스일 수도 있다.[7] 우리가 밭, 시내, 언덕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전투 장소는

---

[5] 역자 주: 저자는 가나안(כְּנָעַן)이란 명사와 굴복시키다(וַיַּכְנַע)란 동사에 들어 있는 자음 세 개(כ נ ע)가 똑같은 것을 통해 언어 유희를 보고 있다. 자음 카프 안에 점이 있고 없음에 따라 [크]와 [흐]로 발음되는 것에 유의하여 음역하면 명사는 [크나안]이고 동사는 [바야흐나]이다. 카프에 점 없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음 카프를 [크]로 음역하면 동사도 [바야크나]가 되는데 이럴 경우 [크나안]과 [크나] 부분이 똑같게 들린다.

[6]성경 지도들은 자주 하로셋학고임을 에스드랠론 평야의 북서쪽 가장 자리의 갈멜 산맥의 기슭 근처에 있는 텔 아미르에 위치시킨다. 그러나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아하로니(Yohanan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rev. and en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221-22)는 그것이 지명이 아니고 갈릴리의 수풀 지역([하로셋] = 삼림지대)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W.S. LaSor, 'Harosheth-hagoiim,' *ISBE* (rev. ed), 2:618도 참고하라.

[7]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223-24.

갈릴리 호수 남서쪽의 삼각주 평야인[8] 에스드랠론 평야였다. 이 평야는 수수한 기손 시내가 흐르고, 북동쪽 정점으로 (갈릴리 호수 남서쪽으로 10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볼 산이 가로막고 있었다. 지리적 관찰은 이쯤 하고 이제 이 이야기의 교훈을 살펴보자.

IV. 이야기의 교훈 (The Teaching of the Story)

i. 구원의 필요성 (The Need for Salvation)

사사기 4장도 역시 구원의 이야기인데, 1-3절은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들을 다른 주인인 야빈에게 "파셨고" 야빈은 그들을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에게 맡겼다. 시스라는 철 병거 900 대를 가지고 매우 효율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제(억압)했다. 이스라엘은 다시 (야빈과 시스라로부터) 육적인 구원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영적인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범죄의 주기에 유의하라. "다시 악을 행하였다(=바알 숭배; 삿 2:11을 보라)." 그것은 죄에 관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죄에 있어서 창조적이 되는 것은 어렵다. 그것에는 어떤 단조로움이 있다. 거의 대부분이 전에 저질렀던 것이다.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처럼 그저 똑같은 일을 행한다. 죄는 지루한 일상이지 신선한 흥분거리가 아니다. 빠른 차선이 오래 된 상습이 된다. 악은 결코 독창성에 이바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가지 문제 곧 죄의 예속성과 진부함이란 문제가 있다.

삿 4:1-3은 이스라엘이 강요받아서 경건을 보인 것을 넌지시 말한다. "에훗이 죽었다(삿 4:1)."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이것은 삿 2:19이 말하고 있었던 것의 본보기이다. 외적인 강요를 없애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진정한 성품을 드러낼 것이다. 종교의 충실도가 외부의 압력, 영향력, 지도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거기에는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다. 그런 경우 우리는 단지 우리의 주변 환경 때문에 혹은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의 기대감 때문에 "기독교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내면적 사역이 없다.

고등학교 때 나의 라틴어 II 선생님은 라틴어를 가르치는데 별 열의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

[8] 에스드랠론의 삼각주의 남/남서 밑변은 욕느암에서 이블암까지 20마일이고, 나머지 다른 두 변은 욕느암에서 다볼산 근처까지 그리고 다볼산에서 아래로 이블암까지 각각 약 15마일로 길이가 같다. 글이나 지도나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에스드랠론에 관한 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아직도 나는 므깃도 꼭대기와 나사렛 산마루에서 본 경관을 기억하고 있다. Kenneth A. Kitchen, 'Esdraelon,' *IBD*, 1:476-477과 George Adam Smith,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22d ed. (London: Hodder and Stoughton, n.d.), 379-391을 보라.

수업 시간은 여러 가지 다양한 토론으로 흘러가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졸리는 수요일에—아니면 다른 요일에—E 선생님은 교실 밖으로 걸어나가 복도를 쳐다보셨다. 빛의 속도보다 약간 느리게 그는 교실로 뛰어 들어오셔서 모든 학생에게 라틴어 II 교재를 펴라고 하신 후 매우 열정적으로 책 뒷면에 있는 동사 변화표를 설명하셨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진지한 교육적인 열정을 가지고 "학생 여러분, 이제 이것을 다 알겠습니까?"라고 물으시는 것을 들었다. 왜 갑자기 선생님은 라틴어 II 수업 시간에 라틴어를 가르치시는 일에 관심이 생겼는가? 그것은 선생님 자신도 인정하셨던 것처럼 선생님께서 M 교육감이 복도를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었다. 외압이 있으면 우리는 그처럼 진지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에훗이 틀림없이 주었을 영향을 모두 없애 버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진정한 색깔들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은 (사사기 3장의 모압으로부터의 구원과 같은) 열렬한 증언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떠나는 데 있고(딤후 2:19),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체험들을 말하는 데 있지 않고 언행이 일치하는 일관된 삶을 사는 데 있는 이유이다(요일 2:3-5; 3:9).

ii. 구원의 근원 (The Source of Salvation)

이야기 전체에 걸쳐서 구원의 근원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할 때(삿 4:6-7)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

>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이끌고[마샤흐 "to draw out"]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마샤흐]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9]

드보라가 공격을 명할 때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삿 4:14)?"라고 말하며 바락에게 확신을 준다. 저자 자신은 4:15에서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온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하고, 4:23에서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묘사함으로써 결정적인 행위를 여호와께로 돌린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시 118:23)."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 우리는 삿 4:14을 다시 보는

---

[9] 저자의 번역은 동사 [마샤흐]가 두 번 사용된 언어 유희를 보이고 있다. 바락은 이스라엘 용사를 이끌고 다볼 산으로 가야 하고 여호와는 시스라를 기손 강으로 이끄시어 종말을 고하게 하실 것이다.

것이 좋을 것이다. 14절 상반절에 있는 드보라의 말은 당연히 사사기 4장의 중심점이다(앞에서 제시한 구조에 대한 설명을 보라). 그녀가 "**여호와께서**[강조됨] 너에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라는 수사 의문문을 통해 바락을 확신시키는 것에 유의하라. 드보라는 여호와를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전사로 묘사하고 있다. 나는 이 이미지의 강도와 박력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대 교회에 다소 생소하기 때문이다.

테디 루즈벨트가 하바드의 학생일 때 주일 학교 한 반을 가르쳤다. 어느 날 한 소년이 멍든 눈을 가지고 반에 오더니 그가 싸웠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것도 주일에 싸운 것이었다. 그는 더 큰 소년이 그의 누이 동생을 꼬집고 있는 것을 보고 그와 주먹다짐을 벌였다고 말했다. 테디는 "네가 정말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하며 그에게 1 달러를 주었다. 교회 위원들은 그것이 지나친 행위라고 하여 테디 루즈벨트로 하여금 주일 학교 교육을 하지 못하게 했다.[10]

이 에피소드는 종교와 신학—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점잖고 부드럽고 다정해야 한다는 거의 문화적 불문율에 가까운 것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이 용사라는 것은 이상하게 여겨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힘이 되시는 분은 현대 서구인들이 상상하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이미지와 상관없다.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참된 소망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계 19:11)" 강하신 주님께 있다.

여호와는 분명히 구원의 근원이시지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수단을 자주 사용하신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알 수 있는가? 왜 시스라는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쳤는가(4:15)?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4:15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4:15의 [하맘]이라는 동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심한 뇌우를 내리시는 상황(수 10:10-11; 삼상 7:10; 시 18:14; 144:6)을 묘사하기 때문이다.[11] 그래서 기손강(4:7, 13)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잠시 5장으로 달려가 살짝 보면 이 문제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5장은 폭풍우가 있었고(5:4, 20)[12] 기손 강의 물이 불어나 넘쳐서 그 지역을

---

[10] Paul F. Boller, Jr., *Presidential Ancecdotes* (New York: Penguin, 1982), 201.

[11] Stek, 'The Bee and the Mountain Goat,' 68을 보라.

[12] 삿 5:20에 관하여 John Gray, *Joshua, Judges and Ruth*, The Century Bible – New Edition (Greenwood, S.C.: Attic, 1967), 289에 나오는 "별들이 라스 샴라 신화들에서 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폭풍우를 가리킨다"는 설명을 보라. 그러나 라스 샴라 문헌의 증거는 그레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Peter C. Craigie, 'Three Ugaritic Notes on the Song of Deborah,' *JSOT* (April 1977): 33-37에 나오는 주의 사항들을 보라.

침수시켰기 때문에(5:21) 시스라의 병거들이 진흙탕에 빠지는[13] 상황이 있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락의 보병들이 다볼 산에서 공격할 때 시스라의 모든 전략적 우세는 수포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아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깎아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구름으로 그분의 수레를 삼으시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생각하면 더욱 더 경탄하게 된다(시 104:3).

다시 말하지만, 여호와는 구원의 근원이시지만 자주 그분의 구원을 가져올 인간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수단이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서 여호와를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밝히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신다. 드보라는 4:9에서 이것을 가르친다. 그녀가 바락에게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고[14] 알리는 말 가운데 "여인의 손에"라는 어구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강조되는 자리에 나온다.

삿 4:9절의 예언은 사전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 아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분명하게 시스라가 (여인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매우 특이한 대리인을 통해자신의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바락이(혹은 어떤 다른 뛰어난 용사가) 시스라를 그의 전리품으로 잡을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4:9a, 22을 보라).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관습들을 박살내고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관례들을 깨뜨려버린다. (그리고 그가 알았더라면 시스라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인이 용사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것보다 더 굴욕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9:53-54을 참고하라.) 이러한 예상 밖의

---

[13] John Garstang, *Joshua-Judges* (1931; reprint ed., Grand Rapids: Kregel, 1978), 299에 의하면 "제 1차 세계 대전 때 이 지역[에스랄론]에 내린 25분 간의 비로 인해 모든 기병대 작전들이 위태롭게 된 경험이 있었다."

[14] 우리는 4장 2절과 9절에 한 번씩 나오는 동사 [마하르]("팔다")에 주목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 파셨다면 그분은 또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우리는 9절을 8절에 나오는 바락의 믿음 부족에 대한 꾸짖음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고, 8절을 바락의 믿음 부족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다. 8절에서 바락은 자신이 도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번 전투에서 그분의 종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가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Karl Gutbrod, *Das Buch vom Lande Gottes*,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3d ed. [Stuttgart: Calwer, 1965], 202을 보라). 많은 강해자들이 바락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상한 반전에 의해 여호와는 그 경우에 이러한 표식을 남기시고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 어떤 일상적인 (인간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신다.

내가 꽤 어렸을 때 우리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고독한 레인저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곤 했다. 우리는 물론 그가 사기꾼들을 책략으로 이기고 강도들을 때려주고 소도둑들과 총격전에서 이김으로써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때 기뻐했다. 그 날의 에피소드가 끝날 때 두 사람이 전경에서 대화하는 동안 고독한 레인저(가면을 쓴 클레이튼 무어)는 그의 하얀 말 실버를 타고 퇴장하곤 했다. 한 사람이 "도대체 저 가면을 쓴 사람이 누군가?"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이 (고독한 레인저가 힘차게 "이랴, 실버, 가자"라고 말하며 윌리암 텔 서곡이 들리기 바로 전에) 사라져가는 영웅을 가리키며 "그것은 고독한 레인저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어느 지점에선가 그는 그의 친구가 잘 음미할 수 있도록 외로운 레인저가 그에게 주었던 은 총알을 내보이곤 했다.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이 그 토요일들을 회상하듯이 그것은 매우 진기하고 즐거웠다. 그러나 그 드라마에 의하면 은 총알은 외로운 레인저의 임재의 상징이요 그가 거기에 있었다는 표시이었다. 이와 비슷한 유추를 하면 우리가 삿 4:9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시스라가 모든 사람들 중 한 여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때 그것은 여호와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어느 누구도 그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힘쓰신다. 이스라엘의 어떤 용사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용사인 하나님을 그림자들 가운데 가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적용을 위해 우리는 드보라가 바락에게 "네가 가는 길이 너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이다(4:9)"라고 한 말을 취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명심 사항이다.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이시므로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 가장 빛나게 보이는지는 신경쓰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은, 꽤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마도 우상 숭배적으로 "성공한" 교회들을 갖고 싶어하는, 우리 목회자들 중 일부의 아픈 데를 건드릴지도 모른다.

iii. 구원의 세부 사항 (The Minutiae of Salvation)

지금까지 구원의 필요성과 구원의 근원을 상고했으니 이제 셋째 항목으로 구원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자. 4장 11절 말씀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고 되어 있다. 도대체 누가 이 말씀에 마음을 쓰는가? 어떤 무명의 금속 세공인이 짐을 싸서 북쪽으로 이사를 한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예루살렘 신문이나 하솔 신문이나 어떤 매체도 이 항목을 뉴스거리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흥미로울 이야기 안에 무미 건조하게 삽입된 그저 아주 사소한 세부 사항이 여기 있다.

그러나 4장 11절은 무미 건조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고 있다. 1장 16절에 의하면 겐 족속은 유다의 남부 지역의 남쪽(아랏 근처)에 정착했다. 헤벨은 이 그룹을 떠나 북쪽으로 이주하며 게데스 가까이에 이른다. (이것은 플로리다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버몬트로 이주하는 것과 비슷하다.) 틀림없이 헤벨의 주소 변경을 이야기 속에 삽입한 것은 하찮은 지리적 정보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곧 알게 되는 사실은 시스라를 죽인 여인인 야엘이 헤벨의 아내였고 그녀는 이스라엘의 압제자가 그의 병거를 버리고 도망칠 때 그녀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하게 있었다는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의 삶 가운데 그러한 놀랄 만한 섭리의 세부 사항들을 집어넣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방식은 얼마나 놀라운가!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방식들을 되돌아보며 회상할 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수롭지 않은 것, 그 당시에는 어떤 것과도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인 것, 심지어 너무 미미해서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은 것—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으로 판명되었다. 헤벨의 이삿짐차조차도 여호와의 계획 밖에 있지 않았다. 이와 같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

iv. 구원에 제기되는 문제 (The Problem of Salvation)

구원의 필요성(4:1-3), 근원(4:6-7, 9), 세부 사항(4:11)에 이어 마지막으로 구원에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보자. 4:17-22에 묘사된 구원이 어떤 문제라도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이 내러티브를 읽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야엘의 배신(4:18-19)을 통하여 온 것에 대하여 당황해한다. 시스라가 헤벨의 장막으로 온 것은 야빈과 헤벨 사이에 조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시스라는 은신처를 기대했고 야엘의 태도(초청, 심려, 공급)는 그의 기대를 확증했다. 그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기대와는 달리 그가 피곤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잡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그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게 하였다(4:21).[15] "그래서 그는 죽었다." 명명백백하게 그는 죽었다. 그야말로 굉장한 구원이

[15] 그레이(Gray, *Joshua, Judges and Ruth*, 274)는 "현대 베두인족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걷는 일은 여인의 일이다. 그러므로 야엘은 방망이를 사용하는 일에 서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일어났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슬프게도 어떤 사람은 말한다. 야엘이 챨스 셀돈(Charles Sheldon)의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In His Steps*)"라는 책을 읽을 수 있었고 그녀가 시스라에게 다가가면서 잠시 멈추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러나 야엘은 그러한 빛을 즐기기에는 너무 일찍 태어났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여전히 성경의 이 부분에 있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엘의 방망이가 그것을 넘어선 어떤 다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렘 23:29을 기억하라. 야엘의 방망이는 우리의 모든 잠자는 폭군들에게 패배를 안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다. (이것은 에훗의 칼을 "성령의 검"으로 보는 것과 같은 접근법이다. 3:12-30에 대한 주해를 보라.) 미안한 말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은유적인 방망이들을 가질 수 없다.

때때로 이러한 난점들은 우리가 성경이 전하는 것과 성경이 추천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지지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다윗이 여러 아내들을 두었다(삼상 3:2-5)고 전하지만 그렇다고 당신더러 그렇게 하라고 추천하거나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야엘의 경우에 성경이 야엘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정말로 야엘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가 야엘의 공격을 혹평한다면 드보라의 노래 또한 금지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드보라가 야엘을 칭찬하고(5:24-27)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메로즈 주민을 저주하기(5:23)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는 단지 드보라의 사견인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메로즈는 (적어도) 여호와의 천사의 권위에 의해 저주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중요한 어떤 것을 놓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 보기에는 성경 자체는 친 야엘적인 것 같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것은 전혀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하였고(4:3)" 아마도 이스라엘 포로 처녀들을 강간하는 것을 즐겼을(5:30) 시스라는 엄밀하게 깨끗한 자는 아니었다. 이 내러티브가 여러분을 성가시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잠시 그 문제를 당분간 보류해 두라.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을 자세히 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다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 입에 새 노래를 두신(참고, 시 40:2-3)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 웅덩이와 수렁에 관하여 염려하시게 하고,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자!

7. 새 노래 (삿 5장 The New Song)

워싱톤 레드스킨스가 방금 미식 축구 수퍼볼 경기에서 이겼다. 승리한 후 삼일이 되는 오늘 워싱톤 디 씨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행사가 있다. 학생들과 공무원들은 대중 환호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2 시간의 휴식 시간을 허락받았다. 불행하게도 위스콘신의 요 클레어나 오클라호마의 아드모어나 다른 거의 모든 도시에서는 이런 특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워싱톤은 승리를 했고, 그러므로 이러한 축하 행사가 있다.

사사기 5장은 사소한 운동 경기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승리를 축하한다. 드보라는 갓 얻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새 노래를 부른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시스라와 그의 많은 군대를 물리치신 여호와의 승리를 매우 기뻐한다.

사사기 5장은 해석자에게 유혹을 준다. 어느 두 영어 번역을 비교해 보아도 이 고대의 시에 대한 번역과 이해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철저한 연구 곧 본문의 어휘와 문법과 번역에 대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설명하고 상세히 논하고 (때때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히브리 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몇 페이지가 추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이중 손실 곧 독자의 흥미를 잃게 하고 사사기 5장 전체를 보는 시각을 잃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른 이들이 보다 전문적인 문제를 다루어 놓았기 때문에[1] 우리는 사사기 5장의 본질적인 증언을 듣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증언을 듣기 전에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삿 5:2-11c

2 기꺼이 헌신한 백성으로 인해 여호와를 송축하라

3 이야기하기

4-5 여호와의 원기 왕성하심

6-8 이스라엘의 곤경

---

[1] 다음 문헌들을 참고하라. John Gray, *Joshua, Judges and Ruth*, The Century Bible – New Edition (Greenwood, S.C.: Attic, 1967), 275-94; Richard D. Patterson, 'The Song of Deborah,' in *Tradition and Testament: Essays in Honor of Charles Lee Feinberg*, ed. John S. Feinberg and Paul D. Feinberg (Chicago: Moody, 1981), 123-60; Alan J. Hauser, 'Judges 5: Parataxis in Hebrew Poetr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9 (1980): 23-41; Alexander Globe, 'The Literary Structure and Unity of the Song of Debora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3 (1974): 493-512; idem, 'The Muster of the Tribes in Judges 5:11e-18,'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87 (1975): 169-79.

9 기꺼이 헌신한 백성으로 인해 여호와를 송축하라

10-11c 이야기하기

삿 5:11d-23

백성과 지도자들:

11d-13 백성이 '내려감[야라드]'

14-15a 용감한 자들

15b-17 주저하고 안심하는 자들

18 용감한 자들

왕들과 그들의 싸움:

19-23 왕들이 '싸움[라함]"

삿 5:24-30

24-27 헤벨의 아내에 대한 축복

28-30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조롱

삿 5:31

신학적 적용

세 개의 주요 부분이 각각 기본적인 대조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을 주목하라. 5:2-11c에는 원기 왕성하신 하나님과 굴욕적인 백성이 대조되고, 5:11d-23에는 대담한 용사들과 조심스러워하는 형제들이 대조되고, 5:24-30에는 강인한 여인과 불쌍한 어머니가 대조된다. 드보라의 노래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중심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패턴이 들어 있다.[2]

I. 여호와의 오심 (The Coming of Yahweh)

첫째로, 드보라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오심을 생생하게 보여준다(삿 5:4-5; cf. 신 33:2-5; 시 68:7-10; 합 3:3-4):

5:4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실 때에,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2] 나의 구조적 분석에는 23절이 19-22절과 함께 가도록 되어 있다. 19-22절은 11d-13절과 상응하고 23절을 19-22절에 포함시키면 이 두 부분은 [바기보림] "용사들을 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우리는 저주받은 메로스(23절)와 다음 부분에 나오는 축복받은 야엘(24-27절)의 대조도 유념해야 한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5:5 산들이 진동하였도다

여호와 앞에서, 시내 산의 하나님[3]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신 것이 드보라 당시에 그분이 시스라와 싸우러 나오신 것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분이 옛적에 애굽에 있는 백성에게로 오시고 시내 산에서 그들을 만나신 것을 가리키는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쨌든 드보라가 여호와를 "시내 산의 그분"이라고 말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존하신 것을 분명히 암시한다. 거기 시내 산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출 19장). 그분은 거기로 오셔서 그들과 만나셨다. 그분은 자유로이 그분의 율법 아래 그들을 두셨다. 그러나 여호와는 시내 산에 묶여 계시지 않는다—이것이 드보라의 요점이다. 오히려 결정적으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오셨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돕기 위해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 거듭거듭 오시는 분이시다. 홍해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출 14장) 하나님은 므깃도의 물가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삿 5:19). 시내 산으로 오셨던(출 19-24장) 하나님은 다볼 산으로도 오신다(삿 4:14-15). 여호와는 시내 산에 역사적인 구상물로 고정된 채로 계시지 않으신다. 오히려 시내 산의 그분은 움직이시며 그분의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 거듭거듭 진행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진행하실 때 피조물은 어쩔 줄 모른다! 땅은 진동하고, 구름은 비를 쏟고(아마도 시스라를 향해 내려진 폭풍우를 암시하는 것 같음), 산들은 흔들린다. 이 격정적인 하나님의 또 하나의 예를 위해 시 18:7-19을 참고하라.

---

[3] [역자 주] 삿 5:5의 원문הָרִים נָזְלוּ מִפְּנֵי יְהוָה זֶה סִינַי מִפְּנֵי יְהוָה אֱלֹהֵי יִשְׂרָאֵל을 보면 [미프네 아도나이 제 씨나이]와 [미프네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이 병행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전명구에서 [아도나이]와 동격으로 [제 씨나이]와 [엘로헤 이스라엘]이 각각 나오고 있다. 삿 5:5과 시 68:8[MT 9]에만 나오는 [제 씨나이]에서 [제]는 우가릿어 *ḏ*, 아랍어 *ḏū*처럼 속격의 의미를 가진다(Block, *Judges, Ruth*, 223 n. 347). 그렇다면 [제 씨나이]는 저자가 번역한 것처럼 "the One of Sinai" 즉 "시내 산의 그분(=하나님)"이란 의미를 갖는다. 삿 5:5과 시 68:8에 나오는 [제 씨나이]에 대하여 사사기에서는 우리말성경, 그리고 시편에서는 새번역과 쉬운성경과 현대어성경이 "시내 산의 그분," "시내 산에서의 바로 그분," "시내 산의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나머지 한글 성경은 사사기나 시편에서 대개 "저 시내 산도, 저 시내산마저, 저 시내 산조차(진동하였다)"로 번역하고 있다.

드보라의 시는 여호와의 이러한 생생한 모습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곤경을 나란히 묘사한다.

5:6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5:7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5:8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 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사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 시절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도 없었다. 사람들은 도둑들과 악당들이 대로에서 활개치므로 뒷길로 다녀야만 했다. 이스라엘은 용사들도 없고(5:7a) 무기도 없어서(5:8b)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cf. 삼상 13:5-7, 19-22에 묘사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 지배 아래 있던 상황과 비슷함).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가(5:4-5)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가(5:6-8)를 보는 때이다. 곤핍한 백성(5:6-8)과 부요하신 하나님(5:4-5)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은 전자가 후자를 통해서 안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바울 사도는 고후 1:8-9에서 같은 취지로 말한다. 확실히,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시내 산(혹은 골고다)에 오신 하나님이 곤경에 처한 그분의 백성에게 거듭거듭 오시는 하나님임을 아는 것으로부터 큰 위로를 얻어야 한다. 전능하신 분은 앙코르(재청이오!)를 기뻐하신다.

II. 여호와의 백성 (The People of Yahweh)

둘째로, 삿 5:11d-23에서 모든 초점은 여호와의 백성에게 맞추어져 있다. 앞에서 살펴본 구조가 보여주는 대로 5:14-18에는 아주 중요한 대조가 나타난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지파들(14-15a, 18)의 묘사가 자기들의 안전만을 추구한 지파들(15b-17)을 겨냥한 (외관상) 조롱을 둘러싸고 있다. 먼저 헌신한 지파들에 대한 큰 칭찬을 들어보자.

5:14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에브라임으로부터 아말렉에[4] 뿌리 박힌 자들이 나왔도다]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베냐민이여,[5] 너를 따라 너의 부족이 나왔도다]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5:15a-c 잇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잇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내려갔다. 그러나 → 내려갔으나! 내려간 것과 대조적으로!]

(5:15d-17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 . .)

5:18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마워하는 칭찬 안(5:14-15a, 18)에서 당혹스러운 절망을 만난다.

5:15d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5:16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5:17 길르앗은 요단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

[4] 삿 12:15은 전에 에브라임의 영토가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 점령된 것을 암시한다. C. F. Keil, *Joshua, Judges, Ruth,*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317을 보라.

[5] 절규하는 듯한 전쟁의 소리는 (대조적이지만 심판의 문맥에서 사용된) 호 5:8에도 나온다. 이 소리는 아마도 부족의 전투에 있어서 베냐민이 인정받는 리더십의 위치에 있었던 것을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C.F. Burney, *The Book of Judges* (London: Rivingtons, 1918), 133-34을 참고하라.

르우벤이 다볼 산으로 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르우벤 사람들은 그 문제를 철저히 논의했고 많은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양을 떠나기에는 좋은 때가 아니었다. 아마도 요단 강은 동쪽 므낫세(곧 길르앗)가 실감했던 것보다도 더 큰 장애물이었던 것같다. 어쨌든 그들은 건너지 않았다. 단과 아셀은 돈벌이가 되는 해상 무역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눅 14:18)."

그리고 메로스가 있었다(5:23). 이스라엘은 메로스에 대한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심한 저주를 퍼부었다. 왜냐하면 그 주민이 "여호와를 도와 용사들을 치러"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스스로 이 저주를 승인했다. 아무도 메로스의 위치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그곳은 이스라엘이 당연히 거기 민병대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만큼 전쟁터와 매우 가까이 있었음에 틀림없다.[6] 그러나 메로스는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했다가 결국 그것을 잃고 말았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의 몇몇 지파들은 기꺼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던졌지만 그들의 목숨을 구했다.

본문의 신학에 유의하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여호와의 주권적이고 능하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백성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러" 나와서 그분의 능하신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애쓰며 고난을 당하는 동안 우리가 안전하게 쉬며 만족해할 때 본문은 우리를 비난한다. 그것은 형제애란 결속에 묶이지 않은 마음을 드러낸다. 사도이든 다른 사람이든, 어느 기독교인이라도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딤후 4:16)"라고 말해야만 하는 것은 비극이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일(5:7)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사이다.

III. 여호와의 종 (The Servant of Yahweh)

셋째로, 우리는 드보라가 5:24-27에서는 여호와의 종을 칭찬하고, 5:28-30에서는 시스라의 어머니를 조롱하는 것을 듣는다. 이 부분은 두 여인의 이야기인데 그 대조를 연구해 볼 만하다.[7]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묘사는 심한 야유로 가득 차 있다. 여기서 그녀는 윗 창문을 통하여

---

[6] 나는 메로스를 이스라엘의 마을이었던 것으로 여긴다. 어떤 이는 그곳이 이스라엘의 어느 한 지파와 조약에 의해 묶여 있는 가나안의 마을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경우든 메로스는 도우러 나와야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7] 알터(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Basic Books, 1985], 45)도 역시 "수수한 겐 사람의 장막과 전쟁의 노략물에 많은 관심을 보인 일군의 시녀들을 둔 가나안의 궁의 날카로운 대조"에 주의를 기울였다.

초조하게 응시하며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 바라보고 억제된 두려움 가운데 시스라의 더디 오는 이유를 묻고 있다. 왜 그녀는 그의 병거의 말들의 덜거덕덜거덕하는 소리를 아직 듣지 못했는가? 그녀의 아들은 어디에 있는가?

시스라의 어머니를 시중드는 세련된 시녀들은[8] 그녀를 확신시킨다(사실, 시스라의 어머니도 자신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잘 아듯이 모든 노략물을 나누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들이 어떤 여인들을 겁탈했을[9] 것입니다. 시스라가 당신의 옷장에 더하려고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채색 옷들을 모으고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묘하게도, 바로 그 순간에 시스라는 한 의상실 곧 야엘의 의상실에 죽어 있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다시 창문을 통해 응시하며 "그럼, 그렇고 말고. 너희 말이 옳을 거야."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된 관심은 적장의 어머니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인 야엘에게 쏠려있다(5:24-27). 메로스는 "여호와를 도와 용사들을 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만(5:23) 야엘은 축복을 받았다. 이 부분의 대부분(5:25-27)은 시스라의 참패를 느린 동작으로 차례차례 자세하게 재연한다.

5:25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5:26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5:27 그가 그의 발 앞에 꾸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꾸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꾸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드보라가 (이스라엘과 함께) 어떻게 시스라의 죽음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목조목 말하고(예:

---

[8] Gray와 같은 학자들은 이 시녀들이 시스라의 규방의 여자들이고 그의 어머니가 일종의 태후처럼 관장하였다고 생각한다.

[9] 이것은 5:30의 둘째 병행구 곧 문자적으로 "병사마다 한 자궁, 두 자궁"이란 어구로부터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나는 이런 끔찍한 일은 일반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끝나고 승리자들이 무력한 이스라엘 마을들을 약탈하기 시작할 때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엘이 장막의 말뚝을 잡고 방망이를 든 것), 야엘의 타격을 전하는데 끔찍한 동사들을 사용하고(예: 망치로 치다), "그녀의 발 앞에서" 시스라의 몸부림치는 모습이 선명한 마지막 장면을 재연하는지 주목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의 도우심을 칭송하며 여호와께 드리는 노래인 것(5:3)을 기억하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난폭한 시스라(4:3)를 파멸시키신 여호와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즐기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특정 음식을 즐기는 능력을 키웠다. 예를 들어, 젤로나 아이스크림이나 푸딩을 먹는다면, 나는 한 번에 급하게 먹는 대신 조금씩 먹으며 그걸 음미한다. 다시 말하면 내 입 안에서 그것을 돌리며 윗니 주위로, 아랫니 주위로, 어떤 때는 이 사이로 돌리고 내 입 안에서 그 맛있는 것을 조용히 움직이게 하며 한 숟갈씩 최대한 맛을 즐긴다. 커피나 생강 음료의 경우도 똑같이 한다. 때때로 이로 인해 내 아내는 힘들어 한다. 하지만 음식은 그저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즐겨야 한다는 나의 철학은 나의 관행을 잘 변호해 준다. (독자가 의아해할 지 모르지만 나는 과체중이 아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방식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즐기고, 맛보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항목별로, 세목별로, 타격별로 그리고 그릇에서 말뚝과 망치를 거쳐 두개골과 발까지 이르도록 음미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건 오히려 칭찬할 만하다. 서구에 사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은 독재로 인해 심하게 억압을 당하거나 짓밟힘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이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압제자들을 박살내실 때 기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와 같은 본문들을 충분히 음미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서재 의자에서, 우리의 푹신푹신한 신자석에서, 아니면 우리의 아늑한 벽난로 곁의 기대는 의자에서 이런 본문들을 잘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분명히 "여호와의 종"인 야엘에게 찬성 투표를 던진다. 물론 당신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더 많은 고상함을 주장하면서 더 적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IV. 여호와의 나라 (The Kingdom of Yahweh)

드보라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5:31)은 여호와의 나라에 관하여 말한다.

>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기도와 외침을 동시에 듣는다. 첫째 병행구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5:31a)"는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이다. "이와 같이, 이처럼,

그렇게"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켄]은 드보라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시스라와 그의 군대에 대한 파멸을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분과 우리의 모든 적들(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26번 참조)"을 정복하시는 때 그분이 행하실 일의 시식, 시연, 축척 모형으로 본 것을 암시한다.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그분의 **모든** 적들을 멸망시키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기도이다. 이것은 우리가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포함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들의 적들이 멸망될 때까지 안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살후 1:5-10의 분명한 증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단의 세력을 부수시며,
당신에게 거역하는 모든 세력을 부수시며,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소멸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여서
당신이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야빈과 시스라를 파멸시키신 것은 여호와의 통치가 실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리고 둘째 병행구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5:31b)."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은 변덕스러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힘을 찾으라는 외침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언약 의무이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5)." 이 명령 다음에 나오는 모세의 말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준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신 6:6)."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요 14:15)"고 하신 말씀도 이와 비슷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킬 제일 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드보라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 관하여 노래할 때, 삿 3:7, 12 그리고 삿 4:1의 이스라엘—곧 바알과 아세라를 매우 재미있게 사랑하는 부부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자문해야 한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해 왔는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할 것인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해야만 하지 않는가? 만일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의 적들에 속하고 그분의 나라 밖에 있게 될 것이 아닌가?"

8. 구원을 위한 준비 (삿 6장 Getting Ready for Salvation)

사사기 6장을 단숨에 읽어보면 좋겠다. 이 장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슬픈 관찰로 시작한다(6:1, cf. 2:11). 이번에 여호와의 회초리는 미디안이었다. 1-6절은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곤경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한다. 그건 극심한 곤경이었다. 이스라엘이 파종을 할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침범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고(6:4)," 다시 말하면, 그들을 위해 양식을 약탈하고, 그들의 가축들로 나머지를 먹게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양과 소와 나귀를 도용했는데 이것은 기술자의 연장을 훔치는 것과 맞먹는 일이었다. 신 28:29, 31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은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었다. 칠년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양식(먹을 것) 혹은 생계의 수단(곧 양이나 소나 나귀들)을 남겨두지 않았다. 동일한 징벌과 공포가 매년 일어났다. 그들은 동쪽에서 침범하여 요단을 건너 이스르엘 평지의 곡창 지대를 치고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블레셋의 가사에 이르도록 치며 이스라엘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실행했다.

이런 일이 무려 칠년이나 계속되었다. 그런 일을 겪는다면 당신도 배고프고 가난하고 지쳤을 것이다. 매년 수입세처럼 어김없이 미디안의 약탈자들이 왔다. 그렇다면 당신도 가족과 남겨진 가축과 회수된 곡물을 파놓은 굴이 있는 산으로 서둘러 옮긴 후 외국 약탈자들이 싫증이 나서 이동하여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때까지 숨어 지내는 일에 신물이 나 있을 것이다. 자유로운 사람이 하는 것처럼 타작 마당에서 당신의 밀을 공중으로 던져 까부는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6:11)?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6:6)."

I.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 (The Word That Criticizes Us)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을 듣는다(6:7-10). 여기서 여호와는 참으로 이상한 일을 행하신다. 사실 그건 좀 우스꽝스럽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위해 부르짖지만(6:7)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신다(6:8). 이것은 오도 가도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수리 공장에 도움을 청했는데 그 공장에서 기술자 대신 철학자를 보내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필요로 하지만 여호와는 한 선지자를 보내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의 행위를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은혜를 자세히 말하고(6:8b-9), 여호와의 요구를 반복하고(6:10a), 여호와의 비난을 퍼붓는(6:10b) 그분의 말씀의 선포자를 그들에게 보내신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이 즉각적인 구원 그 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왜

압제를 당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 했기(6:10b)"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6:1)."는 사실이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급한 필요에 주시는 부적절한 답들에 놀라지 않는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우리 상황을 해석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상황으로부터 피하는 것을 원할지 모른다. 때때로 우리는 구원 그 이상의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기 전에 통찰력을 주셔야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길을 이해하는 것은 고통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우리의 우상 숭배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속박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원할지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온한 상태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육하시려고 하신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가장 자비로운 일은 우리의 무력함과 불행에 대한 이유들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그분의 말씀의 책망 아래 두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설교, 상담,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 등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

한 때 나는 신학교에서 구약 시가서를 가르치고 있었다. 기말고사가 다가올 무렵 우리가 다룬 것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를 주지 않는 것은 잔인한 일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다룬 것들을 자세히 보여주는 약 65 문제로 구성된 안내를 만들어 주었다. 그래도 당연히 남아 있는 문제는 그렇게 많은 분량의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것 또한 잔인한 것이었는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각에 그것은 순전한 교수의 호의였다. 학생들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 공부의 양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알았다는 사실은 자화자찬 같지만 나의 가장 은혜로운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곧 그분의 말씀이 책망하고, 고치고, 즉각적인 구원 대신 확실한 지혜를 줄 때도 이와 똑같다.

II. 우리를 붙드는 은혜 (The Grace That Holds Us)

둘째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붙드는 은혜를 보아야 한다. 6:8b-10에 나오는 선지자의 선포에 약간 이상한 것이 있다. 그는 설교를 끝내지 않았다. 그가 선포했던 내용을 정리해보자.

소개 공식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은혜의 진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나는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고,

나는 너희를 건져냈고

애굽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으로부터,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고,

나는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여호와의 준수 사항의 상기

나는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의 땅에 너희가 살지만.

비난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일은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는 것이다(6:11). 그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이다. 선지자가 여호와를 대신하여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비난하는 것을 들은 후 우리는 그가 급소를 찌르며 통상적으로 심판을 선언할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면, 렘 11:9-11에서 여호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삼중 비난을 하시고(10절) 바로 "그러므로 . . .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는 심판 선언으로 나아가신다(11절). 또 다른 예로 렘 25:1-11을 보면, 선지자는 유다가 여호와를 청종하지 않은 것을 비난한(3-7절) 다음에 그의 무서운 "그러므로"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북쪽의 모든 종족들"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유다를 치실 것을 선언하는 데로 나아간다(8-11절). 그러나 사사기 6장의 선지자의 예언에는 우리 모두가 긴장하며 10절 하반절 다음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그러므로"가 나오지 않는다. 선포되어야 할 심판이 생략되어 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한 사람을 구슬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부분을 "우리를 붙드는 은혜"라고 부른 이유이다. 이 얼마나 그 언약적 사랑이 우리 위에 매우 "크신[히브리어 가자르, '강하신']"(시 103:11) 성경의 하나님다우신가! 그분은 멸망시켜야만 할 때 또 다시 구원하고 계신다. 그분은 박살내야만 할 때에도 구원을 준비하신다. 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신가(출 34:6)! 공의가 처벌을 요구하는 때에도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치시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애 3:33)! 그것이 엡 2:4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는 이유이다. 거기 보면 우리는 (엡 2:1,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엡 엡 2:2-3a, 사탄과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 . . (엡 2:4)." 내가 앞서 말했듯이 어느 누구도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고안해 낼 수 없다. 제 정신을 가진 죄인들이 우리를 그의 은혜 가운데 붙들기 위해 그분의 심판을 억제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일 것이다. 바로 그런 분이 사사기 6장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다.

III. 우리를 준비시키는 약속 (The Promise That Equips Us)

셋째로, 우리는 삿 6:11-24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약속을 듣는다. 그 약속은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6:12). 그런 약속은 기드온에게 온갖 종류의 문제를 일으킨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면 기드온은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가(6:11)?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면 미디안 사람들이 왜 매년 침략하는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면 애굽을 치셨던 것과 같은 행위는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왜 그들을 미디안에게 넘기셨는가(6:13)? 첨언하면, 6:13에 드러난 기드온의 관점은 이스라엘이 6:8-10의 선지자적 해석을 갖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때때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

>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사 59:1-2)

기드온은 계속 여호와께서 주신 임무에 대하여 항의한다. 기드온은 그의 집이 므낫세 중에 가장 미약하고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으므로(6:15) 전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항의한다. 기드온의 부적합성에 반하여 여호와는 그분의 적합성을 쌓아올리신다. 그것은 고전적 형식으로 주어진 6:12과 동일한 약속이다. 기드온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 짧은 진술, 곧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6:16)."라는 진술에 제공되어 있다.

이 진술은 역사를 갖고 있다. 그것은 원하지 않거나 주저하는 종들 앞에 던지는 여호와의 으뜸패처럼 보인다. 모세의 저항에 직면하여 여호와는 계속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출 3:12).[1] 모세의 죽음으로 분명히 이스라엘의 리더십에 커다란 공백이 생긴 후에 여호와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수 1:5) 그를 안심시키셨다. 하나님의 종들의 모든 난국과 궁지와 위기에서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창 28:15; 46:4; 신 20:1; 시 23:4; 사 41:8-10; 43:2, 5; 마 28:20; 행 18:9-10).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실 그 밖에 다른 것이나 그 이상의 것이 없으시다. 당신은 그 약속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그것은 세부사항들에 대한 당신의 질문들에 답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기본적인 것만 제공한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혹은 왜에 관한 것은 주지 않는다. 다만 무엇, 아니 더 좋은, 누구에 대한 것만 준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약속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신을 필요로 했다.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6:17b)." 기드온은 분명코 그를 찾아오신 분의 위엄에 관한 단서를 갖고 있었다. 전통적인 히브리어 본문에 따라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부른 칭호를 보면 13절의 "선생님"([아도니], Sir)이 15절의 "주님"([아도나이], Lord)이 된다.[2] 기드온은 그것이 **여호와의** 약속임을 확신하기를 원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여호와의 **약속**을 높이 평가하는지를 보여준다. 거기에 실수나 착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아니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 온 것임을 알아야만 했다.

기드온은 그의 예물이 하나님의 확신시키는 표징을 위한 실험이 되기를 제안했다. 그를 찾아오신 분은 동의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6:18). 그 날은 분명히 약속들과 마감 시한들로

---

[1] 모세와 기드온의 유사한 점들을 보려면 Barry G. Webb, *The Book of the Judges: An Integrated Reading,* JSOT Supplement Series 46 (Sheffield: JSOT, 1987), 148을 참고하라.

[2] 역자 주: "주"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수 명사 [아돈]에 1인칭 단수 접미대명사가 붙은 것이 [아도니](my lord)이고 복수 [아도님]에 1인칭 단수 접미대명사가 붙은 것이 [아도나이](my lords)인데 복수를 장엄 복수로 볼 경우 [아도나이]는 "my Lord"가 된다. 삿 6:13의 [아도니]와 6:15의 [아도나이]에 대하여 NIV와 KJV는 구별없이 "my lord"라고 번역했으나 ESV는 "my lord"와 "Lord"로 구별해서 번역했고 HCSB도 "Sir"와 "Lord"로 구별해서 번역했다. 우리말성경은 구별없이 "내 주여"라고 번역했고 개역개정은 "나의 주여"와 "주여"로 각각 번역했다. 호칭을 구별하여 HCSB처럼 "선생님"과 "주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인해 어수선하지 않았다(창 18:1-8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는 떡과 비교하라). 기드온은 서두르며 그가 선호하는 간이 식품점에 가지 않았다. 염소 새끼를 잡아 준비하고 무교병을 굽는데 시간을 들였다(6:19). 마침내 기드온이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가져왔을 때 그를 찾아오신 분은 고기와 무고병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말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댈 때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6:21b, 불).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고(6:21c, 잠적)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깨닫는다(6:22, 인식).

여기에 놀랄 만한 역설이 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했지만 그 확신이 임할 때 그것이 그를 강하게 하기 보다는 두려워 떨게 만든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6:22)!"[3] 그는 확신을 가져야만 했지만 그 확신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 확신은 그를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우리 서구 기독교인들은 기드온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한다(6:22). 그런 말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들린다. 우리는 우리의 따뜻한 손을 뻗어 기드온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를 이렇게 달래고 싶어한다. "기드온 형제님,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형제님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 ." 신학적으로 무식한 사람의 말을 방금 들은 것처럼 고통스럽고 당혹스러운 표정이 기드온 위에 임할 것이다. 실제로 그랬다. 이런 종류의 말(6:22)이 우리에게 이상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이 아니라 불가침의 권리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어떤 두려움이 없는 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떤 놀랄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기드온은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보다 더 확신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3] 기드온 이야기는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동일한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6:11, 12, 14, 16을 보라). Cf. Gerhard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2 vols. [New York: Harper and Row, 1962], 1:287):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들/내러티브들은 여호와와 그의 사자를 실제로 구별할 수 없으므로 그 사자를 전령으로 간주하지 않고 여호와 자신의 현현의 형태로 간주하는 것들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자신이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은 한 문에서 여호와라고 말하고 다음 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주된 본문들은 창 21:11-21 그리고 삿 6:17-24이다. 그리고 창 22:11-19; 31:11-13; 출 3:2-22에서도 말씀하는 사자는 여호와와 동일하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을 위해 J. Barton Payne, *The Theology of the Older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62), 167-170을 보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보다도 더 압도적인 것은 없다. 두려워 떠는 자에게 평강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뿐이시다(6:23-24).

IV. 우리를 묶는 요구 (The Demand That Commits Us)

넷째로, 우리는 삿 6:25-32에서 우리를 묶는 요구를 듣는다. 여호와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칠 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삿 6:25-26)

왜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가? 그건 두 제단이 나란히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여호와를 위한 단(6:24)과 바알을 위한 단(6:25)을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그것들은 상호 배타적이다.

기드온에게 부과된 요구는 이스라엘을 위해 패러다임으로 의도되었다. 여호와는 그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구원을 받을 적절한 준비를 해야만 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온전하게 헌신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분의 좋은 선물들을 맡기실 수 없다. 우리의 꼬마 아이가 길에서 넘어져 생채가 난 무릎을 가지고 고함치며 부엌으로 왔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상처 부위에 커다란 2인치 반창고를 붙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반창고를 붙이기 전에 그 상처에 붙어있는 모래알과 끈적끈적한 것을 제거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결심 카드를 주시고 "나를 따르라"는 글귀 옆에 있는 네모에 체크 표시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는 그 도덕적인 사람의 제 일 계명 위반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의 우상을 깨뜨리라고 요구하셨다(막 10:21). 그 후에야 그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마음은 기드온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부자 청년 관원에게도, 우리에게도 결코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요구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바알은 사라져야 한다. 바알은 묵인할지 모르지만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더 이상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할" 수 없다(왕상 18:21). (여전히 마니교도이면서 어거스틴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쟁점을 결정한 것이다. 사사기 6장과 마태복음 6장은 동일하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없다(마 6:24). 기드온처럼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더 이상 감추인

채로 남을 수 없고, 우리 자신이 선언해야만 하고, 우리가 배수진을 치고(필사적으로 덤비고), 필요하다면 공동체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기대들에 반하여 홀로 서 있어야만 하는 때가 온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6:27)." 기드온이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밤에 바알의 단을 훼파한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낮에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두려워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분명히 순종은 필수였지만 용감한 행위는 선택적이었다.

오브라 마을의 온 역사에 그 마을을 그렇게 크게 흔든 일은 없었다. 마을 대표들이 성문에서 그날 아침 따뜻한 염소 우유를 마실 때 얼마나 격노했는지! 주 바알의 단이 파괴되고 부인 아세라의 기둥이 찍혀 조각들이 되어 땔감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신성 모독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 그들이 그것을 감행한 악당을 붙잡을 때까지 기다려라.

어떻게 해서 말이 새어 나왔고 마을 어른들이 요아스를 찾아와 그의 아들을 넘겨주어 처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위기는 때때로 사람들로 지각있는 말을 하게 한다. 적어도 요아스는 아들을 잃을 위기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이 지각있는 말을 한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6:31)

사사기 저자는 요아스의 말 속에 있는 통렬한 풍자를 기록하면서 틀림없이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왕상 18:27의 엘리야의 말만이 이보다 더 신랄할 것이다.) 요아스의 새로운 신관의 요지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은 그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오브라 의회로부터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바알이 직접 내 아들을 완전히 후려 갈길 수 있어야 한다."[4] 그러므로 이 문제는

[4] 요아스의 대꾸는 우리에게 존 낙스의 대꾸를 생각나게 한다. 낙스가 갤리선의 노예였을 때 성모 마리아의 초상화를 숭배하라고 명령받았다. 그는 그것을 강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A. M. Renwick, *The Story of the Scottish Reform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60], 44). "우리의 성모로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 그녀는 충분히 가볍다. 그녀로 수영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스라엘을 압박한다. 계속해서 바알을 두둔할 것인지(6:31) 아니면 여호와의 단에서 예배할 것인지를(6:24, 28)!

V. 우리를 안정시키는 확신 (The Assurance That Sett les Us)

다음 해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다음 절을 보면 전처럼 미디안과 아말렉, 곧 동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치는 일이 일어났다(6:33). 그러나 금년에는 한 가지 새로운 변화가 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다시 말하면,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으로 온통 덮히고, 6:34),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 자신의 친족과 므낫세 지파와 다른 여러 지파들로 전쟁을 위해 모이도록 명령한다(6:35). 그러나 여호와의 영의 능력은 인간의 약점을 만난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안정시키는 확신을 주목해야 한다(6:36-40).

우리는 6:36-37에 나오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라는 어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드온은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에 대하여 확신하기를 원한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확실한 말씀에 대하여 더 확신하기를 원한다.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믿음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의 신중함이다.[5]

그것은 신중한 태도이다. 여호와께서 젖은 양털과 마른 땅의 표징을 주신 후에 기드온은 그 반대 즉 마른 양털과 젖은 땅의 표징을 요구했다. 고스링가가 말했듯이 "이것은 습기를 빨아들이는 것이 양털의 성질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인상적이고 놀라운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표징은 자연을 거스리는 것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훨씬 더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6]

---

[5] 나는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주석가들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우드는 심지어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알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점이다. 단지 그는 문제들이 착수하기에는 너무 컸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이 틀림없다고 느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가 기드온의 머리 안에 있어 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우리 주석가들이 좀 더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두려워 떠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보다 신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것은 멋진 범퍼 슬로건 신학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항상 말끔하게 믿는 경험의 투쟁들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나와 비슷한 삿 6:36-40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위해 H. W. Hertzberg, *Die Bücher Josua, Richter, Ruth*, 2d ed., Das Alte Testament Deutsch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59), 194을 참고하라.

[6] C. J. Goslinga, *Joshua, Judges, Ruth*, Bible Student's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332-333.

기드온의 상황이 특별한 상황인 것이 인정되지만 나는 이 본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양들을 위한 신학적 잉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개의치 않으신다. (우리가 이웃 집의 커다란 개를 보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세 살짜리 꼬마를 "뱅충이" 혹은 "겁쟁이"라고 부를 것인지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참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흔들리는 붙잡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개의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주 기꺼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타작 마당 대신 식탁을 차려 주시고 양털 대신 빵과 술을 제공하신다.

9.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힘 (삿 7:1–8:21 Strength Made Perfect in Weakness)

광고는 계속 이미지를 판다. 텔레비전의 맥주 광고들은 어떤 맥주를 건장하고 원기 왕성한 건축 노동자와 연관시키면서 그런 맥주를 마시면 당신을 기백있고 체력 좋은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게 해 줄 것이라고 암시한다. 담배 광고들도 비슷한 일을 한다. 잡지나 게시판을 통해 한 브랜드의 흡연은 잘 견디고 다부지고 야성적인 유형들을 위한 것인 반면 다른 브랜드의 흡연은 당신을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의 부류에 들게 해주리라고 선전한다. 대체적으로 우리의 광고와 우리의 정감은 균형 감각 있고, 단언적이고, 자신 있고, 대담하고, (도가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심지어 뽐내는 유형의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성경 이해에 어려움을 주는 이유일 것이다. 성경은 우리처럼 우리의 이미지에 집착하지 않는다. 사실을 말하면 성경은 자주 이러한 사고 방식을 깨뜨린다. 통상적으로 하나님은 영웅이 아니라 종을 부르시고, 그분의 많은 종들은 광고업계가 우리에게 귀중히 여기라고 가르치는 전형과 맞지 않는다. 기드온이 그 적절한 예이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약함은 사사기 6-8장에 온통 퍼져있다. 우리는 이 주제를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무기력함(6:2-6), 기드온의 낮은 지위와 상대적인 무명(6:15), 그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6:27), 그의 추가적인 확신의 필요성(6:36-40), 그의 군대의 획기적인 감소(7:2-8), 그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추가적인 확신의 필요성(7:10-15), 그의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관대한 답변(8:1-3),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그의 군대(8:4-9), 그리고 아마도 그의 왕권의 거절(8:22-23) 등에서 볼 수 있다. 기드온은 관례적인 영웅이 아니다.[1] 그 대신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약함 가운데 제시된다. 이 약함이란 주제는 저자의 주된 요점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저자의 요점은 바울식으로 표현한다면(고후 12:9) 여호와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조차도 믿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2]

---

[1] Leland Ryken, *The Literature of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74), 66-67. 약함이란 주제에 관하여 H. W. Hertzberg, *Die Bücher Josua, Richter, Ruth*, 2d ed., Das Alte Testament Deutsch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59), 191-192, 194-195도 보라.

[2] 나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약함이 겸손에 의한 가짜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약함은 그들의 실제적 상황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약함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발 앞에 떨어진 한 덩어리의 영적 젤리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우는 소리를 많이 낸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창백해 보인다거나 독감에 걸렸다는 의미도 아니다. 당신은 약하다고 전혀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끼지 않아도 당신은 정말 약하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당신의 모든 인적 자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브루스가 고후 12:9에 대하여 "나의 힘은 나의 백성이 약할 때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다."라고 풀어 설명한 것은[3] 기드온 이야기의 주된 취지를 잘 요약해준다.

I. 약함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Weakness)

첫째로, 여호와께서는 약함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신다(7:1-8).[4] 여호와는 이 교훈을 길보아 산지의 기슭에 있는 하롯[5] 샘에서 가르치신다. 미디안의 큰 무리가 북쪽으로 여러 마일 떨어진 모레 산(에스드랄론 평지의 동쪽 끝에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남서쪽으로 15마일쯤 떨어져 있음)과 골짜기에 진치고 있다.

삿 7:2은 우리의 두뇌에 새겨져야 한다. 이 구절은 이 부분을 해석하는 열쇠이며 소위 물을 핥아 먹은 자들(삿 7:5-7)의 경계심이 아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여호와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나의 이러한 진술이 주일 학교의 이야기들과 설교들과 심지어 진지한 주석들에서 사랑스럽게 다루어지는 암소 곧 해석적인 신성한 암소를 죽이는 악취를 내뿜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소위 핥아 먹은 자들이 보여준다고 하는 어떤 미덕이나 고상한 자질은 본문에 억지로 집어넣어 읽은 것임에 틀림없다. 본문은 그 자체로 핥아 먹는 것의 어떤 장점을 암시하거나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것의 어떤 단점을 암시하지 않는다. 본문을 다시 살펴보자.

신 20:8에 따라 모든 두려워 하는 자들(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이로 인해 기드온의 군대가 3만 2천 명에서 1만 명으로 줄어들었다(7:3). 이해하기 힘든 여호와의 견해로는 1만 명도 너무 많았다(7:4). 그러므로 여호와는 기드온을 위해 그들을 시험(곧 정제)하시려고 그들로 물을 마시게 하셨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곧 개가 핥듯이 그들의 혀로 핥아 마시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로 나누어졌다(7:5). 그 수를 말하면 핥아 마시는 자는 3백 명이고 그 나머지(9천

하는 상황에 있다.

[3] F. F. Bruce, *An Expanded Paraphrase of the Epistles of Paul* (Exeter: Paternoster, 1965), 155.

[4] 삿 7:1 그리고 7:8b에 나오는 "미디안 진영"에 대한 언급은 7:1-8을 하나의 구별된 단락으로 감싸는 역할을 한다. 7:1-9과 6:36-40 사이에 미묘한 대조가 있다. 6:36-40에서는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확신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 7:1-8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약함을 가져오신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고 다음으로 그에게 약함을 주신다. C. F. Keil, *Joshua, Judges, Ruth*,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343을 보라.

[5] 샘의 이름(חֲרֹד[하로드] 7:1)과 기드온의 군대의 두려워 떠는 것(חָרֵד[하레드] 7:3) 사이에 언어 유희가 있는 것 같다.

7백 명)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였다(7:6).[6] 그리고 여호와의 선언 곧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선언이 나온다(7:7).

핥아 먹은 자들이 주석가들에게 얼마나 미덕이 있게 여겨지는지 놀라울 정도다. 핥아 먹은 자들은 (아직 북쪽으로 수 마일 떨어져 있었을!) 적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항상 두며 몸을 굽혀 물을 퍼서 마시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예의주시하던 자들로 소개되는 반면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은 오직 그들의 목마름만을 생각하던 부주의하는 자들로 간주된다.[7] 예를 들어 이름을 모르는 한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정신을 잘 보여준 3백 명과 비교할 때 육체의 욕구를 따라 부주의하게 물을 먹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인지 하나님은 아셨다. 그러므로

---

[6] 삿 7:5은 "그의 혀로" 물을 핥는 자로 묘사하지만 7:6은 "그들의 손으로 움켜 그들의 입에 대고" 핥는 자로 묘사한다. 어떤 이들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는" 것이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의 방식만을 묘사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 어구를 7:6의 전반절 끝에서 후반절 끝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NEB와 고스링가를 보라). 카일과 같은 사람들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는" 어구가 "혀로" 핥는 것에 대한 보다 더 분명한 표현으로 설명한다.

[역자 주] Chisholm, *Judges, Ruth*, 282: As it stands, the Hebrew text of verses 5b-6 makes little sense. . . Verse 5 seems to distinguish two groups, dog-like lappers and kneelers, but verse 6 contrasts those who "lap" by putting their hand to their mouth (dogs don't do this!) with kneelers. The simplest solution is to view the phrase "with their hands to their mouths" as originally an explanatory, marginal gloss that has been accidentally put into the text at the wrong place. It was probably originally designed to explain how the kneelers drank. It fits well at the end of verse 5: "Separate those who **lap** the water with their tongues **like a dog** from those who kneel down to drink *with their hands to their mouths*. **Three hundred men lapped**; all the rest got down on their knees to drink." Or one could place it at the end of verse 6: "Separate those who **lap** the water with their tongues **like a dog** from those who kneel down to drink. **Three hundred men lapped**; all the rest got down on their knees to drink *with their hands to their mouths*." . . . The Lord probably chose this test because he knew **only a handful of men would lap like a dog**. Scooping water with one's hands is the more normal way of drinking water from a stream. It is unlikely that their drinking posture implies anything about the character of the men. The test is simply designed to reduce the army to a mere remnant.

[7] 고스링가처럼 "손으로 움켜 입에 대는" 것이 무릎을 꿇고 먹는 자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시나리오는 다르지만 해석은 동일하다. "3백 명이 몸을 강가에 납작 엎드리고 급하게 물을 조금 들이킨 후 다른 사람들이 막 무릎을 꿇을 때 이미 그들의 대열로 돌아와 있었다. 9천 7백 명은 동일한 기민함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 움큼의 물을 마실 만큼 오랫동안 무릎을 꿇은 채 있었다(C. J. Goslinga, *Joshua, Judges, Ruth,* Bible Student's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335])."

강하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 곧 가혹한 상황아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적의 불시의 공격보다 먼저 자신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선택되었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갖는 문제는 그것이 본문에 아무런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본문은 물을 어떻게 들이켰는지에 따른 어떤 장점이나 단점을 암시하지 않는다. 물을 마신 것에 대한 에피소드는 단지 기드온의 군대를 대폭 줄이기 위한 여호와의 수단에 불과했다. 3백 명의 자질에 쏟아진 관심은 실제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흐리게 한다. 왜냐하면 삿 7:2이 이스라엘의 약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소수의 정신력을 칭찬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이 3백 명은 이스라엘의 약함의 징표이지 이스라엘의 힘의 본보기가 아니다.

우리가 이 단락의 메시지를 바르게 들으려면 7:2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노력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의 증명된 방법들을 신뢰하고 그들 자신의 기여도에 점수를 주고 그들의 영리함을 좋게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자주 그의 백성이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로 축소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그들은 그들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의 능력과 자비에 달려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신다.

7:2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 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빗나감, 곧 하나님께 돌아갈 찬양을 훔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 절은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얼마나 부적합한가를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일을 맡기실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주 그러한 가망이 없는 도구들을 택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맥컬록이 부흥을 일어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1740년경 스코틀랜드 캄부스랑의 교구 목사였다. 언어들 특히 히브리어에 뛰어난 학자적인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단을 위한 은사가 거의 없었다. 그의 아들조차도 그를 "아주 준비가 안 된 설교자, . . . 어눌한 설교자, . . . 그의 태도는 느리고 조심스러웠다."라고 묘사했다. 사실상 그는 "에일(맥주)-목사"라는 별명을 가졌다. 그것은 그가 설교하려고 일어섰을 때 청중 가운데 상당수가 그 지역 선술집에서 갈증을 달래기 위해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다.[8]

[8] Arthur Fawcett, *The Cambuslang Revival* (London: Banner of Truth, 1971), 38-39.

그러나 하나님은 휫필드가 캄부스랑을 방문하기 얼마 전에 그곳의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맥컬록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셨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꿰뚫어 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맥컬록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신 것은 캄부스랑의 부흥이 달변이나 인간의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약함의 필요성—이것은 자주 하나님의 방법이다.

더 나아가기 전에 나는 승리에 대한 보고(7:16-22)가 약함의 주제 (7:1-8)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적하고 싶다. 세 대로 나누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휘두르고 나팔을 불고 전쟁 구호를 외치는 것—이 계획은 정교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백 명은 주로 나팔을 부는 자로 남아 있다. 7:21은 "각기 제자리에 서서 진영을 에워쌌다"라고 강조하는 반면, 7:22은 미디안의 상해를 여호와께서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친구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신 일로 설명한다. 승리는 여호와의 작품이다. 3백 명은 공격이 아니라 추격만 했을 뿐이었다(7:22b).[9]

II. 약함 중의 격려 (The Encouragement in Weakness)

둘째로, 삿 7:9-15은 우리에게 고난 중의 격려를 보여준다. 여기에 하나님의 확약이 있다.[10]

기드온은 매우 비영웅적인 주인공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미디안 군대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시지만(7:9) 그에게 예비적으로 해 볼 일을 주신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7:10-11a)." "네가 두려워하거든 . . . "에서 보는 것처럼 두려워한다고? 기드온이? 그렇다! "이에 기드온이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다(7:11b)." 여기에 당신의 관례적이고 무뚝뚝하고 단호한 철인이 있지 않다. 기드온은 두려움 없는 만능의 수비수도 아니고 패튼 장군도 아니고 굴러서 큰 숫돌에 이르는 존 웨인도 아니다. "이에 그가 내려갔다."

도청은 성과가 있었다.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한 미디안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말한다. "이보게(보라, 히브리어 [히네]), 내가 한 꿈을 꾸었네. 그래서 보니(히브리어 [히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

[9] 언급된 지명들의 위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7:22b에 묘사된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친 경로를 정확하게 추적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아벨므홀라는 요단의 서편인가 아니면 동편인가(cf. S. Cohen, 'Abel-Meholah,' *IDB*, 1:5)? 분명히 그들은 요단을 건너려고 남쪽/남동쪽으로 도망쳤던 것으로 보인다.

[10] 삿 7:9-15에서 하나님 자신이 기드온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신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기드온이 삿 6:36-40에서 확신을 위해 표징을 구한 것을 비난할 수 없다.

그 장막이 쓰러졌네(7:13)." 그의 친구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말한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 같네(7:14)."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은 여호와께 경배한다(7:15). 여호와는 옳으셨다. 이로 인해 기드온의 손이 강해졌다(7:11).

이 에피소드에는 어떤 아이러니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이상한 통로 곧 미디안 병사를 통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한 살의가 있는 대제사장을 그의 선지자로 쓰시고(요 11:49-52), 조롱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신학자)들을 그의 전도자로 쓰시고(막 15:31),[11] 이방인 총독을 그의 훌륭한 증인으로 쓰셨기(요 19:19-22) 때문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관심사를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추적해 볼 수 있다. "일어나 내려가라(7:9)," "그러나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 . . (7:10)," "그 후에 네 손이 강해질 것이다(7:11)." 여호와는 그분의 종들의 두려움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시 103:14)."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 떨 때 가혹하실 만큼 엄격하시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를 놀리시지 않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조소하시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무엇인지(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현재의 고정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속이며 기독교 텔레비젼 방송의 한 두 출연자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참된 종은 오직 역동적이고, 확인에 차 있고, 자신만만하고, 노골적이고 두려움이 없고, 유머 감각이 있고, 모험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 당신이 그러한 풍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쓰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확신이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취하시사 가장 기이한 방식으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로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분을 나타내도록 하신다.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종종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히 11:34)."

---

[11]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느 기독교인이라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막 15:31)." 라는 말이 그가 들은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III. 약함의 원인 (The Cause of Weakness)

이제 약함이란 주제가 새롭게 바뀐다. 삿 7:1-8에 살펴본 것처럼 약함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삿 7:24-8:21에서처럼 약함이 해로운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약함의 원인을 제공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열로 인해 약함이 일어났다.[12]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은 세 가지 싸움을 싸워야 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서 바알과 싸웠고, 7장에서 미디안과 싸웠고, 8장에서 슬프게도 이스라엘과 싸워야만 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불러 요단으로 가서 벧 바라까지 수로를 점령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다(7:24).[13] 기드온의 말대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죽인다. 이 일로 인해 오렙을 죽인 오렙 바위와 스엡을 죽인 스엡 포도주 틀이 역사적 기념비가 된다(7:25). 요단을 건너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온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화를 낸다. "당신이 뭐길래 우리와 상의 한 마디 하지 않고 먼저 미디안과 전쟁을 벌였소(8:1)?" 에브라임은 지파들 중의 프리마돈나이고 집단적 디오드레베(요삼 9)이었다. 그들은 그들 지파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었음을 내세울 수 있었고(민 13:8), 어쨌든 그들의 패권을 주장하는 일에 지칠 줄 몰랐다(삿 12:1-6). 그러나 기드온의 재치있는 말(8:2 금언)과 그들의 공적을 자신의 것보다 높게 평가하는 말(8:3 상식 심리학)이 효과를 발휘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린다. 다툼을 일으킨 것은 바로 에브라임의 자만심이었다.

숙곳(8:4-7)과 브누엘(8:8-9)의[14] 사람들이 자만심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기드온의 지지를 거부한 것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백 명은 요단 강에 이르러 동편으로 건너 피곤한 가운데 미디안을 추격하고 있었다(8:4). 기드온이 숙곳 사람들에게

---

[12] 이스라엘의 분열이란 주제의 다른 예들은 삿 5:15b-17; 12:1-6; 15:10-13; 19–21장 등에서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A Proposed Life-Setting for the Book of Judges"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1978), 66-76에서 자세한 논의를 했다.

[13] 벧 바라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어떤 이들은 와디 파라가 요단과 합류하는 근처 곧 얍복강이 동쪽으로부터 요단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점의 반대편의 약간 남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개괄적인 지도를 위해Yohanan Aharoni and Michael Avi-Yonah, *The Macmillan Bible Atlas*, rev. ed. (New York: Macmillan, 1977), 54에 나오는 지도 76을 보라.

[14] 숙곳과 브누엘은 요단 동편 곧 얍복 강 근처에 있었다. 보다 자세한 것을 보려면 S. Cohen, 'Succoth,' *IDB*, 4:449와 'Penuel,' *IDB*, 3:727을 참고하라.

식량을 달라고 했을 때 그곳 방백들은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15]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8:6)?"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줄 수 없다는 거절의 뜻이었다.

어느 정도는 그들의 거절에 일리가 있다. 숙곡(혹은 브누엘)의 방백들이 기드온의 군대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어떤 이유로 기드온이 미디안의 위협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되돌려줄 수 있을 때 그들의 보복을 초래할 것이다. 요단 서편의 지파들과는 달리, 숙곳과 브누엘은 미디안의 기습 공격을 최소한 부분적이라도 막아줄 완충 역할을 하는 요단 계곡도 없다. 이 성읍들은 미디안의 공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했겠지만) 신중함 때문에 기드온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것은 신중함 때문이 아니라 믿음 없음 때문이 아닌가?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안전이 항상 궁극적인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하는가? 숙곳과 브누엘이 여호와께서 승리의 표시를 주셨고 그들이 승리를 완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까? 이 이야기가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성읍들이 미디안의 분노는 피하지만 기드온의 분노 아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다(8:13-17). 그들이 이스라엘의 적들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적으로 취급되었다(8:10-12, 18-21에 비추어 8:13-17을 보라).[16] 심판이 여호와의 백성을 포함하고 그분의 성소에서 시작되어야 할 때 그것은 비극이다(문맥을 위해 겔 9:6을 참고하라).

그렇다면 기드온은 (에브라임처럼) 자신의 지위에 주된 관심을 갖거나 (숙곳과 브누엘처럼) 자신의 안전에 주된 관심을 갖는 여호와 자신의 백성에 의해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굳힐 필요가 있는 결정적인 승리에 비추어 보면 에브라임의 자만심 그리고 숙곳과 브누엘의 두려움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었다. 인정과 안전에 대한 애착은 이스라엘이 필요로 했던 결속을 파괴했다.

---

[15] 여기 "손"이라는 용어는 정복당한 적들의 수족을 짜르는 관습을 암시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숙곳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며 기드온이 이미 미디안 왕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손들을 잘라서 그걸 승리의 증거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고 있었다.

[16]기드온이 그들이 자기를 "조롱했다"라고 말한(8:15) 것을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같이 **행동했다**. 히브리어 동사 [하라프]는 "비웃다, 조롱하다, 모욕하다"는 뜻을 갖는다. 주석가들은 대개 숙곳과 브누엘에 대한 기드온의 조처가 정당했다고 보지만 종종 세바와 살문나에 대한 그의 처형(8:18-21)을 개인적인 보복으로 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8:19이 세바와 살문나가 전투에서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쟁 포로로 데려온 후 살려두는 선택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죽인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다.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이 커다란 실망의 원인이 된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모르면, 당신은 교회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에게 환멸을 느끼게 하지 말라. 적어도 그것을 대비하라. 교회의 통일성을 깨뜨리고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지위에 대한 **당신의** 열망이나(막 10:35-45) 안전에 대한 **당신의** 추구가(딤전 6:17; cf. 딤후 4:16) 아니도록 조심하라.

셔먼 장군이 남북전쟁에서 녹스빌의 포위를 풀었을 때, 옷이 헤어지고 배가 고픈 북군 병사들은 곧 다시 식량 보급을 받을 것으로 알았다. 채터누가와의 철도 연결이 복원되었고, 군사의 절반이 첫 번째 열차를 보러 역으로 몰려갔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관료적 어설픔으로 인해 말굽의 편자 외에는 아무것도 적재하지 않은 10 칸짜리 화물 열차였다.[17] 말굽의 편자가 굶주린 군인들에게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듯이, 언쟁과 분열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강하게 할 수 없다. 설령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분의 백성이 약할 때 가장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그러한 약함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17] Bruce Catton, *This Hallowed Ground* (Garden City, N.Y.: Doubleday, 1956), 301.

10. 잘 끝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삿 8:22-32 It's Tough to End Well)

내가 어렸을 때 유다의 왕들에 대하여 얼마나 실망했는지 기억난다. 성경 이야기 책에서 읽든지 아니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본문에서 읽든지 나는 아사, 여호사밧, 웃시야,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에 대하여 마음이 아팠다. 이런 왕들은 기본적으로 신실했을지라도 그들의 통치가 끝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그런 신실함을 손상시켰다(예: 대하 16:1–19:3; 26:16-23; 왕하 20:12-21). 나는 이에 한결같이 실망하며 잘 끝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I. 실망스러운 지도력(Disappointing Leadership)

기드온도 이와 동일한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실망스러운 지도력을 만난다. 그러나 이 요점을 계속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요구(8:22)와 소위 기드온의 왕권 거절(8:23)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1] 기드온에게 왕조를 세울 것을 요청한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8:22)."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왕이 되다"는 [말라흐]가 아니라 "다스리다"는 [마샬]일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의한 것은 분명히 세습적인 왕정이다. 이 제의의 배후에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 이것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라는 표현에서 확인된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경향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여호와의 도구에 불과한 기드온이 아니라 마땅히 여호와께(7:2) 돌려야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그들이 단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적절한 존경, 곧 나중에는 볼 수 없었던(8:35)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정말 까다로운 문제는 기드온의 대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8:23)." 기드온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했을까? 이것은 "매정한 거절"로 "왕정에 대한 모든 생각이 부적절하다고 거부되어야" 함을 보이고 "왕정에 대한 생각 자체가 참 이스라엘인들에게 혐오스러운" 것임을 보이고 있는가?[2] 아니면 기드온의 거절은 겉보기뿐이었는가? 그건 은폐된 왕정의 수락이 아니었는가?[3] 그렇다면 기드온은 왕정 자체를

---

[1] 나는 이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미디안의 파멸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요던 서편의 지파들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3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81), 167, 182.

[3] G. Henton Davies, 'Judges, VIII 22-23,' *Vetus Testamentum* 13 (1963): 151-57.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정이 취해야만 하는 형식(곧 실제로 나 혹은 나의 후손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문맥은 기드온이 왕의 지위를 누린 증거들을 보여준다. 기드온은 백성에게 금 귀고리들을 요구하여 받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을 종교적 음행으로 인도하였고(우상 숭배 도입자, 8:24-27), 많은 아내와 70명의 아들을 두었고(상당한 규방, 8:30), 그의 첩의 아들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는 뜻을 가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8:31).[4] 기드온의 정신을 반영하듯이 아비멜렉은 통치가 기드온 가문에게 물려지거나 계속될 것이라고 선전했다(9:1-5). 나는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지만 은폐된 수락보다는 조건을 단 수락이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한다.[5]

우리가 왕정을 강하게 반대하는 기드온을 더 좋아하든, 왕정을 조심스럽게 찬성하는 기드온을 더 좋아하든, 어느 경우든 우리는 모순과 실망을 대하게 된다. 그가 왕권을 거절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권을 갈망했다(예: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주는 것). 어떤 면에서 그가 왕권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신중함이 부족한 점, 곧 나중의 배교의 기회를 제공한 점에서(8:27b) 우리를 실망시킨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신학(8:23)만큼 좋은 우리의 행동(8:27)을 하려는 싸움을 알고 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후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자만을 보이는 것은 항상 우리의 위험이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6:34) 기회들을 알지만 성령의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다.

---

[4] 삿 8:31b을 직역하면 "그는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정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 용어는 개명하는 것을 가리킨다(Robert G. Boling, *Judges*,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75], 162을 보라). 그러나 학자들은 대체로 기드온이 이 아들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이름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니면 학자들은 기드온이 이름지었더라도 "나의 아버지"는 기드온이 아니라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고스링가(C. J. Goslinga, *Joshua, Judges, Ruth*, Bible Student's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353 n)는 "분명코 기드온이 그러한 이름을 준 적이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이란 이름이 "나의 아버지[= 기드온]는 왕이다"라는 뜻을 가질 수 없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학자들이 근거 없이 기드온의 일관됨을 가정하고 8:31을 8:23의 해석과 짜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 이름을 아비멜렉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이름으로 보려는 부버(Martin Buber, *Kingship of God* [New York: Harper and Row, 1967], 74)의 시도는 8:31에 대한 매우 부자연스러운 독법이다. 나는 웹(Barry G. Webb, *The Book of the Judges: An Integrated Reading*, JSOT Supplement Series 46 [Sheffield: JSOT, 1987], 154)의 의견에 동조한다. "아비멜렉(나의 아버지-이다-왕)이란 이름은 기드온의 공적인 발표들과 개인적인 실행 사이의 모순에 대한 아이러니한 논평이다."

[5] 그러나 증거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쿤달(Arthur E. Cundall, *Judge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ondon: Tyndale, 1968], 121)은 8:29이 기드온이 개인 생활로 돌아간 것—새로운 왕권에 대한 이상한 비틀림—을 강하게 제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모순과 실망의 그림자가 자주 하나님의 종들 위에 드리운다. 기드온도 희귀한 예외가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나 실수를 용납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점이 우리의 기대들을 낮추고, 우리의 실망을 느그러뜨리고,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 선민의) 지도자에게로 들어 올리게 하라.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고(cf. 벧전 2:6),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시고(요일 3:5), 그분은 어느 누구도 죄로 책잡을 수 없으시다(요 8:46).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에게서도 결코 직임의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실망시키는 그리스도의 종들에 대한 냉소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II. 파멸적인 재주 (Disastrous Ingenuity)

둘째로, 8:27은 우리에게 파멸적인 재주를 말해준다. 기드온은 그가 요구한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들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러한 잘못된 헌신은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가미가 되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복장(출 28:1-35; 39:1-26)의 일부로 다른 겉옷 위에 입는 소매 없는 웃옷이었다. 그것은 값이 비싸고 색채가 다양한 재료 곧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들어졌다.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상징하는 12 개의 보석이 네 줄로 달려 있는 흉패가 에봇에 붙어 있었다. 이 흉패에는 특별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의 뜻을 찾는데 사용된(민 27:21) 우림과 둠밈(출 28:30)을 담은 주머니가 있었다. 흉패가 에봇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에봇을 요청하는 것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여호와의 지시를 묻는 것을 의미했다(삼상 23:9-12; 30:7-8). 무어(Moore) 같은 사람들은 기드온의 에봇을 하나의 형상으로 간주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가장 자연스러운 견해는 에봇을 여호와의 지시를 구하는 수단으로 의도된 제사장의 웃옷으로 보는 것이다.[6]

통상적으로 에봇은 언약궤와 성막이 있던 곳에 당시의 대제사장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정복과 정착의 기간 동안 성막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 일반적으로 실로(수

---

[6] 에봇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를 위해 R. K. Harrison, 'Ephod,' *ISBE* (rev. ed.), 2:11718을 보라. 삿 8:27에 나오는 에봇에 관하여 Goslinga, *Joshua, Judges, Ruth*, 351을 보라. 문화 배경을 위해 W. F. Albright, *Yahweh and the Gods of Canaan* (Garden City, N.Y.: Doubleday, 1968), 200-203을 보라. 우림과 둠밈에 관하여 알려진 것이 별로 없지만 세심한 논의를 위해 C. Van Dam, "Urim and Thummim," *ISBE* (rev. ed.), 4:957-959을 보라. 삿 8:24-27에 관하여 균형 잡힌 설명을 위해 카일(Keil)의 주석[역자 주: https://biblehub.com/commentaries/kad/judges/8.htm]을 참고하라.

18:1, 8-10; 19:51; 22:9, 12-14; 삿 18:31; 삼상 1–3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때때로 벧엘(삿 20:27-28)에 있었던 것 같다. 여호와는 성소에 제사장과 에봇을 마련해 주셨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은 여호와의 지시와 인도를 받을 수 있었다(cf. 민 27:21). 여호와께서 (사사기 6-7장에서 기드온에게 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독특하게 어느 한 종에게 직접적인 인도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가지고서 그 종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인도의 지속적이고 대안적인 통로가 되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것이 8:27에 묘사된 기드온의 행위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여호와께서 이미 주신 제사장과 에봇과 더불어, 기드온은 자신이 여호와의 직접적인 인도의 통로가 되고 싶었다. 달리 말하면, 문제의 핵심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선언하기 위해 주셨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갈망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경건한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좋아했다(8:27).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에봇이나 대제사장이나 성막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기드온처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양, 양육, 지시를 위해 이미 주셨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갈망할 수 있다. 우리는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이 부족하다고 암시한다. (시 23:1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우리를 적절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신뢰하며 성경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아니, 우리는 더 많은 것, 곧 우리의 특별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말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거나 "성령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며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7]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찬을 기독교인 갱신의 수단으로 주신 것을 무시하는 것도 기드온처럼 에봇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우리가 "부흥회", 세미나, 수련회, 혹은 집단 훈련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조합하거나, 회중들로 앞으로 나와서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재헌신하도록 강요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곧 주님의 성찬을 무시해버린다.

---

[7] 당신이 어떻게든 잘못된 지시를 얻으면 당신은 실제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아버지의 교구들 중 한 곳에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열심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떤 사람의 농장으로 와서 그 부인에게 남편이 집에 있는지 물었다. 그 부인은 "아니요, 그이는 다른 데 가고 없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성령께서 자기더러 그녀의 남편에게 가서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 출타 중인 사람의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저의 남편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셨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저의 남편이 집에 있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 복음전도자들은 자주 기독교인들이 주님께 공개적으로 재헌신하도록 초대한다. 그러나 성찬은 그 바로 시초부터 수립된 재헌신을 위한 수단이다. 성찬이 실행될 때마다 그것은 참석한 모든 기독교인이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도록 하는 명확한 요청이다.[8]

나는 예를 들어가며 기독교의 수련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못지 않게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하고 정상적인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면서 더 강화되고 비상한 경험들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III. 비극적 손실 (Tragic Loss)

마지막으로 우리는 삿 8:28을 통해 암시된 비극적 손실을 본다. "기드온이 사는 사십 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것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뜻이다. (같은 동사 [샤카트]가 사용된 수 11:23; 14:15을 보라.) 적의 침략도 없고, 땅의 소산물을 거두어가는 침략자들도 없고, 마을을 약탈하는 일도 없었다.

삿 8:28을 강조할 이유가 있다. 이것은 사사기에서 태평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다(3:11, 30; 5:31을 보라). 삿 8:28 이후에는 땅이 더 이상 태평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선물이요 이스라엘이 몰수당한 향유이다. 어떤 이들의 주장과 달리, 사사기는 범죄-회개-구원-태평의 반복적인 순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백성의 점진적인 붕괴를 잘 보여준다.[9] 지속적인 배교를 통해 여호와의 선물을 무시하는 백성은 그 선물이 회수되는 일을 겪을 것이다.

내가 4학년이었을 때 나의 아버지는 새로운 일 하나를 정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용돈을 주시는 일이었다. 우리 가정에서 돈은 아주 세심하게 배분되어야 했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한 달에 5달러씩 주셨다. 나는 놀랐다. 유일한 요구 조건은 그 돈의 십일조를 교회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4달러 50전이 남았다. 아버지는 내가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저금하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다. 아버지가 나로 그의 파일 캐비닛에 있는 조그만 통에 그 돈을 넣게 하여 나의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집 아래로 교통 신호 있는 곳에 헤르 식료품 가게가 있었다. 거기엔 어린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사탕, 껌, 그리고 1전과 5전과

---

[8] Alan Dan Orme, *God's Appointments with Men: A Christian's Primer on the Sacraments* (Athens, Ga.: University Church Press, 1982), 54.

[9]삿 3:11에 대한 나의 설명을 보라. 그리고 J. P. U. Lilley, 'A Literary Appreciation of the Book of Judges,' *Tyndale Bulletin* 19 (1967): 97-99과 Webb, *The Book of* Judges, 158, 175-176도 보라.

10전짜리 물건들이 잔뜩 있었다. 나에게 4불 50전과 친구 딕이 있었다. 우리는 두세 달 동안 살찌게 하는 것을 실컷 즐겼다. 그 때 딕의 어머니가 의심하게 되었고 나의 아버지로 의심하게 하셨던 것 같다. 갑자기 용돈이 취소되었다. 특권이 남용되다가 제거되어 버렸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기드온 이후에 땅은 더 이상 태평 세월을 갖지 못했다. 사사기는 여호와의 자비가 깊지만(2:18에 대한 설명을 보라) 안이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드럽지만 짓밟히지 않는다. 여호와의 자비가 선포하는 말은 (오십 년대의 감상적 노래처럼)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보는 것이 그분을 슬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항상 '내가 용서한다'라고 말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롬 2:4 말씀대로)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이다.

잘 마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어떤 신자라도 그것을 안다.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전 1:8)"는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확신이다.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려 보라.

11. 가시 같은 사람, 이스라엘의 파괴자 (삿 8:33–9:57 Brambleman, Destroyer of Israel)

여러 달 전에 우리 가족은 서쪽으로 운전하여 캔사스로 가고 있었다 고속도로의 우리 편의 교통이 느리고 기어가고 멈추고 기다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서히 길을 따라 가면서 마침내 병목 현상의 원인에 이르렀다. 어떤 차에 불이 나서 거의 전부가 불타 있었다. 고속 도로 운전에서 우리는 자주 상대방을 조심하면서 방어 운전을 하는 것을 생각한다. 우리는 위험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고속도로 위에 그을리고 연기 나는 잔해의 뼈대는 어떤가? 차를 망가뜨린 어떤 것이 내부에 있었음이 분명했다. 전기 장치의 고장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다.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는가? 파멸은 외부로부터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올 수 있다.

이스라엘을 황폐시키고 파멸시키는데 어떤 외국 침략자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물론 모압인들과 가나안인들과 미디안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파괴자로서 아비멜렉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사사기 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사사기 9장은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주어 아비멜렉을 후원하는(9:4)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던져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리는(9:53) 것으로 끝나는 일련의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다.

이것은 긴 내러티브이다. 따라서 나는 먼저 그 구조와 내용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려고 한다. 이 개요는 우리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일목요연하게 보고 그것의 교훈으로 나아가게 해 줄 것이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배신, 9:1-6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한 저주, 9:7-21
요담의 우화, 7-15
(감람 나무, 포도 나무, 무화과 나무, 가시 나무)
요담의 저주, 16-20
배은망덕에 대한 풍자, 16-19
양날 가진 저주의 선언, 20
요담의 피신, 21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한 심판, 9:22-57
신학적 설명, 23-24

세겜 사람들로부터 나온 불, 25-29

매복, 25

가알의 반란, 26-29

아비멜렉으로부터 나온 불, 30-49

가알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30-41

세겜 사람들에게, 42-45

귀족들에게, 46-49

데베스에서 나온 불, 50-55

신학적 설명, 56-57

I. 망각의 위험 (The Peril of Forgetting)

첫째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야기는 삿 8:33-35에서 망각의 위험을 선포한다.

> 기드온이 이미 죽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8:33-35)

본문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했다고 정죄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존재를 잊었다거나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물리치신 적들을 더 이상 열거할 수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에 대하여 알았던 것이 그들을 통제하지 않았고 그들의 충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에 관한 교리적 질문들을 답할 수 있었지만 그 지식이 그들의 헌신을 결심하도록 하지 못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여호와에 관한 사실적이고 지적인 어떤 정보도 그들이 바알브릿을 그들의 신으로 삼는 일을 막지 못했다.

팔레스타인에서 영국의 위임 통치가 만료되기 전인 1947년 후반에, 시리아의 총리인 자밀 마르담은 새로운 유대인 국가가 태어나자마자 다른 아랍 지도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합동 군사 공격을 계획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겨울 마르담의 아내는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거기서 한 유대인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다.[1] 마르담의 아내가 유대인에게서 받은

[1] Larry Collins and Dominque Lapierre, *O Jerusalem!* (New York: Pocket Books, 1972), 39, 330.

유익은 마르담 자신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룰 지 계획할 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유대인 의사 마르담의 아내 치료와 마르담의 유대인 공격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말하자면, 그는 여기 성경 본문이 의미하는 바와 똑같이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잊었다(8:35). 그들이 기드온과 그의 사역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기드온의 가족을 충성스럽게 대했을 것이다. 저자는 기드온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에 대해 많이 강조한다. 이것은 그의 서론(8:35)과 요담의 발언(9:16-20)과 신학적 설명들(9:23-24, 56-57)에 잘 암시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을 신으로 여기는 것을 금할지라도(예: 행 10:25-26; 계 19:10; 22:8-9) 우리들로 그들을 매우 존경하라고 명령한다(살전 5:12-13; cf. 딤전 4:12). 흔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부모, 목사, 멘토, 친구 또는 교육자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보다 그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모습을 더 잘 보여준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어떤 성경 학자요 목사인 분의 작품들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렸다. 약 2년 전에 내 양심에 가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너는 그의 글들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감사를 표한 적이 없다. 너는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한다." 나는 그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해외 주소를 찾을 수 있었고, 성경에서 그가 나에게 준 도움과 격려를 그에게 알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것은 기드온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에 비하여 자그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원리는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무시할 때 그것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비하하는 것이다. 여호와에 대한 배교와 기드온에 대한 배은망덕이 함께 일어났다.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2:11-13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라.

II. 지도력의 문제 (The Problem of Leadership)

둘째로, 우리는 삿 9:1-21이 어떻게 지도력의 문제를 부각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기드온이 세겜에 첩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8:31)! 그러나 그에게는 첩이 있었고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야심차고 믿을 수 없는 자였다.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세겜 어른들의 귀에 속삭여 달라고 부탁했다. 아비멜렉이 속삭여 달라는 기쁜 소식은 이것이다.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은 여룹바알의 모든 아들들 곧 70명이 되는 아들들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여룹바알의 아들들 중 오직 한 아들 곧 제가 여러분을 다스린다면 얼마나 덜 혼란스러울까요! 게다가 **저는** 여러분과 골육이기도 합니다(9:1-2)!" 마음에

드는 아들의 선택이란 논리가 먹혀 들었다. 세겜의 어른들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그 돈으로 아비멜렉은 어리석고 잔인한 폭력배를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아비멜렉은 오브라로 가서 기드온의 아들 칠십 명을 끔찍하게 도살하였다(9:4-5). 세겜 사람들은 화려한 행렬을 하며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9:6).[2] 왜 그랬는까? 그들에게 "그는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이었다. 피는 뇌보다 더 진했다.

장면이 재미있다. 우리는 아비멜렉의 대관식의 장엄함과 의식을 지켜본다. 모든 지역 정치인들은 거기서 그들의 얼굴에 필요한 근엄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 있다가 의식이 끝나자 파티를 위해 연회장으로 이동한다. 갑자기 테너와 바리톤 사이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불손한 고함소리가 그 행사를 모독한다. "여보시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시오(9:7 참조)!"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리심산(지금 상황과 좀 어울리지 않는 축복의 산, 신27:12-13, 수 8:33)쪽으로 쏠린다. 거기에는 도살 현장에서 피신했던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자리잡고 있었다.

요담의 우화는 해석자들을 당황하게 한다.[3] 어떤 이들은 요담의 우화가 이념적 혹은 정치적 진술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정 제도를 얼마나 강력하게 거부했는지 보여주거나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올리브, 무화과, 포도 나무들이(9: 9, 11, 13) "내가 비록 왕권이라도 나무들 위에 요동하는 쓸모없는 일을 하기 위해 [풍부한 기름, 달콤한 과일, 즐겁게 하는 음료와 같은] 유용하고 생산적인 소명을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4] 이 견해는 너무 많은 것을 주장하는 것 같다.[5] 사실, 나는 예비 장면이 아닌

---

[2] 이런 일이 야곱(창 35:4)과 여호수아(수 24:1, 26)가 여호와께 충성을 다짐했던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일어난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이제 아비멜렉은 바알 브릿의 후원 아래 그의 반역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장소를 이용하고 있다.

[3] 요담 자신이 이 우화를 만들었는지, 그때 떠돌던 이야기를 각색하였는지, 아니면 후기 청동기 시대의 우화집에서 그것을 추려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4] 삿 9:9, 11, 13에 나오는 "멈추다, 그만두다"는 뜻의 동사[하달]은 기본 어간이고 문자적인 의미의 완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과일 나무들은 "내가 나의 풍부한 기름, 달콤한 과일, 혹은 새 포도주를 생산하는 일을 멈추어야 하는가?"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다르게 말하면 그것들은 "그러면 당신은 내가 더 이상 생산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담의 우화가 왕권을 들어 비웃으며 마치 그것이 그들의 유용성이 다 지나버린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활동인 것처럼 추론한다.

[5] 그 상황의 역사성을 가정하고 요담은 그의 우화를 통해 당면한 문제(아비멜렉)만을 다루고 반 왕정 이념을 선언할 의도가 없었을 것이다.

클라이맥스(9:14-15) 장면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요 관심사는 나무들의 어리석음(9:14)과 가시 나무의 (재앙을 초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쓸모없음이다(9:15). 우화는 왕권의 무가치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무가치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합당한 후보들이 왕권의 제안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 나무와 같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담이 9:16-20절에서 분명하게 밝힌 것처럼 문제는 왕권이 아니라 왕과 그의 동료들의 성품이다.[6] 요담의 화두는 분명히 적임이 아닌 사람이 지도력을 수용하는 일의 어리석음과 위험성이다. 가시 나무들은 땔감으로서는 좋지만 왕으로서는 턱없이 부적합하다. 그것들은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타는 일에 더 잘 어울린다.

사람들은 가시 나무와 같은 부적합한 지도력을 받아들이는 이상한 경향이 있다. 이것은 계속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사실이다. 쉬러는 1934년 9월 누렘베르크에서 열린 나치당 행사에서 이것을 보았다.

> 그가 내뱉은 말들과 그가 표현한 생각들은 내게 종종 우스꽝스럽게 보였지만, 그 주간 누렘베르크에서 나는 그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히틀러의 청중들과의 의사소통은 이상했다. 그는 거의 즉시 교감을 확립하고 계속 연설을 해 가며 그들을 완전히 그의 마법에 걸리게 하고 교감을 심화하고 강화했다. 내가 보기에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심지어 가장 어리석은 헛소리도 쉽게 믿는 것 같았다. 몇 년 동안 나는 히틀러의 주요 연설을 들으면서 잠시 멈추고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소리지르곤 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이냐!" 그리고 나는 청중을 둘러보곤 했다. 그의 독일 청중들은 그의 모든 말을 순전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7]

---

[6]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A Proposed Life-Setting for the Book of Judges'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1978), 106-113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했다. 그리고 Eugene H. Maly, 'The Jotham Fable – Anti-Monarchical?' *Catholic Biblical Quarterly* 22 (1960): 299-305도 참고하라. 어떤 이들은 9:9, 11, 13에 나오는 동사 [누아] 곧 "나무들 위에 요동하다(혹은 날뛰다)"가 경멸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감람, 무화과, 포도 나무들이 그런 무익한 기능을 하는 것보다 해야 할 생산적인 추구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이 된다. (John Gray, *Joshua, Judges and Ruth*, The Century Bible – New Edition [Greenwood, S. C.: Attic, 1967], 319을 보라.) 그러나 이것은 우화의 단순한 이미지에 부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동사는 특히 바람이 불 때 나무들이 통상 하는 반응만을 묘사하기 때문이다(사 7:2을 보라).

[7] William L. Shirer, *The Nightmare Years 1930–1940*, vol. 2 of *Twentieth-century Journey: A Memoir of a Life and the Time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4), 127-28.

역사는 이러한 예를 더 많이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되신 지도자를 무시하고 싸구려 모조품들에 속아 넘어가는 인간의 사악함을 알고 계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요 5:43)."

그러나 우리의 우려는 일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가시 나무 같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일어난 무가치한 지도자들에 집중된다. 온 이스라엘이나 일부 이스라엘이나 그들이 아비멜렉 같은 자와 언약을 맺을 때 화가 그들에게 임한다!

우리는 요담을 적절히 존중해야 한다. 그는 우화를 말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르치는 교사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지도자를 찾고 선택할 때 정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한 교단에서 젊은 목사로서 일하던 것을 기억한다. 거기서 새로운 장로를 임명할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누가 장로로서 봉사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우리에겐 임기를 마치는 두 분의 장로가 있어서 새로운 두 분의 장로가 필요하였다. 우리는 누구로 하여금 장로직을 수락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누구도 딤전 3:1-7이나 딛 1:5-9에 대한 언급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아무도 "여기 장로직에 대한 성경적 자격 조건들이 있다. 우리 중에 이 기준들에 일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았다. 몇 년 후에 내가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을 현대 교회 정치에 실제로 적용하려는 혁명적인 생각을 가진 신자들을 발견했을 때 나의 놀라움을 상상해보라! 성경적으로 어느 누구도 장로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장로들을 갖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말씀의 교훈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장로직의 성경적 이상을 실현할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볼 때까지 이웃 교회로부터 한 두 장로들을 빌려 와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리심산의 과일 나무들과 가시 나무에 대한 우화와 아주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III. 심판의 과정 (The Process of Judgment)

마지막으로, 우리는 삿 9:22-57이 어떻게 심판의 과정을 보여주는지 살펴볼 수 있다.

비록 우리가 심판의 에피소드를 즐기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세겜 사람들은 주변 큰 길에 매복한 갱단을 두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강탈한다(9:25). 이것은 아비멜렉에게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안겨줄 것이다. "왕이라면서 그의 영토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 하나도 보장할 수 없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왕이라는 말인가?" 이런 일이 있은 후 가알과 그의 추종자들이 세겜으로 온다(9:26-29). 가알은 적어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기가 있을 때 바르게 울분을 터뜨린다. 포도 추수는 자연적으로 즐거운 시간이었고, 추수자들이 바알브릿 신전에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는 더욱 더 그러했다. 가알은 조그만 세겜 성읍이 너무 먼 길을 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비멜렉을[8] 비난하고 아비멜렉에 대한 반란을 주도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바알 신전의 연회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아비멜렉의 현지 심복인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커져가는 반아비멜렉 정서를 알리고,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아비멜렉이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했다(9:30-33). 나는 아비멜렉이 새벽 3시경에 그의 4개 부대를 세겜 주위에 매복시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상상해본다. 그 당시 성문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시점이 거의 다 되었다! 가알이 6시쯤 성문에 도착하여 편의점에서 도넛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공격을 시작하자 가알은 사람들이 어떻게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지에 대해 스불에게 말했다. 스불은 가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말을 하며 "무슨 소리요, 가알. 당신이 안과 의사를 본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오?"(cf. 9:36). 가알은 눈을 더 가늘게 뜨고 보며 "아니오, 스불. 그들은 사람들이오!"라고 외쳤다(cf. 9:37). 스불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고 "[아비멜렉을 비난하던] 당신의 입은 이제 어디 있소?"(9:38). 이 꿀맛나는 순간을 위해 스불은 이 대사를 밤새도록 연습했을 것이다.

아비멜렉은 가알과 그의 지지자들을 진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9:39-41). 나는 세겜 사람들이 다음 날도 여느 화요일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가알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에 대한 보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상황이 정상화되었으니 내일은 농사하러 밭으로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사람들이 밭으로 나오자마자 아비멜렉의 한 부대는 성문 입구를 봉쇄하여 그들이 성으로 도망하지 못하게 했고(9:44) 다른 두 부대는 그 밭에 나온 사람들을 학살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도 죽이고 그 성을 파괴했다(9:45).

세겜 성의 지도자들은 안전을 보장해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전의 보루로[9] 도망쳤다.

---

[8] 영어 성경들 사이에 다양한 번역을 보이는 삿 9:28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가알이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어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문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가알이 말할 때 반쯤 취해 있었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

[9] 세겜의 지도자들은 "엘브릿 신전의 [츠리아흐]"로 도망쳤다(9:46). [츠리아흐]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지하 밀실이었다고 생각하지만(9:46, 49에 대한 NASB[역자 주: HCSB; 새번역, 공동번역, 쉬운성경, 우리말성경]의 번역을 보라), 다른 이들은 요새 곧 보루였다고 여긴다(Robert G. Boling, *Judges*, The Anchor Bible

그러나 아비멜렉은 나무를 찍어 가져와 보루에 놓는 시범을 보이고 백성들로 자기를 따라 하게 한 후에 불을 지름으로써 거기 피신한 자들이 불에 타서 죽게 하였다(9:49).

데베스[10] 또한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비멜렉은 성공적으로 공격했다. 마지막 저항이 망대에서 이루어졌다(9:50-51). 경험상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통했던 것이 데베스에서도 틀림없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망대에 불을 지르기 위해 몸을 굽혔을 때 너무 늦었지만 어떤 여인이 자기를 궤멸시키는(9:53) 것을 발견했다.[11] 이로써 상황이 종료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평온해졌다(9:55).

이야기가 그 자체로 너무 재미있어서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는 9:20에 나오는 요담의 양날 가진 저주의 관점에서 9:22-57 전체를 보아야 한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살랐고 세겜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랐다. 한 이야기이지만 이중 파괴가 들어있다. 우리가 이야기의 요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자는 9:22-57을 감싸는 매우 분명한 틀(9:23-24, 56-57)을 제시하고 있다. 이 틀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부추기시어 심판을 실행하고 계셨다.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이 심판에는 어떤 침묵이 들어있다. 우리가 9:23-24과 9:56-57에 심판에 대한 분명한 진술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큰 길에서 강탈하는 것으로부터 가알의 비방까지, 스불의 첩보로부터 아비멜렉의 보복까지, 모든 에피소드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저자는 최후의 일격조차도 아주 간결하게 묘사한다.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졌다(9:53)." 이렇게 해석이 가미되지 않는다. 그저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서서히 일어난다. 불과 유황 냄새가 없다. 시내산에서처럼 연기나고 천둥치는 일도 없다.

[Garden City, N.Y.: Doubleday, 1975], 181을 보라; 개역: 보장; 개역개정: 보루). 나는 후자를 선호한다.

[10] 데베스는 확실히 세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9마일 떨어진 두바스와 동일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약 6마일 떨어진 디르사와 동일시되어야 하는지는 결정할 수 없다. Yohanan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rev. and en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265을 참조하라.

[11] 우리는 한 부부가 데베스 망대로 도망하여 피신하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아내는 그녀의 맷돌 윗짝을 가져가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남편은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그것을 망대까지 힘들게 나르며 아내 곁에서 숨을 헐떡거린다. 틀림없이 아내는 화내는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좋은 맷돌이 언제 필요할지 모를 것에요."라고 말했을 것이다.

한때 우리는 뒷마당에 농구 골대가 있었다. 백보드는 압착판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후성이 높지 않았다. 어느 날 세게 샷을 하자, 백보드 오른쪽이 느슨해져서 아래로 늘어졌다. 그것은 최종 결과일 뿐이었다. 부패의 과정은 몇 달 동안 계속되어 왔다. 백보드가 그것을 제자리에 고정시킨 볼트의 머리 주위에서 썩어갔고 결국 볼트가 더 이상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마지막 샷이 백보드를 느슨하게 하고 말았다.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다. 그것은 매우 조용히 진행되고 잘 관찰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끄러운 소리를 발하실 때에만 그분이 보복하신다는 생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 심판에는 어떤 아이러니가 들어있다. 요담이 선언하고(9:20) 이야기가 서술된(9:22-57) 대로 아비멜렉은 세겜을 멸망시켰고 세겜 사람들은 (데베스의 도움을 받아) 아비멜렉을 멸망시켰다. 말하자면, 악이 악을 파괴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이런 식으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로 악한 사람을 멸망시키도록 하시고 악한 나라들로 다른 악한 나라들을 멸망시키도록 하신다. 사사기 9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준다. 악에는 교제라는 것이 없다. 악은 지속적인 응집력이 없다. 악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이 없고 자기 자신을 이용할 뿐이다. 여러분은 계 17:16-17에서 이런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이 구절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그들 스스로 키웠던 바로 그 반 하나님적 문화를 미워하고 소멸시킬 것인지를 묘사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처참한 아비멜렉의 비하에는 어떤 위로가 있다.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여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나쁜 운명은 없었다.[12]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의 병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청했다(9:54). 적어도 당시 언론이 공식적으로 여인이 아비멜렉을 죽였다고 발표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병기 든 자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행했다. 그렇다고 뭐가 다를 게 있는가? 여기 이스라엘의 파괴자였던 아비멜렉이 죽어 누워있다(9:5을 보라). 여기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확실한 위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는 사실이다. 이 시대의 통치자들은 여호와의 양떼를 범하는 자마다 그분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되어(참고: 슥 2:8) 하나님의 칼이나 맷돌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운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헬라어 2인칭 복수 대명사 "너희"가 나오는 고전 3:16을 참고하라), 교회의 교사들과 구성원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분쟁을 조장함으로써 그 성전을 파괴하지 않도록(고전

[12] 어떤 의미에서 삿 9:53의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사사기 4장의 야엘과 같은 역할을 한 구원자이다.

3:17을 참고하라)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사사기 9장이 이스라엘에게 파괴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올 수 있고 미디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도 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사기 9장조차도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아비멜렉과 같은 자들에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완전한 파멸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12. 두 명의 소사사 (삿 10:1-5 A Couple of Minors)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의 목록에 돌라와 야일은 들어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되게 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삿 10:1-5이란 짧은 구절로부터 두 인물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어떤 사람에 대해 신문 부고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적은 편이다. 그래서 때때로 돌라와 야일은 소사사라고 불린다. 이에 비하여 에훗이나 드보라나 기드온처럼 대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보다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보다 긴 이야기의 주체들이다. 돌라와 야일이 소사사인 것은 사사기에 적은 양이 기록되어 적은 지면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1] 사실을 말한다면, 대사사들과 소사사들 사이에 기능상의 차이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2]

I.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암시 (A Hint of Yahweh's Goodness)

우리는 돌라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실제로는 많지 않다. 다만 우리는 그의 가계도(10:1,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3] 그의 지파(잇사갈), 그의 거주지(10:1, 에브라임 산지 사밀[미지의 장소]), 그의 사사로서 활동 기간(10:2, 이십삼 년), 그리고 그의 죽음과 매장지(사밀)에 대하여 알 뿐이다. 그러나 10:1은 돌라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났다고 진술하는데 주의를 기울인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암시를 본다. 우리는 돌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잘 모른다. 그의 구원이 안정된 행정 기간을 수립해서인지 아니면 군사적 승리를 통해서인지 알 수 없다.[4] 그러나 그의 구원 사역은—그것이 무엇이든지

---

[1] 우리가 대선지자들(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소선지자들(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을 구별하는 것도 이와 똑같다. 소선지자들은 중요성에 있어서가 아니라 책의 분량면에서 더 적을 뿐이다.

[2] 이 입장의 지지를 위해서 Alan J. Hauser, 'The 'Minor Judges' –A Reevaluatio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4 (1975): 190-200; E. Theodore Mullen, Jr., 'The 'Minor Judges': Some Literary and Historical Considerations,'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4 (1982): 185-201; F. C. Fensham, 'Judges, Book of,' *ISBE* (rev. ed.), 2:1156-1157 등을 보라. 이 입장은 기존에 지배적이던 마틴 노트(Martin Noth)의 견해를 부인한다. 노트(*The History of Israel*, 2d ed. [New York: Harper and Row, 1960], 101-103, 107)는 대사사들은 카리스마가 있는 군사적 구원자들인 반면 소사사들은 율법의 선포자들이었다고 주장했다.

[3] 돌라의 가계도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그가 상당히 저명한 사람이었을 것임을 암시한다.

[4] 볼링(Robert Boling, *Judges*,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75], 187)과 웹(Barry G. Webb, *The Book of the Judges: An Integrated Reading*, JSOT Supplement Series 46 [Sheffield: JSOT, 1987], 160)은 여기 "구원하다"를 평화로운 행정을 수립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언급된 구원이 군사적 구원을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야샤]("구원하다")는 일관되게 군사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Hauser, "Minor Judges," 199을 보라).

간에—"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돌라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의 파괴자가 가장 악한 일을 한 후에, 아비멜렉이 야기한 혼란 후에, 기드온의 가족에 대한 악명 높은 배신 후에 일어났다. 그런 최악의 상황 다음에 여호와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 돌라를 일으키셨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늘 하시는 방식이다. 여호와는 폭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그분의 백성이 무한정 짓밟히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사망의 골짜기 다음에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것, 슬픔과 한숨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방식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아비멜렉"이 그분의 백성을 위한 마지막 단어가 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II. 인간의 성향의 모습 (A Picture of Man's Tendency)

그 후에 야일이 일어났다. 그는 이십이 년 동안 사사로 있었고 [삼십 명의 아들이] 삼십 나귀를 타고 삼십 성읍을 다스렸다(10:3-5).[5] 그 현장은 갈릴리 바다에서 남동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이다.[6] 우리가 돌라의 활동 묘사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발견한다면 야일의 묘사에서는 사람의 성향에 대한 진짜 그림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본문은 그의 삼십 명의 아들을 통한 야일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묘사할 뿐이고, 그것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고 꼭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신학은 수많은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고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가르쳤다(시 127:3-5). 그러나 야일의 삼십 명의 아들들(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딸을 낳았는지 누가 알겠는가?)은 그가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본문은 이것에 대해 특별한 불쾌감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자는 기드온에게 칠십 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에게 많은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아내를 둔 상황은 적어도 아비멜렉이란 큰 실패(삿 9장)를 가능하게

---

[5] 삿 10:4의 히브리어 본문(וַיְהִי־לוֹ שְׁלֹשִׁים בָּנִים רֹכְבִים עַל־שְׁלֹשִׁים **עֲיָרִים** וּשְׁלֹשִׁים **עֲיָרִים** לָהֶם)에는 "나귀들[**עֲיָרִים** 아야림]"과 "성읍들[**עֲיָרִים**아야림]"을 나타내는 두 단어 사이에 언어유희가 있다. 이 두 단어는 영어의 "peace (평화)"와 "piece (조각)"처럼 의미는 다르지만 철자와 발음이 같다.
역자 주: 나귀에 대한 히브리어 명사의 단수는 **עַיִר**[아이르]이고 복수는 **עָיָרִם**[으야림] 혹은 **עֲיָרִים**[아야림]이다. 성읍에 대한 히브리어 명사의 단수는 **עִיר**[이르]이고 복수는 **עָרִים**[아림]이다. 두 번째 **עֲיָרִים**[아야림]은 동부 맛소라 학자들과 칠십인역(πόλεις)과 같은 역본들처럼 **עָרִים**[아림]으로 읽을 것이 제안된다. 보다(Mark J. Boda, *REBC* 2:1183)는 나귀들[**עירים**]과 성읍들[**ערים**] 사이에 요드(י)라는 자음 하나가 차이 나는데 요드는 모음 문자이므로 초기 사본들에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6] Arthur E. Cundall, *Judge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ondon: Tyndale, 1968), 137. 가몬(Kamon, 10:5)의 가능한 위치를 위해 Boling, *Judges*, 48-49, 188을 보라.

했다. 기드온의 다산은 또한 (그의 왕권에 대한 공식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왕권의 일반적인 함정을 드러낸다. 저자는 그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묘사했던 것처럼 보인다(8:22-23).[7] 그러므로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가 야일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의 성공, 그의 영향력, 그의 명백하게 평화로운 행정으로 인해 야일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그를 이해한다. 우리의 모든 방식에는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고, 우리의 지위를 과시하고,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인정을 보장받으려는, 이러한 미묘한 욕구가 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종이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막 10:35-45을 보라). 우리는 에덴 동산의 유혹(창 3:5)을 극복해 본 적이 없다. 참되신 왕을 보좌에서 끌어내려는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가장 큰 무화과 잎사귀들 뒤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갖고 있다.

---

[7] 율법은 미래의 이스라엘 왕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위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신 17:17)"고 명시했다. 그 이유는 자기 증식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교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만일 왕이 조약을 보증하기 위해 이방 공주들과 결혼하면 그의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돌아설" 것이다. Peter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6], 256을 보라.

13.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 (삿 10:6-16 The Kindness and the Severity of God)

"여보, 오늘은 좋지 않은 하루였소.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 났소."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면, 아내는 아마도 그런 불편한 일이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보라. "여보, 오늘은 좋지 않은 하루였소. 샤워실에서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소. 콘플레이크 먹는 일에 질렸소. 차의 문걸이에 걸려 바지가 찢어졌소.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 났소. 타이어를 갈고 있을 때 트럭이 근처 진흙 웅덩이를 치고 지나갈 때 내 양복에 흙탕물이 튀었소. 고속도로 순찰대가 과속했다고 나를 멈춰 세웠소. 상사는 지각하였다고 나를 엄히 꾸짖었소. 잠깐 나가서 음료수를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분수대에 못질을 하더니 분수대의 물이 내 얼굴로 쏟아졌소." 그러면 아내는 주저하지 않고 남편이 **정말로** 좋지 않은 하루를 보냈다고 동의할 것이다.

이 두 번째 진술과 같은 것이 바로 삿 10:6이다. 그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전의 일부 진술들(3:12; 4:1; 6:1)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배도했다는 사실만 말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그들이 정말로 배도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진술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여러분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로부터 얼마나 강렬하고 완전히 떨어져 나갔는지 보게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높이 쌓여 있는 불성실이 있다. 이스라엘은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처참하다.

여호와는 강렬한 배교를 극심한 보응 곧 블레셋과 암몬에 의한 이중 탄압으로 대하신다(10:7). 암몬의 위협은 사사기 10-12장에 묘사되고 블레셋의 위협은 사사기 13-16장에 묘사되어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부수고 박살냈다(10:8).[1] 암몬 사람들은 길르앗 전역에 걸쳐 이스라엘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을 습격했다(10:8b-9a). 이스라엘은 절박했다(10:9b).

I. 하나님의 위협을 들으라 (Hear Yahweh's Threat)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위협(10:11-14)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스라엘은 매우 절박하여 여호와께 도와주시라고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짖음에 일종의 죄의 고백을 포함시킨다(10:10; "부르짖다"는 의미의 동사 [자아크]에 관한 3:9의 설명을 보라). 확실히

[1] "부수다"는 의미의 동사 רעץ[라아츠]는 구약에서 여기(삿 10:8)와 다른 한 곳(출 15:6)에만 나온다. 출 15:6에서 이 동사는 여호와께서 애굽 원수를 부수시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말들이지만, 전에도 분명히 여호와는 이러한 노래와 춤을 보신 적이 있다.

> (삿 10:11-14) 11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2] 12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10:11-14)[3]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거늘 . . . 너희가 나를 버렸다(10:12b-13a)." 열여섯 번째의 같은 노래이다. 방공호 같은 종교의 신학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당연히—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그분은—충분히 도우실 수 있으면서도—믿기 어려울 만큼 순진하시고 속수무책으로 부드러우시다고 가르친다. 그분은 마치 여러분이 현재 갈망하는 구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두 개의 토큰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하늘에 있는 크고 따뜻한, 자판기와 같다. 종교는 훌륭한 경기이다. 여러분은 몇 가지 규칙만 알면 된다. 그리고 여호와는 위대하신 신이다—여러분이 그분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겨서 그분을 이용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만든 이 잘못된 이미지들을 깨뜨리셔야 한다. 이스라엘은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마다 여호와께로 항상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제정신이 들어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와 그녀를 맡아줄 다른 사람을 찾을 때까지만 남편의 안전 보장을 애원하는 창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10:13b)."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택한 신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의 잼 안에 있는 그 신들에게 가거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슬피 울면서 회개의 한 행위를 보이며 나에게로 돌아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죄는 순환(주기적 반복)이 아니고 추락(나선형 하강)으로서 계속 더

---

[2] 사사기 10장에서 11절의 본문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12절에 바로 나오는 "구원하다"는 의미의 동사 [야샤]가 11절에 암시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3] 마지막 절은 우리가 통렬한 풍자를 들을 수 있는 한 "**그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고집하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 위험을 자각해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버려진 백성이 될 처지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셨다. 진짜 비극은 백성이 여호와의 자비에 너무 익숙해져서—심지어 그리고 특별히 자비를 구하는 행위에서도—그것을 경멸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것에 대한 신약 시대의 기독교인의 통상적인 반응을 들을 수 있다. 그는 동의하며 "그렇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데까지 그들 자신을 둘지도 모르는 이 무시무시한 위협 아래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위협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사마리아의 시몬은 신약 시대의 기독교인이었다. 적어도 그는 믿고 세례를 받았고 전도자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했다(행 8:13). 또한 시몬은 종교가 재미와 유익, 특히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성령이 매우 잘 팔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했다(행 8:18-19). 이러한 시몬의 인식은 베드로의 질책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 . .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행 8:20-21, 23)."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안전한 분으로 만드려는 경향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숭배하게 된다.

II.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 (See Yahweh's Heart)

다음으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 그것을 여러분은 10:16b에서 볼 수 있다. 예루살렘 성경(Jerusalem Bible)은 "그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곤고를 참으실 수 없었다."라고 잘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너무 쉽게 10:16b를 10:15-16a의 당연한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10:15-16a)."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짐작할지 모른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겠다고 위협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참으로** 회개를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돌이키셨다. 그들이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릴 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진지한가를 보였고 이것이 여호와를 감동시켜 여호와로 자비를 베푸시도록 했다." 나는 이런 해석이 두 가지 이유에서 본문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10:12b)에는 아마 이방 신을 제하여 버리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불만(10:13)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른 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일로 뒷받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과거에 구원을 받은 후에 매번 다시 이 이방 신들을 위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기"[4] 때문이다. 둘째로, 10:16b 자체가 여호와의 연민을 이스라엘의 회개와 연관시키지 않고 이스라엘의 불행이나 곤고와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곤고를 참으실 수 없었다(10:16b)."[5]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회개의 진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연민의 강렬함에 있다.[6] 우리는 이스라엘의 비참함이 여호와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게 했는지 가늠하기 매우 어렵다. 그것은 마치 그분의 백성이—심지어 범죄한 백성까지도—박살나는 것을 차마 보실 수 없었던 것과 같다. 그들의 모든 고통 속에서 그분도 고통을 받으신다(사 63:9).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심판과 은혜 사이의 이런 표면적 긴장을 보는 것이다. 이런 긴장은 성경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여호와 자신의 성품에서도 보인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분의 거룩하심은 백성을 심판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백성을 살려야 한다고 연민을 느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긴장이라면 그 기원은 하나님 자신의 품속에 있다.

"그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곤고를 참으실 수 없었다(10:16b)." 많은 기독교인들은, 특히 하나님의 엄격하심은 생생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묵상해야 한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주셨는지 잊지 말라. 그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책인 구약에서 보여주셨다.

---

[4] Barry G. Webb, *The Book of the Judges: An Integrated Reading*, JSOT Suplement Series 46 (Sheffield: JSOT Press, 1987), 46.

[5] 역자 주: 삿 10:16에서 구원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인해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과 삿 16:16에서 들릴라의 매일의 조름에 삼손이 "그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한 것은 둘 다 **וַתִּקְצַר נַפְשׁוֹ**[바티크차르 나프쇼]로 히브리어 원문이 똑같다. Cf. 10:16과 16:16의 번역 비교, YLT: and His soul is grieved with the misery of Israel / and his soul is grieved to death; NKJV: And His soul could no longer endure the misery of Israel / *so* that his soul was vexed to death; ESV: and he became impatient over the misery of Israel / his soul was vexed to death.

[6] 나는 회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를 들어 욜 2:12-14을 통해 회개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회개는 그 소망을 인간의 슬퍼함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두며 받은 어떤 혜택도 적절히 강요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어진 것이라고 인정한다. 회개는 조건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된 호의의 원인이 아니다.

14. 사람들에 의해 멸시받고 버림당한 자 (삿 10:17–12:7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나는 이전에 배관 문제를 직접 다루어본 일이 기억난다. 화장실 변기의 어딘가에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트랩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나는 배관공을 부르지 않았다.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문제는 트랩에 있지 않고 내가 잘 알므로 자유롭게 파이프 연결 화합물을 사용한 나의 비효율적 과정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부른 배관공이 왔고 내가 했던 것을 되돌리며 하마터면 그는 관상 동맥에 문제가 생길 뻔하였다. 그러나 그 성실한 배관공의 건강은 논쟁점이 아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문제는 내가 굴욕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다. 비용 절약 때문이었을지라도 원칙적으로 거절했다고 볼 수 있는 배관공의 도움을 내가 청해야만 했던 것이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배관에 대하여는 잘 모르지만 보잘것없는 파이의 맛(굴욕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잘 알았다.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암몬 자손의 공격이 임박한 때(10:17) 길르앗은 리더십의 공백에 빠져 있었다(10:18). 그들은 멸시받고 쫓겨난 자요 아무도 원하지 않던 자인 입다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11:1-3). 무법자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야 할 형국이었다.

I. 구원의 도구 (The Instrument of Salvation)

우리는 입다 이야기를 구원이란 넓은 주제 아래서 볼 것이다(10:12, 13, 14에 "구원하다"는 의미의 동사 [야샤]가 사용된 것을 참고하라). 분명히 삿 10:17-11:11은 입다를 구원의 도구로서 중앙 무대에 올려놓는다.

삿 11:1-3의 삽입적 설명은 우리에게 입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다. 그의 문제는 그의 군사적 능력이 아니고 그의 어머니에 있었다.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은[1] 기생과 바람을 피웠다. 이로 인해 태어난 입다는 구박을 받는 자가 되었다. 길르앗의 아내도 적자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유산에 관하여 생각할 만큼 똑똑했을 때가 되자) 입다가 분명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적자가 아니므로]" 유산을 줄 수 없다고 하며 그를 쫓아냈다(11:2). 입다는 피신하여 돕[2] 땅에 거주하였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었고 그들은 한 사회적 추방자가 이끄는 자유분방한

---

[1] 나는 삿 11:1-2에 나오는 길르앗이 그의 선조(민 26:29)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민 26:29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2] 돕은 보통 야르묵 강의 근원 근처, 라못 길르앗과 에드레이에서 동쪽으로 1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엣타이이베(et-Taiyibeh)와 동일시된다.

갱단이 되었다(11:3).

우리가 입다의 모습을 잘 이해하려면 삿 10:6-16(이스라엘과 여호와)과 삿 11:1-11(길르앗과 입다) 사이의 구조의 유사성을 고려해야 한다. 내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없이 여러분은 성경 본문을 언급한 표 14.1을 보며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14.1 삿 10:6-16 과 삿 11:1-11 의 구조		
주제	사사기 10 장	사사기 11 장
거절	10:6	11:1-3
곤경	10:7-9	11:4
후회	10:10	11:5-6
반대	10:11-14	11:7
호소	10:15-16a	11:8
수납	10:16b	11:9-11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대하는 방식과 길르앗이 입다를 대하는 방식 사이의 병행되는 요소들은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다. 이스라엘 자손이 궁지에 몰리면 여호와께 울부짖으며 구원해 달라고 하였듯이(10:10) 길르앗의 장로들도 입다에게 그렇게 하였다(11:5-6). 여호와의 답변(10:11-14)과 입다의 답변(11:7)은 누군가 자신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것을[3]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대하는 방식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행동화된 비유이다.

잠시 이 병행을 묵상해보자. 그것은 그 자체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요 15:20; cf. 마 10:24-25)."라고 암시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로부터조차도 하나님의 종은 주님 자신이 받으신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할 권리가 없다. 확실히 입다는 여호와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다.

[3]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을 찾아낸 후에 나는 매튜 헨리가 이미 오래 전에 그것에 대하여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설명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 vols. [New York: Revell, n.d.], 2:190) 이렇게 말했다.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 사이의 특수한 경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일반적인 상황을 닮았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내쫓았으나 곤경에 처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간청했다. 그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주 정당하게 그들을 거절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은혜롭게 그들을 구원하셨다. 입다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비슷한 패턴이 이스라엘과 예수의 경우에도 일어난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못 박아 죽였다(행 2:23)."라고 이스라엘을 비난했지만 돌아서서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행 2:38)"고 촉구했다. 그들은 그들이 쫓아냈던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구해야 한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의 재림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이 거절당하신 분을 다시 환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3:39).[4]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이 사람 곧 기생의 아들이요(11:1),[5] 그의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자요(11:2), 갱단의 리더를(11:3)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는 점이다. 입다의 상황은 그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희생자요 악행을 당한 자였다. 거의 어쩔 수 없이 그는 돕 땅의 갱단의 우두머리, 곧 세심한 도덕 원리를 키우거나 사회적 혜택들을 더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입다는 이유가 무엇이든 패배자였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이 패배자에게 임했고(11:29) 여호와는 암몬 사람들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11:3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렸던 것을(cf. 고전 1:27; 벧전 2:4) "선택하셨다."

그것은 19세기 후반에 에딘버러에 있는 프리 세인트 조지 교회의 잘 알려진 목사였던 알렉산더 와이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스코틀랜드의 자유 교회가 알렉산더 와이트에게서 얼마나 뛰어난 설교자, 작가, 교사의 모습을 보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836년 자넷 톰슨이 혼외에서 태어난 그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그만한 것을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 . . 어느 날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하도 많이 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신 예상 밖의 도구들을 보고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될 것이다.

---

[4] 예를 들어 Robert H. Gundry, *Matthew: A Commentary on His Literary and Theological Art* (Grand Rapids: Eerdmans, 1982), 474과 George E. L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4), 200을 보라.

[5] 신 23:2에 나오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규정이 입다에게 적용되었을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 23:2에 나오는 "사생자"를 뜻하는 [맘제르]가 보다 특수하게 사용되고 혼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S. R. Driv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Deuteronomy*,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and T. Clark, 1895), 260-261과 Peter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6), 297을 보라.

II. 구원의 역사 (The History of Salvation)

길르앗의 장로들과의 협상이 끝났으므로(11:5-11) 입다는 암몬 왕과 싸움을 시작할 수 있었고 먼저 그와 담판을 벌였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11:12-28). 왜냐하면 그 대부분(11:15-27)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요단 강 동쪽 땅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설명하는 입다의 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입다는 사자들을 보내 암몬 왕에게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고 물었다(11:12). 암몬 왕은 사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 달라"고 말했다(11:13).

입다가 다시 사자들을 보내 한 말이 11:15-27에 나온다. 그것의 전반부(11:15-22)는 과거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회고하는 설명이다. 입다의 요점은 "사실을 분명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입다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얼마나 주의깊게 에돔과 모압의 영토 권리를 존중하며 각각 그 땅을 통과할 특별한 허락을 구했는지 설명한다(11:17). 통과 요청이 거절되었지만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하지 않고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행진했다(11:18). [모압과 경계를 이루는]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친 후 이스라엘은 헤스본에 본부를 둔 아모리 왕 시혼에게 그의 땅을 통과할 수 있는 특권을 청원했다(11:19). 시혼의 땅은 길이가 아르논 강과 얍복 강 사이 약 50마일이었고, 너비가 요단 강 동쪽으로부터 약 20마일이었다.[6] 그러나 시혼은 허락서를 보내는 대신 그의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혼의 옛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사랑하는 암몬 형제여, 이제 추론해 보시라"고 말했다(11:23-27). 먼저, 입다는 역사적 논증을 한다. 여호와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셨고(11:23)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했다(11:21, 22). 그 당시에 그 땅은 모압이나 암몬에게 속하지 않았다. 입다는 "그것이 **당신의** 땅(11:13)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오? 그것은 당신의 땅이 아니었소.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소. 역사를 왜곡하는 일을 그만 두시오."라고 말하고

---

[6] 머리 속으로 지도를 그려보라. 1) 아르논 강(11:8)은 모압의 북쪽 경계를 이루고 사해 동쪽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곳으로 흘러간다. 2) 얍복 강(11:22)은 사해에서 갈릴리 바다로 올라가는 중간 지점에 조금 못 미치는 곳에서 동쪽에서 요단 강으로 흘러간다. 3)시혼 왕의 본부가 있는 헤스본(11:19)은 사해의 북쪽의 끝에서 동쪽으로 15 마일쯤 떨어진 텔 헤스반에 위치하고 있다. L. T. Geraty, 'Heshbon,' *ISBE* (rev. ed.), 2:699-702을 참고하라. 4) 우리는 야하스(11:20)의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 5)아로엘(11:26)은 지금의 아라이르이고 사해의 동쪽으로 15마일쯤 떨어져 있고 아르논 강 북쪽에 있다. Kenneth A. Kitchen, 'Aroer,' *IBD*, 1:117-118을 보라.

있었다.

다음으로, 입다는 신학적 논증을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다. . .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11:23-24; 11:21도 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시혼의 땅을 주셨다. 그건 그만큼 간단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입다는 "당신은 당신의 신 그모스가 준 것이나 만족해야 한다."고 암시했다(11:24a).

잠시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본 후 계속하기로 하자. 여기 그모스에 대한 언급은 어떤 이들을 괴롭혀왔다. 이것은 입다가 그모스가 여호와와 같은 수준의 참된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의미하는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찬양할 때 생각했던 것과 같다. 시편 기자는 그의 동료 예배자들과 더불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쨌든 입다는 그가 여호와를 참된 사사라고 불렀을 때 여호와와 그모스가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입다에게는 그모스가 아니라 여호와만이 사사이셨다.[7]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입다가 사실들을 분명하게 했는지 의심한다. 그는 암몬 사람에게 말하면서 "그모스, 당신의 신(11:24)"이라고 말했다. 입다는 그모스가 모압의 신이고 밀곰(혹은 몰렉)이 암몬의 신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웹의 본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 "당신의 신 그모스"라는 말은 구약이 밀곰/몰렉을 암몬의 신으로 그리고 그모스를 **모압**의 신으로 일관되게 구별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놀랍다. 그러나 입다의 논증 전체의 내용에서 분명한 것은 그가 상대방을 **암몬과 모압의** 합법적인 지배자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나의** 땅(11:13)"을 빼앗았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 입다는 이스라엘이 "모압의 땅과 암몬 자손의 땅(11:15)"을 빼앗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11:25-26에서 입다는 그의 상대방을 (십볼의 아들 발락을 포함한) 모압 왕들의 후계자로 여기며 말한다. 자연스러운 추론은 입다가 이스라엘의 "아모리 족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처럼 암몬의 "모압 땅"에 대한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다.[8]

---

[7] Karl Gutbrod, *Das Buch vom Lande Gottes*,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3d ed. (Stuttgart: Calwer, 1965), 240.

[8] Barry G. Webb, *The Book of the Judges: An Integrated Reading,* JSOT Supplement Series 46 (Sheffield: JSOT, 1987), 56.

그렇다면 입다가 그모스를 암몬 왕의 신으로 여긴 것에는 아무런 실제적인 부조화가 없다. 게다가 그모스의 영향력이 모압과 암몬을 훨씬 넘어서도 인정되었던 것을 암시하는 에블라 문헌의 증거가 있다.[9] 그리고 그모스와 밀곰이 동일하거나 같은 신의 지역적 구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다른 증거도 있다.[10]

입다는 또한 선례적 논증을 펼친다(11:25). 그는 이런 취지로 말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했던 일을 생각해 보시오. 그는 이스라엘이 모압의 땅을 파헤쳤다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운 적이 있었는가? 만약 그것이 발락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도 아니어야 하오." 민 22:6을 보면 발락은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내기를 정말 원했다. 발락이 먼저 정결한 식으로 이스라엘이 저주받도록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사실상 발락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그가 그들을 "그 땅(민 22:6)"으로부터 몰아내고 싶었을지라도, 그의 소망이 이스라엘이 그의 땅을 빼앗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분명코 그는 이스라엘의 근접성과 힘을 위협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입다는 침묵의 논쟁을 펼친다(11:26). 입다는 암몬 왕을 꾸짖으며 말한다. 이스라엘은 삼백 년 동안 이 땅 곧 헤스본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에 살고 있다. 자, 만약 이곳이 당신이 말한 것처럼 "당신의 땅"이라면, 아니 이곳이 그런 분쟁 지역이라면, 왜 우리 시대에만 뜨거운 문제가 되어야 하는거요? 만약 이것이 그렇게 아픈 곳이라면, 왜 지난 300년 동안 다른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에 와서야 당신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요?

이것들이 입다의 논쟁들이다. 이것이 입다의 주장이다. 입다가 아니라 암몬 왕이 잘못되었다(11:27). 그러나 암몬 왕은 사실들을 수긍하려 하지 않았다(11:28).

암몬 사람들이 완고하여 듣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뒤를 따를 이유는 없다. 그들이 이 작은 구원의 역사(11:15-27)를 듣기를 거부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귀를 가질 이유가 되지 못한다. 입다는 요단 강 동쪽에서의 이스라엘의 승리가 여호와의 선물과 사역이고(11:21, 23, 24), 만약 암몬 자손이 그 선물을 간직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만 홀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11:27) 분명히 말한다. 암몬 자손은 멍청하게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선호할지 모르지만, 입다가 말한 짧은 구원의 역사는 참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 속에 감사와

---

[9] William Sanford LaSor, 'Chemosh,' *ISBE* (rev. ed.), 1:641.

[10] Peter C. Craigie and G. H. Wilson, 'Religions of the Biblical World: Canaanite (Syria and Palestine),' *ISBE* (rev. ed.), 4:97.

신뢰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시혼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땅을 주신 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시내산에 연기가 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흥미롭거나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여호와의 위대한 구원의 한 장을 구성한다. (시편 136편 전체의 맥락에서 17-22절을 보라).

III. 구원의 비극 (The Tragedy of Salvation)

입다 이야기의 마지막 두 부분에서 우리는 구원의 비극을 만난다(11:29-40; 12:1-7). 두 에피소드는 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하나는 서원이고 다른 하나는 암호이다. 전자의 경우 비극은 분명히 열심에서 일어났고, 후자의 경우 비극은 확실히 자만에서 일어났다.

그럼 서원 이야기(11:29-40)에서 저자가 만든 분위기를 감지해보자. 그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 힘으로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던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11:29). 그 다음에 그는 먼저 있었던 일을 암시한다. 그것은 나중에 밝혀지는 대로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어둡게 한다.

> (11:30-31)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저자는 여호와께서 입다에게 주신 승리를 매우 간결하게 요약하고(11:32) 지리적인 이동의 일부와 승리의 정도를 전한다(11:33a).[11]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11:33b)"는 언급은 암몬 자손에 대한 글을 짧게 만든다. 거칠고 오싹한 전쟁 장면이 몇 개 있었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 모든 것을 압축하여 최소한의 사실들만 묘사한다. 그것은 저자가 입다가 했던 이 서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치 저자는 슬픔으로 승리를 삼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저자는 입다의 서원이 가져올 것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암몬 자손에 대한 것을 거의 삭제했던 것 같다. 이상하게도 그 날은 패자들에게보다 승자(입다)에게 훨씬 더 씁쓸할 것이다. 어쨌든 암몬 자손은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모든 관심은 입다가 집으로 가까이 올 때 그에게 집중된다.

i. 비극적 열심 (Tragic Zeal)

입다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입다가 실행할 수 있기 전에도

---

[11] 민닛과 아벨 그라밈의 자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아로엘에 대하여는 위의 각주 6을 보라.

우리는 숨을 헐떡거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니까, 입다를 맞으러 그의 딸이 소고치고 춤추며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11:34)!" 이것은 미리암과 여인들이 홍해에서 받은 구원을 축하하던 장면(출 15:20)을 떠올리게 한다.[12] 그러나 이 미스바에서의 기쁨은 곧 사라질 것이었다. 이삭 또한 이 본문에 그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삭은 번제로 드려질 [야히드](곧 독자이고 그래서 귀중한 아들)이었다(창 22:2). 입다의 딸도 번제로 드려질 [여히다](곧 [야히드]의 여성형, 무남독녀)이었다. 그러나 웹이 지적한 대로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 (창 22:11-14에서처럼) 입다의 손을 멈추게 하려고 개입하는 하늘의 목소리가 없다.[13] (하늘이 입다의 행위를 승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로부터 오는 구원이 없었다는 말이다.) 이야기는 입다의 딸의 순응(11:36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으로부터 입다의 행위의 보고(11:39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까지 무겁게 진행된다. 다만 이 둘 사이에 그 필연적인 일을 늦추게 하는 두 달 간의 유예 기간(11: 37-39a)이 있었을 뿐이다.

입다가 실제로 그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다. 그렇다. 나는 그것이 삿 11:30, 31, 39의 가장 자연스러운 독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호와는 말할 것도 없고) 저자가 그것을 승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자기가 그것을 승인한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사건을 그대로 전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우리가 여기에 포함된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 저자들이 자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거부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입다의 머리 속에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논의들을 반복하고 싶지 않지만 이 문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볼 만하다.

첫째로, 입다는 그가 돌아올 때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할 것을 기대했는가? 그랬을 수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11:31에 나오는 입다의 말은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것은 누구든지"가 아니라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우리는 입다가 동물 제사를 염두에 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영접하러 나오는" 것은 보다 자연스럽게 인간의 행위자와 관련된 목적있는 행동이다.[14]

---

[12] 이러한 지적의 예를 위해 A. R. Fausset, *A Critical and Expository Commentary on the Book of Judges* (London: James Nisbet, 1885), 195을 보라.

[13] Webb, *The Book of the Judges*, 69.

[14] 새미국표준성경(NASB)은 11:31을 "whatever comes out of the doors of my house to meet me…shall be the LORD'S, or I will offer it up as a burnt offering. 나를 영접하러 내 집 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 . .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요 아니면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칠 것이다**."라고 번역한다. 말하자면 입다는 선택권을 열어두고 사람이 그를 영접하면 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고 동물이 그를 영접하면 그 동물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된다.

둘째로, 입다가 인간 제사를 드리려고 의도했을까—의도할 수 있었을까? 나는 우리가 여기서 피해야 할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입다가 너무 원시적인 시골뜨기여서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 인간 제사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레 18:21; 20:2-5; 신 12:31; 18:10). 아무도 그가 바울의 윤리학에 대한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그의 연설(11:12-28)은—그가 연설문 작성자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그가 도덕의 발전 과정에 일어난 초기 얼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우리는 입다가 결코 인간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절대적 확신에 차 있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어떤 저자는 입다와 같은 경건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여긴다. 나는 그것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선입관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본문이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입다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어하는 방식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복합적인 경건을 입다의 것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입다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확실히 입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역사를 잘 알고 내 생각으로는 여호와의 율법도 잘 아는 여호와 숭배자였다. 그렇다고 해서 입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법을 지켰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가 도덕에 대해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나 우리는 갱단 생활과 거친 동료들과의 관계로 인해(11:3) 사회적 혜택들을 더하거나 개인적 윤리를 키울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입다가 그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을리가 만무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적으로 그들은 입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일관되게 행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입다에게 일관되게 일관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입다가 자신이 가진 지식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그러한 인간 제사가 아주 적절할 뿐만 아니라 매우 경건한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세 번째 질문은 그러한 서원에 인간의 생명이 포함되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평생을 바치는 것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고 가정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경우에 그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입다의 딸과 친구들이 임박한 죽음이 아니라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아니면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칠" 것이라는 번역이 가능할지라도 그것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아니다. 나는 본문에 (인식된) 윤리적인 난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다.

애곡한(11:37 38) 것에 주목한다. 게다가 입다가 서원을 이행한 후에 11:39은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흔히 주장되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입다가 딸을 번제로 바쳤다면 이상한 일이 되지만 딸이 아마도 예배 성소에서 평생을 처녀로 여호와께 헌신하며 살았다면 의미가 잘 통한다.[15]

어떤 학자들은 분명히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예배 처소에서 봉사했음을 지적했다(출 38:8; 삼상 2:22).[16] 그들은 또한 레 27:1-8에 의하면 사람이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기로 서원할 수 있음을 주목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입다가 그의 딸을 여호와께 바치기로 서원했고 그 서원을 딸이 평생 독신으로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을 통해 이행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구성에는 문제점들이 있다. 레 27:1-8에 나오는 사람들을 바치기로 한 서원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각 사람은 서원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지불할 값이 정해졌고 그래서 의심할 여지없이 그 값을 주면 속량될 수 있었다. 더욱이, 순결이나 독신의 개념은 어디에도 없다. 출 38:8과 삼상 2:22의 여자들이 처녀였다고 가정할 근거는 없다. 입다의 딸이 성소에서 남은 생애 동안 봉사해야한다면 왜 미혼으로 남아 있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저자가 생략한 입다의 서원의 구절인가? 그래서 나는 매튜 헨리의 말에 동의한다. "게다가, 그녀가 독신 생활을 하는 것에만 한정되었다면, 그녀는 그것을 애곡하기 위해 두 달 간의 유예 기간을 바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인을 보았다면 그녀 앞에 그렇게 할 그녀의 전 생애가 있었다. 또한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의 그렇게 슬픈 기간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17]

어떤 이는 내가 옹호하는 견해가 이 에피소드를 매우 슬프게 만든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나는 그것이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암몬 자손은 매를 맞았지만 길르앗의 하늘은 아주 많이 흐렸다.[18] 우리의 가장 엄숙한 헌신들 중 어떤 것은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비극적 요소로 나아갈 것이다.

---

[15] 사실, 11:37, 38, 39에 나오는 그녀의 처녀성에 대한 강조는 문자 그대로 번제로 드려졌다는 견해와 잘 맞아 떨어진다. 그녀는 죽음이 그녀로부터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했다. 무남독녀인 그녀와 함께(11:34b) 입다의 계보는 사라질 것이었다.

[16] 그러나 이러한 성소에서의 봉사가 서원의 결과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17] Henry, *Commentary*, 2:197.

[18] 입다의 서원에 대한 논의는 George Bush, *Notes, Critical and Practical, on the Book of Judges* (Chicago: Henry A. Sumner, 1881), 162-165과 C. J. Goslinga, *Joshua, Judges, Ruth*, Bible Student's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391-396 그리고 Leon J. Wood, *Distressing Days of the Judges* (Grand Rapids: Zondervan, 1975), 287-295 등에서 볼 수 있다. 이 세 저자들은 모두 문자적 견해를 취하지 않는다.

ii. 비극적 자만 (Tragic Pride)

두 번째 비극적인 에피소드가 삿 12:1-7에 나온다. 어떤 이들은 나라의 좌의정과 우의정 자리에 있는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중앙 보좌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묘사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꼭 들어맞는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 강을 건너가서 입다를 사본(Zaphon: 요단 강 골짜기의 동쪽 그리고 숙곳의 북쪽에 있는 마을, [cf. 개역개정: "북쪽"으로 번역])에서 만난다. 그들은 입다가 그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그들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암몬과 싸웠다고 꾸짖는다. "도대체 당신에게 우리는 뭐요?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무시했소? 왜 **우리**를 불러 당신과 함께 가게 하지 않았소?"[19] 이것이 에브라임의 불만이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인데 당신은 우리를 그처럼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잘것 없는 존재였던(참조, 11:1-3) 입다는 보잘것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감동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여하튼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꾸한다. "내가 분명 당신들을 불렀지만 당신들은 나를 곤경 가운데 내버려 두었소(11:2b-3a). 그러나 당신들이 하지 않은 것을 여호와께서 해 주셨소(11:3b)."

에브라임은 입다의 칼(12:4a)이 아니라 기드온의 심리전(8:1-3) 같은 것을 더 기대했었는지도 모른다. 입다는 돕 땅에서 많은 심리전을 한 적이 없었고, 특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인종적 비방을 퍼붓기 시작했을 때 심리전을 시작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치며 흩어지게 하고 요단 강 나루턱을[20] 장악한 후 서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암호 놀이를 하고자 기다렸다.

"시볼렛"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실감이 난다.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이 한 나루턱으로 와서 지키고 있는 길르앗 사람들에게 "나로 건너게 하시오."라고 말한다. "아, 그래요. 당신은 에브라임이 아니죠?" "물론이오. 나는 요단 서편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루우벤 사람이오." "좋소. 그럼 시볼렛이라고 말해 보시오."[21] "그렇게 하죠. 씨볼렛." 이것은 버지니아 원주민이 아니라고 하자 "I went out about the house. 나는 그 집을 돌아다녔다."라고 말해

---

[19] 에브라임이 말하는 "우리"는 12:1의 히브리어 본문[블**라누** 로 카라타]에서 앞에 나오며 "**우리**를 당신이 부르지 않았다."처럼 강조되어 있다.

[20] 전에 두 번이나 에브라임은 적의 퇴로를 막기 위해 요단 나루턱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배치하는데 성공했었다(3:27-28; 7:24-25).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

[21] [시볼렛]은 "흐르는 개울, 급류" 혹은 "곡물의 이삭"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Willem A. VanGemeren, 'Shibboleth,' *ISBE* (rev. ed.), 4:476을 보라.

보라고 요구받은 것과 같다. 우리는 이런 것에 매우 익숙하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parked the car. 차를 주차했다."라고 말할 때 그가 뉴잉글랜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five"에 들어있는 것 같은 장모음 이를 다루는 방식을 보고 그가 남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좁은 폭으로 흐르는 개울을 "creek[크-릭]" 대신 "crick[크릭]"이라고 발음할 때 그가 서부 펜실베이니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날 암호를 자기 식으로 발음한 모든 에브라임 사람은 죽었다.

다시(8:1-3 참조)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것은 바로 자만심에 빠진 에브라임이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항상 그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통제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느낀다. 이것은 에브라임 사람 혹은 이스라엘 사람 특유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표팀의 일원이 되길 얼마나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기독교 유명인사가 아닐 때 내가 그 구원 사역을 기뻐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자아를 적절하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봉사마저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암몬은 정복되었다. 그러나 입다의 무남독녀의 무덤이 있다. 그리고 한 때 자만심을 보였던 에브라임 사람들의 차가운 주검들이 있다. 지나친 열심(11:30-31)에서 오든지 아니면 완고한 자만심(12:1)에서 오든지, 비극은 여호와께서 주신 구원을 어둡게 하고 있다(11:32b-33). 나는 저자가 그것을 그렇게 그리려고 의도했다고 장담할 수 있다. 나는 그가 우리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오만으로 인해 퇴색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고 생각한다. 마치 승자들조차도 깨끗한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여기 구원은 있지만 그건 손상된 구원이다. 저자는 완벽한 구원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입다보다 더 크신 분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들—적어도 일부 사사들—을 통해서 오는 구원에 있는 이러한 불완전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그것은 그의 책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의 점진적인 분열을 묘사하는 방식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나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가장 잘 요약될 수 있다.

> 붕괴 과정의 또 다른 표시는 소위 대사사들의 이야기를 묶는 기본적인 패턴에서 감지될 수 있다. 대사사들의 이야기는 세 명으로 된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옷니엘, 에훗, 드보라와 바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그룹은 기드온, 입다, 삼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그룹을 다루는 내러티브들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간략하고, 사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개인적 정보(예: 가정 생활)가 부족하며, 주제들에 대한 부정적인 함축이 별로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 번째 그룹에 대한 설명은 더 광범위하고 상세하며, 사사들의 성격을 더

>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그들의 활동의 일부 측면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부정적인 평가를 주고 있다. 이 마지막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 그룹의 각 내러티브가 끔찍한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은 특히 흥미롭다. 기드온은 새로운 배교의 씨앗을 뿌리고(8:24-27), 공포 정치로 아비에셀을 그 자신의 피로 범벅이 되게 할 아비멜렉을 낳는다(9장). 입다의 성공은 외동딸의 희생이라는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삼손의 경솔한 자기 폭로 (16:7, 11, 13, 20)는 이미 독자로 그의 두 눈이 뽑히고(16:21)과 가사 신전의 잔해 가운데서 그의 시신이 발견되는 것(16:30)을 보도록 준비시켰다. 이 3+3 패턴에 있는 대조는, 특히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함축에서 부정적인 함축으로 바뀌는 것과 더불어, 점진적인 붕괴 구조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22]

입다는 우리에게 예수를 생각나게 한다(삿 11:1-3).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거절당했다(사 53:3). 그러나 입다가 가져올 수 있는 구원에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은 임마누엘(마 1:21-23)을 통해서만 올 것이다. 내가 이것을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의 전날에 쓰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가!

[22] Dale Ralph Davis, 'A Proposed Life-Setting for the Book of Judges'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1978), 71-72.

15. 사사기의 인명록? (삿 12:8-15 A Judges' Directory?)

해마다 우리 교단은 연감을 발행한다. 이 종이책의 한 부분은 목회자 인명록이라고 하는데 목사 개개인의 아주 간단한 사실들(생년월일, 결혼, 자녀, 교육 등)을 싣고 있다. 이러한 요약에서는 인간적으로 흥미로운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없는데 간단한 사실만 열거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삿 12:8-15(원한다면 입다에 대한 12:7도 포함하라)에서 이러한 사사들의 인명록을 보는 것 같다. 우리는 여기서 최소한의 정보(출신, 가족 상황, 사사로서 활동 기간, 죽음, 매장지에 대한 정보)만[1] 있는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한 설명을 본다. 성경의 자료가 너무 불충분할 때 우리의 호기심은 좌절된다.

I. 하나님의 말씀의 선별성 (The Selectivity of God's Word)

우리의 좌절이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구절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별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많은 세부 사항 곧 입산, 엘론, 압돈의 전기의 뼈대에 붙을 더 많은 살을 갈망한다. 이들에 대하여는 신나는 행위들, 사로잡는 이야기들,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입산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고서도 분명 온전한 정신을 유지한 것이 그러한 것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우리는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입다의 경우처럼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가졌으면 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것들이 없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그들에 대해 말할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을 꼭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성경이 그러한 것들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입산 일가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거나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입산의 수많은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그가 주선한 결혼의 망은(12:9) 그가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2] 압돈도 마찬가지이다(12:14).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많은 전기를 주지 않기로 선택한다.

우리는 성경이 입산에 대하여 아주 적게 말하는 이유를 모른다. 하지만 입산(그리고 엘론과 압돈)에 관하여 매우 적게 말함으로써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에 관하여 많은 것을 말해준다.

---

[1] 입산은 아마도 나사렛에서 북서쪽으로 7 마일쯤 떨어져 있는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수 19:15) 출신일 것이다. 엘론의 매장지 또한 그 위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스불론 땅 안에 있다(12:12). 그러나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4 마일 떨어져 있는 아얄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압돈의 비라돈(12:15)은 세겜에서 남서쪽으로부터 6 마일쯤 떨어진 파라타일 가능성이 높다.

[2] 삿 3:31(삼갈)에 대하여 논의하는 5장에 나오는 각주 1번을 보라.

성경은 그 목적이 입산과 엘론과 압돈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성경은 그 초점이 인간의 삶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행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이다. 그것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아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드온이 세 개의 장을 할애받았을지라도 저자의 목적은 기드온의 파란만장한 삶(심지어 그의 문제점, 투쟁, 승리, 실패 자체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많은 전기적 설교와 성경 인물들의 성격 연구라고 일컬어지는 성경 공부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한 노력들은 거의 그 본질상, 그리고 그 선택된 출발점에 의해, 잘못된 방향을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마치 성경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cf. 사 40:9)"고 외치는데 우리가 "고맙지만 우리에게 더 흥미로운 것을 찾았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만약 입산과 엘론과 압돈에 대한 약간의 좌절이 우리로 이 위험을 깨닫게 해준다면, 그들은 헛되이 살지 않았을 것이다.

II. 하나님의 섭리의 불가사의 (The Enigma of God's Providence)

둘째로,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불가사의를 강조한다. 무남독녀를 두었다가 분명 그 자녀를 잃은 입다의 이야기(10:6-12:17)는 30명의 아들을 둔 야일(10:3-5)과 총 60명의 자녀를 둔 입산(12:8-10) 사이에 놓여 있다. 압돈의 총 70명의 후손(12:14)도 역시 이 대조를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현저한 차이점에 주목했다.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말했다.

> 입산의 가족과 입산 바로 앞에 나왔던 입다의 가족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가! 입산은 육십 명의 자녀가 있었고 모두 결혼한 반면 입다는 한 자녀, 곧 딸이 있었으나 그 무남독녀마저 죽었거나 미혼으로 살았다. 어떤 이들은 증가하고 어떤 이들은 감소한다. 둘 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3]

이것을 보자마자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왜?"라고 묻는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는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류하시는가? 왜 여호와는 주시고 빼앗으시는가? 왜 그분은 이러한 차이들을

---

[3] 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 vols. (New York: Revell, n.d.), 2:200-201. 웹(Barry G. Webb, *The Book of the Judges: An Integrated Reading*, JSOT Supplement Series 46 [Sheffield: JSOT 1987], 161)은 입다와 입산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이렇게 지적한다. "입다와 그의 외동딸에 대한 비극적 이야기에 이어서 30명의 딸을 두었고 30명의 아들을 위해 그의 부족 밖에서 30명의 며느리를 데려왔던 사사(입산)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온다. 딸들은 모든 사사들 중에서 이 두 사사 곧 입다와 입산과 관련지어서만 언급된다. 입다의 무자함 다음에 입산의 충만함이 나온다. 이 대조는 입다가 그의 서원의 결과로 겪는 비극적인 무자함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시며 우리의 일을 정하시는가? 우리는 천사가 요셉에게 경고하고 어린 예수가 헤롯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박수를 친다(마 2:13-15). 하지만 베들레헴에 있던 다른 유아들은 어떠한가? 왜 하나님은 그들을 헤롯이 보낸 도살자들로부터 구해주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구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유아들도 검으로부터 보호하실 수는 없었을까(마 2:16)? 만약 헤롯 왕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의 손에 있다면(cf. 잠 21:1) 왜 그분은 그에게 현현으로 인한 치명적인 관상동맥 질환을 주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사도행전 12장도 있다. 옥에 갇힌 베도로는 헤롯 아그립바에 의해 곧 처형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처형 바로 전날 밤,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출옥시켰다(행 12:6-11). 정말 아슬아슬한 탈출! 참으로 놀라운 섭리!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믿을 수조차 없었던, 교회의 기도에 대한 참으로 적절한 응답(행 12:5, 12-17)! 하지만 같은 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어떠했는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 요한의 형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그립바의 검은 그를 죽였다(행 12:1-2).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한 반면 야고보는 왜 죽었는가? 아그립바의 쇠사슬에서 베드로를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아그립바의 칼에서 구해내실 수 없었을까? 또 다시 여기에 놀라운 신비와 불가사의한 신비가 나란히 있다. 나로서는 어떻게 어느 누가 하나님이 지루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입다와 입산, 유아들과 아기 그리스도, 야고보와 베드로—이 수수께끼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직면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안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것은 우리가 "왜?"라고 물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사 40:28)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것이 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틀림없이 명철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수수께끼에 대한 어리석은 반응들—예를 들어 베들레헴 유아의 부모들이 더 열심히 기도했다거나 야고보가 더 강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셨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설명이 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은 필요하다면 기꺼이 당황하고, 어둠 속에서도 절하고 경배할 것이다. 이것이 입다와 입산의 증언이다.

III. 하나님의 안식의 부재 (The Absence of God's Rest)

셋째로, 나는 이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없었음을 암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8:28에 대한 이전 논평을 보라). 본문은 이 사람들이 각각 특정한 기간(12:9, 11, 14)에 걸쳐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다고 명시한다. 나는 이 문제를 책 전체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싶다.

사사기에는 세 가지 주요 유형의 시간 공식이 있다.

1. 이스라엘이 외국의 압제자들을 섬긴 햇수(3:8, 14, 4:3, 6:1, 10:8, 13:1). 이런 설명은 대사사 각자에 대한 내러티브와 관련지어 나온다.
2. 땅이 평화를 누린 햇수(3:11, 30, 5:31, 8:28). 이것은 기드온 이후에는 나오지 않는다.
3. 사사가 이스라엘을 이끈 햇수, 일종의 사역 기간의 설명(10:2, 3; 12:7, 9, 11, 14, 15:20, 16:31). 이 모든 것은 기드온 이야기 이후에 나온다.

마지막 두 공식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가? "땅이 평온했다"라는 공식이 기드온 이후에 사라지고 "그가 몇 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는 공식이 기드온 이후에만 나온다면, 저자는 후자가 전자를 대치하는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형편없는 대치는 아닐까? 저자가 비록 어떤 사사들이 여전히 사사 역할을 잘 함으로써 정상 상태를 닮은 것이 있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배교 속에 하나님의 주신 안식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오직 사람의 활동만 아는 땅이다. 삶은 계속되지만 시간의 질이 다르다. 여호와의 백성 사이의 삶은 거의 평소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겉모습이 속이고 있는 것이다(계 3:1). 중요한 어떤 것이 없고 빠져있다. 일단 이것을 보면 여러분은 이가봇이 도착해도(삼상 4:21-22) 거의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IV.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죽음 (The Deaths of God's Leaders)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글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관찰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2:8), 옷니엘(3:11), 에훗(cf. 4:1) 기드온(8:32), 돌라(10:2), 그리고 야일(10:5)에 대한 사망 기록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적인 죽음을 보기 시작하고, 이 짧은 연속적 글을 보며 짧고 날카로운 사실이 우리를 향해 울려오는 것을 들을 때까지는,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 그리고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었다. … (12:7)[4]
> 그리고 입산이 죽었다. … (12:10)
> 그리고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었다. … (12:12)
> 그리고 힐렐의 아들 비라돈 사람 압돈이 죽었다. … (12:15)

이제 우리는 "그리고 그가 죽었다. … 그리고 그가 죽었다."라는 말로 우리를 계속 내리치는

[4] 내가 여기에 입다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다른 세 사사들 바로 앞에 나오기 때문이다.

창세기 5장처럼 사사기 12장이 우리를 때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곧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사사들이나 홍수 이전의 성경 인물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위에 우리의 이름들이 적힌 부고문이 있다.[5]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지도자를 일으키셨다. 죽음은 그의 임기를 끝내거나, 그가 자기 백성에게 가져오는 혜택을 무효로 할 수 없다(히 7:23-25). 실제로 그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딤후 1:10)."

[5] George Bush, *Notes, Critical and Practical, on the Book of Judges* (Chicago: Henry A. Sumner, 1881), 173: "사람의 운명인 죽음은 결국 위대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로부터 그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다른 어떤 것에 관하여 듣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확실히 듣는 한 가지 일은 그가 죽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그보다 먼저 떠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다."

16. 구원자 삼손의 탄생 (삿 13장 Samson the Savior is Born)

내가 이 글을 쓰는 때는 대강절이어서 "고요한 밤"이란 찬송이 다시 울려퍼지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다루는 장의 제목이 그 찬송의 둘째 연에 걸맞은 것은 아니다. 그건 우리가 삼손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의 탄생을 축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실로 인해 우리가 삼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삼손 역시 구원자였다. 그의 출생으로 한 구원자가 태어났다. 사사기 13장의 기조는 이렇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의 사명에 대해 듣는다. "그가(강조되어 있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13:5)." 이 구절은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다룰 때 우리의 앞에서 가야만 하는 해석학적 별이다. 사실 삼손은 구원하기 시작할 뿐이지만, 그것조차도 그를 구원자로 만든다. 주제는 여전히 구원이다(3:7-11에 대한 서론적 설명을 보라). 한 가지 위험이 있다. 삼손은 너무 신나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망측한 친구라서 우리가 그에게 사로잡힐지도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구원자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가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고 계셨던 일의 관점에서 사사기 13장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한다.

I. 여호와께서 계속 주시는 은혜 (The Grace Yahweh Maintains)

첫째로, 우리는 삿 13:1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계속 주시는 은혜를 암시하는지 보아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도 똑같이 지겨운 후렴구가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13:1)." 이것이 전부다. 다음 절(13:2)은 우리에게 마노아와 출산을 못하는 그의 아내를 소개한다. 우리는 이 두 절에 연달아 나오는 세 가지 요소 곧 이스라엘의 배교(13:1a), 여호와의 심판(13:1b),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의 시작들(13:2ff)을 본다. 우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어떤 것이 빠져있다. 1절과 2절 사이에는 이스라엘이 곤경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진술이 없다(cf. 3:9, 15, 4:3; 6:6-7, 10:10).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자체가 회개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3:9에 대한 논의와 각주 참조). 그것은 죄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다. 그런데 여기 13:1에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빠져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13:1을 2:11과 비교해보라)을 섬기고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다. 여기 이스라엘은 죄에 대한 회개로 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행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지도 않는다. 그들은

분명히 섬김에 익숙해졌다. 사실 삼손 이야기에서,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고 있고, 누군가가 다른 제안을 하면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15:11 참조).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면 여러분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감탄한다. 바알을 버리기를 거부하고 블레셋을 버릴 마음이 없는 백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속박에 익숙해진 백성은 구원을 위해 부르짖을 감각조차도 없다. 적어도 여기서, 그들을 심판하셨던(13:1b)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한다(13:2-5). 그것은 은혜이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더 크고,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더 크고, 우리의 모든 우둔함보다 더 큰 은혜다.

기독교인이면 누구라도 그같이 "은혜로우신(graceshuss)"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쓴 'graceshuss'를 'gracious'라고 바르게 표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은혜의 연관성을 보는 것은 아니다.) 만일 여호와의 도움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만, 우리가 그것을 요청할 때만,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는 감각을 갖고 있을 때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빈민과 고아가 될 것이다.

II. 여호와께서 시작하시는 자리 (The Place Yahweh Begins)

둘째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시작하시는 자리(13:2-5)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단 지파 사람 마노아(13:2a)와 그의 아내에 대한 큰 사실—곧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는(13:2b)" 사실을 전해 듣는다. 여호와의 사자조차도 그녀에게 하는 첫 마디의 말 속에 그것을 비벼 넣는 것 같다.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13:3)."라고. 그 다음에 그녀는 '임신', '출생', '아들'과 같은 멋진 생명의 말들을 듣는다. 전에는 산산이 부서진 소망을 의미하는 말들이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들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전체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13:5)."

이런 불임 여성에 대한 모티브는 성경에 익숙한 패턴이다. 사라는 자신의 무자함 때문에 괴로워했다(창 11:30-21:1). 리브가는 결혼 생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창 25:19-26). 라헬은 요셉을 낳을 때까지 무자하였고 질투심에 불타 있었다(창 29:31-30:24). 그리고 삼손 이후로 우리는 한나(삼상 1장)와 엘리사벳(눅 1장)를 만난다.

여기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여인은 불임일 뿐만 아니라 익명이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모른다. 그녀는 마노아의 아내이고 삼손의 어머니가 되지만 그녀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그녀의 불임에 무명을 더했다.

여호와께서는 자주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인간적인 무명과 절망 속에서, 선발자 역할을 할 인간적 힘이나 능력이 없는 자리에서—시작하신다. 삼손의 출생은 "특별한 어려움을 가지고 특별한 일에 대한 서막을 여시는 하나님의 방식"의[1] 또 하나의 예이다. 여호와는 무에서 구원을 가져오실 것이다.

밴스 패커드는 **숨겨진 설득자**(*The Hidden Persuaders*)에서 케익 믹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주부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말한다. 케익 믹스의 포장지에는 우유를 넣지 말고 그냥 물을 넣으라는 경고문이 있었다. 어떤 주부들은 어쨌든 특별 첨가물로 우유를 넣고서 케익이나 머핀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곤 했다. 또한 일부 케익 믹스는 제조사들에 의해 달걀과 우유가 건조된 형태로 이미 첨가되었기 때문에 달걀을 추가하는 것을 금지했다. 심층 연구를 위해 면담에 응한 여성들은 "단지 물만 넣으면 된다니 무슨 케익이 그러냐?"며 불안해했다. 마케팅 전략은 바뀔 필요가 있었다. 믹스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주부들에게 주부와 믹스가 함께 케익을 만들 수 있음을 말해줄 필요가 있었다. 이제 하얀 케익 믹스 상자에는 "여러분이 신선한 달걀을 추가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2] 그 메시지는 여러분이 케익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자기 백성에 대한 역사에서 여호와는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시며 그들의 손길이 더해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 대신 그분은 불가능한 인간의 확률에 직면해서 구원을 가져오거나 그들의 괴로움을 덜어준다. 그분은 그들이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는 시기와 장소에서 정확하게 그분의 힘을 보여주신다. 이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환상이나 망상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이 다스리던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도 없고 자식도 없는 여인을 찾아온 이유이다.

III.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기도 (The Prayers Yahweh Hears)

이 이야기는 겉보기에 예측 가능하고 예외가 아닌 형태로 계속된다.

> (삿 13:8-9)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

[1] Derek Kidner, *Genesi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ondon: Tyndale, 1967), 151.

[2] Vance Packard, *The Hidden Persuaders* (New York: Pocket Books, 1958), 66.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마도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과 그러한 사명을 가진 아이에 대한 지시 사항(13:8b)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여기에 나오는 작은 기적—곧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기도—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13:9a)."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너무 자주 읽어서 더 이상 감동받지 않는다. 그러나 시편 저자들은 그것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시 5:1-2; 28:1-2; 65:2).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물론, 당연히" 범주로 격하시켜 왔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기도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틀에 박힌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여호와의 들으심은 모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어쩌면 기도는 쓰레기 같은지도 모른다. 나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삶의 한 지루한 일로 여기고, 가능하면 그것을 다른 가족들이 할 일로 남겨둔다. 물론 내가 잘못된 것이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매일의 성찬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쓰레기가 그 자체로 공급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감자의 껍질, 사과의 씨 부분, 호박의 씨 등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있다는 무언의 증거이다. 그래서 쓰레기는 지루한 세부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그것을 놓칠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쓰레기에 대해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 때, 우리는 절대로 하품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 기도에 수반되는 반복되는 기적, 곧 우리의 동사와 명사, 우리의 부사와 질문, 우리의 신음과 눈물을 들어주시려고 몸을 굽히시는 영광의 왕의 인자하신 낮아지심을 잊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하찮게 여길 것이다.

IV. 여호와께서 부과하시는 제한 (The Limits Yahweh Imposes)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을 데려왔다. 마노아는 질문을 했고 그의 아내에게 주어졌던 것과 똑같은 정보를 받았다. 이 태교 지침은 약간의 변형이 있지만 세 번(13:4-5, 7, 13-14) 언급된다. 마노아는 정성들여 준비하는 식사(13:15)로 그 사자를 대접하기를 원한다. 그 제의는 거절되었다. 그러나 그는 마노아가 번제를 바치려면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13:16). 다시 마노아는 말한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교묘하게 말을

받아넘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13:18)." 여기 여호와께서 부과하시는 제한이 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했을 때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시편 139:6에 같은 용어가 사용된 것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거기서 시편 저자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친밀하고, 상세하고, 포괄적인 지식, 즉 하나님께서 그의 활동, 그의 목적, (말하기 전부터도) 그의 말을 아시는 것에 압도당하고 있다. 그는 자기의 앞과 뒤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압력 그리고 자기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곰곰이 생각하며 기뻐한다. 우리가 그러하신 섭리에 어떤 좌절된 기쁨을 제외하고서 어떻게 적절히 반응할 수 있을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시 139:6)". 여기서 "기이하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이다. 시편 기자는 "그것은 너무 광대하여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 삿 13:19에서도 마찬가지다. 여호와의 사자는 "나의 성품, 나의 본성은 너무 기묘하여 너의 이해를 초월한다. 너는 그것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마노아의 두 번째 요청은 거절되었다. 그 사자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다. 마노아는 일정한 경계 안에 있어야 한다. 마노아는 규정된 한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 마노아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는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이다—그는 아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13:16-21).[3]

우리는 (예를 들어, 요 1:14, 18, 14:7-9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노와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가 결코 헤아리거나 이해하거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비, 깊이, 초월성이 있다(롬 11:33).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을지라도 그분을 속속들이 철저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에 관하여 충분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지식을 주셨다. 여전히 부과된 한계가 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방식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남아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정한 겸손으로 인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기시는 일들이 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자주 특정한 시련이나 고난에 대한 설명이나 이유를 밝히시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의 이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른

---

[3] 마노아는 그의 제한된 인식 때문에 비난받을 수 없다—그는 그가 곧 알게 될 것 (13:21b)을 아직 모른다(13:16). 사사기 13장에서 12번 언급된 하나님/여호와의 사자에 대하여는 사사기 6장[을 다루는 이 책의 제 8장]의 각주 3을 참고하라.

신자들에게 강요할지 모른다.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곤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다고 확신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성품과 방식이 기묘한 것을 인정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에 대해 확신하기 보다는 그분에 의해 당황하는 우리 자신을 더 자주 발견할지 모른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추정함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겸손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고,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의 말을 억제하며 거룩한 침묵을 지켜야 할 것이다.

V.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두려움 (The Fear Yahweh Arouses)

넷째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두려움(13:19-23)을 보지 않을 수 없다. 마노아는 소제물을 제물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바친다. 그러자 여호와 아니 어쩌면 여호와의 사자는 경이로운 일을 행한다(13:19의 본문은 다소 어렵지만 의미는 분명해 보인다). 그 경이로움은 13:20에서 묘사된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저자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었다."라고 두 번 전한다(13:19, 20). 그것은 관찰 가능한 실제 사건이었다.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13:20). 날이 밝았다(13:21). 두려움이 일어났다(13:22). 마노아는 결론지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마노아는 그저 성경의 공리를 말하고 있었다. 오래 전에 여호와께서는 왜 모세가 그분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보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지 설명하셨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출 33:20)."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은 아늑한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것이었다. 마노아는 그들이 너무 많이 보았고, 너무 가까웠다고 느꼈던 것 같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서 어딘지 모르게 건방진 웃음들을 지워버려야 한다. 때때로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구절을 읽을 때 "물론 마노아는 구약의 신자라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짐짓 겸손하고 조용한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마노아는 완벽하게 이해했고, 그래서 떨었다. 우리는 마노아를 우리의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그의 반응을 당연히 순진한 것으로 비웃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신자들이 순진할 때는 대개 진실에 가깝다.) 마노아가 그의 추론에서는 틀렸을지 모르지만, 그의 본능에서는 옳았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가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을 얻었단 말인가? 우리가 정말 산타클로스 신학을 산 것은 아닌가? 우리가 광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안전하신 분이 된 것은 아닌가? 제자들은 아직도 너무 원시적이어서 신적 임재가 인간의 떨림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일까(눅 9: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림의 나머지 부분도 필요하다. 마노아가 표현한 두려움과 나란히,

그의 아내가 "믿음 충만한" 추론에서 선언한 위로가 함께 서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13:23)." 확실히, 그의 아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려는 것이라고 추론했다. 마노아는 경외는 있었지만 위로는 없었고, 두려움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적절히 균형 잡힌 반응이 필요하다. 성도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쉽게 극단으로 흐른다. 어느 학년 때 우리의 한 아들에게 다소 엄숙한 선생님이 계셨다. 들은 바에 의하면 그녀의 교실에는 어떤 경박함도 없었다. 학교는 침울한 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셋(Seth)이 집에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블랭크 부인[살아계신 분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고 이름을 바꾸었음]이 금년 들어 오늘 처음으로 웃었어요! 1시 56분에 있었고 43초간 계속되었어요." 웃음이 그렇게 뚜렷하게 눈에 띄고 정확하게 시간을 쟀을 정도라면, 웃음이 너무 너무 적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경박함의 수문을 열어서는 안 되지만, 때때로 수문으로 물이 새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적절한 균형, 진지한 긴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정기적인 예배에서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적용되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떨지만 결코 웃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확신없는 경외를 보인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가까우심에 너무 집중해서 따뜻한 친밀함을 값싼 익숙함으로 바꾸는 위험에 빠진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경계 안에 머물게 하며 "떨며 즐거워하라(시 2:11)"고[4]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마노아의 아내로 하여금 우리를 가르치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녀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로 그분의 위엄을 일견하고 경외심이 일어나도록 압도하실 때조차도,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뜻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능을 확신시키려는"[5] 것임을 깨닫기를 원할 것이다.

VI. 여호와께서 따르시는 패턴 (The Pattern Yahweh Follows)

사사기 13장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따르시는 패턴을 살펴보자. 삿 13:24b-25은 우리가 삼손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이다. 사사기 13장의 거의 대부분은 삼손의

---

[4] 이러한 번역(ESV, NASB: "Rejoice with trembling")은 예를 들어 RSV("with trembling kiss his feet")나 NEB에서 찾을 수 없지만, 시 2:11-12의 본문은 RSV의 각주("The Hebrew of 11b and 12a is uncertain.")가 말하는 것만큼 불확실한 것이 아니다.

[5] A. R. Fausset, *A Critical and Expository Commentary on the Book of Judges* (London: James Nisbet, 1885), 223.

출생을 둘러싼 상황에 초점을 맞춘 그의 탄생 이야기다. 사사기 14장은 다 큰 삼손이 아내를 얻기 위해 달려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어떤 식으로든 그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 두 구절(13:24b-25)—곧 매우 간결한 요약—만 있다. 분명히 저자는 우리에게 완전한 전기를 주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삼손의 어린 시절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빠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저자는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그것에 그러한 관심을 쏟지 않았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도 같은 패턴을 따른다. 마태 복음과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뿌리, 출생, 유아기(乳兒期 마 1-2장[비록 2장에서 예수님이 아마도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였을지라도]과 눅 1-2장), 그리고 분명히 그의 공적 사역에 중요한 지면을 할애한다. 그러나 우리는 눅 2:41-52에 나오는 한 차례의 소동을 제외하고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사사기의 나머지 부분에는 13장과 같은 것이 없다. 삼손의 이야기에만 유일하게 탄생 이야기가 나온다. 입다의 뿌리에 대한 세부사항(11:1-3)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은 13장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패턴일까? 왜 저자는 삼손의 출생을 선택하여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을까? 왜냐하면 그는 적어도 이 경우에서는 여호와께서 말하자면 (예를 들어, 옷니엘이나 에훗처럼, 3:9, 15) 이미 이용가능한 구원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분은 맨 처음부터 한 구원자를 기르셨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세우신 계획으로 보지 못하고 항상 즉석에서 임시 변통으로 이루시는 사건, 곧 하나님의 위기 관리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삼손보다 더 크시고 그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에 대하여 놀라고 기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벧전 1:20)." "창세 전부터" 어떤 것이 나를 위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상상력도 자극한다. 심지어 사사기 13장도 우리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17. 비밀들 (삿 14장 Secrets)

다행히도, 우리는 독자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는 사사기 14장 주위에 떠도는 이 모든 비밀들을 알고 있다. 우리는 네 가지 비밀을 모두 알고 있다. 사사기 14장의 히브리어 본문에서 "말하다"는 뜻의 동사 [히기드]가 여러 형태로 14번(2, 6, 9, 12[두 번], 13, 14, 15, 16 [세 번], 17 [두 번], 19) 사용된다. 그렇다면 사사기 14장 전체는 말하는 것, 아니 내 생각으론 말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모두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관한 것이다.

구조적으로 사사기 14장은 5번(1, 5, 7, 10, 19) 사용된 "내려가다"는 뜻의 동사 [야라드]를 통해 구분된다. 처음 네 부분은 각각 비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표 17.1을 보라).

표 17.1 삿 14:1-20 의 구조		
14:1-4	삼손이 딤나로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본다	여호와의 목적의 비밀
14:5-6	삼손이—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딤나로 내려간다	사자를 죽인 일의 비밀
14:7-9	삼손이 내려가서 그 여인과 말한다	꿀의 비밀
14:10-18	그의 아버지가 그 여인에게 내려가고 삼손은 술 잔치를 베푼다	수수께끼의 비밀
14:19-20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 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다.	절정: 여호와의 영의 능력

I. 여호와의 목적의 비밀 (The Secret of Yahweh's Purpose)

우리가 사사기 14장의 교훈에 집중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목적의 비밀(특히 14:4)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화가 났다. 그들은 의지가 강한 아이인 삼손과 또 한 번 언쟁했다. 삼손은 딤나에[1] 갔었다. 그는 한 소녀를[2] 보았었다. 그는 단호했다. 그의 아버지는 결혼 준비를 해야 했다.

---

[1] 여기 딤나는 아마 텔 엘 바타시(Tell el-Batashi)일 것이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곧장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벧세메스 서쪽으로 5마일 조금 못될 정도로 떨어져 있다.

[2] 삿 14:2의 삼손의 말을 직역하면 "A woman I have seen in Timnah. 한 여인을 – 제가 보았습니다 – 딤나에서"이다. 강조가 "한 여인"에게 있다. 삼손이 미국인이었다면 그는 "Let me tell you, I saw a *woman* in

아버지와 어머니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그의 탄생을 바라며 살았었다(13장).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은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노아는 "하지만 그녀는 블레셋 사람이잖아."라고 하며 울부짖듯이 애원했다. 확실히 여호와의 사자는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이다(13:5). 삼손은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고집을 부렸다(14:2). 아버지와 어머니는 폭발했다. "온 이스라엘 중에 어찌 네 마음에 들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아, 그 여자는 **이방인**이야!" 삼손은 마노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를 악물고 "**그녀를**(14:3, 히브리어 본문 [오타흐 카흐-리]에서 강조됨) 나를 위해 데려오소서."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삼손은 "[직역] 그녀가 내 눈에 들기(옳아 보이기) 때문입니다(14:3)."라고 말한다.[3] 그날 저녁 소라에 있는 한 가정에 슬픔과 불행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것이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했다. 사실 그분은(He=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칠 틈을 찾고 계셨다(14:4)."

우리는 14:4의 해석 문제를 논할 필요가 있다. 독자들이 알 수 있듯이, 나는 "그가 찾고 있었다"라는 절에서 "그"가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자주 그것이 삼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4] 마치 블레셋 여자에 대한 모든 소란이 삼손의 진짜 목적을 위한 은폐인 것처럼 말이다. 그럴 경우 비밀은 삼손의 비밀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여기 "그"는 거의 확실히 여호와이다. 첫째로, "여호와"는 이 문에서 대명사 "그"에 대한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자연스러운 문법적 선행사이다. 둘째로, 삼손은 어떤 숨겨진 반 블레셋 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분비선("그녀가 내 눈에 들기[옳아 보이기] 때문에, 14:3)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14:3절의 삼손의 말이 그의 부모로부터 그의 진정한 동기를 감추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심지어 내레이터조차도 삼손의 목적이 아니라 삼손의 즐거움이 우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암시한다(14:7, "그녀는 삼손의 눈에 들었다[옳아 보였다]"). 삼손은 전형적인 사사 시대의 사람(17:6; 21:25)으로[5]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Timnah!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딤나에서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3] C. F. Keil, *Joshua, Judges, Ruth,*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409: "출 34:16과 신 7:3, 4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유일한 결혼은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이다. 그러나 이 금지에 주어진 이유는 동등하게 블레셋의 딸과의 결혼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4] 고스링가, 부시, 카일, 포셋(Goslinga, Bush, Keil, Fausset) 등이 이렇게 주장한다.

[5] 역자 주: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17:6; 21:15 אִישׁ הַיָּשָׁר בְּעֵינָיו יַעֲשֶׂה [이시 하야샤르 브**에나브** 야야쎄])" 대로 행하던 시대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삼손은 " הִיא יָשְׁרָה בְעֵינָי [히 야시라 브에나이]그 여자가 나의 눈에 든다 = 그 여자가 내 소견에 옳아 보인다"라고 하였다. 삿 17:6과 21:25은

그렇다면 14:4은 우리에게 삼손의 비밀이 아니라 여호와의 비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칠 틈을 노리고 계셨다. 그분은 싸움을 시작할 근거를 찾고 계셨다.[6]

삼손의 부모가 알았더라면 그들에게 정말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 상황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불레셋 사람을 칠 틈을 찾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그들이 삼손의 욕망과 행동에 반대한 것이 틀렸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삼손의 욕망이 도덕적이거나 그의 황소 고집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삼손의 어리석음이나 완고함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여호와는 그분의 종들의 죄악이나 어리석음을 자신의 비밀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위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사용하실 것이다.

에후드 아브리엘은 그의 구매품 중 일부를 팔레스타인으로 운송할 배를 찾는데 3 개월(1947-48)이 걸렸다. 마침내 그는 유고슬라비아 항구 브르노의 화물 증기선인 노라를 사용할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의 눈에는 그의 선적이 600톤의 이태리산 양파로 구성되어 있었다. 영국 세관원들은 그 화물 주변을 돌며 오랫동안 냄새 맡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아이디어는 600톤의 이태리산 양파가 진짜 화물 곧 아브리엘이 이스라엘 군대 하가나를 위해 구입한 체코산 소총들의 선적을 덮어 가리는 것이었다.[7]

그렇다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희망을 보여줄 것이다.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양파 냄새만 지독한 상황뿐이다. 죄나 실망의 냄새가 현장을 지배하고, 우리의 전체 지도를

원문이 똑같으나 개역개정은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처럼 약간 다르게 번역한다. 삿 17:6과 21:25처럼 삿 14:3의 הִיא יָשְׁרָה בְעֵינָי [히 야시라 브에나이]와 14:7의 "וַתִּישַׁר בְּעֵינֵי שִׁמְשׁוֹן [바티샤르 브에네 심손]"에 "[아인/에나임] 눈들"과 "[야사르] 옳다"가 나온다. 개역개정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와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고 번역했다. 새번역은 "첫눈에 내 맘에 쏙 들었다"와 "좋아하다"로 번역하고 우리말성경은 둘 모두 "좋아하다"로 번역했다. "좋아하다"는 번역은 17:6과 21:25의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14:3과 14:7 둘 모두 "**그녀가** 나/삼손의 **눈에 옳다**/옳아 보인다/**든다**"로 번역하고, 17:6과 21:25의 [하야사르 브에나브]를 "(사람이) 그의 **눈에 옳은**/옳아 보이는/**드는** 것을 (행했다)"로 번역하면 삼손과 백성이 여호와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6] 일곱 개의 영어 번역(NASB, NIV, JB, NJB, TEV, NEB, NJPS)이 "찾고 있었다"의 주어로 여호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주석가들을 예로 들면, 구트브로트, 무어, 마이어스 등이 같은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James A. Wharton, 'The Secret of Yahweh: Story and Affirmation in Judges 13–16,' *Interpretation* 27 (1973): 55도 보라.

[7] Larry Collins and Dominique Lapierre, *O Jerusalem!* (New York: Pocket Books, 1972), 175.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은 여호와의 비밀 사역을 덮고 있는 표지에 불과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볼 수 없는 것 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엉망진창을 통해 아니면 엉망진창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그분만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 "여호와로부터" 올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 부모들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신세와 같다. 그들은 자신의 죄스러운 부족함을 깨달을지라도 성실하게 아들이나 딸을 가르치고, 위해 기도하고, 징계하고, 사랑했지만, 오직 그 자녀는 의도적으로 주님의 길에서 돌아선 것을 볼 뿐이다. 아무도 그것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누구도 삿 14:4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나중에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다.

II. 여호와의 능력의 표징 (The Sign of Yahweh's Strength)

좋든 싫든 우리는 딤나의 포도밭으로 가서 사자를 만나야 한다(14:5-6)! 다행히도 삼손이 우리보다 앞서 그 사자를 처리했다. 그러나 죽은 사자들이 무시되면 안 되고,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의 표징을 보아야 한다.

저자가 이 에피소드를 포함한 것은 우리에게 삼손의 나중의 수수께끼의 이해를 위한 배경을 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사자가 삼손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왔고,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다. 성령의 힘으로 사자가 어린 염소처럼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쉽게 그것을 찢어버렸다.[8] 삼손의 힘은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나왔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한" 것은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다(14:19; 15:14을 보라).[9] 으스러진 사자는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보내는 표징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그에게 보여준다. 그것은 그로 사자를 찢을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로 블레셋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의 예고편이다.[10]

---

[8] 삿 14:5만 보면 삼손이 딤나로 내려가는 길에 그의 부모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와 함께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14:6은 분명하게 사자가 공격할 때 삼손이 혼자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을 보호하시는 것을 본다. 왜냐하면 삼손의 목숨이 명백히 위태로웠기 때문이다.

[9] 여기에 사용된 "강하게 임하다"는 의미의 동사 [찰라흐]는 성령이 사울(삼상 10:6, 10; 11:6; cf. 18:10)과 다윗(삼상 16:13)에게 임할 때도 사용되었다.

[10] S. G. De Graaf, *Promise and Deliverance*, 4 vols. (St. Catharines, Ontario: Paideia, 1978), 2:43, 그리고 C. J. Goslinga, *Joshua, Judges, Ruth*, Bible Student's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422의 논평을 보라.

우리는 그런 예고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새의 양을 공격하는 사자와 곰을 쓸어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면 여호와께서 또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힐 배짱과 기술도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가는 제자들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해했더라면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막 6:51-52). 아니, 여러분은 사자가 포도밭에서 으르렁거리며 나오기를 기대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에서 이런 패턴을 알아채야 한다. 그분은 구원이나 공급의 보다 더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여러분에게 그분이 얼마나 적절하신지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을 의지하도록 격려받을 것이다.

III. 여호와의 종의 약점 (The Weakness of Yahweh's Servant)

삿 14:10-18절에서 그림자가 삼손 이야기들 위에—아주 조금이지만—드리우기 시작한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의 약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으로 올 것에 대한 힌트가 있다. 우리는 14:5-9에서 그의 힘을 보았는데 곧바로(14:10-18에서) 그의 약점에 직면한다.

독자로서 우리는 딤나의 술 잔치(14:10에 나오는 히브리어 [미시테]의 의미)를 좀 더 즐길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11] 어쨌든 우리는 사자와 벌과 꿀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내기에 지지 않으려고 진땀 흘리는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다. 우리는 삼손과 함께 딤나로 내려왔다. 우리는 삼손의 부모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즐기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우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신랑에게 30명의 동료를 후하게 제공하므로, 삼손은 추가적인 여흥을 제안한다. "내가 수수께끼 하나를 내리니(14:12a) 우리가 그것으로 내기(14:12b-13)를 하면 어떨까?" 서양의 용어로 말한다면 벌금은 30세트의 속옷과 30벌의 새 양복이 될 것이다.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이긴다면, 그들은 각각 다음의 다곤 축제에서 새로운 "부활절" 의상을 뽐낼 수

---

[11] 삼손은 이미 사자 주검에서 꿀(죽은 것과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리고 술 잔치를 베풂(누군가 꼬집어 말하듯이 본문은 삼손 자신이 술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을지라도)으로써 나실인의 신분을 손상시켰을 수도 있다. 나실인의 금지 사항은 포도 소산을 먹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이었다(자세한 내용은 민 6:1-21을 보라). 그러나 카셀(Paulus Cassel, *The Book of Judge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2, *Numbers-Ruth* [1865;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196)의 주장에 따르면 삼손은 "민수기 6장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실인이 아니다. 그의 이야기의 소개 부분은 음식과 음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그의 어머니에게만 주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삼손 자신에 관하여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상의 말이 없다. 그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그의 나실인으로서 힘은 오직 이 후자의 의무에만 달려있다."

있다.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진다면, 삼손은 이 나라에서 가장 호화로운 옷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내기에 응한다. 삼손은 그의 수수께끼를 공표한다(14:14).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12]

재치 전쟁은 잠시 동안 도전해볼 만한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유쾌한 동료들도 사흘 동안 헛수고만 하다가 좌절하고 초조해지고 짜증이 났다(14:14b). 그들이 누군가의 파티에서 식객이 되는 것은 마다하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 이스라엘 야만인의 장신구를 보조해야만 하는가? 마침내[13] 그들은 절망에 빠져 삼손의 아내에게 쑥덕였다. "당신 아버지의 화재 보험은 다 갚았소? 우리가 당신의 물건들이 불타게 해주기를 원해요? 당신은 우리가 우리의 은행 계좌의 돈을 다 쓰게 하기 위해 우리를 여기에 초대했소? 그런 것이 아니면 매혹적인 당신이 당신의 남편을 꾀어 수수께끼의 답을 얻어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집안은 쑥대밭이 될 것이오(14:15)." 신부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

갑자기 삼손의 아내는 자신이 승산이 없는 결혼 축하 행사에 휘말린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지금 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울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울며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연기를 시작한다(14:16). 삼손은 그녀의 필사적인 졸라댐에 결국

---

[12] 수수께끼에 관하여는 James L. Crenshaw, *Samson: A Secret Betrayed, A Vow Ignored* (Atlanta: John Knox, 1978), ch. 3을 보라.

[11] On riddles see James L. Crenshaw, *Samson: A Secret Betrayed, A Vow Ignored* (Atlanta: John Knox, 1978), ch. 3.

[13] 삿 14:15의 히브리어 본문은 "(개역) 제칠일에, (개역개정) 일곱째 날에 이르러, (새번역) 이레째 되던 날, (우리말성경) 7일째 되는 날"처럼 숫자 7을 갖고 있다. 그러나 칠십인역과 페시타역은 숫자 4를 갖고 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ESV, NASB, NIV, NLT, HCSB)은 이를 따르고 공동번역과 쉬운성경도 "나흘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날"로 번역하고 있다. "나흘째 되는 날"이란 번역이 보다 일관된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다. 3일 동안 풀지 못해 좌절하고(14:14) 나흘째 되는 날에 신부를 위협하고(14:15) 칠 일 동안 잔치할 때 아내가 삼손에게 강요하므로 결국 일곱째 날에 삼손이 알려준다(14:17). 그러나 14:15의 히브리어 본문을 따라 "제칠일에,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이레째 되는 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14:17의 "칠일 동안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에 강요했다"는 것과 직접적인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히브리어 본문(14:15)의 숫자 7을 받아들일 경우 카일(Keil, *Joshua, Judges, Ruth*, 412)이 설명한 것처럼 "그 여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매일 삼손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했지만, 삼손은 일곱째 날이 이를 때까지 알려주지 않았다. 일곱째 날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 위협(14:15)의 결과로 그의 아내가 전보다 더 다급해진" 날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굴복하고 만다. 예상대로 "그가 알려주었다"에 이어서 "그녀가 알려주었다"가 나온다(14:17). 마감 시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은 꿀과 사자라는 으뜸패를 꺼낸다(14:18a). 하지만 삼손은 멍청이가 아니다. 그는 달콤한 꿀과 강한 사자라는 그들의 답이 오직 그의 말하는 암송아지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고 있었다(14:18b).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삼손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16장에서 삼손이 들릴라에게 훨씬 더 신성한 비밀을 말하는 것의 전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실패의 원인은 두 경우에서 모두 같았다. "그녀가 그를 졸라댔다(14:17과 16:16에 같은 히브리어 동사 [추크]가 나옴. 참고, 개역개정은 "강요하다"와 "재촉하다"로 번역함)." 이미 14장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강한 종에게서 걱정스러운 약점을 보았다. 여호와의 종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약점에 대한 자각은 안전의 시작이다. 후대에 삼손과 같은 사람들도 어렵게 이 사실을 터득하곤 했다(참조, 마 26:31-35 [제자들의 도망과 베드로의 부인]).

IV. 여호와의 구원의 시작 (The Beginning of Yahweh's Deliverance)

마지막으로, 삿 14:19-20은 여호와의 구원의 시작을 묘사한다.

아스글론에[14] 있는 모든 사람이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던 것 같다. 삼손이 왔었다. 삼손은 아스글론의 주요 시민 서른 명을 쳐죽이고 옷을 벗기고, 그것을 딤나로 가지고 가서, 술에 취한 친구들 사이로 던져주고, 화가 나서 성큼성큼 [아버지의 집이 있는] 소라를 향해 걸어갔다.

우리의 충동은 아스글론의 학살을 삼손이 "육신으로" 섬기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본문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고" 그래서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서른 명을 쳐죽였다."라고 주장한다. 이제 여호와의 영은 삼손에게 사자를 찢는 힘(14:5-6)이 아니라 블레셋을 쳐죽이는 힘을 주고 있다. 지금 여기에 여호와께서 찾고 계시던 틈(14:4)이 있다. 여기에 이야기의 절정이 있다(본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구조에 대한 논의를 보라). 왜냐하면 심지어 여호와의 비밀조차도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문은 분명하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삼손의 성미가 아니라 성령의 힘이다. 이것이 잔인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분의 구원 행위를 항상 클로락스에 담그시고 향수를 뿌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14] 아스글론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는데 (북쪽으로) 아스돗과 (남쪽으로) 가사 사이의 중간쯤에 있었고 딤나에서 남서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져 있었다.

보았다.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자주 지저분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삼손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 불쾌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작은지에 대해 더듬거리며 말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계신다면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여호와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만 약속했다(13:5). 여기 아스글론에 그 시작의 시작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원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작용하는 것을 보아왔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배우자 또는/그리고 부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슬픔에 휘청거리며 남은 자는 혼란에 빠져 터벅터벅 걷는다.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갈라진 상처를 아물게 하시거나 무지근한 통증을 없애시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받는 사람은 자주 이곳의 작은 섭리를 그곳의 적절한 공급과 연관시키거나 가리킨다. 그것은 아주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아직도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항상 그분의 가장 작은 구원조차도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14:19b)." 14장 전체에 걸쳐(14:1, 5, 7, 19; cf. 10) 삼손이 "내려갔다"는 묘사 이후에 여기서 마침내 삼손이 "올라갔다"는 묘사가 나온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신랑 들러리에게 주어졌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된 것 같다. 오늘밤 딤나에서는 모든 것이 조용하다.

18. 라맛 레히 전투와 다른 이야기들 (삿 15장 The Battle of Jawbone Hill and Other Stories)

내가 딤나에서 모든 게 조용하다고 말했던가? 글쎄, 그랬었다. 하지만 5월의 어느 멋진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거기에 삼손은 그의 팔 밑에 (꽃 대신) 어린 염소를 두고 서서 눈을 반짝이며 사랑의 분위기에 젖어있다. 삼손은 결코 오랫동안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제 그는 그의 장인에게 "제 아내와 함께 침실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말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의 장인은 뱃속이 뒤틀리며 큰 두통을 느꼈을 것이다. 삼손은 그의 딸과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없었다. 그렇다. 이교도들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는 그의 딸을 삼손의 들러리에게 시집보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손이 너무 화가 났었으므로 그는 삼손이 자기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랬다고 하며 그 보다 더 아름다운 동생을 아내로 맞으라고 제안한다. 삼손이 격앙된 표정을 짓고 속이 끓어올라 떠나버리는 모습으로 볼 때 딤나의 조용함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 14시 20분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지금 (15시 3-5분) 한 통 전체의 벌레—곧 말하자면, 여우들—이 열려 있다.

이 패턴은 14장-16장에 걸쳐 나타난다. 모든 에피소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곧바로 삼손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다시 실패하는 것을 볼 뿐이다. 블레셋 사람이라면 그것을 해결-실패의 패턴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런 구조를 추적하는 것은 15장 그 자체를 넘어서지만, 15장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을 감상하기 위해 우리는 14장-16장 전체에 대하여 이런 해결-실패의 구조를 제시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14-16 장을 6 개의 주요 에피소드로 나눌 것이다. 각 에피소드는 블레셋의 성공에 바로 뒤이어 나오는 삼손이 가져오는 재앙이란 이 두 기본 요소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 14-16 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에피소드 1	14:5-20
해결: 수수께끼의 답	
실패: 아스글론에서의 학살	
에피소드 2	15:1-6a
해결: 삼손의 떠나버림, 평온 회복, 들러리에게 주어진 신부	
실패: 홰를 단 여우들	

에피소드 3	15:6b-8
해결: 딤나의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임	
실패: 삼손의 학살	
에피소드 4	15:9-17
해결: 삼손이 결박당해 넘겨짐	
실패: "[라맛 레히] 턱뼈 언덕"	
에피소드 5	16:1-3
해결: 바람둥이를 매복했다가 죽이려 함	
실패: 옮길 수 있는 성 문짝들	
에피소드 6	16:4-30
주요 패턴	
해결: 머리가 밀림	
실패: 다곤 신전에서의 비극	
부수적인 패턴	
해결/실패: 일곱 새 활줄	(16:6-9a/9b)
해결/실패: 새 밧줄	(16:10-12a/12b)
해결/실패: 머리털 직조	(16:13-14a/14b)
해결/성공: 삭도	(16:15-19a/19b-21)

이 개요가 보여주는 해결—실패, 혹은 성공—재앙이란 이중 패턴은 14-16 장에 나오는 모든 일화에 계속된다. 심지어 그것은 절정의 여섯 번째 에피소드의 해결 부분을 이루는 세부적인 부분들에도 그대로 나온다. 그런데 이 패턴은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가 밀린 그들의 전리품을 결박하고 눈을 멀게 하는 네 번째 세부 부분에서 깨진다(16:19b-21). 그러나 일반적인 패턴은 깨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16:22-30에서 다시 한 번 블레셋의 성공이 사실상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I. 여호와의 구원의 유머 (The Humor of Yahweh's Salvation)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두고 구조에서 교훈으로 나가보자. 15장(사실은 14-16장 전부)에는 여호와의

구원의 유머가 묘사되어 있다.

이 에피소드들을 주의 깊게 검토해보면 그것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삼손의 수수께끼(14:17-18)에 의기양양하게 대답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내기에서 이기고 30명의 동료 시민들을 잃었다. 그들은 승리한 패배자들이다! 딤나에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지 않았는가? 삼손의 여우 장난은 확실히 블레셋 협동조합의 엘리베이터가 거의 텅 비게 하였을 것이다(15:4-5).[1] 여우들(혹은 승냥이들)에게는 재미있는 것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에피소드를 보며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것이 유머스럽다는 것을 발견하리라고 확신한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갑자기 나귀 턱뼈로 그들의 머리에 감각을 주입하기 전(15:14b-15)까지는 그들의 적을 그들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15:14a)고 확신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은 그렇게 침울할 필요가 없다.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의 이스라엘 형제가 그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라. 어서 좀 웃어보라.

그러므로 14-16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긴 웃음거리를 이루고 있다. 그 이야기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아이러니, 최고의 유머로 가득 차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일시적으로는 성공적이지만 삼손 때문에 결국 재앙으로 판명된다. 그는 그들을 가지고 논다. 이 내러티브는 삼손을 미화하는 데 관심이 없지만(16장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심지어 그의 몰락에서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을 서투른 조연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16:22 이하에 대한 논의를 보라). 일반적으로 에피소드들의 주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어떤 독자들은 성경에서 그런 유머를 찾는 것이 불경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런 유머가 있다면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유머는 확실히 본문의 요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가정할지 모른다. 이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성경은 전할 아주 냉철한 논점이 있을 때 유머를 사용한다. 유머는 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신적이기도 하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의 적이다. 여기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은 조롱거리가 되고, 여기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웃음거리가 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여호와의 백성(심지어 그분의 **죄 많은** 백성)의 적이 되는 것의 위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파멸시키고 분쇄하려는 자들을 바보로 만드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굉장한 두려우심! 그분의 적들—그리고 그분의 백성의 적들—은 그분에게 아이들의 장난감에

---

[1] W. M. Thomson, *The Land and the Book*, 2 vol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873), 2:340-341을 보라.

불과하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가지고 노시며 그분의 백성으로 그들을 비웃을 수 있게 하신다(3:12-30의 논의 참조). 자신을 하나님의 웃음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섬뜩한 일이다(시편 2:4의 문맥 참조).

아마도 이 블레셋 원리, 곧 이 해결-실패 증후군은 1941년 3월에 작동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에게 초자연적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나는 "아마도"라고 표현했다.) 히틀러가 유고슬라비아를 나치 대의에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협정을 체결하자마자, 쿠데타가 그 정부를 전복시키고 베오그라드에 새로운 정권을 수립했다. 새 정부는 나치와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으나, 단순히 꼭두각시 지위에 그치는 것은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쨌든 베오그라드의 쿠데타는 히틀러를 격분시켰다. 그는 단호하고 성급하게 행동했다. 유고슬라비아는 군사적으로 파괴될 것이고 국가로서 "무자비한 가혹함"으로 넘쳐날 것이다. 괴링의 전투기들은 베오그라드를 폭격할 예정이었다. 그것들은 폭격했다. 그것들은 3일 밤낮으로 수도(베오그라드는 대공포가 없었음)를 옥상 수준에서 정밀 수색하여 1만 7천명의 민간인을 쓸어버리고 더 많은 부상자를 내고, 도시를 파편 더미가 되게 만들었다. 그것에 대한 히틀러의 용어는 작전 처벌이었다. 성공만큼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없다. 권력도 마찬가지다.

아니면 그것은 "블레셋의 어리석음"의 사례였는가? 어떤 이들은 나치 총통의 유고슬라비아 분쇄 결정이 "히틀러의 생애에서 가장 비극적인 단일 결정"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유고슬라비아를 짓밟기 위해 히틀러는 러시아에 대한 그의 예정된 공격을 4-5주 연기해야 했다. 그 후 깊은 눈과 추운 러시아의 겨울이 히틀러의 군대를 강타했는데, 히틀러의 군인들은 소련에서의 마지막 승리를 위해 그들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 보다 3-4주가 모자라게 되었다. 나폴레옹은 그에게 러시아의 겨울이 러시아의 무기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2] 히틀러의 바로 그 성공은 그의 재앙을 담고 있었고 그의 해결은 그의 실패를 준비했다. 진짜 총통(시 2:4)께서는 앉아서 웃고 계시지 않았는가?

II. 여호와의 백성의 무기력 (The Lethargy of Yahweh's People)

이야기는 유머러스하면서도 비극적일 수 있다.[3] 삼손 내러티브는 후자 곧 비극적인 필치를 갖고 있다. 삼손의 여우들을 통한 불 장난은 블레셋 사람들을 격동시켜 (분명 그들의 집에 고립되어

---

[2] See William L. Shirer, *The Rise and Fall of the Third Reich* (Greenwich, Conn.: Fawcett, 1960), 1078-88.

[3] 삼손 이야기에 들어 있는 비극적 측면에 대하여는 Leland Ryken, *The Literature of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74), 100-102을 참조하라.

있던) 그의 아내와 장인을 불사르게 했다. 그러므로 아이러니하게도 결혼 파티에서의 위협(14:15)이 그대로 실행되었다(15:6). 블레셋 사람들은 불을 가지고 불과 싸웠다. 그것은 분명히 삼손을 격분시켜 복수하게 만들었다(15:7-8).[4] 그러나 저자는 이스라엘 내부에 훨씬 더 깊은 비극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의 백성의 무기력을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15:9-13).

삼손의 복수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레히를[5] 위협하고 있었다(15:9). 유다 사람들이 왜 이런 공격을 하려는 것이냐고 불평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그들에게 행한 대로 그들도 그에게 행하려고" 올라왔다고 한다(15:10).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담에[6] 있는 삼손을 대면하기 위해 내려간다. 그들은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15:11)?" 슬프고 슬픈 말이다. 여기 속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현 상태 너머의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으며, 구원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여호와의 적들을 그들의 정당한 영주로 보는 백성이 있다. 이스라엘은 즉시 여호와를 버릴 수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신실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려는 백성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질문이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화를 낸다. 삼손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싸우는 것으로 본다(15:11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은 자신의 무절제한 폭발이 유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아마도 유다의 한 대변인이 블레셋 TV에 출연해 단 지파 사람 삼손의 "무책임하고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유다인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에 대한 성명을 낭독했을 것이다.

삼손은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태연하고 심지어 철학적이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한 말에서

---

[4] 삿 15:8의 히브리어는 "그가 그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 큰 살육/크게 침."이라고 쓰여있다. 큰 살육은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다. 참조: 볼링(Robert G. Boling, *Judges*,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75], 235)은 "그가 그들의 다리와 허벅지가 엉키게 했다."라고 설명한다.

[5] 레히(턱뼈)의 위치는 확실하지 않지만 유다의 서부에 있었음이 틀림없다. 레히라는 이름은 삿 15:14-17의 사건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저자는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난 후에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독자에게는 그것이 나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예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15:17) 여기 15:9에서 그 통속적인 이름을 쓰고 있다.

[6] 에담의 위치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레히처럼 유다의 서부, 낮은 언덕에 있었던 것 같다.

한 줄(15:10 참조)을 빌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노라(15:11b)."고 간단히 대받아 친다. 그의 복수 후에 그건 공평했었어야만 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해도 그는 어쩔 수 없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임무를 불쑥 말한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15:12a)." 이상하게도 삼손은 유다 사람들이 분명 예상했던 어떤 저항도 하지 않는다. 저항을 예상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삼손은 단지 그들이 직접 그를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그들로부터 받아낸다(15:12b). 그들은 기꺼이 이것에 동의한다(삼손, 우리가 겁쟁이일지 몰라도 너는 우리를 믿어도 된다.) 어떤 독자도 그들의 대답의 아이러니를 놓칠 수 없다. "오, 삼손, 우리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우리는 단지 너를 결박해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죽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고 싶을 뿐이다. 이전에 계속되는 전투에 앞장서서 뛰어들었던 지파(1:1-20)가 줏대 없는 약골들의 집합체가 됐다(15:13).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의 통치자로 여기고 삼손을 그들의 적으로 여긴다. 그들은 심지어 여호와의 자유민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심지어 그것을 가능한 일로 보지도 않는다.

여호와의 백성이 그들의 적들로 자신들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그분의 백성의 역사에는 항상 어두운 날이다. 우리가 더 이상 진정한 적을 멸시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한 적대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최초의 불충성의 결과로 여호와께서는 그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두겠다고 선언하셨다(창 3:16). 이 분열, 이 적의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분은 타락한 피조물조차도 악의 품에 안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어깨를 으쓱하며 "너는 일부는 이기고 일부는 진다"라고 중얼거리며 에덴으로부터 걸어나가는 것을 거부하셨다. 아니, 그분은 자신을 위한 씨와 백성을 가지기 위해 모든 피조물이 거룩한 전쟁에 불타오르게 하시는 고집불통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원은 폭력의 행위다. 그래서 예수님은 폭력적인 파괴의(요일 3:8, 마귀를 멸하는) 임무를 띠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하라(히브리어 본문의 시 97:10)"는 명령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편찬자들이 시편 139편을 편집할 때 19-22절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와 다르게 현대의 찬송가들에 실을 교독문을 편집하는 사람들은 얼핏 보기에 이 구절들이 고상한 기독교 예배에 너무 잔혹한 것으로 판단하고 넣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내부의 악과 죄이든, 아니면 우리 바깥의 어떤 형태의 악과 죄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어 악과 죄와 협상하지 말고 그것들과 싸우고, 모든 다채로운 형태의 악과 죄에 대하여 거룩한 증오를 품으라고 명하신다. 우리가 "그건 항상 이런 식이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을 바꾸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유다의 슬로건을 채택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겐 희망이 거의 없다.

III. 여호와의 종의 부양 (The Sustenance of Yahweh's Servant)

사사기 15장의 절정은 14-20절에 나온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부양을 본다. 블레셋 사람들은 속수무책의 먹잇감(15:14a)을 보며 소리를 질렀지만 곧 겨우 숨만 고를 수 있을 지경에 이른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을 고려하지 않았다. 블레셋 사람들은 절대 고려하지 못한다.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삼손은 밧줄을 불타는 삼처럼 툭툭 끊어버리고, 가까이에 있는 나귀의 턱뼈(본문이 말하듯이, 새 턱뼈, 곧 이빨을 그대로 갖고 있는 턱뼈로서 대단치 않은 무기)를 움켜잡고,[7] 블레셋 사람의 시체 더미를 만들기 시작했다. 삼손이 천 명을 죽인 후 적절한 언어 유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15:16). "나귀"와 "더미"는 히브리어 철자가 같다.[8] 영어로 이를 살려 번역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모팻의 번역은 그 맛을 포착했다.

> With the jawbone of an ass 나귀의 턱뼈로
> I have piled them in a mass! 대량으로 그들을 내가 쌓았다

그곳에 대한 이름으로 라맛 레히(턱뼈의 언덕, 5:17)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을까?

그러나 지금 그 익살꾼은 절망적이다. 그는 승리자가 희생자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삼손은 갈증으로 쇠약해져서 여호와께 도움을 청한다. 삼손이 분명하게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을 읽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15:18)." 여기서 삼손은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기서 구원자가 구원을 필요로 한다고 고백한다. 우리는 삼손의 힘이 여호와의 영(14:6, 19, 15:14)에서 나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들어왔다. 지금까지 이것들이 파악되지 않았더라도, 여기 이 림은 놓칠 수 없을 것이다. 삼손은 결코 자급자족할 수 없다.

삼손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레히에서 [막테시](아마도 바위 형성 과정에 움푹

---

[7] H. L. Ellison, *Scripture Union Bible Study Books: Joshua-2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1966), 37. "날카로운 금속 삽입물이 있는 충치들을" 가진 나귀의 턱뼈가 고대 자파(Jaffa)에서 발굴되었다(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N.Y.: Alba, 1972], 3:73을 보라). 삼손 내러티브는 그런 손질된 턱뼈를 묘사하는 것 같지 않다.

[8] 역자 주: 삿 15:16의 히브리어 본문은 בְּלֶחִי הַחֲמוֹר חֲמוֹר חֲמֹרָתָיִם [빌히 하**하모르 하모르** 하모라타임]이다. YLT: With a jaw-bone of the ass -- an ass upon asses --; NASB/ESV: With the jawbone of a **donkey**, **Heap**s upon heaps; NIV: With a donkey's jawbone I have made donkeys of them.

들어간 부분)를 터뜨리시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다. 이것은 광야 여정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물을 공급해 주시던 행위(출 17:6; 민 20:8, 11)를 생각나게 하는 일이다.[9]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반드시 더 작은 필요들도 모두 채워 주실 것이다(시 81:10). 삼손은 그 장소의 이름을 바꾸어야 했다. 턱뼈 언덕(라맛 레히, 15:17)이 부르짖는 자의 샘(엔학고레, 15:19)이 된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지구력이 그들 자신의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여호와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자주 그렇게 한다.

[9] C. F. Keil, *Joshua, Ruth,*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416.

19. 사랑 놀이와 그 결과 (삿 16장 Let's play 'The Philistines Are Here!')

사사기 16장은 14-15장과 병행과 대조를 동시에 이루고 있다. 병행이 엄격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은 유사한 패턴을 따른다(표 19.1 참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첫째 내러티브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후에 일어나지만(15:18-19) 둘째 내러티브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일어난다(16:28). 그러나 그의 탄원은 각 부분의 절정에 서 있다.[1]

표 19.1 삿 14-15장과 16장의 구조		
사건	14-15장	16장
삼손이 한 여인을 봄	14:1 딤나 여인	16:1 기생
여인이 삼손의 비밀을 얻어 폭로함	14:5-18	16:4-20
삼손이 결박당함	15:9-13	16:21
블레셋 사람들의 대학살과 여호와께 부르짖음	15:14-17/ 15:18-19	16:25-30
사사 공식	15:20	16:31

그러나 사사기 16장(여기서 특별히 염두에 두는 것은 16:1-21)은 14-15장과 대조도 이룬다. 첫째로, 사사기 14-15장에는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의 영"에 대한 언급이 세 번 있다(14:6, 19; 15:14). 여호와의 영이 다른 사사들과 관련해서도 언급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 경우 오직 한 번만 언급된다(옷니엘, 3:10; 기드온, 6:34; 입다, 11:29). 그러므로 삼손과 여호와의 영과의 연관성은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하여 16장에는 "여호와의 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둘째로, 사사기 14-15장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에 의하여 지탱되는 삼손으로 끝나는 반면, 16:1-21은 자급자족해야 하고 여호와에 의해 버림받은 삼손(16:20-21)으로 끝난다.[2] 이렇게 14-15장의 삼손과 16장의 삼손 사이에는 의도적인 대조가 있다. 16장은 여호와의 영에 대한 침묵으로 무언의 웅변을 하며 14-15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여호와의 영이 없는" 삼손을

[1] 이런 병행들에 관하여는 Barry G. Webb, *The Book of the Judges: An Integrated Reading*, JSOT Supplement Series 46 (Sheffield: JSOT, 1987), 163-64과 J. Cheryl Exum, 'The Theological Dimension of the Samson Saga,' *Vetus Testamentum* 33 (1983): 34, 45 및 'Aspects of Symmetry and Balance in the Samson Saga,' *JSOT* 19 (1981), 7-8을 보라.

[2] 삿 16:1-21은 가사의 기생의 침대(1절)에서 시작하여 가사의 감옥의 맷돌(16:21)로 끝난다.

보여준다. 셋째로, 이 두 부분은 절정에서도 똑같이 대조된다. 14-15장에서 여호와는 자기를 찾는 삼손을 붙들어 주시지만, 16장에서 여호와는 자급자족하는 삼손을 버리신다.[3]

I. 여호와의 종의 비극 (The Tragedy of Yahweh's Servant)

이런 설명들은 우리가 사사기 16장의 교훈을 받도록 준비시킨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비극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16:1-21).

사사기 16장의 첫 여성은 가사의 기생이다. 삼손은 그녀와 함께 밤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삼손이 왔다는 것을 귀띔 받고 성문에 매복단을 꾸리고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리라고 생각하며 밤새도록[4] 분명 쉬고 있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여자를 침대에 남겨둘 생각이 없었다. 가사 민병대가 새벽을 기다리는 동안 삼손은 밤을 이용하고 있었다. 삼손은 그 밤중에 일어나 아마도 약간 미소를 지으며 성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잡고 그것들을 뽑아 기합을 넣으며 어깨에 메고 터벅터벅 걸어 헤브론[5] 근처의 언덕에 놓는다. 그래서 그는 성문에 구멍을

---

[3] 이 두 부분 사이에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15:20의 결론 공식에 의해 강화된다. 저자는 전해주어야 할 이야기의 다른 면을 알고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삼손" 부분의 끝에 그의 이야기를 (말하자면) 결론짓는다. 이를 통해 저자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삼손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 저자는 공식적으로 전체 이야기의 끝에(16:31) 그 사사 공식을 붙일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의도적으로 먼저 15:20에 그 공식을 삽입하여 14-15장과 16장 사이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그가 구상한 이전—이후의 구조를 살린다.

[4] Cf. Robert G. Boling, *Judges*,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75), 248: "초기 철기 시대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성문은 적어도 2층 높이 정도이고 터널 같은 구멍이 측면으로 뚫려 있는 경비실들을 가진 정교한 복합 건물이었다. ... 철기 시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삼손이 어떻게 성문에서 가사 사람들을 지나갈 수 있었을지 쉽게 이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사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침까지 "성문에서," 다시 말하면 성 안에서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G. G. Garner, 'Fortification,' *IBD*, 1:525도 살펴보라.

[5] 삿 16:3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삼손이 성문 구조물을 들고 헤브론을 "향해 있는" 곧 헤브론 "방향에 있는" 언덕까지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삼손은 그것을 들고 40 마일쯤 떨어진 헤브론까지 가서 그 부근 동쪽에 두었다기보다는 가사 근처 어딘가에 그것을 내려놓았을 것이다. 히브리어 전치사 [알-프네]는 "–을 향한 방향"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C. F. Keil, *Joshua, Judges, Ruth*,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418을 보라. 카일은 창 18:16을 인용하고 있다. 참고로 창 19:28도 보라). 그러나 삼손이 단지 가사 근방에 짐을 내던져 버렸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자는 헤브론을 언급한 것인가? 이 이유에 대하여 고스링가(C. J. Goslinga, *Joshua, Judges, Ruth*, Bible Student's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440)는 "저자가 이스라엘이 그의 승리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가 그것들을 유다의 중심지에 두었음을 보여주

남기고 성읍 예산에 흠집을 낸다.

그 다음으로 삼손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된 여인인 들릴라가 있었다(16:4). 그녀가 블레셋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심지어 들릴라에게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했던 것은 오직 블레셋 사람의 돈이었다(16:5).

삼손은 항상 재미있는 시간을 좋아했고, 겉보기에는 들릴라도 그랬다. 그녀는 삼손과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다!"라고 하는 새로운 놀이를 시작했다. 사실, 들릴라는 그녀 자신을 위한 놀이를 하고 있었지만 삼손에게 그것을 말할 필요는 없었다. 삼손은 새 활줄 일곱(16:6-9)과 새 밧줄들(16:10-12)을 끊어버리며 게임을 즐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들릴라는 그가 베틀과 얼레에서 머리채를 풀어낼 때(16:13-14)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들릴라는 그 게임에 싫증난 척했다. 그녀는 자기에게 당연히 그의 큰 힘의 비밀을 알 권리가 있는 데도 삼손이 사랑을 빙자한 놀이만 즐기며 그 비밀은 알려주지 않고 세 번이나 자신을 희롱했다고 불평한다. 냉철하고 계산적인 들릴라는 상당 기간 동안 이 말로 삼손을 졸라대므로[6]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 그는 마침내 그 비밀을 털어놓고 만다.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는 16:15-16의 배후에 있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들릴라는 신뢰와 친밀함에 대한 관계적 논쟁에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얼마나 상처받기 쉽고 여성들이 기꺼이 후자 곧 친밀해지려는 남성을 정말로 갈망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같다. 그리고 들릴라는 길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삼손의 힘센 가슴에 대고 부드러운 손으로 그의 이두박근을 쓰다듬는 동안 그녀의 심리가 더욱 더 설득력 있게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드러났다. 삼손은 "삭도"라고 말했고 들릴라는 은을 보았다. 어쩌면 삼손은 들릴라에게 그의 진짜 비밀을 맡겨도 된다고 확신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삼손은 그 문제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사실상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들릴라는 삭도가 사용되게 할 만큼 교활했고(16:19), 이번에는 놀이가 끝났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고,[7] 그의 눈을 빼고, 가사 감옥으로 그를 데려가서 손 맷돌로 곡식을 갈게

기 위해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포함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삼손의 여정은 며칠이 걸렸을 것이다.

[6] 삿 16:16a에 나오는 동사([추크]의 히프일 어간, "졸라대다")는 삼손의 아내가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려고 졸라댈 때(14:17)도 사용되었다. [개역개정은 각각 "강요하다"와 "재촉하다"로 번역했다.]

[7] 삿 16:3에서는 삼손이 가사 성문의 문짝들을 붙잡지만([아하즈]), 삿 16:21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는다([아하즈]). 이 두 절에 사용된 동사가 같은 것에 유의하라.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가사는 삼손의 대탈출(16:1-3)과 비극적 감금(16:21)의 무대이다.

한다(16:21).[8]

우리는 16:20b에서 삼손의 비극 중 가장 무거운 소리를 듣는다. 삼손은 그의 습관적인 낙관론을 가지고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9]

왜 이스라엘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가? 왜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왜 이스라엘은 삼손의 여흥과 비극을 모두 기억해야 하는가(그 비극은 그것을 앞선 여흥 때문에 더욱 더 비극적이었음)? 그것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위한 거울로 의도되었기 때문이다. 삼손에게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보아야만 했다(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2절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25-32절의 큰 아들에게서 자신들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삼손은 이스라엘의 패러다임이다. 그는 무에서 자라나 풍부한 은사를 받았으나, 다른 사랑의 대상들과 어울렸고, 그러면서도 분명히 항상 여호와를 "갖기"를 기대했다.[10]

이처럼 이스라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으나 바알과 끈질기게 관계를 이어가며, 자기의 진짜 상태(삿 2:11이하를 보라)를 전혀 모르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렘 2:34b-35a) 여호와를 항상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제2:27b) 태평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백성이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단 본부 위에 "이가봇(영광이 떠남, 삼상 4:21 참조)"이란 글자를 절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계 3:17)" 알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가! 고대 이스라엘에게든지 현대 교회에게든지 삼손의 비극은 계속 말한다.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리지 않도록, 너의 처음 사랑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

[8] 삼손이 맷돌로 곡식을 가는 것은 계산된 굴욕이었다. 이제 그 유명한 영웅은 노예들과 여자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K. van der Toorn, 'Judges xvi 21 in the Light of the Akkadian Sources,' *Vetus Testamentum* 36 (1986); 248-251을 참고하라.

[9] "그는"과 "여호와께서"를 볼드체로 강조한 것은 히브리어 본문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세 번째 "알지 못했다"라는 진술이 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알지 못했고(13:16),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여호와의 섭리의 의도를 알지 못했고(14:4), 삼손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진 것을 알지 못했다(16:20).

[10] 이스라엘의 패러다임으로서 삼손에 대한 것은 Goslinga, *Joshua, Judges, Ruth* 409-410; Webb, *The Book of the Judges*, 172과 James L. Crenshaw, *Samson: A Secret Betrayed, A Vow Ignored* (Atlanta: John Knox, 1978, 134, 151을 보라.

II. 여호와의 명예의 옹호 (The Vindication of Yahweh's Honour)

그러나 삼손은 감옥에서 머리털이 밀린 전리품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여호와의 명예의 옹호를 자세하게 묘사한다(16:22-31). 잠시 뒤에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겠지만, 먼저 블레셋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 보자.

앞에서 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삼손 이야기의 문학적 주제로 언급하였다. 이 주제는 16:22-30절에서 점점 더 강화된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이 부분에 쌓이는 것 같다. 그들은 얼마나 둔감했는가? 첫째로, 블레셋 사람들은 실명만으로도 삼손이 무해할 것이라고 가정한 점과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16:22)을 알아채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점에서 삼손처럼 눈이 멀었다.[11] 둘째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신봉자들이 다곤에게 시기 상조의 감사 의식을 드린 것을 묘사하는 16:23-24에 의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다곤은 자신의 예배 장소가 (그의 신봉자들에 의해서 채워지는) 거대한 묘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가짜 신이었다. 셋째로, 그들은 삼손을 그들의 한 가운데로 불러서 여흥을 베풀도록 하면서(16:25-26) 그들이 삼손에게 그의 다음 행동을 위한 소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신전은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포함한 참석자들로 꽉 차있었다(16:27;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국가 지도자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날 여흥을 베푸는 자의 한 마디 투덜거림이 여흥을 즐기던 모든 군중을 한 무더기의 신전 잔해 아래 묻어버리게 한다. 나는 혈기 왕성한 이스라엘인이라면 누구나 이 모든 것을—영국식 관용어로 표현한다면—굉장히 재미있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환희는 엄숙의 종이다. 성경은 보통 우리를 진지하게 하기 위해 재미있는 것을 말해준다. 당연히 우리는 삼손이 어떻게 신전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즐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웃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화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우스꽝스러운 문학 주제가 진지한 신학적 관심사를 위한 포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는 고백을 쏟아내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의 웃음에는 분노가 섞이는가?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16:23)." 블레셋 백성이 다곤을 찬양할 때 여러분은 속이 부글부글 끓는가?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의 땅을 망쳐 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자를 (16:24)."

---

[11] 삼손의 머리털에 어떤 마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힘은 전적으로 여호와로부터 나왔다(16:17 [저자의 16:2에 대한 정정]). 그러나 그의 머리털은 그 힘의 상징이었고, 우리는 상징을 그것이 나타내는 실제와 분리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우리는 그것이 신학적이고 전례적인 헛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삼손의 수치를 가져온 것이 다곤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부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삼손의 수치는 여호와의 수치가 되었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께만 속하는 찬양이 속수무책인 우상의 생명없는 발 앞에 쌓이고 있었고, 여호와의 종이 굴욕당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굴욕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엉터리 칭송들을 억눌러버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삼손 이야기 중 이 마지막 부분의 핵심이다. 물론 그것이 흥미롭지만, 하나님의 방식들은 항상 흥미롭다. 그러나 우리는 삼손의 움직임(16:26, 29-30), 다곤 신전의 고고학, 혹은 죽어가는 다곤 숭배자들의 공포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 곧 거짓 신이 실제로 있다는 암호로 보여지는 것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12] 그러나 우리는 이 본질적 문제가 자주 우리의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유머, 드라마, 비극에는 매료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기도의 끝에 때때로 말하는 종교적인 떠들석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명예와 찬사와 영광에 거의 감동되지 않는다. 그분이 합당한 칭송을 받지 못하실 때에도 대체적으로 우리는 발끈 화를 내지 않는다. 아마도 우리의 회개는 다곤 신전을 떠나기 전에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III. 여호와의 도움의 근접성 (The Nearness of Yahweh's Help)

삿 16:22-31을 떠나기 전에 나는 삼손의 기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하고 싶다. 왜냐하면 삼손이 여호와를 부른 것은 이 내러티브에서 결코 사소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삼손의 기도는 여호와의 도움의 근접성을 강조한다.

잠시 구조의 문제(이 장의 도입부 설명 참조)로 돌아가서 14-15장의 내러티브와 16장의 내러티브가 모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 절정에 도달한 것에 주목해 보자. 엑숨은 이 구조의 중요성을 잘 포착했다.

> 이 두 이야기는 삼손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시점에서 모두 절정에 이른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고[카라] 여호와께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15:18-19; 16:28-30) 해결이 이루어진다. 그 구조는 의미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각 이야기가 주려는 신학적 메시지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중심을 둔다. 그리고 각 이야기의 끝에 나오는 응답된 기도의 위치는 강조적이다. 15:18-19에서 삼손은 생명을 위해 부르짖는다. 16:28-30에서

[12] 이러한 나의 생각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나는 Webb, *The Book of the Judges*, 165-166에 인용된 데이빗 건(David Gunn')의 설명에 많은 빚을 졌다.

삼손은 먼저 복수를 위해, 그 다음으로 죽음을 위해 기도한다. 두 경우 모두, 그는 전적으로 여호와께 의존한다. 여호와는 홀로 생사를 주관할 능력을 갖고 계시고, 인간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행하시는 분이다.[13]

이 두 이야기에서 여호와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그분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16:28-30의 경우 차이가 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응답은 절박한 필요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비참한 실패의 결과 가운데서 온다. 여호와의 선물을 지키기보다는 들릴라와 사랑 놀이를 했던 삼손이다. 신뢰할 수 없는 애인에게 구애하기 위해 불충하게도 여호와의 힘을 팔아넘겼던 삼손이다. 16:28-30에서 여호와께서 들어주시는 대상은 바로 이런 삼손 곧 이 믿음 없고, 어리석고, 타락한 삼손이다.

몇 페이지 전에서 나는 삼손은 집중된 형태의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은 삼손에서 자신의 신앙 없는 패턴을 인식하도록 의도되어 있다고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삼손 이야기의 이 후반부를 어떻게 들어야 했는가?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듣도록 의도되지 않았을까? 그들은 비록 여호와의 손이 그분의 불성실한 종들을 정당하게 쓰러뜨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외침에 열려 있고, 그의 팔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을까?[14]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속에서조차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시 50:15 참조)"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보아야 하지 않는가?

물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스라엘이—삼손처럼—여호와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별다른 새로운 것이라도 있는가? 그러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들 자신의 타락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어리석고 비참하게 그의 주님을 실망시킨 기독교인은 어떤가? 그는 쓰러짐이 쫓겨남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보고 희망을 찾아서는 안 되는가? 그는 다곤의 신전에서조차도 여호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되는가?

---

[13] Cheryl Exum, "Theological Dimension," 34.

[14] 분명히, 만약 이스라엘이 이 본문을 자신의 사례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간구("나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패턴(여호와는 그분의 범죄한 종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에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본문이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에게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시기 이전에도 다른 불성실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IV. 여호와의 선택의 기이함 (The Strangeness of Yahweh's Choice)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나고 비극적인 이야기 전체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여호와의 선택의 기이함을 짚고 가야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왜 삼손 같은 인물을 종으로 사용하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종은 이러이러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우리의 모든 사고 방식과 관습과 기대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삼손은 파격적일 뿐만 아니라 불성실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그의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적어도 16:1-21에서는). 그는 우리의 선물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들을 가지고 장난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그들의 유익을 돌보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삼손은 일종의 들나귀 같은 사람이고, 재미있지만 예측불가능하고, 매우 전도유망했지만 매우 비극적인 사람이다. 그는 복음적인 기독교인과 전혀 다르게 보인다!

남북 전쟁 중에 그랜트 장군이 실로 전투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어느 날 밤 11시경에 링컨 대통령은 그의 친구 A. K. 맥클루어를 맞았다. 맥클루어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많은 공화당원의 대변인으로서 그는 거의 2시간 동안 그랜트를 반대하는 여론이 너무 거세므로 링컨 자신이 계속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랜트는 해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밀어붙였다. 링컨은 좀처럼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맥클루어 자신이 전한 대로 그때 "링컨은 정말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런 다음 그는 의자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결코 잊지 못할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나는 이 사람 없이 지낼 수 없다. 그는 싸운다**."[15] 그는 평판이 나쁠지 모른다. 그는 술 때문에 곤란을 겪을지도 모른다. 대중의 의견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싸운다.

우리가 링컨의 주장을 변형하여 여호와께서 삼손을 선택하신 것을 옹호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선택들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이 삼손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든, 적어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는 자들인 것을 알았고, 적어도 삼손은 유다의 용사들처럼 현 상황의 온기에 나가떨어져 죽은 척하지(15:11) 않았다. 결국 우리는 여호와께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종들의 종류를 보고 놀라는 것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거의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다른 삼손은 없었지만, 다른 이상한 인물들은 많이 있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국한시키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신 모든 은사를 빠짐없이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기를 매우 꺼려한다."[16]

---

[15] Bruce Catton, *Mr. Lincoln's Army* (Garden City, N.Y.: Doubleday, 1951), 155.

[16] H. L. Ellison, *Scripture Union Bible Study Books: Joshua - 2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1966), 36.

제 3 부

타락한 백성의 혼란상

(The Confusion of a Depraved People)

(사사기 17–21장)

20. 하나님의 풍자 (삿 17–18장 Divine Sarcasm)

지금 여러분은 사사기의 세 번째 주요 부분에 이르렀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가 가장 긴 두 번째 부분인 3:7-16:31에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1] 이 사실을 놓쳤을지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은 세 번째 부분에서 즉시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것은 포장 도로 위를 걷다가 갑자기 자갈 위를 바삭바삭 걷고 있는 것 같은 차이이다. 여러분이 어디서 포장 도로가 멈추고 자갈길이 시작되는지 보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의 발은 그 차이를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은 사사기의 이 마지막 다섯 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된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배교의 후렴도 없고, 새로운 압제의 발표도 없고, 중심적인 사사도 나오지 않는다. 저자는 타락한 백성의 혼란상을 묘사하기 위해 그의 문체를 바꾼다. 그는 이스라엘의 혼란과 이스라엘의 타락을 둘 다 보여줌으로써 이 작업을 할 것이다. 저자는 두 개의 내러티브를 통해 이스라엘 앞에 거울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신을 만들었고(17-18장, 미가와 단 지파 사람들), 여러분은 동족끼리 상잔하였습니다(19-21장, 기브아와 이스라엘)." 여기에 그 자신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혼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안에 있는 암이다. 여기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바닥을 쳤다고 말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지금까지 나의 평생(의 대부분)에서, 강단이나 작곡가나 공부 인도자나 그 밖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사기의 미가와 관련된 단 한 번의 언급—단 한 번의 작은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쓰면서 존 헤르쿠스는 그의 신랄한 책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책에서 사사기 17-18장의 논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헤르쿠스는 교회에서의 사사기 17-18장에 대한 이러한 이상한 침묵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그 이유는 그 이야기가 너무 이상하고 혼란스러워서 분명히 목회자들과 성직자들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얼핏 한 번 엿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너무 심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조금도 그렇지 않다. 사사기의 저자까지도 당황해한다. 우리가 곧 알게 되겠지만, 저자조차도 때때로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다."[2]

---

[1] 이러한 주요 부분들의 구분에 대하여 "서론을 대신하며" 부분과 3:7-11에 관한 서두의 설명들을 참고하라.

[2] John Hercus, *God Is God*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71), 186.

실제로 복음주의자들이 사사기 17-18장을 읽어가면서 "빌립보서를 묵상할 수 있을 경우라면 굳이 이와 같은 성경 부분과 씨름할 필요가 없다"고 아주 부드럽게 마음에 속삭일 때, 대체로 우리는 복음주의 이마를 주름지게 하는 우려스러운 주름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성경의 신학자(바울 사도)가 "모든 성경이 . . . 유익하다(딤후 3:16)."라고 쓸 수 있었는지 의아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옳다면 사사기 17-18장의 연구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음에 틀림없다!

모든 성경이 유익하다는 것이 성경의 해석이 간단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성경의 내러티브는 해석하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 현재의 이야기가 그 좋은 예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라. (당신이 지금 통독하면 이 이야기에 대한 나의 설명이 더 잘 이해될 것이다.) 그것은 모두 말해주는 것이다. 저자가 분명하게 사건에 대한 자신의 평가나 하나님의 평가를 군데군데 끼어 넣고 있는가?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도덕적인 적용이나 종교적인 판단이 주어지지 않는다.[3] 저자는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미가 혹은 단 지파 사람들이 행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참고, 삼하 11:27)."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다. 그와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해진 이야기의 경우에 우리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관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처럼 분명히 언질을 주지 않는 내러티브의 요소를 넘어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나는 성경 저자가 그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방식에 세심한 관찰이 그의 의도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방식은 그의 이야기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여기서 나는 본문의 가르침에 거의 즉시로 집중하던 통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 대신에 나는 저자가 제공하는 가르침을 간추려 설명하기 전에 그가 사용하는 기교들에 먼저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I. 저자의 명시적인 관점 (The Expressed Viewpoint of the Writer)

우선 저자의 명시적인 관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그가 어떻게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들어보라(17:1-6).

> 1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2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3] Karl Gutbrod, *Das Buch vom Lande Gottes,*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3d ed. (Stuttgart: Calwer, 1965), 266.

하니라 3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4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이백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6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개역개정)[4]

저자가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한 지점이 있다. 그것은 그가 17:6에서 무왕(無王) 공식을 사용한 것에 나온다. (17:6과 똑같은 긴 공식이 21:25에 한 번 더 나온다. 그리고 18:1과 19:1에는 짧은 공식이 나온다.) 저자는 미가의 불법적인 신당의 기원에 대한 보고 후에 바로 이 진술을 놓음으로써 조용히 미가의 "신당(17:5)"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드러낸다.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개역개정 17:6)." 이것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모든 예배적 잡동사니가 번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마치 저자는 "그 시절에 왕이 있었더라면, 그가 분명히 말도 안 되는 미가의 불경건한 행위를 막았을 것이다."라고[5] 말하고

---

[4] 삿 17:1-6의 본문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고 어렵지만 예루살렘 성경(JB)의 급진적인 재배열을 정당화할 만한 정도까지는 아니다. 나는 또한 고슬링가가 17:5절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히브리어 본문상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는 미가에게 이미 신당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어머니의 공헌(들)은 미가의 신당이 시작되게 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결정적으로 강화시킨 것에 있었다. 그녀는 미가의 신당이란 케익에 당의를 입힌 것이다. (C. J. Goslinga, *Joshua, Judges, Ruth*, Bible Student's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458을 보라.)

[역자 주: JB 삿 17:1-3의 재배열] **1)** In the highlands of Ephraim there was a man called Micayehu. **2a)** He said to his mother, "The eleven hundred silver shekels which were taken from you and concerning which you uttered a curse, going on to say—I heard it with my own ears—" **3b)** I solemnly declare that of my own free will I consecrate I myself have that silver; **2b)** I was the one who took it, **3c)** and now I give it back to you." **2c)** His mother answered, "May my son be blessed by Yahweh!" **3a)** And Micayehu gave her back the eleven hundred silver shekels.

[5] "그 때에 왕이 없었다"는 공식은 사사기 17-18장 (그리고 19-21장)의 기록 시기를 이른 시기로 보는 것을 지지한다. 저자가 미가의 난맥상이 왕의 없음 때문이라고 암시할 때, 우리는 저자가 다윗의 통치 시기나 아무리 늦어도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살고 있었다면 그런 그의 무조건적인 진술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가 솔로몬의 통치 후기나 분열 왕국 시기에 살았다면 그러한 순진한 설명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분열 왕국 시기에는 (가끔 유다 왕을 제외하고) 경건한 왕이 희귀한 새처럼 드물었고 왕정이 일반적으로 거의 일관되게 실망을 주었고 왕 자신이 부패의 온상이었다. 우리 저자의 왕이 없어서 그랬다는 논증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저자는 분명히 특별한 종류의 왕, 곧 여호와의 언약의 표준 사항들을 지킬 왕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의 논점은 그런 종류의 왕이라면 그러한 가짜 예배를 중단시켰을 것이라는 것이다. 저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통상적인 왕정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의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지키는 왕정이다. 사사 시대는 "좋았던 옛날"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통제 불능이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분비선의 지시들이 삶의 기준을 형성하였고, 경건한 왕이 필요했던 시절이었다.

이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이것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저자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자.

II. 이야기 전달의 미묘한 방식 (The Subtle Manner of the Story)

무왕 공식을 제외하고는 우리 저자는 그의 이야기를 말할 때 거의 중립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주의깊게 살피고 주의깊게 들으면 그의 중립성이 단지 겉보기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자가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미묘한 방식에 주목해보라.

첫째로, 저자가 이 내러티브의 처음과 끝에서 그려지는 듯이 보이는 그럴싸한 대조 곧 미가의

은 이스라엘이 왕정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별로 없었던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시점까지 경험한 것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때에 저자가 살았을 경우에만 의미가 통한다. 나는 "A Proposed Life-Setting for the Book of Judges"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1978), 78-84에서 이 입장을 보다 더 자세히 논하며 다른 입장들을 반대했다. 거기서 나는 저자가 염두에 둔 왕이 다윗이고 그 재료가 다윗의 통치 초기, 아마도 헤브론에서의 그의 통치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enneth A. Kitchen, 'The Old Testament in its Context 3: From Joshua to Solomon,' *TSF Bulletin* 61 (Autumn 1971): 8 그리고 Arthur E. Cundall, 'Judges – An Apology for the Monarchy?' *The Expository Times* 81 (1970):180-81 그리고 Willem A. Van Gemeren, *The Progress of Redemp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8), 195-99 등도 참고하라. 나는 저작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로 보는 주장이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William J. Dumbrell,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 man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The Purpose of the Book of Judges Reconsidered,' *JSOT* 25 (1983): 23-33을 보라. 삿 18:30의 "그 땅 [주민]이 사로잡힐 때까지"라는 어구가 17-18장에 대한 이른 시기에 대한 주장을 뒤엎지는 못하는 것에 유의하라. 이 어구가 (Moore, Hertzberg, Gray 등이 주장하는 대로) 앗수르 포로기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면 그건 이 장들의 가장 늦은 편집을 암시할 뿐이다. Goslinga, *Joshua, Judges, Ruth*, 470-74을 보라. 그러나 이와 병행되는 18:31의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란 절은 아벡 전투나(삼상 4장) 길보아 전투로(삼상 31장) 인한 블레셋의 점령 혹은 지배를 암시한다. 참고로 Arthur E. Cundall, *Judge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ondon: Tyndale, 1968), 192 그리고 Paulus Cassel, *The Book of Judge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2, *Numbers-Ruth* (1865;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238-239 등을 보라.

"신들의 집(17:5 직역)"과[6]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18:31)"의 대조를 관찰하면 흥미롭다. 나는 저자가 이 두 성소 곧 거짓 성소와 진짜 성소가 서로 대비되도록 처음과 끝에 놓았다고 생각한다. 실로에는 진짜 성소인 "하나님의 집(성막)"이 있었고, 그 때 또 미가의 집에는 그가 예배를 위해 모아놓은 "신들의 집(신당)"이 있었다.

둘째로, 저자의 등장인물 묘사를 자세히 보면 각 주요 인물을 향한 가벼운 경멸의 저류를 감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들의 모순들이 그의 경멸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다. 주요 인물들을 보라! 여기에 미가의 어머니가 있다. 그녀는 엄숙한 저주를 신선한 축복으로 뒤집어버리고(17:2) 돌려받은 은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며 신상을 새겨 만들게 하므로(17:3) 여호와에 대한 불법적인 숭배를 조장한다. 미가는 어떤가? 그는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는[7]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여호와의 비양립성을 몇 가지 평범한 철물 조각으로 잘도 줄여버린다(17:4-5). 미가는 레위인을 고용하고(17:10), 전폭으로 믿으며 아들 중 하나처럼 받아들이고(17:11b), 여호와의 축복을 보증해 주는 사람으로 간주한다(17:13). 그럼 이 레위인은 어떤가? 그는 미가가 제공하는 대우를 받아들이고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었지만, 단 자손이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할 때(18:19-20) 그는 기꺼이 미가를 배신하고 그에 대한 충성을 포기해 버린다. 분명히 단 자손이 그의 재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의 분야인 사역에 대한 더 큰 잠재력을 제시했다. 단 자손은 어떤가? 군사적인 허세(18:11, 16 ['무기를 지니고'], 17 ['잠잠하라'고 위협])의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묘사된 그들은 평화롭고

---

[6] RSV와 NIV의 "신당, shrine"이란 번역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기 17:5의 미가의 "**신들**의 집 [베트 **엘로힘** 'house of *gods*']"과 18:31의 합법적인 "**하나님**의 집 [베트 **하엘로힘** 'house of *God*']" 사이의 대조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7]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들은 삿 17-18장에 나오는 미가를 모두 Micah로 번역한다. 그러나 원문에는 미가의 완전한 형태의 이름인 미가야(מִיכָיְהוּ *Mikayehu* [미하여후])가 17:1, 4에 나오고 삿 17-18장의 나머지 절들에서는 17:5처럼 미가(מִיכָה *Mikah* [미하])가 나온다. 삿 17:1, 4에 완전한 형태로 나오는 미가야는 미가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의 아이러니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Robert G. Boling, *Judges*,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75), 255–258을 보라). [역자 주: 열왕기상 22장에 9번(8, 9, 13, 14, 15, 24, 25, 26, 28) 나오는 (삿 17:1, 4과 철자가 똑같은) 미가야는 영어 성경에서 대개 Micaiah로 번역되었다. 사사기 17-18장에서 철자를 무시하고 Micah로 통일하고 열왕기상 22장에서 철자대로 Micaiah로 번역한 영어 성경을 따라서 한글 성경들도 각각 미가와 미가야로 번역하고 있다. 참고로 말하면, 사사기에서 Complete Jewish Bible은 Mikhay'hu와 Mikhah로 구별해서 번역하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는 반대로 Orthordox Jewish Bible은 Mikhay'hu로 통일해서 번역한다.]

무력하고 무방어의 사람들을 학살함으로써 그들의 용맹을 과시한다(18:7, 10, 27-28).[8] 단 자손은 참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아닌가? "단의 병사들이여, 앞으로!"라는 연(詩의 聯)은 어떤가? 우리의 저자가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글에는 신랄한 면이 있다.

셋째로, 우리의 내레이터는 그가 묘사하고 있는 사건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여호와**(많은 영어 성경에서 "LORD")라는 이름은 등장 인물들의 입술에서만 발견된다는 점에 유의하라(17:2, 3, 13; 18:6). 내레이터 자신은 결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마치 그는 이러한 혼합주의에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한 뒤죽박죽의 잡탕 신학과 접촉하는 것을 혐오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찬가지로, 삿 18:27에서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을 취했다고 말한 것은 고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게도, 미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든 나의 신들"이라고 불렀었다(18:24). 그러나 우리의 저자는 그런 유물을 "신들[gods, not God]"이라고 부름으로써 그것들이 위엄있어 보이게 하는 것을 거절했다. 삿 18:31의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라는 저자의 묘사에 들어있는 그의 동일한 폄하와 거리에 유의하라.

넷째로, 이 이야기에서 아이러니의 사용을 관찰하라. 히브리어 동사 [라카흐]("취하다")는 매우 흔한 것이지만, 현재의 내러티브에서 [라카흐]의 사용이 전체 이야기에 어떻게 아이러니한 어조를 제공하는지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이 동사는 미가의 절도에 대한 고백과 관련하여 17:2에 2번 나오고, 18장에서 단 자손이 미가의 거룩한 용품을 도둑질한 것을 묘사하는데 5번(17, 18, 20, 24, 27절) 나온다. 미가는 훔쳤다. 단 자손은 미가로부터 훔쳤다. 가장 잘 어울린다! 단의 성소는 그 기원이 이중 절도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으로부터 저주와 패망 이외에 다른 무엇이 나올 수 있겠는가?[9]

미가와 단 자손의 운명 안에 있는 명백한 성공에 대한 아이러니한 어조가 있는 것 같다. 만약 독자가 미가나 단 자손의 입장에서 자신을 본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로 인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미가(17:13)와 단 자손(18:10)이 갖는 이러한 관점에 대한 분명한 암시가 있다. 예를 들어, 미가는 절도와 저주가 내려진 상황을 돌아보며(17:2a), 죄의 고백이 어떻게 축복과 산지에 있는 그의 신당의 향상(혹은 기원)의 길을 열어 주었는지 볼 수 있었다(17:2-5). 그 때 마침 어떤 레위인이 우연히 그의 집에 이르렀으므로(17:7-8), 하나님의

---

[8] 삿 18:7, 16-17의 히브리어 본문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서 지적하는 요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9] Gutbrod, *Das Buch vom Lande Gottes*, 265.

섭리가 그에게 (거의) 합법적인 제사장과 위로부터 임할 더 큰 축복의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보았다(17:13). 우리는 또한 미가가 새 제사장과 즐겼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17:11b). 그럴 뿐만 아니라 미가의 우상 숭배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18:5-6).

그러나 물론 섭리는 단 자손에게 훨씬 더 호의적이었다. 그들 역시 이전에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던 레위인을(주님의 섭리에는 남부 악센트도 포함되었던 것 같음) 우연히 다시(세상 참 좁군요!) 만나게 되었고(18:3), 그들의 정탐 활동에서 눈부신 성공을 경험했고(18:7),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꽉 찬 "좋은 보고(문맥상 민 13:32의 '악평'과 대조)"를 가져왔다(18:8-10). 라이스를 치러 올라가는 단 자손은 미가의 신당의 물건들을 쉽게 탈취했고(18:14-18, 22-26), 미가의 집 제사장에게 더 유익을 주는 새로운 사역(곧 한 지파의 제사장직)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18:19-20). 참 멋진 제사장이 아닌가! 그런데 그는 다름아닌 모세의 손자(혹은 후손)가 아닌가![10] 참으로,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외관적 흐름이다. 그러나 이 내러티브의 내면적 흐름은 저자가 이러한 섭리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을 난장판으로 여기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그 난장판을 18:27에 쌓아 올려놓는다. 여기에서 저자는 단 자손이 1) 미가가 만든 것('신들'이라고 하지 않음), 2) 살 수 있는 제사장, 3) 한가한 도시를 탈취한 것을 우리에게

---

[10] 확실히 삿 18:30에 나오는 이름을 "모세"로 읽는 것은 정확하다. KJV와 NASB와 같은 어떤 성경들은 "므낫세"로 읽는다. 그것은 많은 히브리어 사본들이 "므낫세"로 읽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 자주 매달린(suspended) 눈, 곧 정상적인 줄보다 좀 더 위에 매달린 눈이 붙어있다. 서기관들은 히브리어 자음 눈이 삽입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눈을 다른 글자들보다 약간 위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눈의 삽입은 모세를 므낫세로 바뀌게 한다. 유대인 주석가 라시(1040-1096)는 눈이 모세의 명예(모세의 추억에 있어서 이와 같은 왜곡된 예배를 주관하는 후손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보호하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눈이 매달려 있는 것은 "므낫세"가 실제의 독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의도된 므낫세는 열왕기하 21장의 악한 왕이다. 서기관들이 제안한 것은 그러한 예배가 므낫세와 아주 잘 어울릴 것이지만 (아뿔싸) 모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C. F. Burney, *The Book of Judges* (London: Rivingtons, 1918), 434-35, 그리고 C. D. Ginsburg, *Introduction to the Massoretico-Critical Edition of the Hebrew Bible* (1897; reprint ed., New York: KTAV, 1966), 334 이하를 보라. 이 제사장의 정체를 비밀로 하다가 내러티브의 가장 마지막 자리에 와서 모세와의 연관성을 밝힘으로써 본질적으로 저자는 문학적인 하중을 독자에게 가한다. 충격, 실망, 불신, 무력한 비극의 느낌—이런 것들이 독자의 반응이다. "모세"라는 이름은 충실한 이스라엘인 독자/청자에게 문학적 파괴를 일으킨다. 세례 요한의 말이 옳았다(마 3:9 참조).

알려준다.[11] 단 자손의 성공에 대한 저자의 헌사가 그렇다.

그러나 저자는 미묘한 아이러니에 만족하는데 머물지 않고 노골적인 풍자도 준다. 이것은 "내가 만든 나의 신(들)을[12] 너희가 탈취했다(18:24)"는미가의 불평에 대한 그의 보고 가운데 나온다. 여기서 그는 온 힘을 다해 신학적인 공격을 퍼붓는다. 어떤 신실한 여호와 숭배자라도 미가의 외침이 비극적이면서도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들 수 있는 신은 용어상 분명히 모순이다. 도둑질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신은 정말로 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다(6:31 참조). 따라서 내레이터는 꾸밈없이 미가 자신으로 이 모든 일이 미친 짓임을 역설하도록 한다.[13]

그렇다면 우리 저자는 공정한 관찰자가 아니라 적대적인 비평가다. 그는 대조를 사용하고, 등장인물들을 묘사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을 통해 이것을 암시한다. 그는 섭리에 대한 지속적인 아이러니와 신상들 대한 신랄한 풍자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미묘하기는 하지만) 더욱 더 분명히 표시한다. 문학적 방식은 정말로 교훈적인 의도를 제공한다. 그가 말하는 방식은 그가 말해주고 싶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III. 본문의 중요한 가르침 (The Vital Teaching of the Text)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필요한 항목, 곧 우리 저자의 명시적인 관점과 암시적인 문학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중요한 가르침을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으로, 어떤 전문적인 주석들은 이 장들의 전승사를 재구성하고, 지리적 이동과 위치를 설명하고, 고고학적 배경을 제공하고, 본문 문제를 논의하고, 히브리어 관용구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만, 본문의 가르침을 들으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고, 더 나아가 독자가 그 가르침을 찾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실용적인 강해들은 본문의 일부분에 치중하여 엉뚱한 적용을 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미가가 "신당을 가졌다"는 17:5에 치충하여 독자/청자도 집에 기도의 처소를 가져야 한다고 적용하는 것이다. 단 자손이 새 거주지에 예배 처소를 세우려는 욕망에서 가치있는 종교적 충동을

---

[11] H. W. Hertzberg, *Die Bücher Josua, Richter, Ruth,* Das Alte Testament Deutsch, 2d ed.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59), 243.

[12] 히브리어 구문상 직접 목적어인 "나의 신(들)"이 강조되어 있다.

[13] (또한 삿 18:24에 나오는)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미가의 불평도 이 에피소드의 쓰라린 유머를 제공한다. 마치 미가는 그의 신상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하는 것 같다. 이 제안은 전에는 나의 학생이었고 지금은 사역의 동료인 케네스 콕(Kenneth Kok)이 나에게 한 것이었다.

보여준 것처럼, 교회가 새 공동체에 세워지는 첫 번째 건물들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적용하는 것이다.)[14] 나는 이 장들의 가르침을 찾는 작업에서 도움을 거의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시도에 대해 매를 더 적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러티브 전체에 퍼져있는 일반적인 주제는 거짓 종교에 대한 관심이다. 우리가 이 주제를 따라 신학을 요약하면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i. 거짓 종교에 대한 심판 (The Judgment on False Religion)

첫째로, 본문은 거짓 종교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심판 주제 또한 미묘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이 내러티브의 끝부분에 집중된 일제 사격을 가지고 한꺼번에 표현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18:30-31은 일어난 일을 있었던 사실 그대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가의 우상 숭배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조각한 신상[페셀]"과 "부어 만든 신상[마쎄하]"을 소개하는(17:3-4) 이야기의 벽두부터 선언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파울루스 카셀의 의견에 동의한다.

> 동시에 이 단어들[페셀과 마쎄하]은 저질러졌던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형상을 만드는 일을 금지하는 율법 가운데 나오는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이다. 내레이터는 틀림없이 신 27:15를 주시하고 있다.[15]

---

[14] 내가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 장소나 새로운 교회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주요 관심사를 짓밟는 적용들을 끌어냄으로써 본문을 침해하는 것이다. 만약 본문이 "한 초등 학생이 심술궂은 분노가 일어나 완두콩을 저녁 식탁 전체에 뱉었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저녁 식사는 가족이 함께 즐겨야 할 식사이다"라고 적용할 것인가?

[15] Cassel, *The Book of Judges,* 229.

역자 주: 삿 17:3-4의 [페셀 우마쎄하]는 개역개정에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만들었더니"처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으로 새번역에서 "은을 입힌 목상,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으로, 우리말성경에서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으로 번역되었다. 한편 신 27:15의 경우 한글 성경들은 대체로 조각하거나/새기거나//부어 만드는 우상으로 번역했다. [페셀 우마쎄하]에 대하여 ESV는 삿 17:3-4의 경우 "a carved image and a metal image", 신 27:15의 경우 "a carved or cast metal image"로 번역했고, NIV는 삿 17:3-4의 경우 "an image overlaid with silver, the idol"로 번역하고 신 27:15의 경우 "an idol"로 번역했다. Webb(*Judges*, 422, n. 12)은 [페셀 우마쎄하]가 이사일의(hendiadys)로 간주하고 "an idol of cast metal"로 번역했고 삿 17:4의 동사 [바이히]가 단수인 것에 유의하며 은장색이 만든 우상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삿 18:17의 원문 אֶת־הַפֶּסֶל וְאֶת־הָאֵפוֹד וְאֶת־הַתְּרָפִים וְאֶת־הַמַּסֵּכָה에서 [하페셀]과 [하마쎄하]가 떨어져 있는 것은 17:3-4의 [페셀 우마쎄하] 다음에 17:5에 소개된 "에봇과 드라빔"을 감싸기 위한 문예적 기교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했다.

신 27:15은 12개의 저주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자리에 나오며 "장색의 손으로 조각한 우상[페쎌]이나 부어 만든 우상[마쎄하]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어머니의 저주는 피하거나 되받아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가와 단 자손은 철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고 결코 무력화되지 않을 위협 아래 처해 있다. 우리가 인간의 저주를 피할지라도, 여호와의 저주는 더 크다. 미가는 모든 면에서 성공을 거둔 종교적 신앙과(/이나) 사역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ii. 거짓 종교에 대한 해결책 (The Antidote for False Religion)

둘째로, 저자는 거짓 종교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다(17:6, 18:1). 그의 주장은 만약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 곧 올바른 종류의 왕만 있었더라면 그가 그러한 혼합 종교와 같은 난센스에 종지부를 찍었을 것이라는 것이다.[16] 간단히 말하면, 적절한 언약적 통제가 거짓 종교를 억눌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히 우리 문화에서 교회가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국가적 형태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제안된 해결책을 적용해야 하는가? 어쨌든, 우리에게 왕이 없지 않은가? 아니, 우리에겐 왕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우리는 요한계시록 2-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들 사이에 거니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을 보지 않는가? 그리고 왕이신 목자장께서 목회자들에게 그분의 양떼를 다스리고 보호하도록 맡기시지 않았는가(참조, 행 20:28-31; 히 13:17; 벧전 5:1-4)?[17] 내가 본문이 예배와 삶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계하는 권징의 필요성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문을 넘어서고 있는 것일까?

---

[16] 혼합 종교는 이것에서 조금 취하고 저것에서 조금 취하여 함께 녹이는 남비 같은 종교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것은 여호와의 숭배와 다양한 이방(가나안) 종교의 요소들을 연합하거나 혼합하는 이스라엘의 경향을 가리킨다.

[17]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45번의 질문과 대답을 보라.

질문: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대답: 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그 백성을 자기에게로 불러내고 **그들에게 직임자와 율법과 권징을 주고 그것들을 통해 그가 유형적으로 그들을 다스림으로써**, 그리고 그의 선민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순종에 대하여 상을 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벌을 주시며 그들의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그들을 보존하고 후원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적들을 제지하고 정복하며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신의 영광과 선민의 유익을 위하도록 강력하게 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불순종하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복수함으로써 왕의 직분을 수행한다.

iii. 거짓 종교의 어리석음 (The Stupidity of False Religion)

셋째로, 저자는 거짓 종교의 어리석음을 강조하려고 애쓰고 있다(특히 18:24을 보라). 내가 보여주려고 애썼듯이, 그의 내러티브는 미가의 우상 숭배와 단 자손의 신학을 들어올려 조롱거리로 삼으려는 신학적인 공격과 빈정거림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문제에 직면한다. 우리가 현재의 서구 교회 문화에서 현대의 청중(때때로 우리)에게 본문의 이 취지를 어떻게 각인시켜 줄 수 있을까? 우리의 청중은 분명히 "이 이야기는 확실히 미가의 우상 숭배를 공격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조각한 신상**[페셀]과 같은 신들을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반응할 것이다. 물론 그의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가 반드시 느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가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느끼도록 해줄 수 있을까?

내 생각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거짓 종교를 보지 못하니까 거짓 종교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 같다. 우리의 거짓 종교가 취하는 형태들을 본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짓 종교의 종류를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일차적으로 비난받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우상 숭배 곧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혼합적 우상 숭배 곧 여호와를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다(17:3 참조). 그리고 이것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아마도 이것 또한 우리의 청중으로 냉담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잘못된 종교가 취하는 특별한 형태는 무엇인가? 그러한 혼합주의는 어떻게 보이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예배와 사고 방식 가운데서 거짓 종교의 이러한 형태들을 식별할 수 있는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리석지 않은가?

그러한 혼합주의가 취하는 한 가지 형태는 성례 중시주의이다. 그것은 일정한 정도의 외형적인 종교적 순응만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승인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이다. 미가는 17:13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들 대신 실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법 형식들을 갖고 있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유아 세례에 대한 미신적 관점을 가지고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로 인해 감싸지고 보호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초청하는 찬송가의 다섯 번째 연에서 통로를 따라 걸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여전히 잘못된 종교이고, 그것은 여전히

어리석다. 그것은 원리 면에서 미가의 우상 숭배와 같고 단지 형식 면에서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그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이 거짓 종교는 내가 주관주의라고 부를 것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단 자손의 성소는 실로에 있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집(18:30-31)과 대조되고 있다. 이제 고생스럽게 실로에 갈 필요가 없다. 단은 그 자체로 작은 "이스라엘"이다. 단 자손은 이제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근처에 편의점과 같은 그들 자신의 작은 신당을 갖고 있다. 단 자손은 그들 마음대로 숭배할 수 있다. 이것은 (교회에서조차도) 예배가 실제로 매우 개인적인 일이고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이고 당신의 칫솔처럼 매우 사적인 것이 되어버린 현대의 분위기와 똑같지 않은가? 신앙과 예배와 종교가 오히려 왕의 계시에 의해 규제되고 군주의 지시 대상이 된다고 선언하는 것은 참신한 발상처럼 들린다. 틀림없이 현대판 단 자손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까다로우시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숭배하는가에 대한 가장 적절한 상징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떨어뜨리고, 짜내고, 모양을 이룰 수 있는 커다란 지방 덩어리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그것 또한 어리석다.

iv. 거짓 종교의 비극 (The Tragedy of False Religion)

마지막으로, 우리 저자는 거짓 종교의 비극을 묘사한다(18:27-31). 단 자손은 미가의 어리석음을 재연한다. 그것은 미가의 어머니의 비뚤어진 두뇌(17:3-4)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어 미가의 기존 신당의 현실이 되고 암처럼 한 지파 전체로 퍼진다. 슬프게도, 그 거짓은 전파자들이 전혀 없어도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사실상, 단 자손의 성소는 비극의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관련된 역사적이고 비평적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단 자손의 우상 숭배의 존재는 여로보암 1세가 그 자신의 치명적인 감염을 이스라엘의 삶에 주입하는 일에 어떤 자극을 주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열왕기상 12 장, 특히 29 절). 만일 그렇다면, 그 비극은 열왕기하 17 장까지 계속되어 한 나라를 망가뜨린다.

그러나 우리는 미가와 단 자손을 너무 허심탄회하게 비웃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골 1:15)을 숭배하는 우리조차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숭배하기 위한 우리 자신의 투쟁이 있다.

21. 새로운 소돔 (삿 19–21장 New Sodom)

여기에 타락한 사람들의 혼란상을 기록한 두 번째 주요 이야기가 있다. 비록 이 장들이 다소 긴 내러티브를 구성하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를 형성하므로 그것들을 함께 다루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나는 독자가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한 번에 세 장을 모두 읽을 것을 촉구한다. (때때로 영어 성경들에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몇 가지 본문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해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것들을 무시할 것이다.

우리의 강해의 구분은 대체로 성경의 장 구분과 같을 것이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은 문학적 주제를 표현한다.

1. 베냐민의 죄책, 19장
2. 베냐민(과 이스라엘)의 파멸, 20장
3. 베냐민에 대한 슬픔, 21장

이 주제들은 전체 이야기를 편리하게 요약한다.[1] 이제 강해로 나가보자.

I. 여호와의 백성의 타락 (The Depravity of Yahweh's People)

첫째로, 사사기 19장은 여호와의 백성의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문학적 특징들을 논의하기 전에 이야기를 개요 형식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장의 가르침을 요약할 것이다

이야기의 시작, 1-2

베들레헴의 환대, 3-9

여부스의 우회, 10-13

기브아의 냉담, 14-15

거류자의 동정심, 16-21

소돔의 부활, 22-26

동성애자들의 공격, 22

---

[1] 삿 20:27b-28a에 의하면 그 때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었으므로(민 25:1-15; 31:6; 수 22:10-34 참조), 사사기 19-21장에 기록된 사건들이 사사 시대의 초기에 일어났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어떤 사건이 한 책의 끝에 나온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건이 그 책에 기록된 다른 사건들보다 늦게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의 저자들은 때때로 그들의 자료를 연대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배열한다.

주인의 호소, 23-24

레위인의 행위, 25a

첩의 성적 학대, 25b-26

레위인의 무관심, 27-28

범죄의 독특함, 29-30

여부스(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마일 떨어진 기브아의 어느 한적한 저녁이다. 레위인과 그의 첩과 종들이 관대한 주인의 집에서 즐거운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다(19:22). 따뜻한 추억이 만들어지는 아늑한 시간들 중 하나이다. 그 때 갑자기 고함과 고성이 들리고 몸들이 문에 부딪치는 쿵쿵 소리가 나더니[2] 마침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는 말소리가 똑똑하게 들린다. 이제 독자는 기브아의 저녁이 얼마나 어두운지 깨닫는다.

그러나 조금만 숙고하면 저자가 능숙하게 우리에게 이 무시무시한 장면을 맞이할 준비를 시킨 것을 깨닫을 수 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여전히 일련의 대조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다 베들레헴에는 따뜻하고 사교적인 장인이 있다(19:3-9). 환대에 있어서 그를 필적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기브아의 사람들을 정말로 냉담한 구두쇠로 보이게 한다(19:14-15). 레위인의 종은 여부스(예루살렘)에 머물자고 제안했지만, 레위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 가운데 숙박하기를 꺼렸다(19:11-12). 혹시 레위인이 "너는 이교도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코 모른다"고 말했을까? 만약 그가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소돔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그는 여부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수정했을 것이다. 기브아에서 진짜 환대를 베풀었던 한 사람은 실제로 기브아 출신이 아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다(19:16). 기브아 사람들은 한 패의 사회적 망나니들이었다. 어떤 기브아 사람도 환대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레위인이 그의 필요를 위해 충분한 식량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9:19). 불량배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충격을 준다(19:22). 그러나 레위인의 장인과 기브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그리고 거류자에 대한 저자의 미묘한 대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어야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저자는 대조뿐만 아니라 유사성도 사용한다. 이것은 19:22-26에서 특히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사기 19장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 19 장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

[2] 히브리어 분사는 그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것, 그 이상을 암시한다. NEB의 "hurling themselves against the door 문을 향해 그들 자신을 내던지며"이란 번역을 보라.

창세기 19장에서 롯은 두 명의 방문객(천사)들에게 환대를 제공했다. 방문객들과 동성애 관계를 열망하는 군중이 그의 집을 둘러싸고 있다. 롯은 그의 두 처녀 딸들을 군중에게 내어주겠다고 역제안을 한다. 그의 방문객들은 그를 구출하고 군중에게 당혹스러운 실명이 이르게 한다(창 19:1-11). 불행하게도, 그날 밤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에게는 구원하는 천사가 없었다. 결과가 다른 것이 틀림없지만, 창19:1-11과 삿 19:22-26의 유사성은 명백하다. 이 또한 고의적이다. 저자는 당신이 사사기 19장을 이런 식으로 보기를 원한다. 그는 "그래요, 맞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창세기 19장과 똑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소돔과의 연결이다. 여기서는 다만 당신이 베냐민 안에 있는 소돔을 갖는다. 기브아는 "새로운 소돔"이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는 방식이다. 저자는 심지어 이스라엘에서조차도 일부 사람들이 소돔의 도덕적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 그것의 비틀린 타락 속에서 열렬히 뒹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비틀린 것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이야기 속의 등장 인물들에 대한 일종의 비틀림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의 밤 내내 첩이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이용당할 때 누구의 마음이라도 그녀에게로 나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레위인에게 정절을 지키지 못한(19:2 "행음한")[3]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레위인은 매우 이례적인 인물이다. 그는 비겁하고(19:25; 대부분의 우리들도 매우 용감할 것 같지는 않다!), 냉담하고(19:27, 28), 좀 더 나아가 보면 솔직하지 못하다(20:5). 그는 그의 첩을 기브아의 변태자들에게 던질 만큼 나쁘다. 그리고 그는 아침에 집의 문을 열고, 문지방에 손을 얹은 채 웅크리고 있는(19:27; 정말 멋진 그래픽 터치!) 그녀를 보고서 "일어나라! 떠나가자!"(19:28)라고 말할 만큼 나쁘다. 글쎄, 이 친구는 우리가 비꼬아 말하는 바 "아주 친절한 사람(all heart)"이다.[4] 여기에다가 그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사실들을 쌓아 올리고 (숨기는) 그의 방식을 더하면(20:5), 그 누구라도 혹시 레위인에 대하여 가졌을지도 모르는 존경을 다 잃게 된다.

일부 독자들은 지금 화가 나 있을지도 모른다.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학적 자료들

---

[3]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읽는다. 칠십인역의 한 개정본은 "그녀가 그에게 분노했다"라고 읽는데 몇몇 영어 성경(RSV, NEB, TEV)이 이를 따르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면 레위인이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벌을 받게 했을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러한 반대들은 저자의 주장을 잊어버린 것이다. 저자는 그 때에 일들이 정상적인 과정을 따라 일어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멋대로 행하였다고 주장한다.

[4] 우리 저자는 19:26-27에서 레위인을 (예를 들어, 19:3에서처럼) 첩의 남편이 아니라 첩의 "주인 [아돈]"이라고 지칭할 때 그의 냉담함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저자는 그녀가 레위인에게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을 또 살펴보도록 하는가? 왜냐하면—우리가 앞 장에서 보았던 것처럼—저자가 이야기를 말하는 방식은 그가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한 단서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문학적 기법은 그의 관점을 말해줄 수 있는데, 그것은 저자가 우리로 그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기를 의도했는지를 파악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된다.

그럼 이제 사사기 19장의 가르침을 살펴보자. 서두에서 설명한 대로 저자는 여호와의 백성의 타락을 묘사하며 여기서 그것의 한 예로 가장 극단적인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삿 19:29-30의 요점이다. 레위인이 그의 첩의 시신을 마디마디 찍어 토막내서 만든 피투성이의 징표를 하나씩 열두 각 지파에게 보냈을 때, 사람들은 겁에 질린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19:30)!"[5] 여기서 "[카조트] 이런 것 혹은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방금 받은 징그러운 소포 우편물을 의미할 수도 있다. 아니면 레위인이 그의 전령들에게 범죄의 본질을 말로 전하도록 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이런

---

[5] 삿 19:30의 본문 문제는 우리의 요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칠십인역(알렉산드리아 사본)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을 보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삿 19:30의 독법은 이렇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그는 그가 보낸 사람들에게 명령했었다. '여기 당신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고, 상의해 보고, 말하라!'" JB와 NEB와 같은 일부 영어 성경은 칠십인역(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사용하지만 (그들의 기호에 맞게 19:30의 순서를 다시 배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역자 주: 삿 19:30에 대한 ESV와 Davis의 각주에 실린 칠십인역(Septuagint A) 번역과 JB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SV: And all who saw it said, "Such a thing has never happened or been seen from the day that the people of Israel came up out of the land of Egypt until this day; consider it, take counsel, and speak."

Davis(LXX^{A}): 'So it turned out that anyone seeing it said, 'Such a thing has not happened nor been seen from the day the sons of Israel came up out of the land of Egypt to this day.' *Now he had commanded the men whom he had sent: 'Here's what you are to say to all the men of Israel: Has anything like this happened from the day the sons of Israel came up out of the land of Egypt to this day?* Consider it, take counsel, and speak!"

JB: *He instructed his messengers as follows,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Has any man seen such a thing from the day the Israelites came out of the land of Egypt, until this very day?* Ponder on this, discuss it; then give your verdict.**"'** And all who saw it declared, 'Never has such a thing been done or been seen since the Israelites came out of the land of Egypt'.]

일"은 범죄 자체에 대한 충격을 포함했을 것이다.[6] 비록 그들의 공포가 시신 조각에 국한되었다고 해도, 그들은 틀림없이 전무후무한 죄책감만이 그러한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라고 추론했을 것이다. 수백년 후에 호세아는 단지 "기브아의 날들"을 언급함으로써 도덕적 부패의 심연을 표현할 수 있었다(호 9:9, 19:9). 비록 이 사건이 사사 시대의 초기(각주 1 참조)에 일찍 일어났을지라도, 우리 저자는 그것을 사사기의 절정으로 마지막에 두고 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은 것이 나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내 얘기 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도 여러분은 나에게 왜 (경건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저자의 신학적인 지리를 기억해야 한다. 기브아는 "소돔—제2 막"을 상연했다. 저자는 기브아의 타락(19:22-26)을 마치 소돔의 타락(창 19:1-11)인 것처럼 묘사했다. 그것은 기브아의 수치이다.

우리 저자는 또한 이스라엘의 사악함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룬다. 그것은 확실히 기브아의 도시 한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절을 지키지 않은 첩이든지(19:2), 아니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19:25) 자신의 사실들을 선별해서 조작하는 레위인(20:4-6)이든지, 아니면—20장을 더 계속 나아가 보면—정의를 구현하는 것보다 소돔을 옹호하는 한 지파이든지(20:13), 무대 위의 배우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비뚤어진 모습을 보여준다. 사악함이 만연해 있다.[7]

그런데 우리 저자는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그는 이 타락의 근원을 보여줄 만큼, 곧 이 모든 것의 근원에 이르게 될 만큼 깊이 들어가고 있는가? 그는 19 장에 들어서면서 그것을 암시한다. 19:1 의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짧은 공식은 사사기를 마무리할 더 완전한 공식, 곧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 17:6 도 보라)"는 긴 공식과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각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에서 이탈한 것을 반영하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문제는 "사람이 각각

---

[6] 삿 20:3b-7의 심리는 저질러진 잘못에 대한 공식적인(아마도 법적인) 질의 응답이다. 그렇지만 기브아의 죄에 대한 소식은 이런 공식적인 절차가 있기 훨씬 전에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7] 이 상황은 창세기 27장과 유사하다. 거기서 창세기 저자는 네 명의 주요 등장 인물들이 모두 여호와의 약속과 관련하여 잘못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리브가는 가장의 주권을 뒤집는 책략을 썼고(창 27:5-10), 야곱은 정의보다 실리를 추구했고(창 27:11-12),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복을 빼앗긴 후 소리 높여 울었고(창 25:34; 27:34-38 분명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였고), 이삭은 약속보다 미각을 우선시하였다(창 25:23; 27:1-4). 네 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모두 잘못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약속은 그들이 그것을 방해하거나 도우려고 했던 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행하였다"는 것에 있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것" 곧 각 사람을 지배하는 기준에 있다. 그러므로 21:25b 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될 권리를 요구하며 자신의 분비샘의 충동을 따르겠다고 고집하는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사악함을 표현한다. 문제는 죄들이 아니라 죄이다. 이 죄는—사납게 말하건 공손하게 말하건—"그래, 나는 나 스스로 결정할 권위를 가지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독립 선언이다(창 3:5-6 참조).

1944년 후반에, 미국의 병사로 위장한 3,000여명의 영어를 구사하는 독일군 병사들이 미국의 전선에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산 담배를 피우고, 미국식 욕설을 사용하고, 미국의 신분증, 돈, 그리고 심지어 편지와 스냅 사진까지 지니고 다녔다. 그들은 포획된 미군 지프차를 타고 이리저리 질주하며 통신망을 끊고 도로 표지를 섞고 미군 증원병들의 움직임을 정찰하고 지뢰밭의 경고를 제거했다. 마침내, 미군은 스파이 사냥을 시작했다. 도로 점검은 패스워드, 서류, 그리고 피상적인 질문을 넘어서야 했다. 그래서 미국 병사들은 "윈디 시티는 어디 있는가?"라고 묻거나 "미국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화환(wreath)"을 말해보라고 명령하곤 했다. (독일인들은 거의 항상 부드러운 h 소리보다는 딱딱한 t로 말하곤 했다). 한 번은 방첩 요원들이 두 명의 "미국인" 소위들이 지프차 안에서 미군 증원병들이 달려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문을 했을 때 그들은 인식표와 예방 접종 서류를 보여주고 군대 경험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텍사스에 있는) 캠프 후드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자 한 요원이 "텍사스에 산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들은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 요원은 그의 독일인들을 체포했다.[8]

때때로 표면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적을 찾기 위해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 저자가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한 기록으로 기브아의 뻔뻔스러운 범죄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가 말하는 더 기본적인 요점을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은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다. 그 근원이 가장 역겨운 음란(삿 19장)이나 표면적인 의로움(예: 막 10:17-22)으로 표출될 수 있지만, 그것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온 것이다.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17:6; 21:25)" 이 문맥에서 "각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언약의 법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

[8] Thomas M. Johnson, 'The Most Dangerous Man in Europe,' *Secrets and Spies: Behind-the-Scenes Stories of World War II* (Pleasantville, N.Y.: Reader's Digest Association, 1964), 469-472.

다스릴 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이 아닌가? 우리의 신도석에는 기브아의 스캔들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마음에 들고, 도덕이 적절하고, 자선이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이—주권자만 아니시라면—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기브아의 성적 변태자들과 완고하고 사악한 마음을 나누어 갖는 사람들은 아닌가?

II. 여호와의 심판의 표명 (The Manifestation of Yahweh's Judgment)

둘째로, 사사기 20장은 베냐민 지파의 파멸에 초점을 맞추고 여호와의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장은 너무 길기 때문에 요약 형식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단합, 1-11
- 모임, 1-2
- 보고, 3-7
- 결정, 8-11

베냐민의 비타협, 12-17
- 인도 거부, 12-13
- 전투 준비, 14-17

전투 이야기, 18-48
- 베냐민의 승리들, 18-28
  - 여호와의 지시, 18
  - 전투 패배, 19-22
  - 여호와 목전의 통곡, 23a

  - 여호와의 지시, 23b
  - 전투 패배, 24-25
  - 여호와 목전의 통곡, 26

  - 여호와의 지시와 확약, 27-28
- 이스라엘의 승리, 29-48
  - 개괄 보고, 29-36a

상세 보고, 36b-48

메인에서 플로리다까지(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호하는 표현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1절)에 모였다.[9] 이스라엘의 단합은 인상적이다. 적어도 그것은 저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는 "한 사람처럼[크이시 에하드]"이란 어구를 세 번(20:1, 8, 11)[10]사용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집회와 결정에서 보인 완전한 단합을 묘사한다. 요단 강 동편("길르앗 땅," 20:1)의 지파들도 집회에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드보라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5:15b-17).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에브라임은 기드온에게 불평을 했었고(8:1-3), 입다와 언쟁을 하다가 사만 이천 명이나 죽었다(12:1-6). 그리고 유다는 블레셋을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압제 세력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세력을 친 삼손에게 불평을 터뜨리며(15:11) 삼손을 결박해 블레셋에게 넘겨주었다.

이스라엘의 단합은 인상적이면서도 비극적이다. 그것은 인상적이기 때문에 비극적이다. 사실상 예외적인 범죄에 대한 예외적인 단합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단합이다. 이 이야기 자체가 비극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은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형제들"라는 것을 세 번이나 상기시킨다는 점이다(20:13, 23, 28). 베냐민의 잘못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묻기 시작하면 더욱 더 구슬픈 슬픔이 된다.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 미디안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과 맞서서는 그렇게 단결하지 못했을까? 이스라엘이 진정 힘을 모을 수 있을 때 왜 그것이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한 것일까?"

베냐민도 자기 나름대로의 단합을 보였다. 이스라엘이 그 지파에게 죄책이 있는 기브아 사람들을 정의를 위해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을 때,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았다(20:13)." 기브아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가? 물론, 그랬다. 그러나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다. 그리고 피가 언약보다 더 진했다.

---

[9] 베냐민의 미스바는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8 마일 떨어져 있고 남북 길을 따라 에브라임 산지까지 통하는 (기브아에서 약 5 마일 떨어져 있는) 텔 엔-나스베일 것이다.

[10] 역자 주: 이스라엘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세 번(20:1, 8, 11) 사용된 어구 [크이시 에하드]에 대하여 NASB/ESV는 "as one man"으로, NIV는 "as one"으로 통일해서 번역했다. 한글 성경은 똑같게 번역하지 않고 있어 아쉽다. 예를 들어, 개역개정은 "일제히, 일제히, 하나같이"로, 새번역은 "한꺼번에, 한꺼번에, 하나같이"로 번역했다. 다른 한글 성경들도 1절과 8절의 경우 같게 번역하고 11절의 경우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황소고집인 베냐민이 쉬운 상대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이 수적으로 훨씬 열세이지만(20:2, 17[사십만]과 20:15[이만 육천+칠백]을 비교해보라), 그들의 돌팔매질하는 칠백명(20:16)은 고려되어야 한다.[11] 이 칠백 명은 모두 왼손잡이들로서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유명한 돌팔매질의 명수 부대를 형성했다. 이들이 베냐민이 다른 지파들을 상대로 처음에 성공을 거둔 이유이었을 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오른손잡이였고 그들의 방패를 왼팔에 메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돌팔매질하는 오른손잡이들에 대한 정상적인 방어는 가능하겠지만, 왼손잡이들은 보호되지 않은 측면을 향해 다른 각도로 던졌을 것이고,[12] 만약 이 왼손잡이들이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지 않게 맞힐 수 있었다면(20:16), 그들은 분명히 적들의 오른쪽 귀를 박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전투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분위기로 시작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라고 물었고,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는 응답을 받는다(20:18). 틀림없이 이런 질의와 응답은 사사기의 시작 장면 곧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누가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앞장서야 하느냐고 여쭙고 동일한 응답을 받았던 장면(1:1-2)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이제 기브아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가나안 사람들이 되어버린 그들 자신의 형제들과 싸워야 한다.

베냐민은 무찌를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약자인 베냐민이 첫 두 번의 교전에서 상당한 승리를 거두었다(20:18-23, 24-28). 그러나 세 번째 교전 전에 이스라엘은 매복단을 파견했다. 아이성 전투의 책략(수 8장)과 비슷하다! 세 번째 전투에 대한 두 개의 보고가 있는데, 하나는 개괄적인 개요이고(20:29-36a), 다른 하나는 상세한 클로즈업이다(20:36b-48).[13]

본문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교전의 일반적인 흐름은 분명하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이 기브아(20:31-32)에서 멀어져 그 성읍이 비교적 무방비 상태가 되도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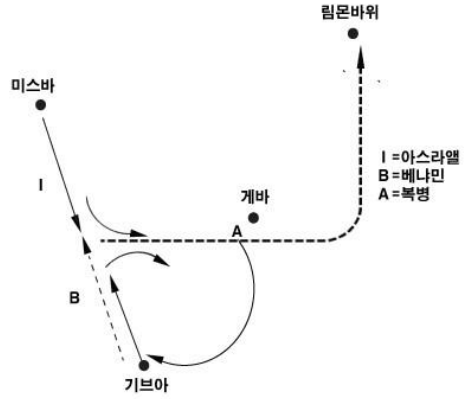
[11] 삿 20:15-16이 갖는 본문상의 (작은) 문제는 주요 사실들을 변경하지 않는다.

[12] John Gray, *Joshua, Judges and Ruth,* The Century Bible – New Edition (Greenwood, S.C.: Attic, 1967), 384.

[13] 이러한 개괄적인+상세한 패턴은 히브리 내러티브의 보편적인 특징이고 이야기에 대한 다른 출처에 관한 어떤 것도 나타내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내러티브 기록의 요약-확장 패턴이라고 부른다. *Joshua No Falling Words*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0), 86-87, n. 9을 보라. [역자 주: 저자가 다른 예들로 제시한 것은 수 10:6-15(남부 초기 전투)과 10:16-43(남부 후속 전투와 확장된 전투)의 요약-확장 외에도 창 14:1-4/5-12; 21:22-24/25-32; 37:5/6-8; 출 14:1-4/5-30; 민 13:1-3/17-20; 수 21:4-7/8-40; 삿 4:12-16/17-22; 20:29-36a/36b-48; 삼상 14:6-23 (or, 20-23)/24-46; 삼하 2:12-17/18-32; 18:6-8/9-18 등이다.]

유인하려고 다시 한번 퇴각하며 도망치는 척했다. 베냐민의 거만함이 미끼를 물자, (기브아의 북동쪽으로 약 3마일 떨어진) 게바 근처에 숨어 있던 복병들은 돌진하여 공격하며 기브아의 남은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서둘러 봉화를 피운다(20:33-34, 37-38). 이스라엘과 복병 사이의 계획은 기브아에서 연기가 치솟을 때 이스라엘이 반격함으로써(20:38-39), 베냐민이 함정에 빠져(20:41-42) 머지않아 패배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 처음에는 동쪽으로, 그 다음에는 북쪽으로 피해 나갔지만, 6백명의 생존자가 림몬 바위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세 번에 걸쳐 2만 5천 명의 베냐민 자손을 죽였다(20:42-47).[14] 주된 전투는 지도 21.1에 예시된 바와 같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지도 21.1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투



우리의 주요 관심사로 돌아가보자. 이 모든 실패와 이 모든 방화와 학살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이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 보인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정말 현존하셨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현존하셨다면 그분은 도대체 이런 난장판 속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었을까? 다행히도, 그것은 우리의 추측에 맡겨지지 않았다. 저자는 여호와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20:35a)."라고. 그것이 이 거칠고 피비린내 나는 에피소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다.

[14] 저자는 베냐민 자손의 도망을 체계적으로 묘사하는데 "그들이 방향을 돌이켰다"는 어구를 세 번([바이프누] 20:42, 45, 47) 사용하여 잘 나타낸다. [역자 주: ESV는 "they turned their backs, they turned, they turned"로 번역했고, 개역개정은 "몸을 돌려, 몸을 돌려, 돌이켜"로 번역하고, 새번역은 "방향을 돌려, 방향을 바꾸어, 방향을 돌려"로 번역하고, 공동번역은 "발길을 돌려, 방향을 바꾸어, (세번째는 생략)"로 번역했다.]

베냐민의 패배는 여호와의 심판의 표명이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기브아와 베냐민에게 그의 심판을 내리셨다. 그것이 여기서 일어났었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여호와께서 베냐민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셨다면, 왜 이스라엘은 특히 여호와로부터 두 번이나 지시를 받고서도(20:18, 23) 그 두 번의 엄청난 패배를 당했는가(20:18-23, 24-28)? 그들은 세 번째 질의에 이르러서야 여호와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20:28)"는 확약을 받았다. 그러나 항상 여호와로부터 지시를 구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던 것처럼 보인다(20:1, 18, 23, 26ff). 여호와는 첫 두 번의 교전에서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을 하고 계셨는가? 나는 잘 모르겠다.

확실히 두 번째 패배 후에 이스라엘은 (첫 번째 패배 후에 20:23에서 했던 것처럼) 울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도 하고 번제와 화목제도 바친다(20:26)." 이번 반응이 훨씬 더 강렬하다. 아마도 저자는 여기에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으로 묘사하며 첫 두 번의 전투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가져왔음을 암시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히 잘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사람들도 심판하신다. 만약 그렇다면, 본문은 다른 사람들의 (더 노골적인) 죄를 바라보며 가장 커지는 우리의 자존심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15]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의 초기 패배들은 여호와의 심판의 고통이 아니라 그분의 길의 신비를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호와는 마지막 전투 때까지 불가사의하게 이스라엘을 파멸로 인도한다.[16]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20:18, 23)의 호의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도움의 증거는 보지 못한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일이므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지만 그 길이 성공보다는 고뇌에 의해 더 두드러지는 기독교인의 경험의 수수께끼 중 하나가 아닌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단순히 여호와께서 그의 숨겨진 방식 중 하나로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뜻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그분의 그들에

---

[15] "회개" 견해를 옹호하는 학자들을 위해 George Bush, *Notes, Critical and Practical, on the Book of Judges* (Chicago: Henry A. Sumner, 1881), 243-247그리고 C. F. Keil, *Joshua, Judges, Ruth*,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452-453을 보라. 카일은 이 점에 대하여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지만, 내 견해를 말하면 부시는 본문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다.

[16]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번의 패배조차도 베냐민에 대한 심판의 일부가 된다. 왜냐하면 바로 이 두 번의 패배로 인해 베냐민 자손은 그들을 파멸로 인도할 자만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대한 호의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은 그들이 결국에는 승리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세 번 모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20:18, 23, 27-28). 20:27-28에 들어 있는 삽입적 설명은 매우 중요하다.

> (삿 20:27-28) 2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28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 삽입적 진술은 한 토막의 지리적/역사적 자료 이상이다. 오히려 그것은 신학적 단서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임명받은 종 곧 대제사장을 통해 그들을 인도한다. 베냐민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 대조의 맥락에서 우리가 베냐민을 보아야만 한다. 방주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여호와로부터의 지시도 없고, 하늘에서 오는 말씀도 없고, 소란 중에 빛도 없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자손은 이미 심판 아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조언도 없고, 그분의 임재에 대한 접근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타개할 길도 없는 것보다 더 나쁜 심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신다는 그분의 심판이 아니겠는가? 후대의 한 베냐민 사람은 이것을 완벽하게, 그것도 비참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삼상 28:15). 베냐민의 군대가 공황 상태에 빠져 림몬 바위에 도달하기 오래 전에, 여호와께서는 이미 그들을 심판했다. 여호와는 그들을 그들 자신에게 맡기시며 완전히 그들 자신만의 지혜에 갇히게 하셨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런 종류의 심판이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려질 수 있지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내려질 수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이 그들의 구세주를 이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예를 들어, 마 11:25-26; 막 4:24-25을 보고, 문맥을 고려하며 롬. 1:24, 26, 28도 참고하라). 반면에, 우리는 진짜 부서지고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천벌 가운데서도 하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히 10:19-22).

III. 여호와의 은혜의 꾸준함 (The Tenacity of Yahweh's Grace)

마지막으로, 사사기 21장에서 문학 주제는 베냐민의 파멸(20장)에서 베냐민에 대한 슬픔으로

극적으로 변화하고, 신학적 짐은 여호와의 은혜의 꾸준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긴 후에도 눈물을 흘린다. 그들은 베냐민을 거의 전멸시킨 후에 베냐민으로 인해 슬퍼한다. 베냐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슬픔은 사사기 21장 전체에 퍼져있다(2-3, 6-7, 15-17절). 이스라엘은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빠지게 되고(21:3), 이스라엘로부터 끊어져 나가고(21:6), 이스라엘부터 없어지게 된(21:17)

이스라엘은 분명히 베냐민을 근절하려고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의 생존자 600명을 림몬에 꼼짝 못하게 한 후(20:47), 돌아서서 베냐민의 영토를 샅샅이 뒤져서 인간의 생명과 가축을 쓸어버리고, 한때 성읍이 있던 곳에(20:48) 그을린 땅만 남도록 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방침과 완전히 일치했다. 왜냐하면 미스바 집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딸을 어떤 베냐민의 생존자에게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이미 맹세했었기(21:1)[17] 때문이다. 그들은 베냐민을 다시 번식하게 하려 하지 않고, 베냐민을 이방인과 같은 범주에 두려고 했다(신 7:1-3 참조).[18] 어느 베냐민 사람이 살아 남더라도, 그 지파는 한 세대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 열병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초래하신 상황을 한탄하고 있다(21:3). 이 모든 것은 약간 당황스럽지만 심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이제 그들은 베냐민을 보존하기를 갈망하지만, 자기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그들의 맹세가 그것을 가로막는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들을 윤리적 궁지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슬픔이 강화된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형제(21:6)" 베냐민을 불쌍히 여기지만, 베냐민을 되살릴 힘이 없다.

사사기 21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슬픔과 이스라엘의 과거의 맹세 사이의 이 진퇴양난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것의 구조적 전개는 다음과 같다.

맹세로 인한 진퇴양난, 1-7
  가능한 해결책, 8-9
    공격자들에게 내린 명령, 10-11
      여성의 공급 (불충분), 12-14
        백성의 반응, 15
맹세로 인한 진퇴양난, 16-18
  가능한 해결책, 19

---

[17] 삿 21:1에 나오는 완료형 동사 [니시바]는 과거완료(대과거)로 번역되어야 한다.

[18] C. J. Goslinga, *Joshua, Judges, Ruth,* Bible Student's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502. [역자 주: 저자의 책에는 신 17:1-3을 참고하라고 했으나 참고할 장에 대한 오타이므로 신 7:1-3로 고쳤다.]

공격자들에게 내린 명령, 20-22

여성의 공급 (충분), 23

백성의 반응, 24

이스라엘의 첫 번째 생각은 그들의 전쟁 맹세(21:4-5)가 그들의 아내 맹세(21:1, 7)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야베스 길르앗은[19]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아래서도 베냐민과 싸울 군대 파견을 거절했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정당화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르앗을 징벌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 그들은 처녀들만 살려둘 수 있었고(21:10-11) 400명의 처녀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3분의 2의 해결책은 해결책이 아니다(21:14b). 회중의 장로들이 또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보십시오,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에 늘 춤추러 나오는 실로 소녀들은 베냐민 남자들이 포도원에서 나와 쉽게 붙들어 데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납치한 것에 대해 불평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될 것입니다. '보세요, 그건 합법적이라 할 수 있소! 당신이 베냐민에게 당신의 딸을 **준** 것이 아니니까요.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맹세를 어긴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신의 딸이 **탈취당했다면** 당신도 어쩔 수 없었기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오. 우리가 야베스 길르앗을 칠 때 충분한 처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삿 21:19-22의 취지이다. 이것이 최종 해결책이었다. 이제 모든 사람—심지어 성난 아버지들과 형제들까지도—집으로 갈 수 있다(21:23-24).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야 한다. 여기서 다시 내러티브는 우리를 괴롭힌다. 저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만 묘사하고 그 일에 대한 그의 입장을 거의 또는 전혀 암시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에게 실제로 말해주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것을 기대한다. 성경의 내러티브를 해석하는 것은 천연스럽게 말하는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은 그가 유머를 의도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표시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간파해야 한다. 사사기 21장은 그처럼 언질을 주지 않는다. 저자는 전해주기만 하고 비평은 거의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홀로 남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물어보아야 한다.

이 관점의 문제는 이미 그것을 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정말로 확신하는 독자들이 많기

---

[19]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 강 동쪽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으로 약 20 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때문에 사사기 21의 경우 두 배로 중요하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맹세로 자신을 도덕적 곤경에 빠뜨리고, 전혀 주저하지 않고 불필요한 피를 흘리며, 너무나 악랄하게 행하는(20:48; 21:10-12) 한 무리의 꼭두각시처럼 행했는가?"라고 말한다. 이 견해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친절이 부족하거나 엄숙한 약속이 깨질 때마다 화를 내는 우리의 미묘한 20세기의 정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사사기 21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이 옳다고[20]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릇되게 그들에게 부당한 양의 잘못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진술하려고 한다. 첫째로, 베냐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은 확실히 가혹했지만, 베냐민이 새로운 소돔과의 연대를 선택했음을 기억하라. 따라서 그들은 여호와의 원수들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음을 각오했을 것이다(수 6:15-21 참고).[21] 둘째로,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이스라엘의 맹세는(21:1)는 어리석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맹세한 것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고려되어만 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르앗을 보복한 것에 대하여 정의를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 것은 암묵적으로 적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하러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맹세가 야베스 길르앗의 신체 튼튼한 군인들을 친(21:5b)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야베스 길르앗의 여자들과 아이들에 대한 진멸(21:10)까지는 결코 요구하지 않았다. 더구나, 왜 이스라엘이 (5:23의 메로스에게 했던 것처럼) 전쟁에 나오지 않는 것을 저주 아래 두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루시도록 할 수 없었는지 궁금하다.

---

[20] James B. Jordan, *Judges: God's War Against Humanism*, Trinity Biblical Commentary Series (Tyler, Tex.: Geneva Ministries, 1985), 315-326은 이처럼 주장하고 있다.

[21] 이러한 견해는 여차하면 21:15b("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을 이스라엘의 가혹함과 베냐민의 소멸에 대한 저자 자신의 평가로 받아들이게 한다. 만약 그렇다면, 저자는 베냐민의 황폐가 여호와의 승인하에 일어난 일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나는 21:15b에서 저자가 단지 앞의 21:3에 표현된 것과 같은 이스라엘 자신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웹의 21:3에 대한 논평은 숙고할 가치가 있다. "이 질문은 정보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간접적인 형태의 항의와 질문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말씀하길 꺼려하신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그분은 말씀하심으로써(20:18, 23) 그들을 꾸짖으셨으나, 이번 에피소드에서 그분은 침묵하심으로써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실 것이다." (Barry G. Webb, *The Book of Judges: An Integrated Reading*, JSOT Supplement Series 46 [Sheffield: JSOT, 1987], 195.)

그러므로 내 생각에 저자는 우리가 사사기 21장을 애매한 상황으로 보길 원하는 것 같다. 이스라엘이 하는 일에는 일부 옳은 것도 있고 일부 그른 것도 있다. 그들은 정당화될 수 있는 보복을 했지만(21:5), 정당화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게 보복했다(21:10). 그들은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일관되게 지키는 입장을 취했지만(21:7, 16-18), 실로의 소녀들과 그들의 가족의 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짓밟았다(21:19-22). 그것은 일관성과 혼란의 혼합이다. 그것은 모두 옳기도 하지만 매우 그릇되기도 하다.

사사기 21장에 퍼져있는 모순은 19장의 시작에서부터 이야기 전반에 걸쳐 있는 부조화의 패턴과 잘 들어맞는다. 우리는 레위인이 불량배들에게 그의 첩을 넘겨주었으면서도 그의 비겁함을 감추기 위해 선택적으로 진실을 사용하는 것을 본다. 우리는 주인이 그의 집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딸과 그의 손님의 첩을 군중의 정욕에 넘겨주려는 것을 듣는다. 우리는 한 지파가 대담하게 언약 정의에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그들 일가의 가장 어두운 죄책에 동조하는 것을 본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승리하지만 그 이전에 패배를 당하는 것을 본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파멸시키는데 광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여 베냐민을 보존하려고 서두르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러므로 저자의 의도는 확실하게 21장의 실패를 어떻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지(21:25)"에 대한 또 하나의 전시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사사기 21장은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는가? 이미 나는 그것이 여호와의 은혜의 꾸준함을 선언한다고 제안했다. 어째서 그런가?

이것을 고려하라. 소돔은 완전히 멸망되었다(다시 창 19장을 보라). 적어도 베냐민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회복을 위해 애를 썼다. 우리의 내레이터는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엉터리 방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냐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근심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근심도 함께 보도록 의도한 것은 아닌가? 베냐민이 거의 멸절당할 뻔했지만 생존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로 인해 심판의 타격이 매우 혹독하게 임하는 것이 마지못해서 느려졌음을 암시하고 있지 않은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되었다."라는 말(21:3)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소멸되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무한한 자비하심 때문이다! 진노 중에라도 여호와는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

그러나 분명히 "의로운" 이스라엘도 죄많은 베냐민만큼이나 여호와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라프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다.

>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베냐민 지파는 보존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건방지고 자만하며 고압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다루었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섬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었던가! 그분의 빛을 따라 얼마나 살지 못했던가! 그런 백성으로부터 어떤 것이 나왔다는 것,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파들의 친교가 보존되었다는 것은 기적이다. 이 기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말고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다.[22]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버리길 거부하셨던 그 은혜의 징조는 저자 자신의 시대에 여호와의 은혜의 새로운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경건한 왕을 주셨었으므로(21:25), 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었다(시 78:70-72 참고).

이렇게 사사기는 기적으로 끝난다. 여러분은 사사기 19-21장 이후에도, 아니 실제로 사사기 1-21장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가 백성들의 타락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과 어리석음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굳게 붙드는 것을 고집하시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분은 그들을 위해 구원자들을 세우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행 13:23)! 이 모든 것은 다소 이 책의 제목을 망가뜨린다.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성경적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말이다. "이같이 크신 구원자"라는 제목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다.

[22] S. G. DeGraaf, *Promise and Deliverance*, 4 vols. (St. Catharines, Ontario: Paideia, 1978), 2:56.